

[주간 퀀틴전시 플랜]

이번에도 기회일까? 핵심은 펀더멘털!

6월 후반부 반전을 준비할 때!

Strategist 이경민

02) 769-3840 / kyoungmin.lee@daishin.com

텔레그램 채널 daishin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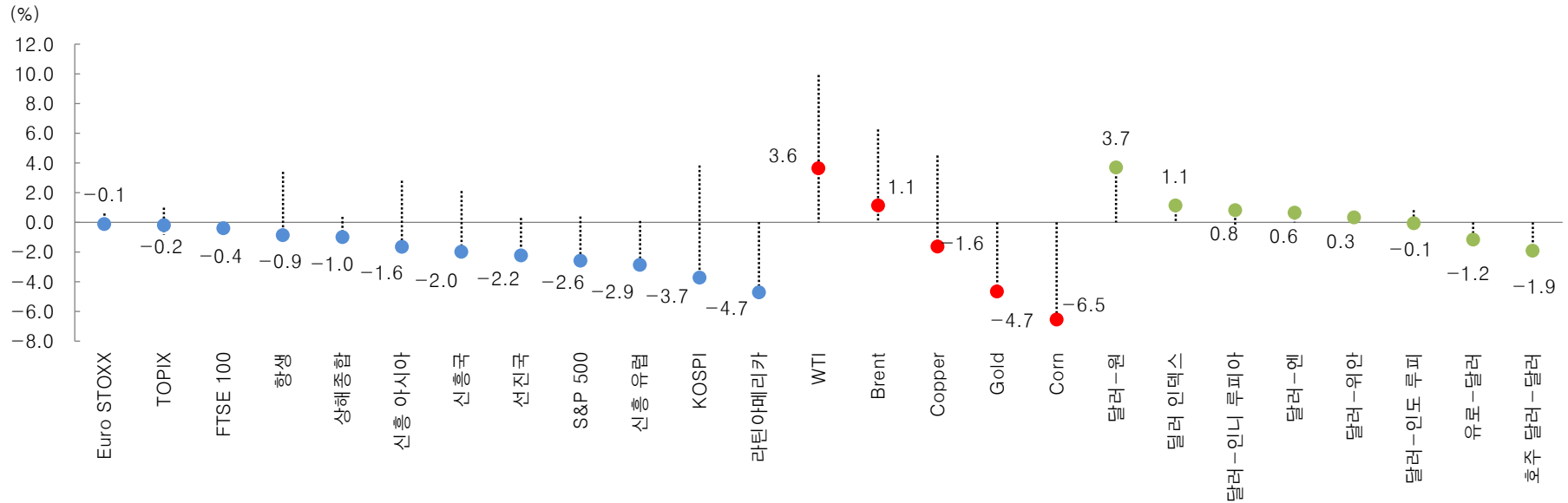
Summary

Summary

- 브로드컴 발 AI 수익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주말 발표된 고용 서프라이즈가 긴축 우려를 자극, 채권 금리 반등, 달러화 강세를 야기. 이로 인해 고밸류, 빅테크 종목 들 중심으로 급락세 전개. 나스닥이 4.2% 급락, 그 중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10.3% 폭락이 자리. 한국 증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지난 주말 SK하이닉스, 삼성전 자 GDR 각각 20.2%, 15.4% 폭락, 미국 상장 한국 ETF도 14.1% 레벨다운. 야간 선물 8% 급락했는데 이는 하한가. 야간 선물 1,194p 기준 **KOSPI는 7,500선이 하에서 월요일 장을 시작할 가능성 높음**
-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당분간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 예상. 1) 단기 과열이 심해져왔고, 상승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2)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증기, 단기 모두 Risk Off 시그널로 전환. 3) VIX 또한 저점권(15% 수준)에서 급반등하며 단숨에 20% 상회. 변동성 확대 국면 진입 시사
- 게다가 **KOSPI는 이번주 수급/유동성 이슈 가세.** 12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11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로 파생 수급 영향력 확대 예상. 가뜰이나 이례적으로 극심한 쏠림현상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KOSPI 레벨업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IT하드웨어, 가전 등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 자리함**에 따라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이로 인해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
- 이번주 10일 미국 5월 CPI, 11일 PPI 발표 예정. CPI는 4.2%, PPI는 6.4%로 레벨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Core CPI(예상치 2.9%), Core PPI(예상치 5.4%) 결과 가 중요.**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가 서비스, Core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향후 물가 수준, 방향성에 중요하기 때문. **Core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만약, Core 물가까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다음주 18일 6월 FOMC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높음
- 미국 증시의 경우 **1차적으로는 50일선 전후(S&P500 7,156p, 나스닥 24,773p)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 동 지수대 이탈시 올해 1월 ~ 2월 박스권과 200일 이동평균선(S&P500 6,858p, 나스닥 23,322p)에서 지지력 테스트 가 불가피할 전망. **KOSPI는 7,000 ~ 7,500선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 확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의미있는 지수대이자, 4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 4월 저점에서 상승 폭의 50% 되돌림 수준이 7,000선이기도 함. 선행 PER 7배 수준이 7,296p이고, **KOSPI 7,000선은 선행 6.71배로 금융위기 당시 저점 6.27배 이후 최저치.** 극심한 저평가 수준에 재진입한 KOSPI의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가능.
- 이번주 미국 CPI와 PPI 결과와 다음주 FOMC에서 점도표 수준을 확인하면서 1) 이번주 미국채 10년물이 4.67% 넘어서는지, 2) 외국인 선물 매도 강화 or 매수 전환 여부(누적 순매수 전저점 권), 3) 금융투자매수 지속 또는 매도 전환/강화 여부. 4)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재개 여부 주목
- 1 ~ 2주 동안 극심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 매집하거나 버티기 전략이 유효.** 6월 후반부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 **과 함께 KOSPI 밸류 매력 재평가 예상.**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재, 금융, 내수주의 상대적 안정성 확보, 반등 시도는 가능할 전망. 단기 변동성을 거친 뒤에는 실적 모멘텀을 근거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전력기기 등 AI 밸류체인 관련주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 모색, 상승 추세 재개 예상**

기술주 조정과 금리 부담으로 글로벌 증시 약세, 달러화 강세 뚜렷

6월 1일 ~ 6월 5일 글로벌 금융시장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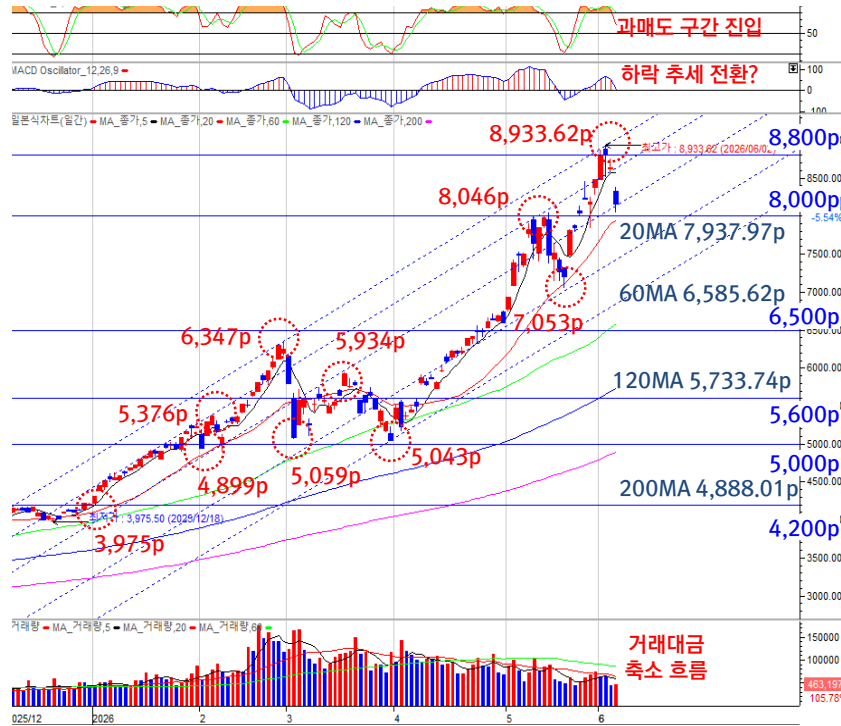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6월 5일 종가 기준

6월 1주차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은 부진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했고, AI 실적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매물 출회. 여기에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지지.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확대되었고, 미국 증시는 급락. 유럽 증시는 6월 11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 회의를 대기. 인플레이션 압력과 매파적 기조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관망세 보이며 약보합 원자재 시장에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 속 중동 내 군사적 충돌로 국제 유가는 재차 급등.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소식에 유가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 한편 금 가격은 하루 만에 급락. 미국의 견고한 고용 지표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락. 구리 가격도 하락했지만, 공급 부족 영향으로 낙폭은 제한적 통화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그외 통화 상대적으로 약세. 특히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어 상승폭이 두드러짐

주도주 쏠림 현상과 상승 누적에 따른 과열 해소로 변동성 장세

KOSPI 8,800선 돌파 후 급락. 8,160pt로 후퇴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DAQ 시장에서 소외되며 낙폭 확대. 1,000pt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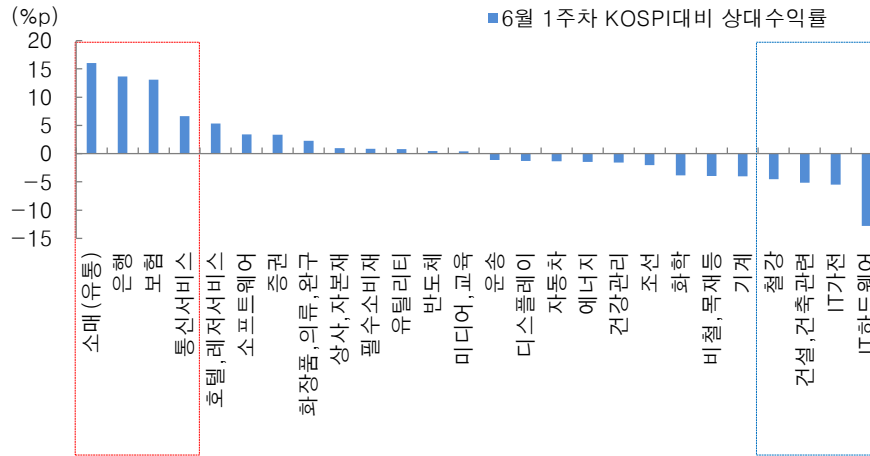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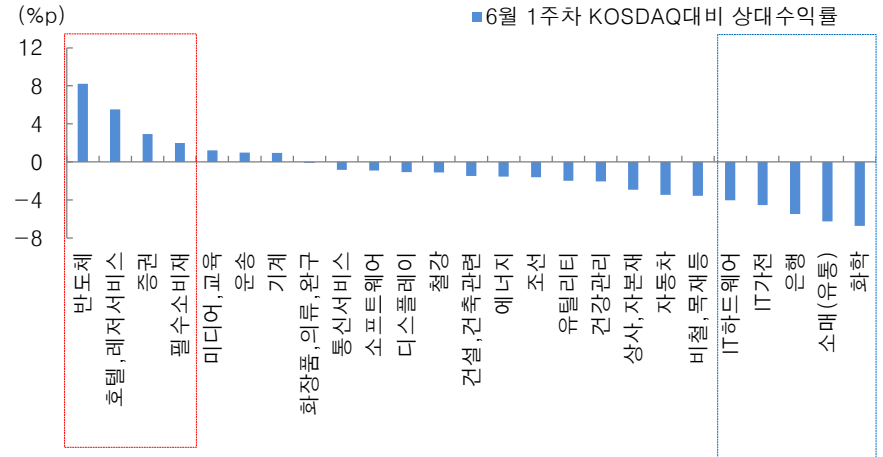
6월 1주차 KOSPI는 5일 기준 -3.72% 하락한 8,160.59p로 마감. KOSPI는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지속하며 8,800선을 돌파. 다만 KOSPI의 ADR(상승 종목 비율, 20MA)은 40%대에 진입하며 코로나19 시절 40.24% 이후 최저치를 기록. 극심한 쏠림 현상을 시사하며 상승 누적에 따른 과열 부담으로 반도체, IT하드웨어 등 주도 업종은 하락 전환, 지수는 반락. 한편, 젠스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소식과 국내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 일정으로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피지컬 AI 모멘텀이 부각. 이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며 지수 상승 압력으로 작용. 그러나 주도 업종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상승폭을 반납했고, 젠스 황 CEO와의 '삼쓰회동'을 대기. 주도 업종이 조정받는 가운데, KOSPI 내 순환매가 확산되었고 소매(유통), 보험, 은행 등 강세 전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지속. 그럼에도 외국인 지분율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주도 업종 단기 급등에 따른 리밸런싱 매도라고 판단

코스피 강세를 견인하던 주도 업종 하락 반전, 시장 소외주로 순환매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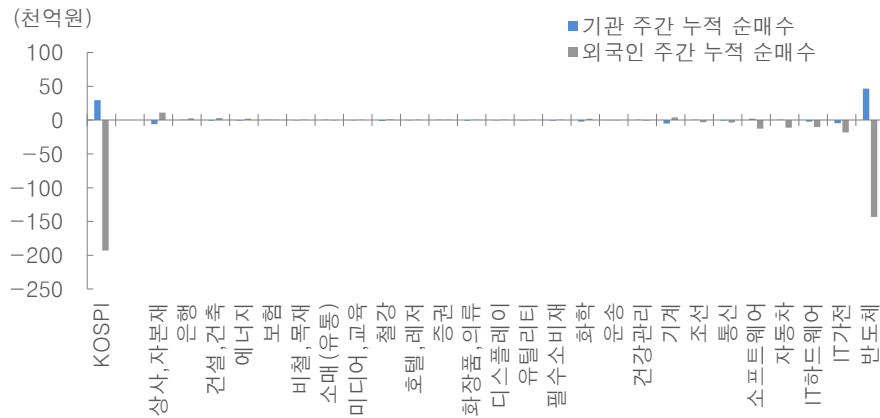
KOSPI는 주도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순환매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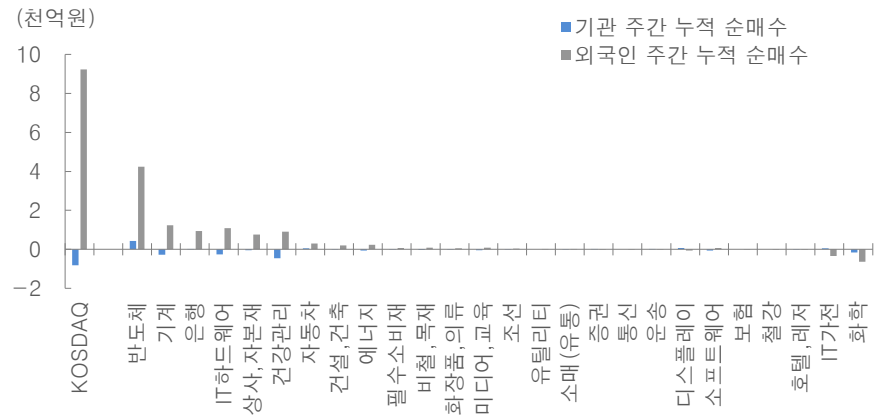
KOSDAQ은 반도체 강세가 두드러지며 KOSPI와 상반된 모습



KOSPI 외국인 순매도 뚜렷,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



KOSDAQ 외국인 순매수 뚜렷, 반도체, IT하드웨어 등으로 수급 집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월 2주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이벤트 일정

일자	국가	일정	단위	예상치	전기치
2026-06-08	일본	1분기 GDP 연율화	%qoq	1.3	2.1
2026-06-09	한국	1분기 GDP	%yoy	3.6	3.6
	중국	5월 수출/입	%yoy	14.4	14.1
2026-06-10	미국	5월 CPI	%yoy/%mom	4.2/0.5	3.8/0.6
	중국	5월 CPI	%yoy	1.3	1.2
	중국	5월 PPI	%yoy	3.9	2.8
2026-06-11	미국	5월 PPI	%yoy/%mom	-/0.6	6.0/1.4
2026-06-12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pt	46.5	44.8

기타 일정

- 6/10 오라클 실적 발표
- 6/11 ECB 통화정책 회의
- 6/12 스페이스X 상장

주: 날짜는 한국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브로드컴 발 AI 수익성 논란에 고용 서프라이즈의 나비효과 가세. 채권금리 급등, 증시 폭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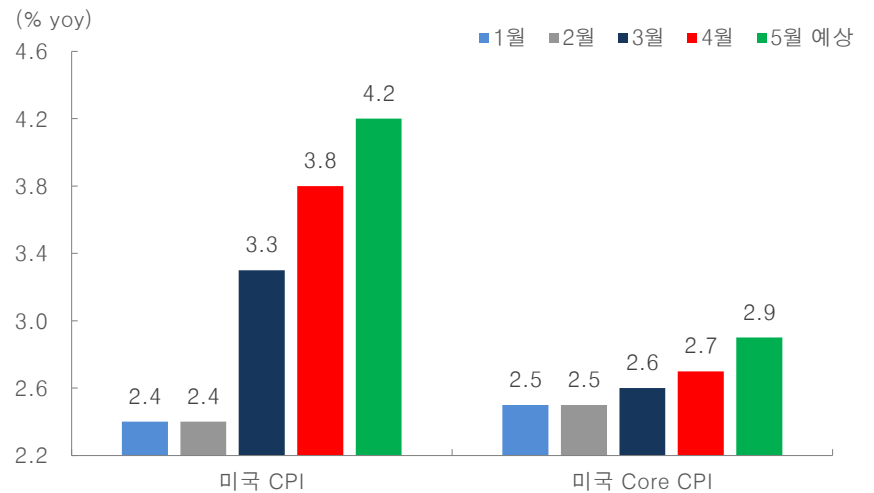
- 지난주 후반 반도체 기업들의 급락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반도체, 빅테크 종목들의 폭락이 전개되면서 글로벌 증시 급격한 변동성 확대 전개. 나스닥이 4.2% 급락, 그 중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10.3% 폭락이 자리. 브로드컴 발 AI 수익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주말 발표된 고용 서프라이즈가 긴축 우려를 자극, 채권금리 반등, 달러화 강세를 야기. 이로 인해 고밸류,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급락세 전개
-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당분간 과열 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 예상. 1) 단기 과열이 심해져왔고, 상승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2)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중기, 단기 모두 Risk Off 시그널로 전환. 3) VIX 또한 저점권(15% 수준)에서 급반등하며 단숨에 20% 상회. 변동성 확대 국면 진입 시사
- 1차적으로는 50일선 전후(S&P500 7,156p, 나스닥 24,773p)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 동 지수대 이탈시 올해 1월 ~ 2월 박스권과 200일 이동평균선(S&P500 6,858p, 나스닥 23,322p)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불가피할 전망
- 특히, 이번주에는 10일 미국 5월 CPI, 11일 5월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CPI는 4.2%, PPI는 6.4%로 레벨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Core CPI(예상치 2.9%), Core PPI(예상치 5.4%) 결과가 중요.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가 서비스, Core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향후 물가 수준, 방향성에 중요하기 때문. Core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 증시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만약, Core 물가까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다음주 18일 6월 FOMC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높음. 이후 6월말부터는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증시 상승주세는 재개될 전망

Risk Off 시그널 전환. 단기 과열 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 가능성



자료: Bloomberg, CIT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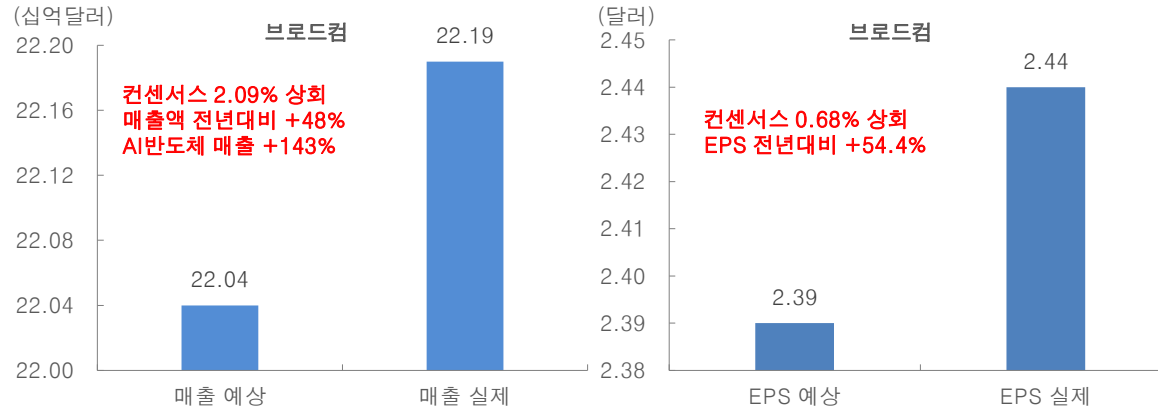
10일 5월 CPI 결과가 1차 분기점. Core 물가 수준 체크



자료: US BLS,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변동성 확대] 시작은 브로드컴 발 AI 수익성 논란. 이때만 해도 순환매의 트리거로 생각

강한 이익 모멘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논란 속에 가이던스 예상 하회 소식에 AI 수익성 논란에 불을 지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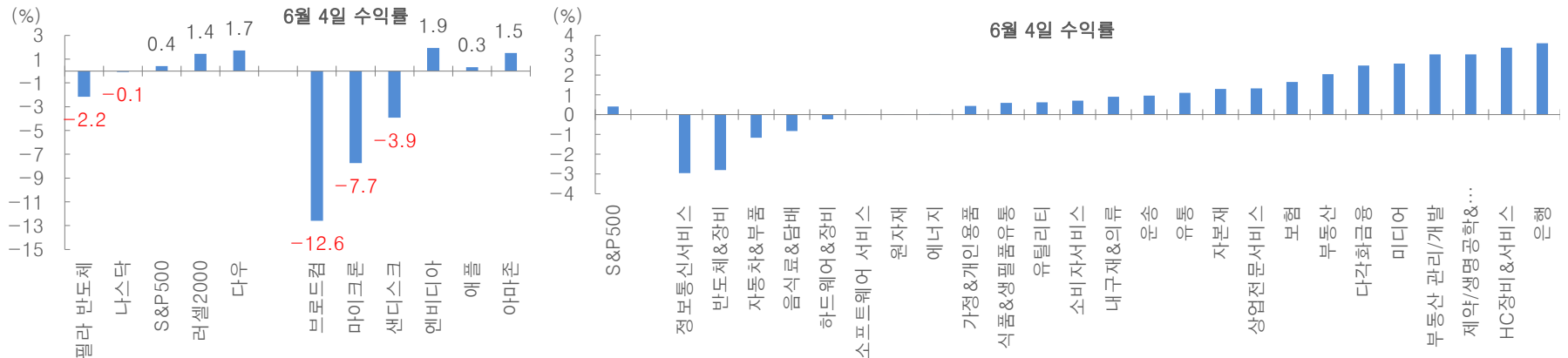


26년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
\$100B+ 유지

다음 분기 AI 매출액 가이던스
\$16B(컨센서스 \$17.2B 하회)

자료: Investing.com,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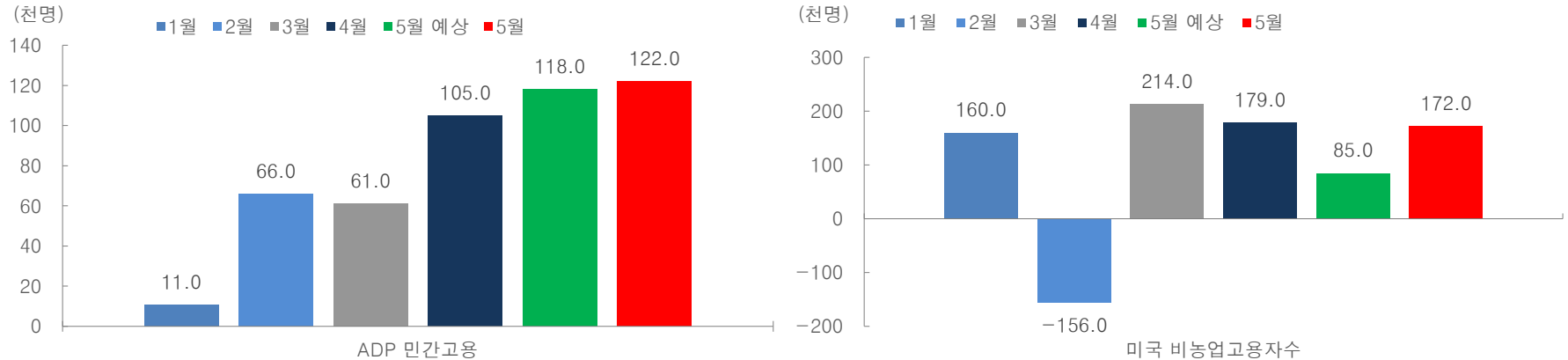
브로드컴 -12.6% 폭락과 함께 반도체 기업 급락으로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2.2%를 기록했지만, S&P500 상승, 다우는 1.7% 상승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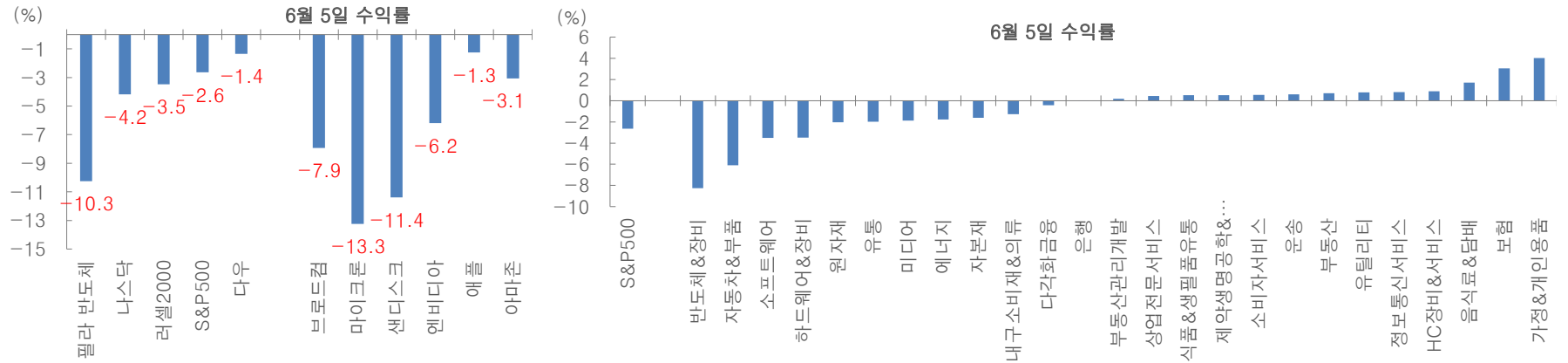
[변동성 확대]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나비효과의 충격... 전방위적인 하방 압력 확대

ADP 민간 고용 호조에 이어 비농업고용자수 서프라이즈. 예상치 8.5만명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17.2만명 증가. 8월, 9월 수치도 9.3만명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팔리델피아 반도체 10.3%(코로나 쇼크 이후 최대 낙폭) 폭락. 빅테크,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동반 급락. 내수주, 방어주 차별적 강세 전개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금융시장 환경]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 달러 반등, 원/달러 환율 전고점 돌파

WTI 주간차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90달러로 레벨 다운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0년물 미국채 금리 주간차트, 4.6% 수준 근접, 금융시장 변동성 자극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 인덱스 주간차트. 98p(40, 50MA)에서 반등세 뚜렷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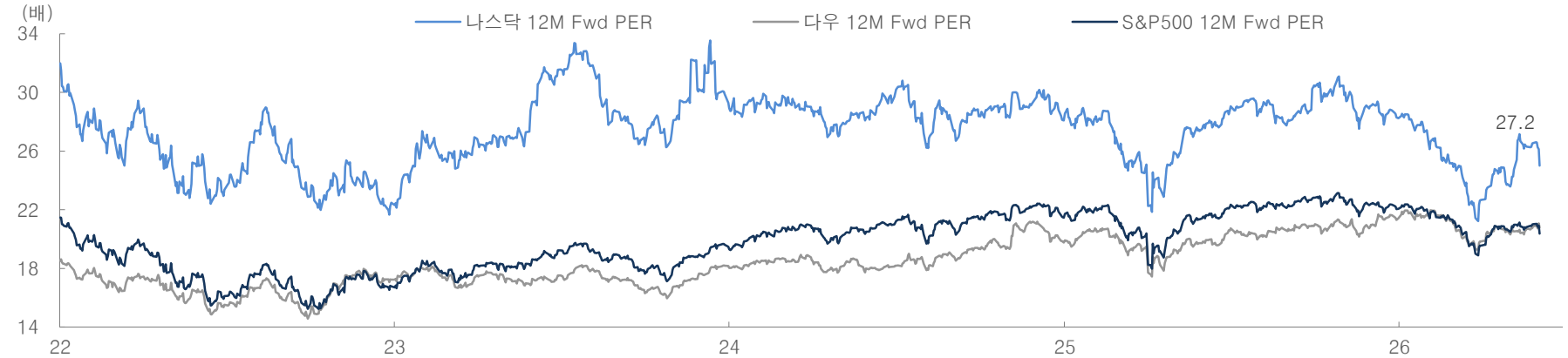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주간차트, 다시 1,500원선 돌파 시도에 나서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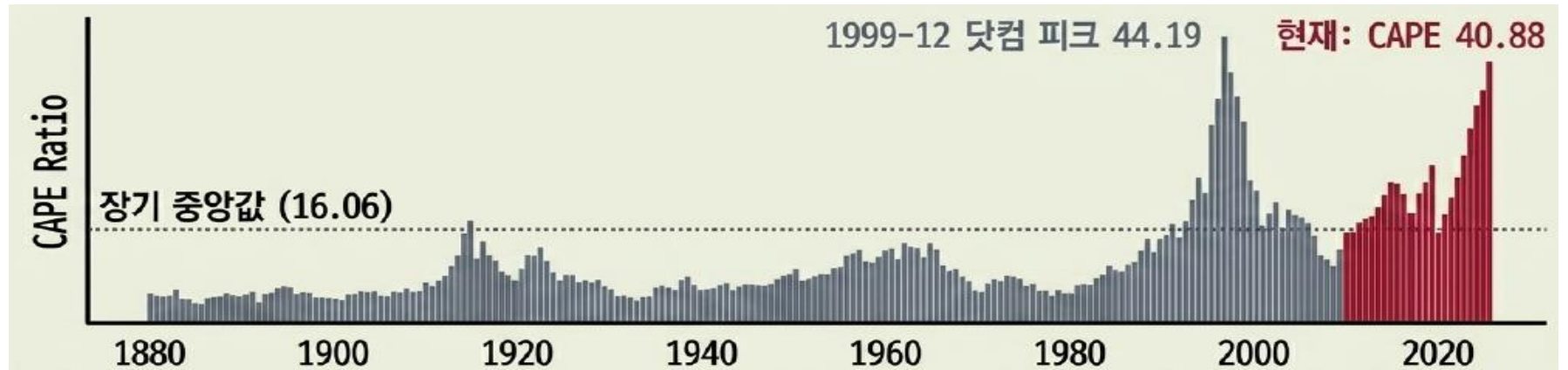
[밸류에이션] 25년 이후 평균 선행 PER 수준에서 하락 반전

나스닥은 27.2배, S&P500과 다우는 21배 수준에서 하락 반전. 25년 이후 평균 수준에서 급락 반전



자료: CI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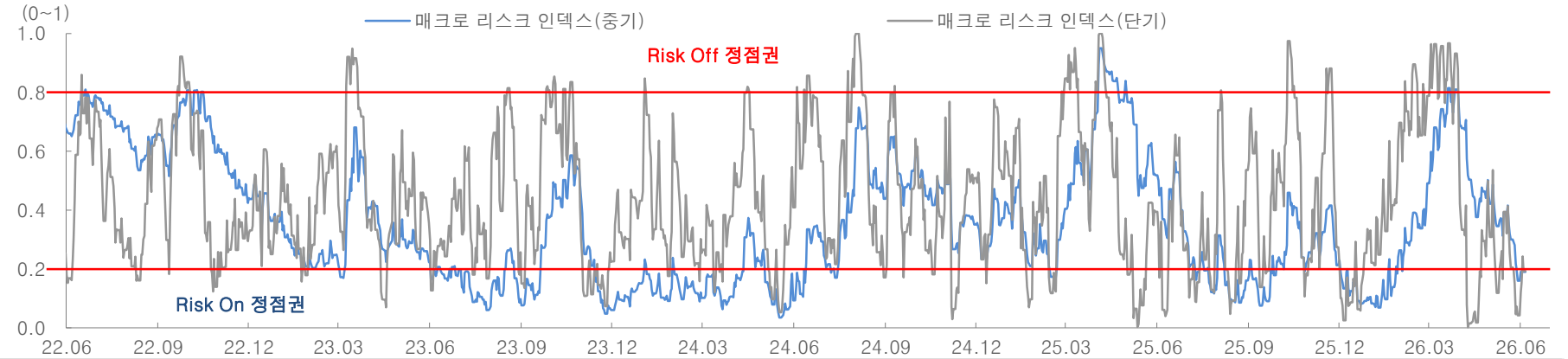
CAPE는 40.88배로 140년내 두번째로 높은 수준 도달. 장기 중앙값의 2.5배 수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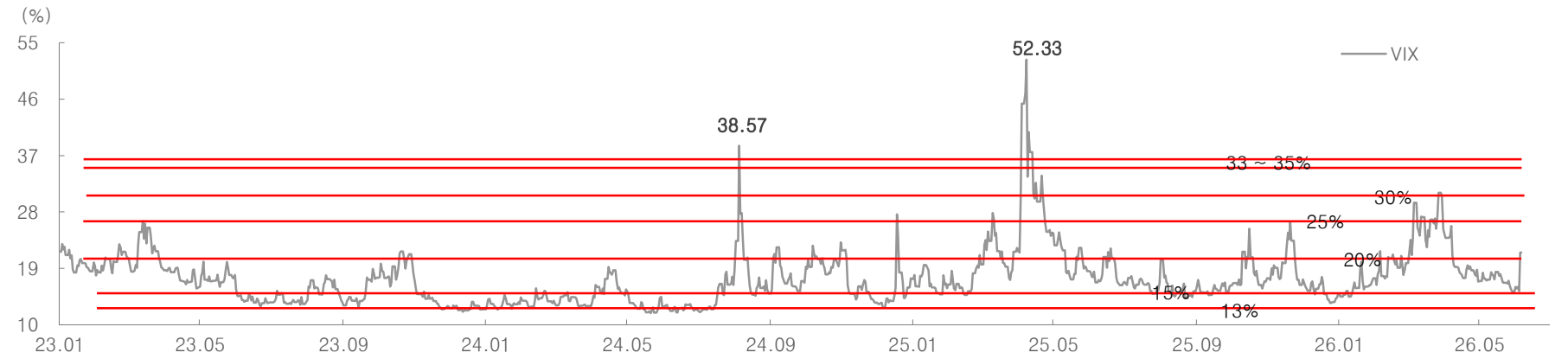
[리스크/변동성] 중단기 Risk Off 시그널 전환 가능성. VIX 15%에서 급반등

중기, 단기 지표 모두 Risk On 정점권 진입. Risk Off 전환시 단기 변동성 확대 불가피



자료: CI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VIX는 변동성 30%에 도달한 이후 하락 반전, 변동성 저점권인 15% 수준 도달. 지난 주말 단숨에 20% 상회하며 변동성 확대 국면 진입 시사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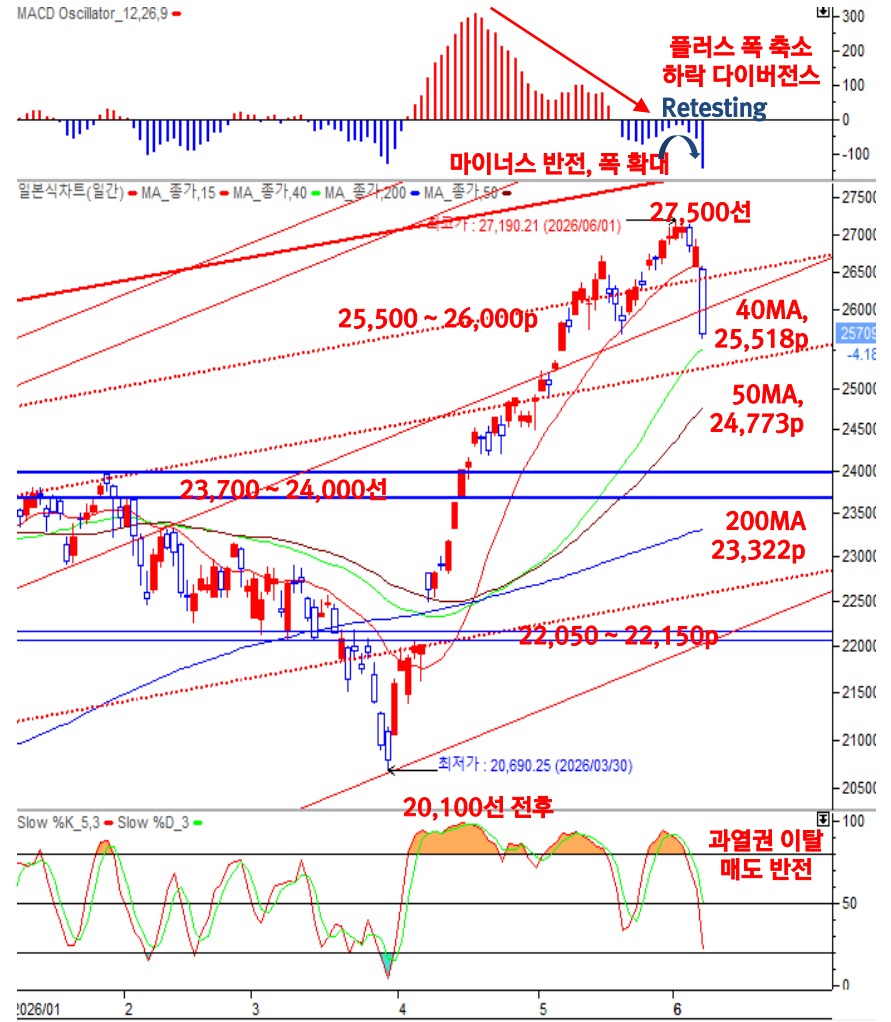
[미국 증시 전망] 급락 반전. 단기 매물소화, 과열해소 국면 전개 예상

S&P500 일간차트. 5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확보 여부 주목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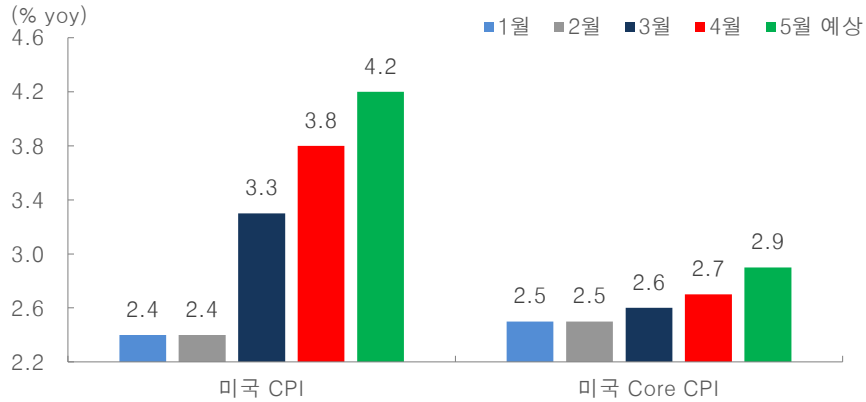
나스닥 일간차트. 50일선 이탈시 200일선 지지력 테스트 감안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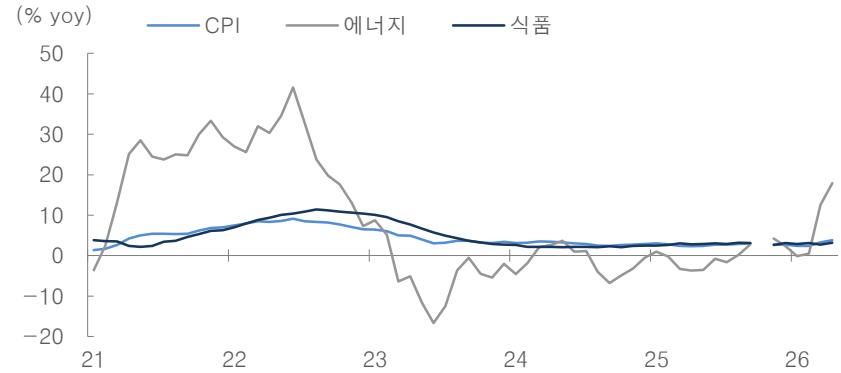
[물가] 이번주 10일 CPI, 11일 PPI 발표. Core 물가 수준이 중요할 것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5월 CPI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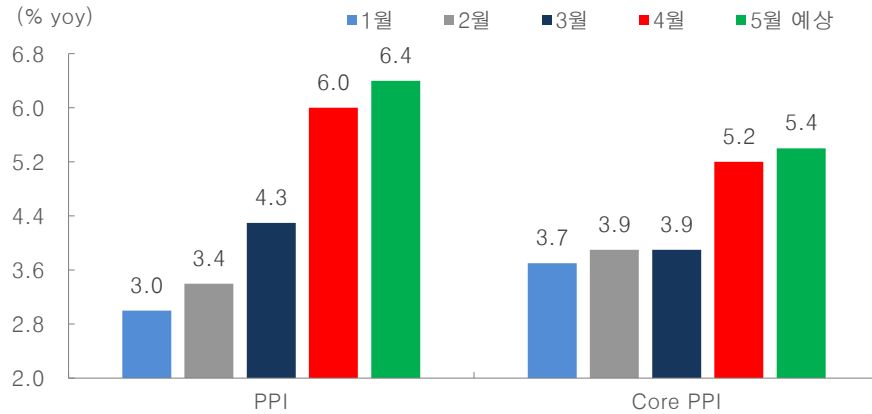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물가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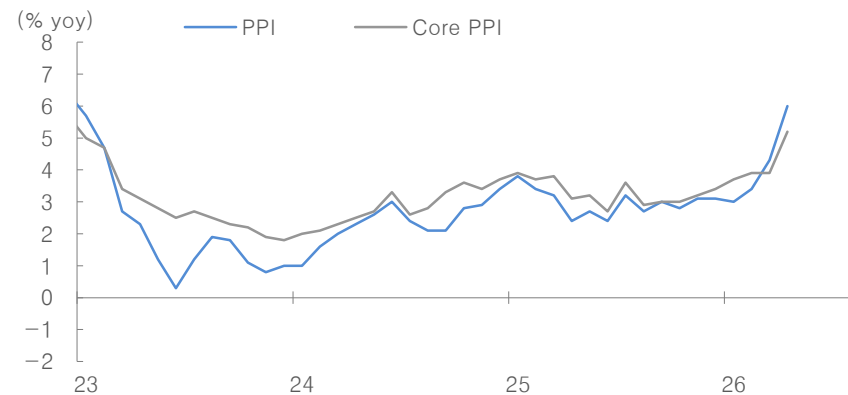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월 PPI, 전년 대비 6.0%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 대폭 상회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PI / Core PPI 상승 추세가 팔라지는 중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I 수익성 우려 + 금리, 달러 급반등 충격 감안. KOSPI 7,000선 초반부터 매집 전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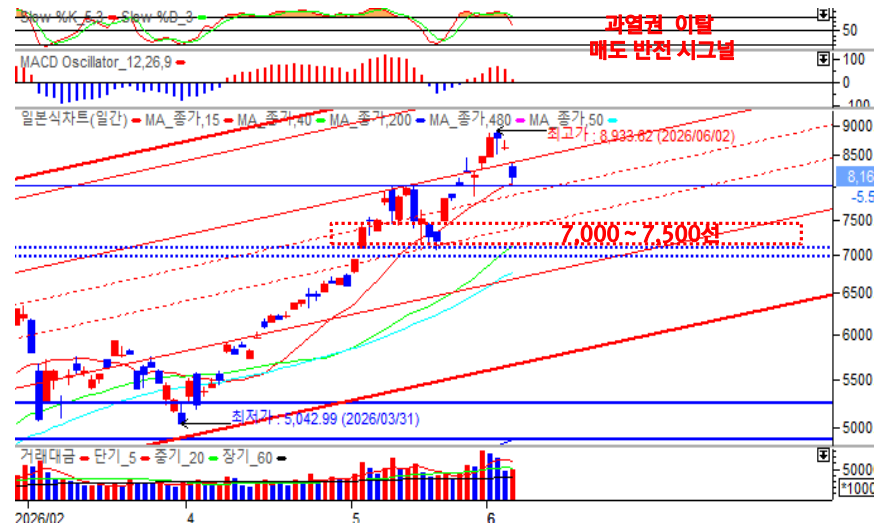
- 지난 주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GDR 각각 20.2%, 15.4% 폭락, 미국 상장 한국 ETF도 14.1% 레벨다운. 야간 선물 8% 급락했는데 이는 하한가. 야간 선물 1,194p 기준 KOSPI는 7,500선 이하에서 월요일 장을 시작할 가능성 높음. 게다가 이번주 수급/유동성 이슈 가세. 12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11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예정. 글로벌 유동성 이탈과 파생 수급 영향력 확대까지 가세한다면 이번주 KOSPI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가뜰이나 이례적으로 극심한 쏠림현상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KOSPI 레벨업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IT 하드웨어, 가전 등 AI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 자리함에 따라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이로 인한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재, 금융, 내수주의 상대적 안정성 확보. 반등 시도는 가능할 전망
- 변동성 국면에서 7,000 ~ 7,500선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의미있는 지수대이자, 4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 4월 저점에서 상승 폭의 50% 되돌림 수준이 7,000선이기도 함. 선행 PER 7배 수준이 7,296p이고, 7,000선은 6.71배로 금융위기 당시 저점 6.27배 이후 최저치. 극심한 저평가 수준에 재진입한 KOSPI의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가능.
- 이번주 미국 CPI와 PPI 결과와 다음주 FOMC에서 점도표 수준을 확인하면서 1) 이번주 미국채 10년물이 4.67% 넘어서는지, 2) 외국인 선물 매도 강화 or 매수 전환 여부(누적 순매수 전저점 권), 3) 금융투자 매수 지속 또는 매도 전환/강화 여부, 4)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재개 여부 주목. 1 ~ 2주 동안 극심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 매집하거나 버티기 전략이 유효. 6월 후반부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과 함께 KOSPI 밸류 매력 재평가 예상

금리 급등에 이어 스페이스X 상장(12일) 영향에 자금 이탈 가능성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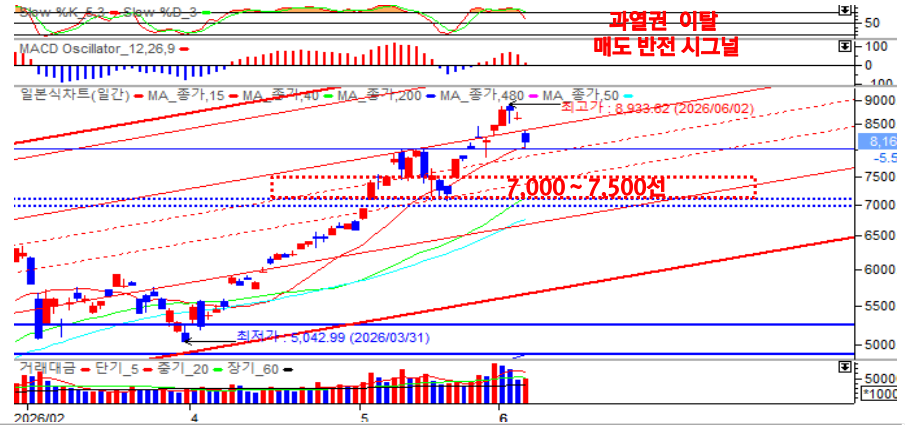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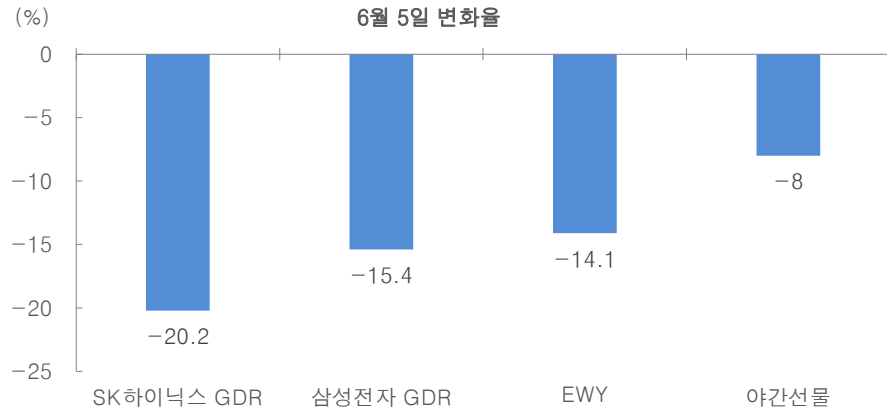
KOSPI 7,000 ~ 7,500선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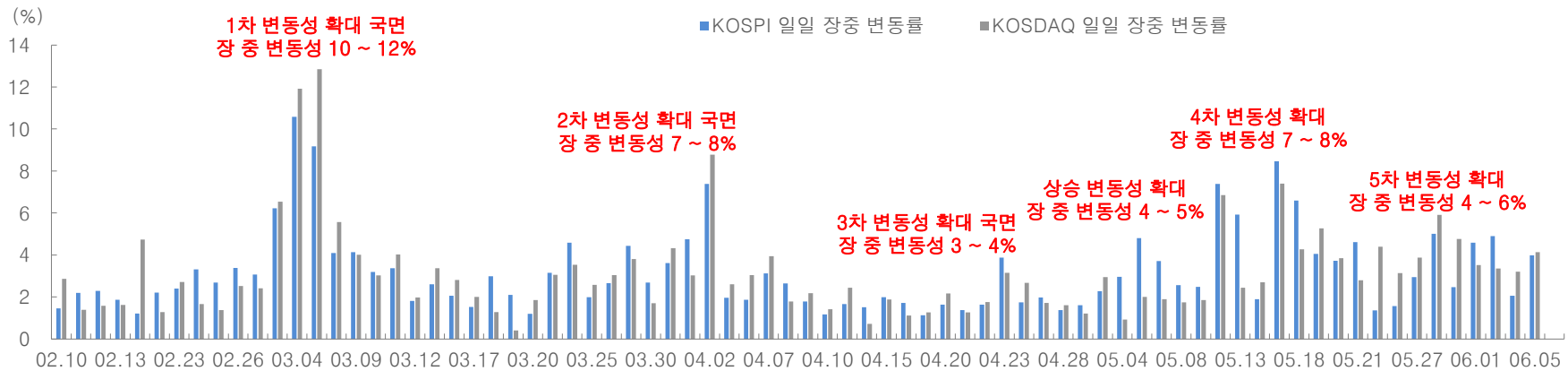
[주말 충격] GDR, EWY, 야간선물 폭락. 야간 선물 기준 KOSPI 7,500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GDR 폭락. 미국 상장 한국 ETF는 14.1% 폭락했고, 야간 선물은 8%(하한가) 급락. 야간 선물 1,194p 기준 KOSPI는 7,500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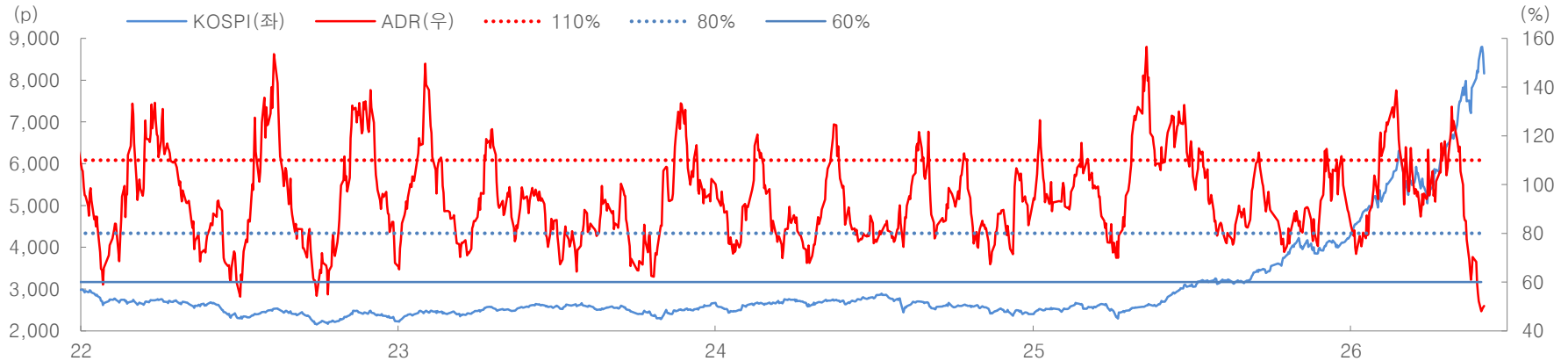
상승 국면에서도, 하락 국면에서도 변동성이 큰 상황. 6월 둘째주 초반 변동성 4 ~ 6% 수준에 그치는지 여부가 관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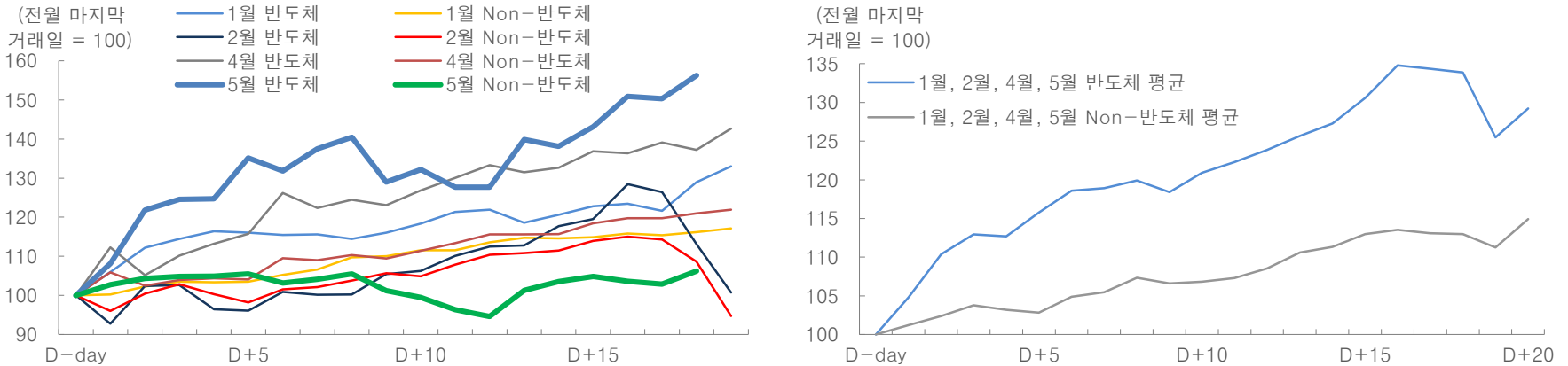
[쏟림현상] 이례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ADR 50% 하회. 순환매 장세 전개 예고

KOSPI ADR(상승종목비율, 20MA) 48% 레벨다운 이후 반등 모색. 과거 하락추세에서 분위기 반전 시그널. 상승추세에서는 극단적인 쏠림현상 시사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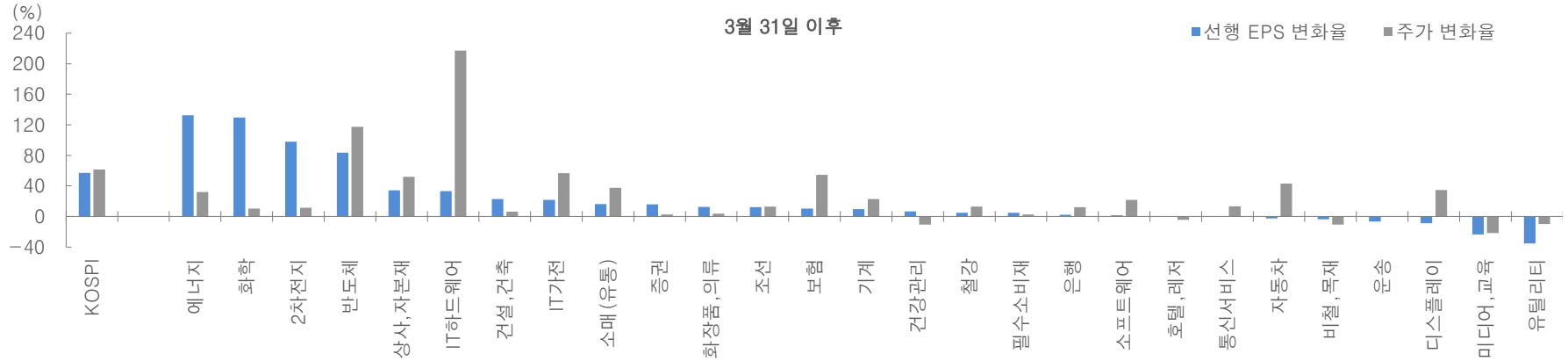
월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으로 인한 쏠림현상 이후 Non-반도체 업종들의 반등시도 뚜렷해질 전망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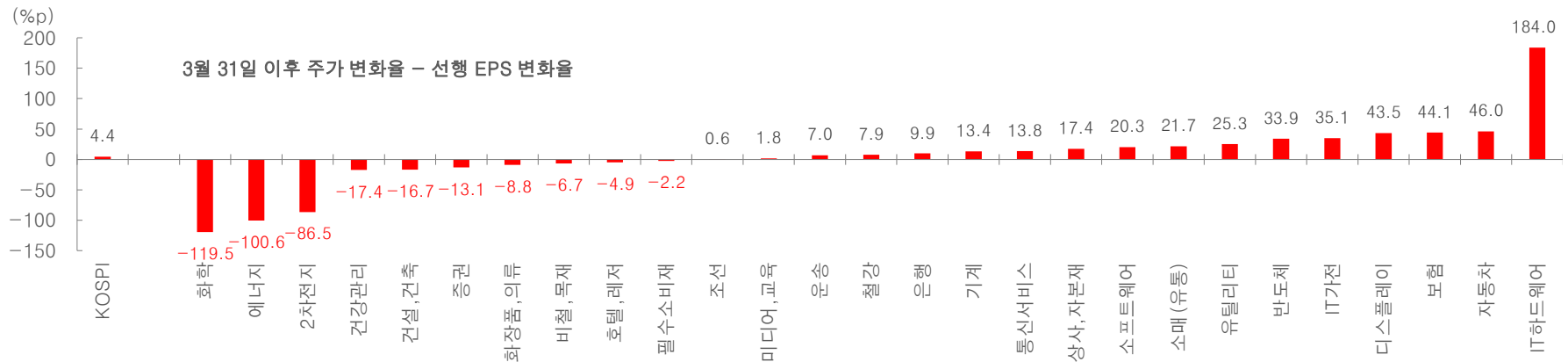
[실적대비 주가] 3/31 이후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10개. 주도주 대부분 가격, 과열 부담 가중

EPS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세 : 화학, 2차전지, 에너지, 건강관리 뿐. 대부분 업종 실적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거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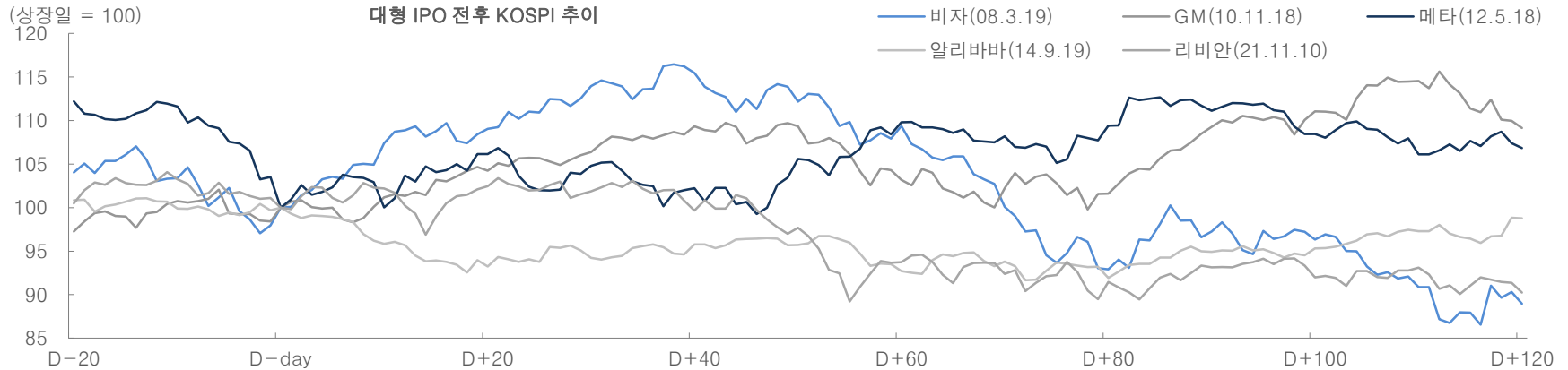
실적 개선 + 실적 대비 저평가: 화학, 2차전지, 에너지, 건강관리 뿐. 반도체까지 실적대비 고평가 영역으로 전환. 2차전지, 자동차 등 변동성 경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스페이스X 상장] 12일 상장을 앞두고 유동성 이탈 가능성. 상장 이후 반전 가능성 높아

과거 대형 IPO 당시 KOSPI는 10일 전후부터 하방 압력 확대. 상장 이후 분위기 반전, 상승 탄력 강화. 40일 전후 고점 형성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상장 전 5번 중 4번은 약세 기록. 상장 이후 20거래일에는 5번 중 4번 상승, 평균 수익률 3%. 40일 전후에서 고점형성하며 하락 반전



기업	KOSPI 수익률[%]							
	T-40D	T-20D	T-10D	T+10D	T+20D	T+40D	T+60D	T+120D
비자	-6.9	-4.0	-3.4	4.9	9.0	15.5	9.4	-11.0
GM	4.9	2.8	-0.8	-1.7	4.2	9.4	3.2	9.1
메타	-13.7	-12.2	-11.6	3.5	6.1	2.2	9.8	6.8
알리바바	1.7	-0.8	0.1	-1.6	-6.7	-4.2	-7.3	-1.2
리비안	-7.9	-0.5	-3.3	1.4	2.4	-0.3	-6.3	-9.7
평균	-4.4	-3.0	-3.8	1.3	3.0	4.5	1.8	-1.2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전망]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 = 40, 50MA 지지력 테스트. 상승 추세는 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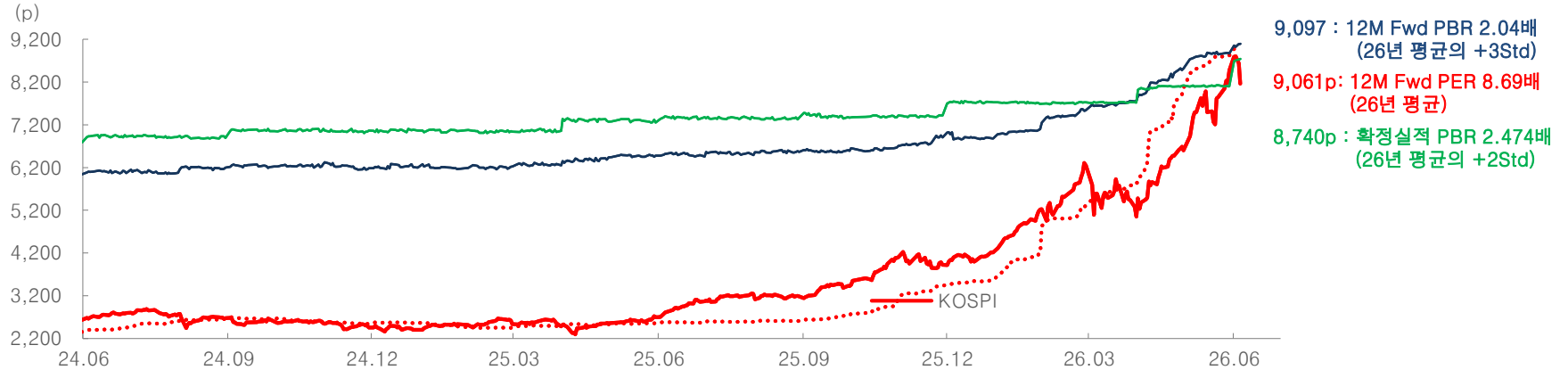
단기 매물 소화, 과열 해소 국면 진입. 1차 지지선 7,600~7,800선, 2차는 7,000선 전후. 중기 상승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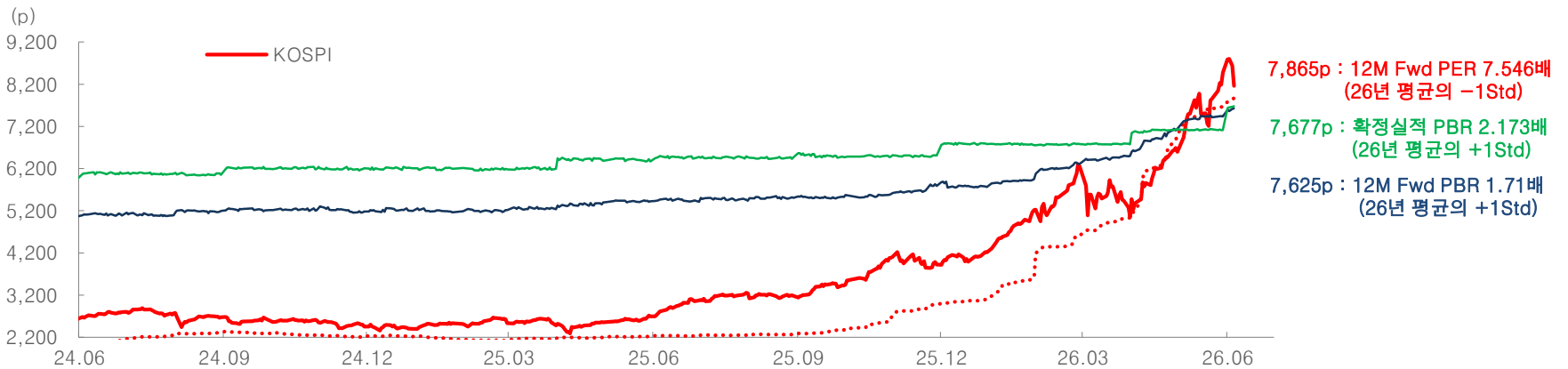
[고점/저점] KOSPI 9,000선 저항에 급락 반전. 1차 지지선은 7,600 ~ 7,800선

밸류에이션 분기점이었던 9,000선을 목전에 두고 KOSPI 급락 반전.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 예상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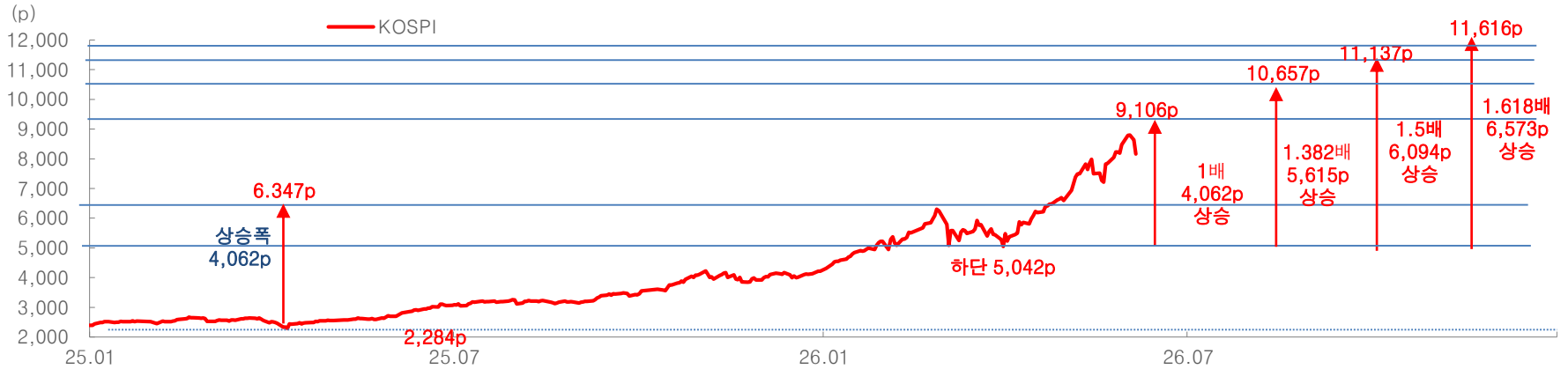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 전개시 1차 지지선은 7,600 ~ 7,800선 전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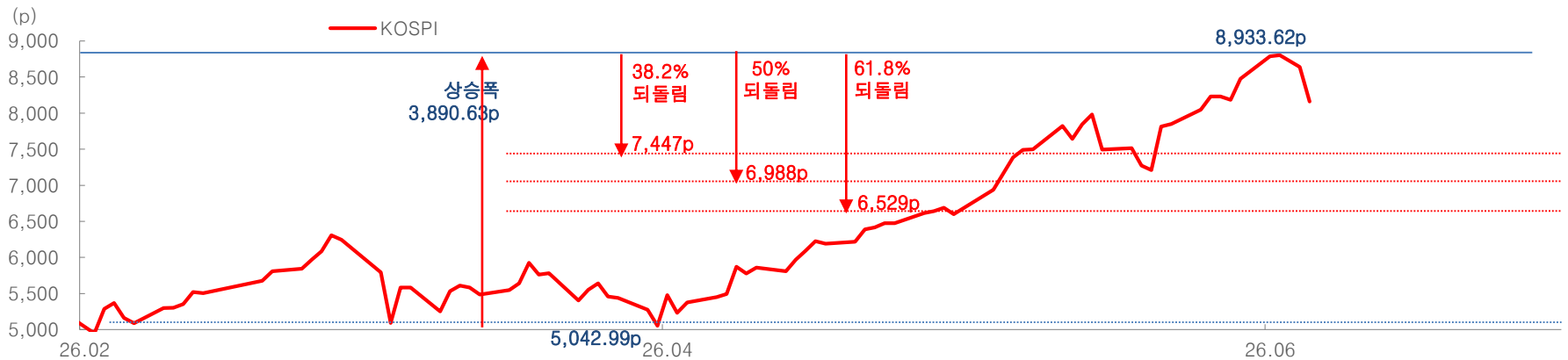
[고점/저점] 9,100선 분기점에서 하락 반전. 50% 되돌림 수준은 7,000선 전후

1차 타겟인 9,100선을 앞두고 하락 반전. 상승추세 여전히 유효, 9,100 돌파시 KOSPI 1만시대 진입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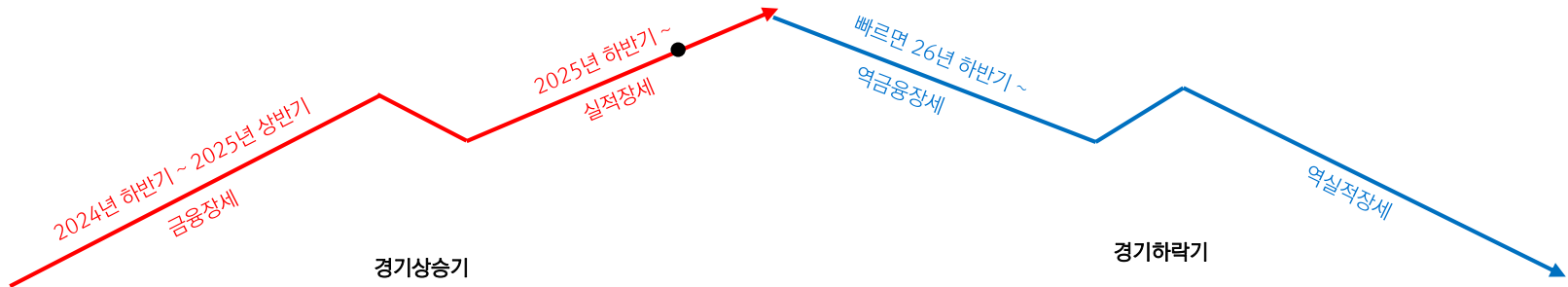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1차 지지선은 7,447p, 2차 지지선은 6,988p. 7,500선 이탈, 7,000선 이탈 시 분할 매수 전략 가능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면 판단] 현재는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전환 우려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

우라가미 구니오 [주식시장의 사계]. 2025년 상반기까지 금융(유동성)장세. 2025년 하반기부터 실적(펀더멘털) 장세로 전환 빠르면 26년 하반기, 늦어도 27년에는 역금융장세로 전환 가능성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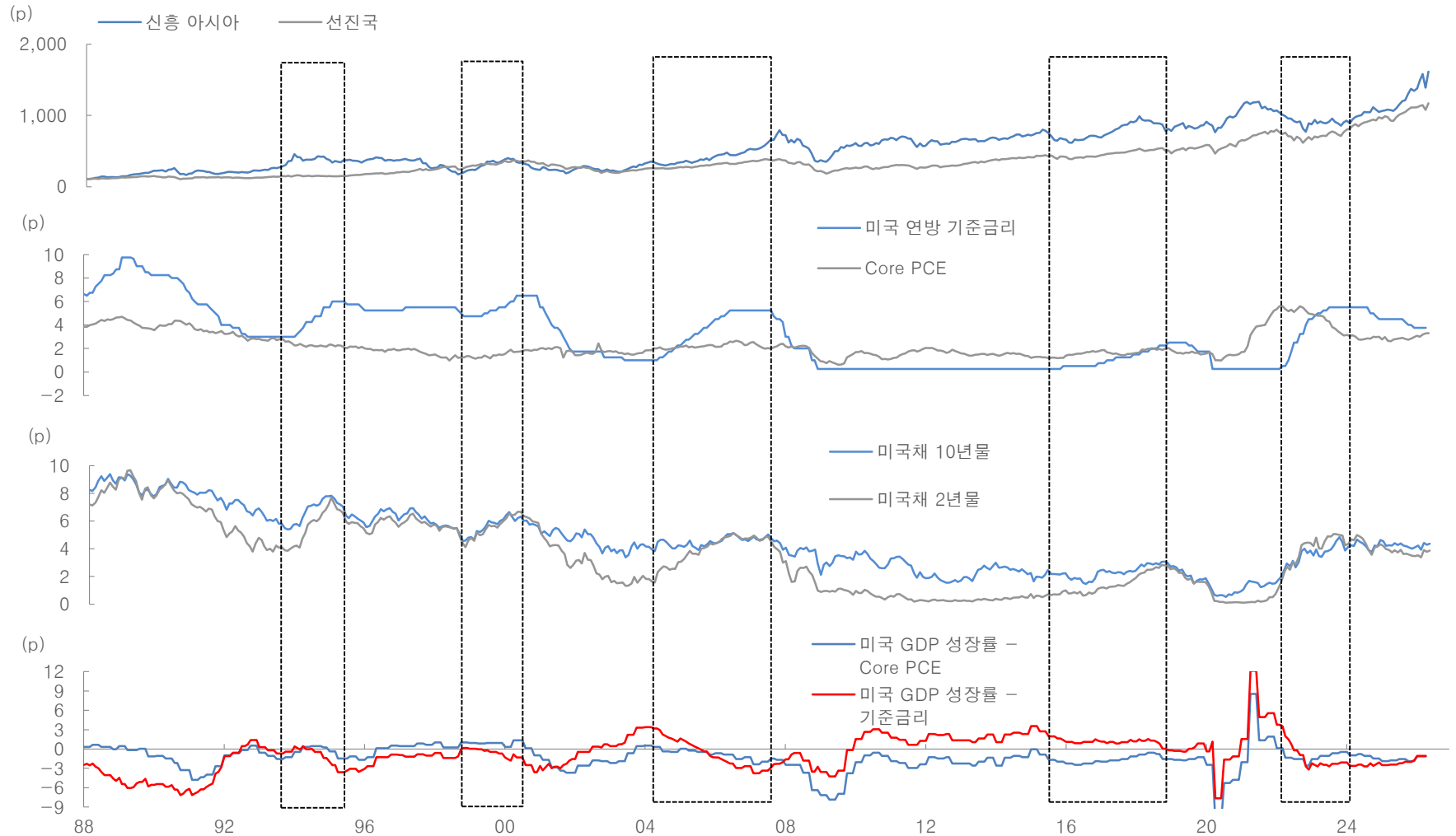


구분	금융(유동성) 장세	실적(펀더멘털) 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국면	회복기	활황기	후퇴기	침체기
주가	↑	↗	↓	↘
특징	단기 큰 폭 상승	장기간 안정상승	큰 폭 하락	부분적 투매
금리	↓	↗	↑	↘
실적	↘	↑	↗	↓
경기	자금수요 감소 금리인하, 물가안정 민간소비지출 증가	생산판매활동 증가 설비투자, 소비 증가 물가상승, 통화긴축 자금수요 증가	실질이자율 상승 내구소비재수요 감소 생산활동 위축	재고누적 실업률 가속 금리인하, 경기부양책
주도주 (과거)	금리하락 수혜주 업종 대표주	소재, 가공산업 업종 순환상승	중소형 우량주(활황기말~후퇴기초) 저PER주(후퇴기 후반)	내수관련주(경기방어주) 자산주, 소우량주
주도주 (현재)	성장주 강세 & 낙폭과대 종목 급반등(순환매)	꾸준한 실적 개선 업종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한 종목군 [실적/펀더멘털 장세] 후반	경기방어주, 자산주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역금융 장세 전환, 금리인상 ≠ 하락 추세 반전. 핵심은 성장 모멘텀 > 물가, 금리 상승 압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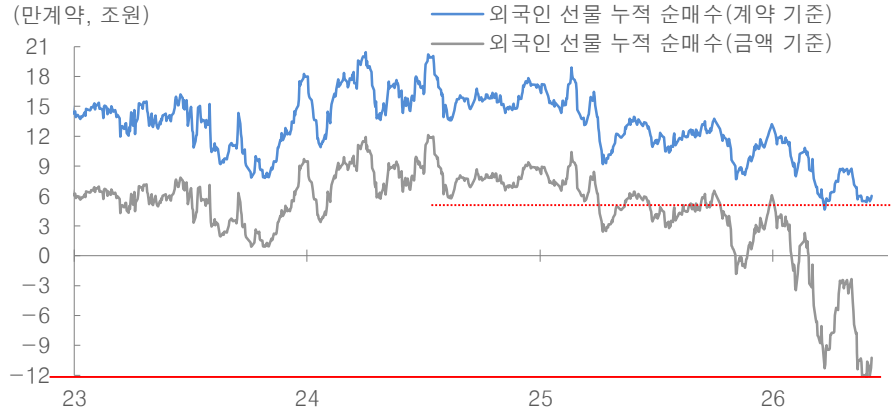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금리인상 = 증시 강세. 펀더멘털 동력이 강했기 때문. 21년, 22년은 성장 모멘텀보다 물가, 금리 상승 압력이 강했던 상황



자료: Bloomberg,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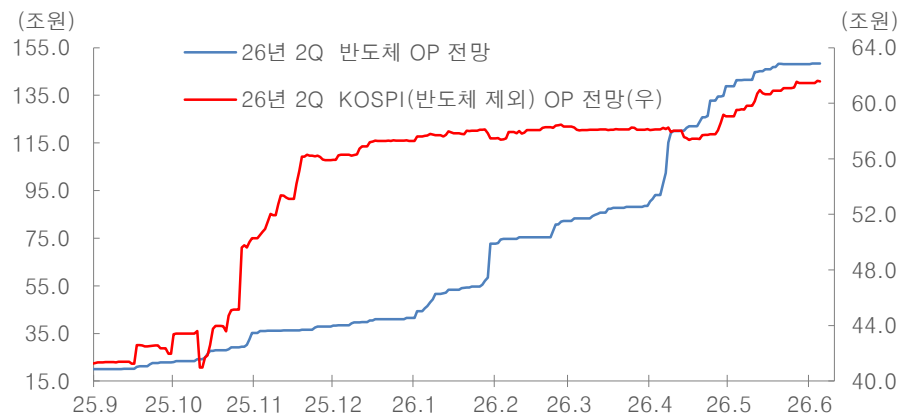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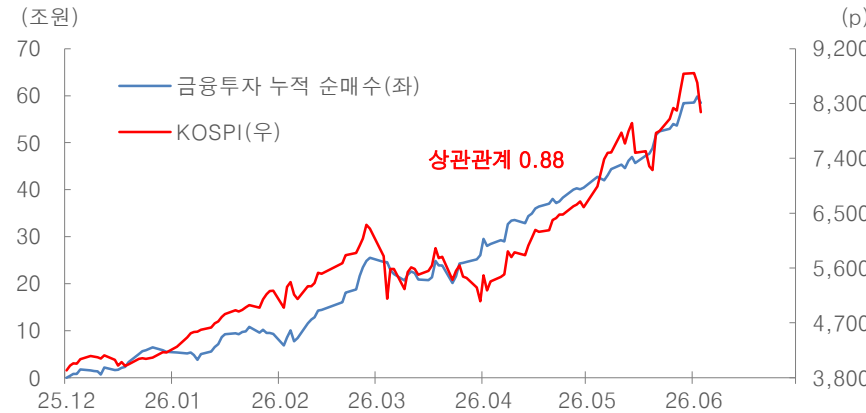
[분위기 반전] 트리거는 외국인 선물, 금융투자 매매와 실적 전망 상향 조정 강도/폭

6월 둘째주 초중반 미국채 10년물 4.67% 넘어서는지 여부가 관건. 국내 변수로는 1) 외국인 선물 매도 강화 or 매수 전환 여부(누적 순매수 전저점 권)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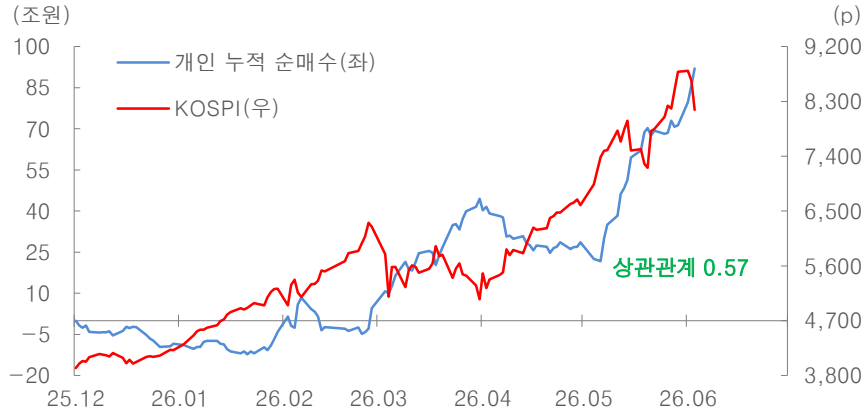
2) 금융투자 매수 지속 또는 매도 전환/강화 여부. 3)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폭과 강도 커지는지 여부. 프리어닝 시즌 돌입과 함께 가능할 전망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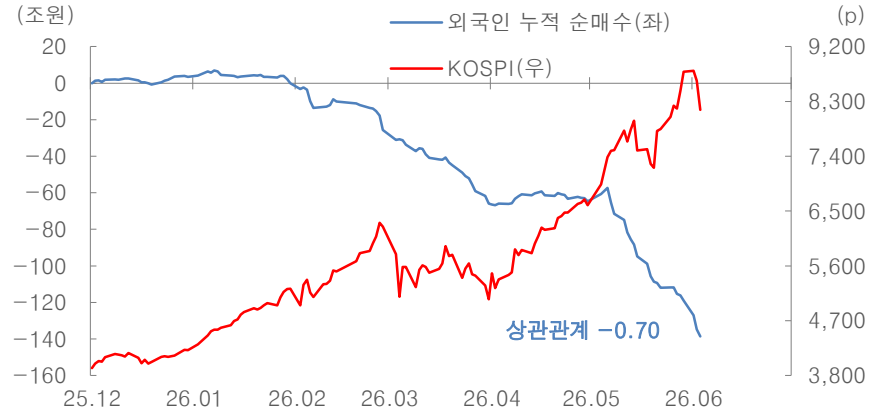
[KOSPI 수급 동력] 금융투자(ETF) 매수 강화, 외국인 순매도 강화. 키는 금융투자가 쥐고 있어

개인 투자자, 3월 급락에 대규모 순매수. 반등 국면에서 매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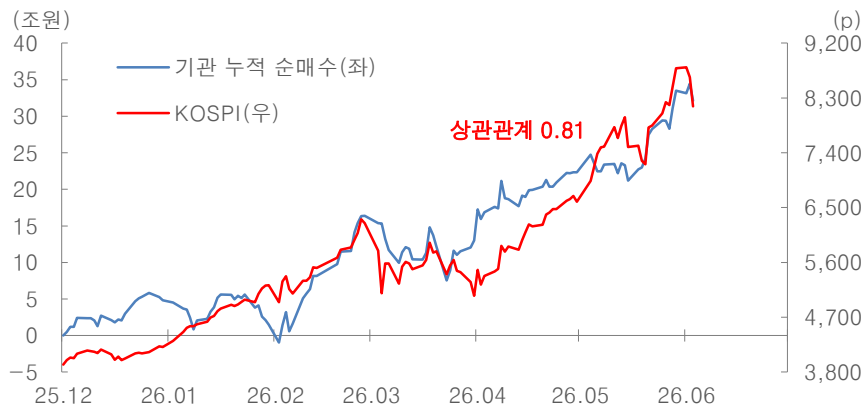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사상 최고치 행진에 다시 매도 강화. 리밸런싱 차원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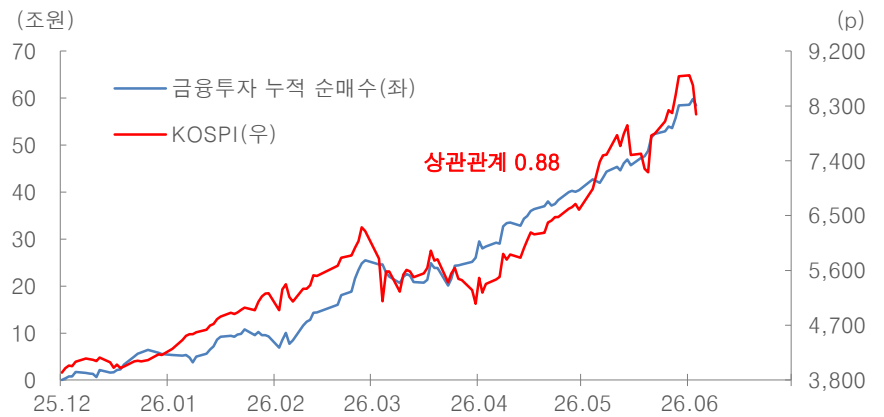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KOSPI 등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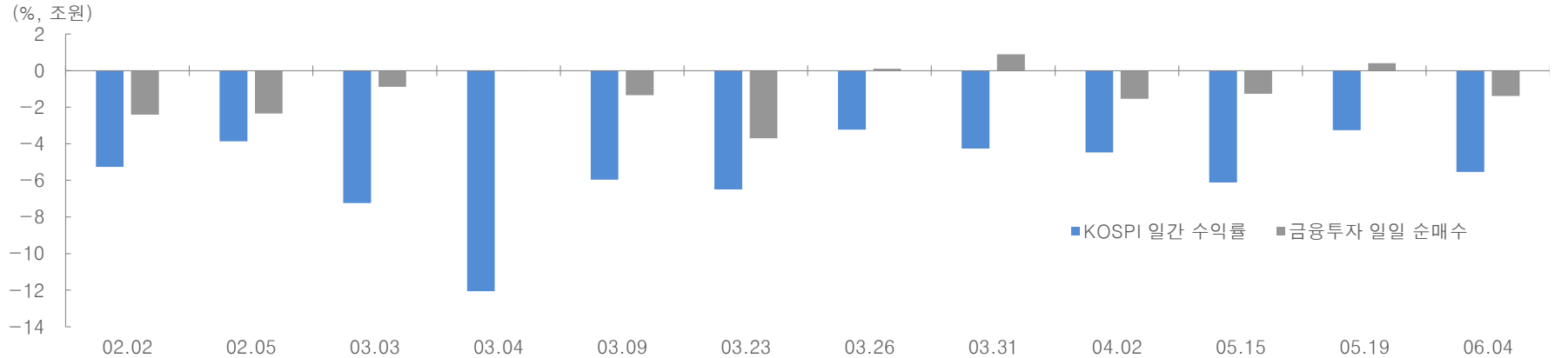
KOSPI 등락을 결정짓는 금융투자. 강력한 매수에 재확인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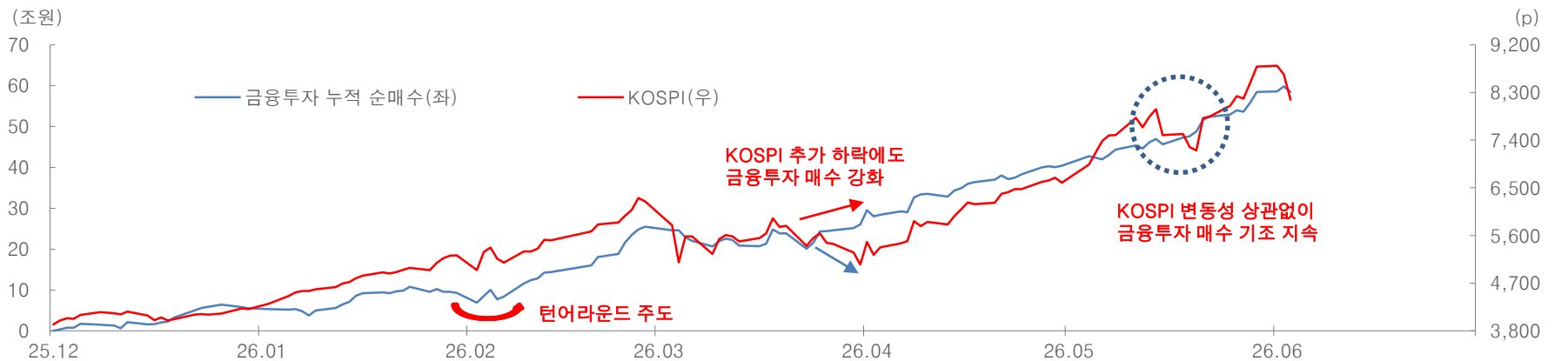
[금융투자 수급] 26년 3% 이상 급락 12번 중 9번 금융투자 매도. 분위기 반전에서도 주목

26년들어 KOSPI가 3% 이상 급락했던 12번 중 금융투자가 9번(75%) 매도. KOSPI 급락의 매매 주체 또한 금융투자임을 시사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요 변곡점에서도 금융투자가 핵심. 분위기 반전을 주도하고, KOSPI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매수 지속/강화해가며 KOSPI 상승 추세를 주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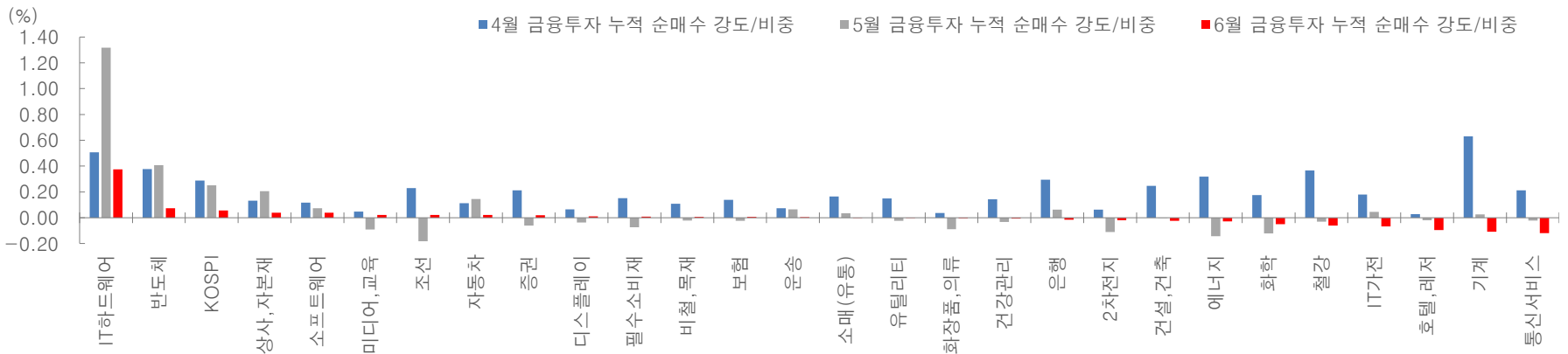
[금융투자 수급] 26개 업종 중 13개 업종 순매수. IT하드웨어, 반도체에 매수 집중

반도체,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자동차, 소프트웨어, 조선, 증권, 보험 등 주도주,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13개 업종 순매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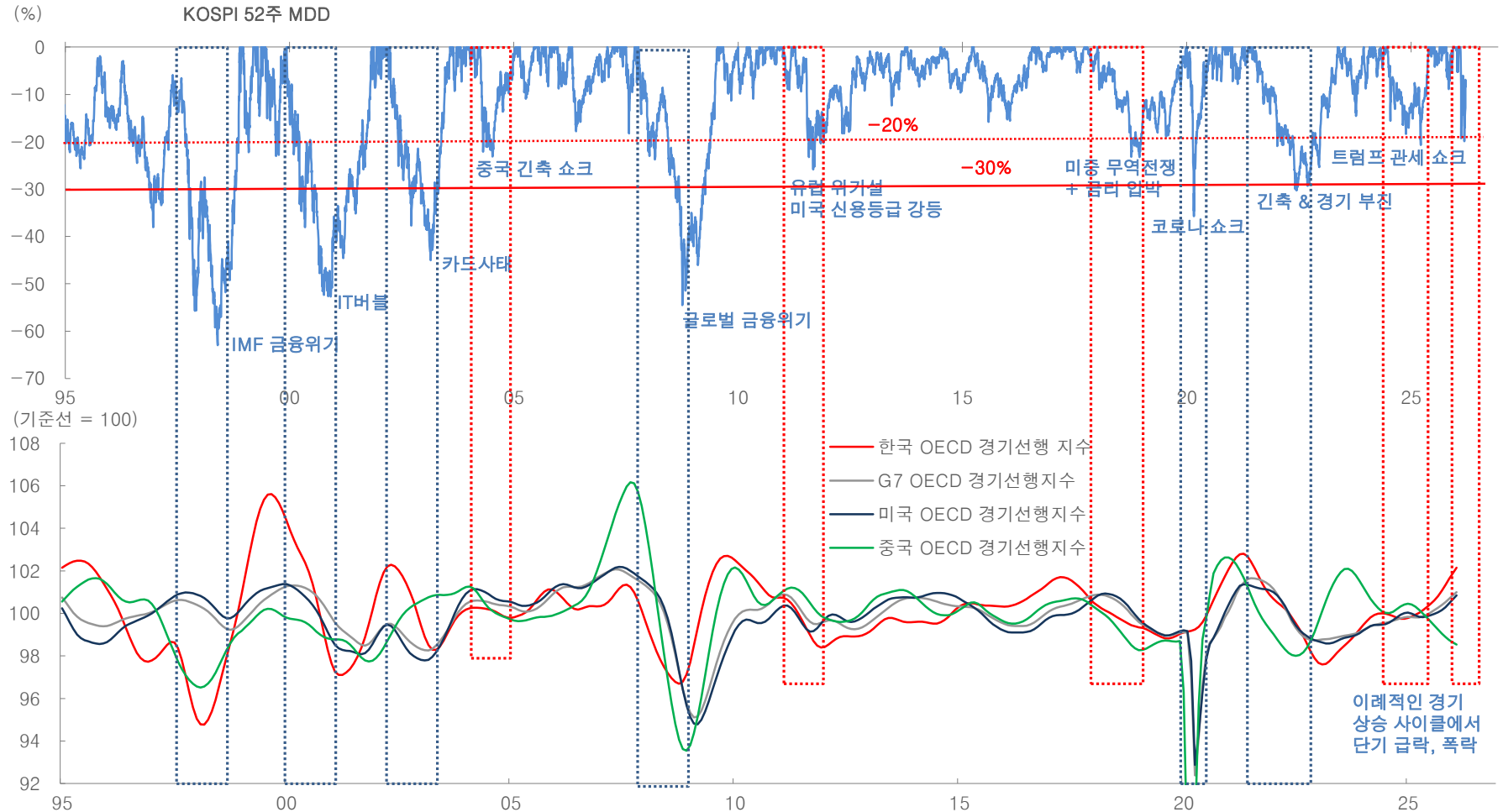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 강도 상위, IT하드웨어와 반도체에 매매 집중도 높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미디어/교육, 조선 등 매수 강화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위치] 지정학적 리스크로 20% 급락. 펀더멘털은 견고함에 따라 상승추세 유효

경기 둔화 또는 부진에 긴축, 관세 등 정책 변화와 무역전쟁,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의 이슈가 가세하면서 고점대비 20% 전후 조정 빈번
30% 이상 조정은 경기 악화 또는 침체국면 진입 &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 국면. 현재는 경기 확장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추가 가격조정 가능성 낮아



자료: OECD, CEIC,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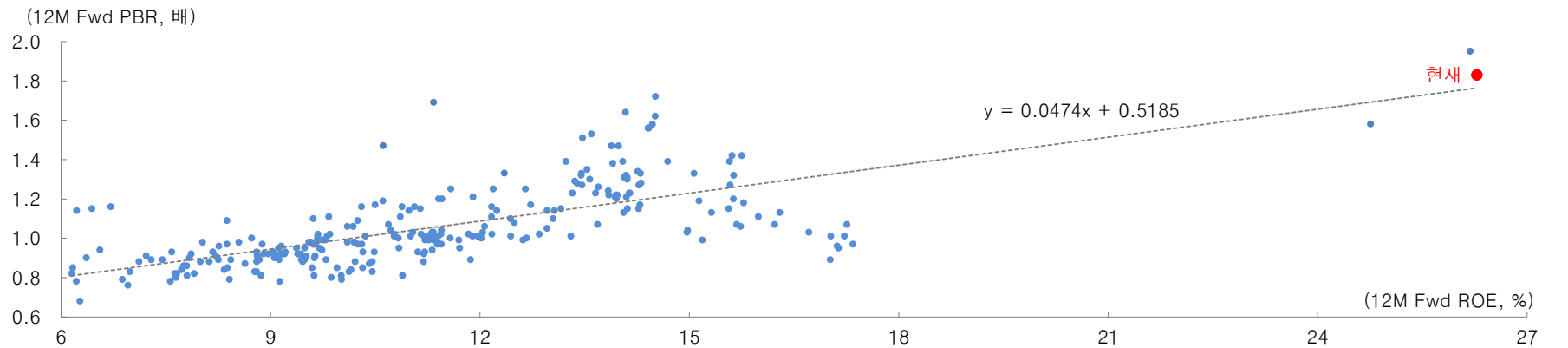
[밸류에이션] 선행 PER 8배, 선행 PBR/ROE Matrix 기준 적정 수준에서 급락 반전

KOSPI 12M Fwd PER 8배 수준에서 급락 반전. 다시 7배 수준으로 Deep Value 구간 재진입.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채권금리 레벨업 여파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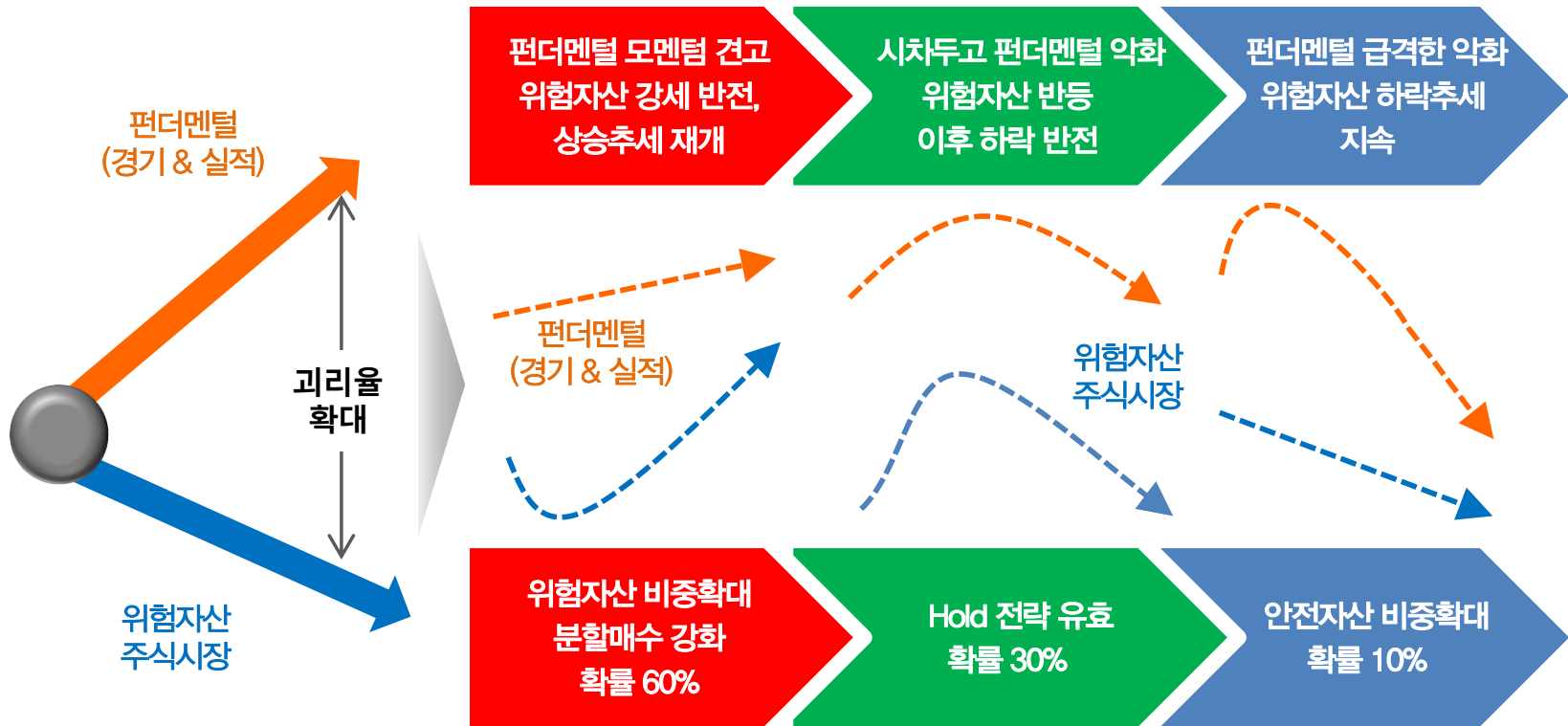
선행 PBR 현재 1.72배 수준. ROE - PBR Matrix 기준 적정 평가 수준으로 회귀 중. 현재는 3.6% 고평가 국면에 위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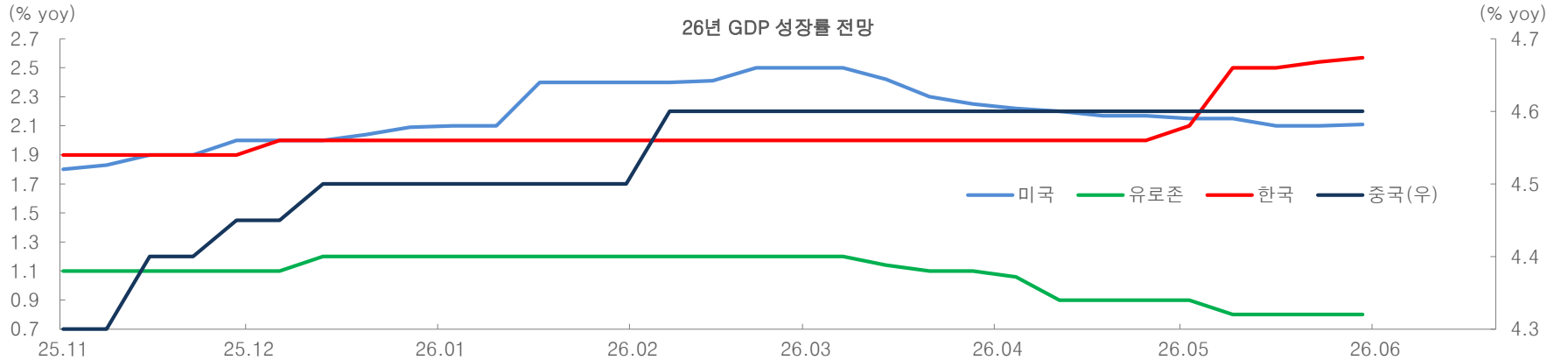
[강아지와 주인] 주인과 반대로 갔던 강아지, 주인에게 돌아오는 중. 아직 거리가 먼 상황

펀더멘털 대비 주가 수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빠른 정상화 국면 전개. 실적, 물가, 경기 환경이 더 앞으로 갈 동력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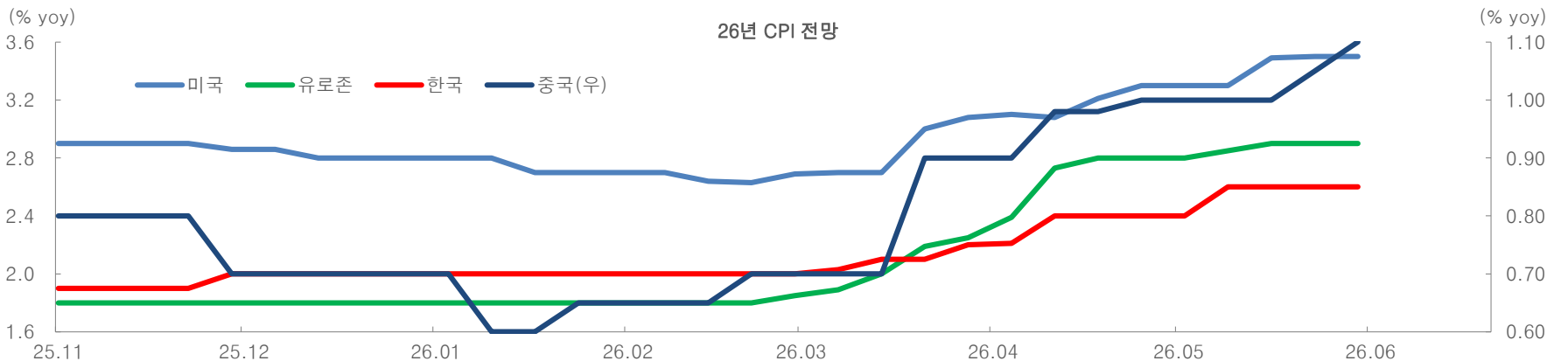
[GDP & CPI]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면서 경기 및 물가 불안심리 유입 중

주요국 2026년 GDP 성장률 전망. 4월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미국,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아직 하향 조정 폭 제한적, 한국은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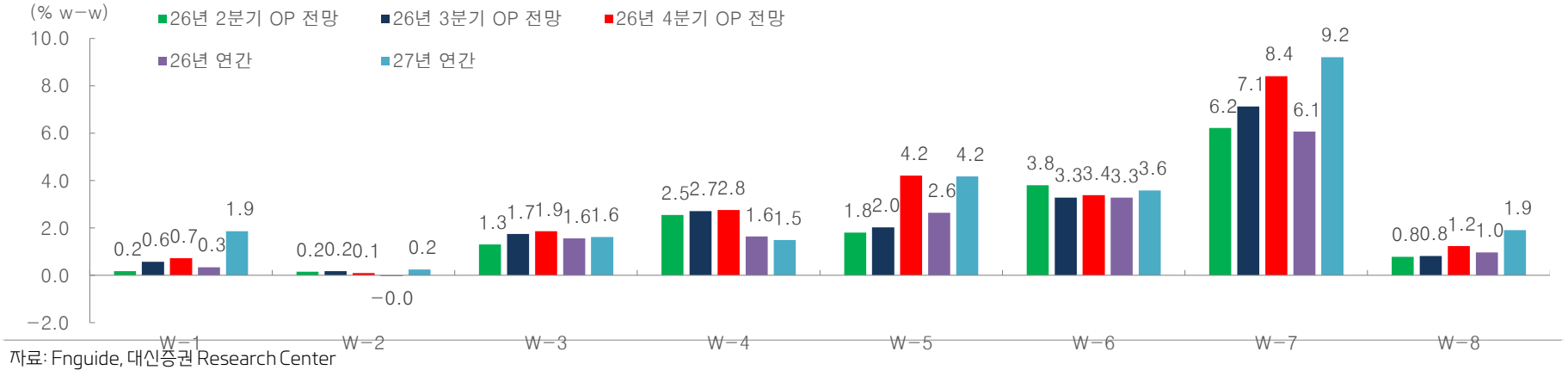
주요국 2026년 CPI 전망. 중국은 상향조정, 유럽은 2.8%, 미국은 3.3% 수준으로 레벨업.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우려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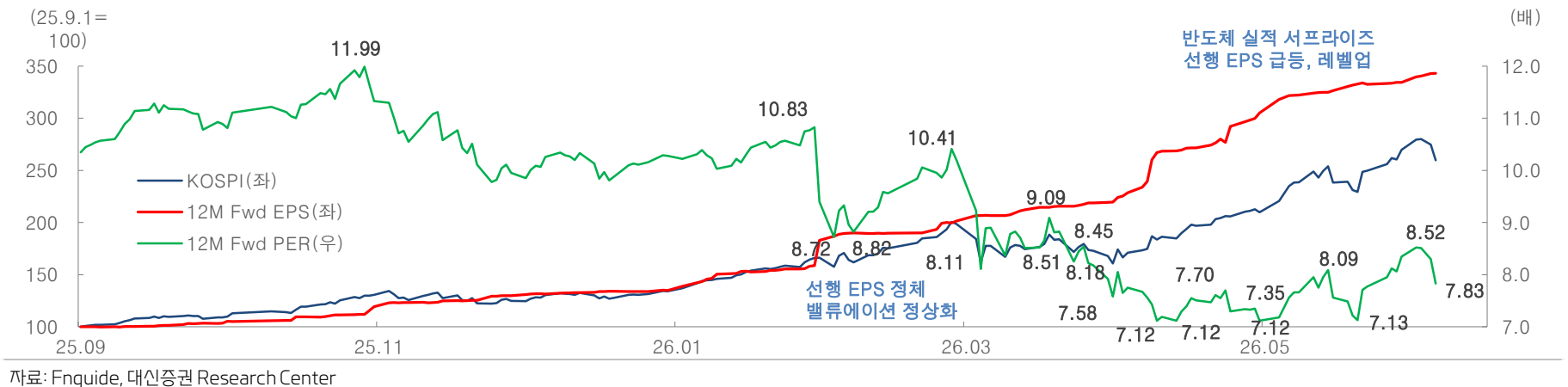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적 전망 & 선행 EPS] 선행 EPS 레벨업, KOSPI 하락 반전에 다시 PER 7배 권역 재진입

2Q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재개 예상. 2분기보다 하반기, 26년보다 27년 이익 전망 개선, 상승 폭이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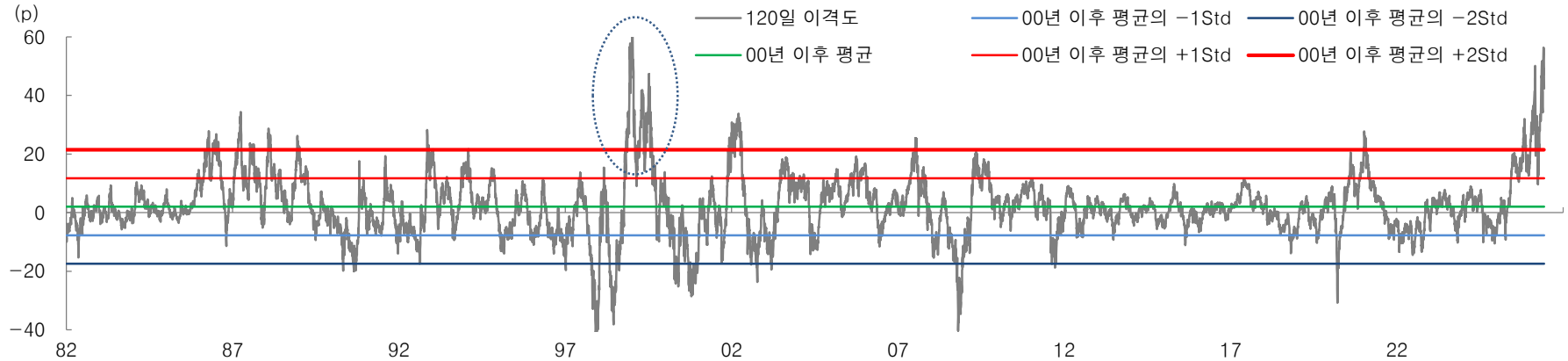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EPS도 3월말 666.55p, 4월말 926.8p에서 6월 5일 1,042.22p로 레벨업. 현재 선행 PER 7.83배에 불과. 코로나 저점(7.52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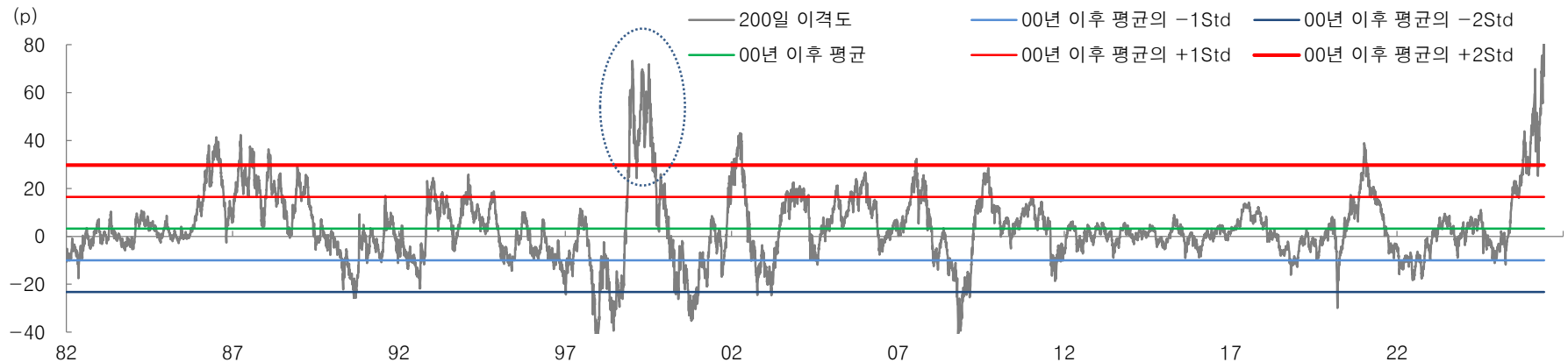
[이격도] 120, 200일 이격도, 과열 진정 국면. 강력한 상승추세는 여전히 유효(IT 버블)

KOSPI 1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56%p까지 급등. 이후 급락 반전으로 42%p로 레벨다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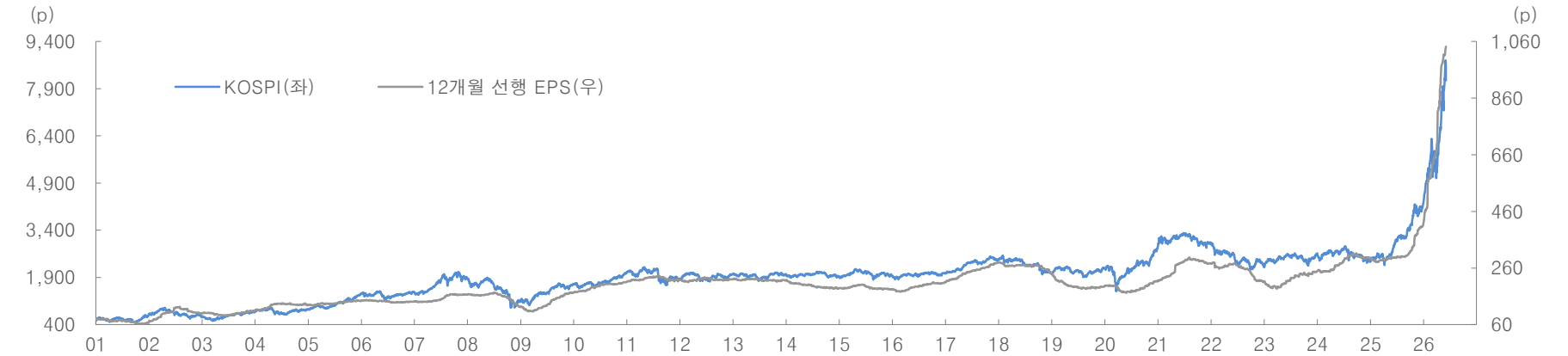
KOSPI 20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도 82.8%p 수준까지 레벨업, 2월말 고점 수준에서 급락 반전. 67%p 초반으로 레벨다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Target] 선행 EPS 급등으로 상승 여력 확대. PER 8.5배 8,800p Target

KOSPI와 선행 EPS 간의 상관관계 0.937에 달해. 선행 EPS 급등 구간에서는 KOSPI 상승 추세 꺾이지는 않을 것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KOSPI 8,000선대 진입 가시화, 선행 PER 8.5배가 당사 상반기 Target인 8,800선. 9.5배 수준은 9,900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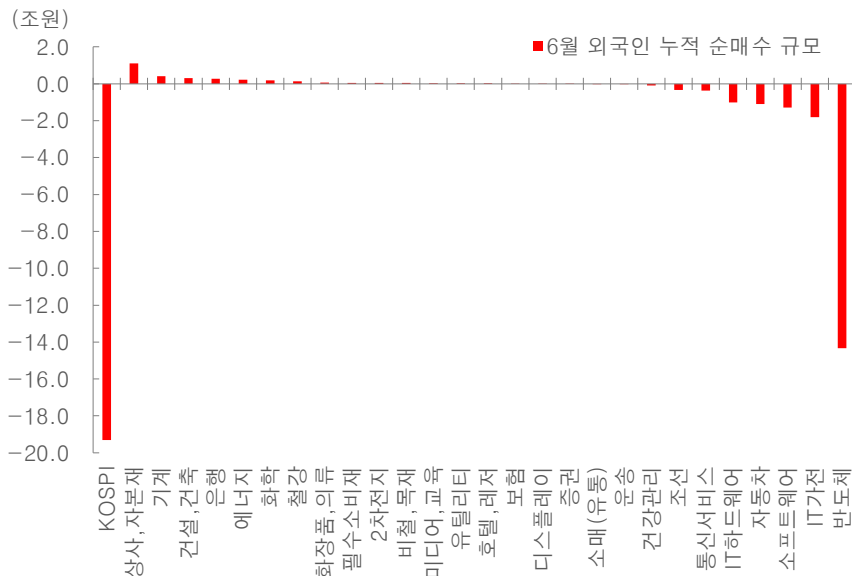
EPS 조정 수준 (%)	12개월 선행 EPS	12개월 선행 PER									
		금융위기 저점 6.27X	26년 저점 7.12X	코로나19 저점 7.52X	24년 8월 5일 저점 8.04X	22년 최저점 8.5X	26년 평균 8.88X	01년 이후 평균 9.496X	2010년 이후 평균 9.966X	21년 6월 이후 평균 10.219X	2001년 이후 평균의 +1Std 11.09X
8	1,128	7,075	8,035	8,486	9,073	9,592	9,806	10,716	11,246	11,532	12,512
5	1,094	6,861	7,792	8,229	8,798	9,302	9,510	10,392	10,906	11,183	12,134
3	1,073	6,731	7,643	8,073	8,631	9,125	9,329	10,194	10,698	10,970	11,903
현재	1,042	6,535	7,421	7,838	8,379	8,859	9,057	9,897	10,387	10,650	11,556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대량 매도 vs 지분율 39% 돌파. KOSPI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 수급 개선을 앞당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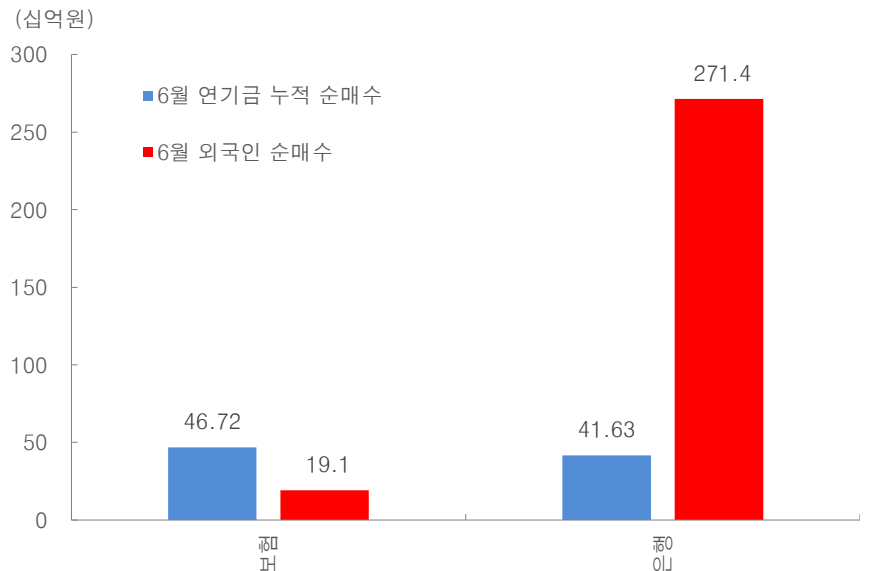
- 5월에 이어 6월에도 외국인 대량 매도 출회. 6월 4거래일만에 19조원 순매도. **KOSPI의 차별적인 강세, 사상 최고치 행진 재개로 리밸런싱 차원에서 현물 매도 전환.**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 **한국 증시 비중 Overweight 폭 확대 영향.** 글로벌 증시대비 KOSPI의 차별적인 급등세로 인해 적정 비중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비중조절 성격의 매도.** 다만, **선물 매도는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부분. 6월 첫째주 후반부 매수 전환 징후 감지**
- 6월 매도 업종을 보면 반도체, IT가전, 소프트웨어, 자동차, IT하드웨어, 통신, 조선 등 그동안 KOSPI 레벨업을 주도해 온 업종. 반면, **매수 업종에는 상사/자본재, 기계, 건설, 은행, 에너지, 화학, 철강,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 2차전지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이 다수 포진.** 외국인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보유비중은 39%를 상회함에 따라 **외국인 매도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 **KOSPI Deep Value 구간(선행 PER 8배 하회)에서 변동성 완화과 원화 안정이 가세할 경우 외국인 순매수 전환 예상.** KOSPI 변동성 확대가 오히려 외국인 매도 압력을 제어하는 변수가 될 것
- 국내주식 비중이 큰 폭으로 OverWeight된 상황임에 따라 KOSPI 사상 최고치 행진에 연기금은 매도 강화. 매수 업종 7개로 축소. **6월 외국인과 연기금 동시 순매수 업종은 보험, 은행 뿐.** 그동안 순환매 장세에서 소외되어 왔던 은행, 보험. **외국인과 기관 간의 엇갈린 매매 영향.** 외국인은 소외주,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들을 매수하는데 반해, 연기금은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 중

6월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지속. 17개 업종 2.97조원 순매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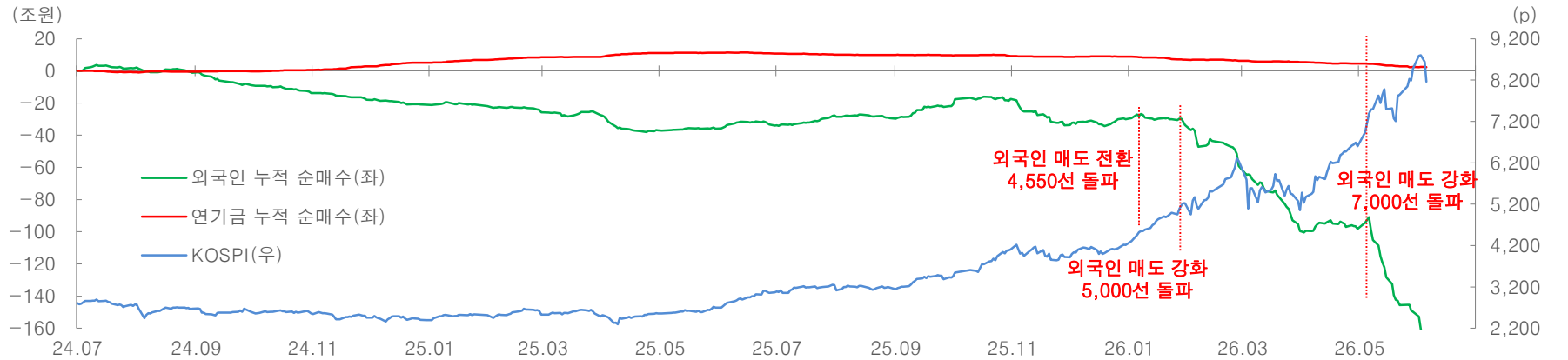
외국인/연기금 동시 순매수: 보험, 은행 뿐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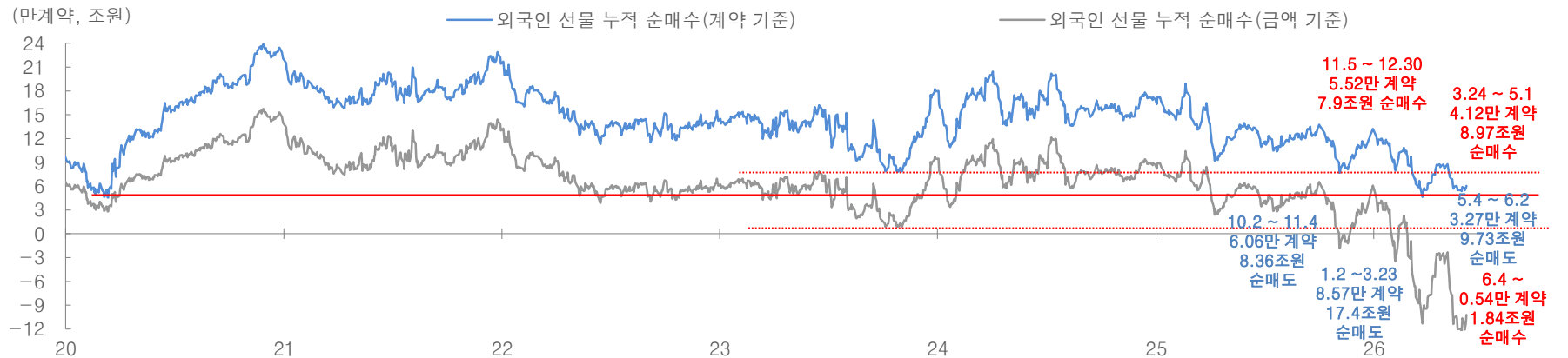
[외국인+연기금]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 단기 급등에 따른 리밸런싱 & 과열 부담 영향

KOSPI 5월초 대규모 매수 직후 급격한 매도 반전. 사상 최고치 행진에 비중 조절을 위한 매도 전환으로 판단. 연기금도 매도 지속/강화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월 4일 ~ 6월 2일까지 3.27만 계약, 9.73조원 순매도. 6월 4일 이후 매수 전환 징후 감지. 주말 쇼크 이후 수급 변화 주목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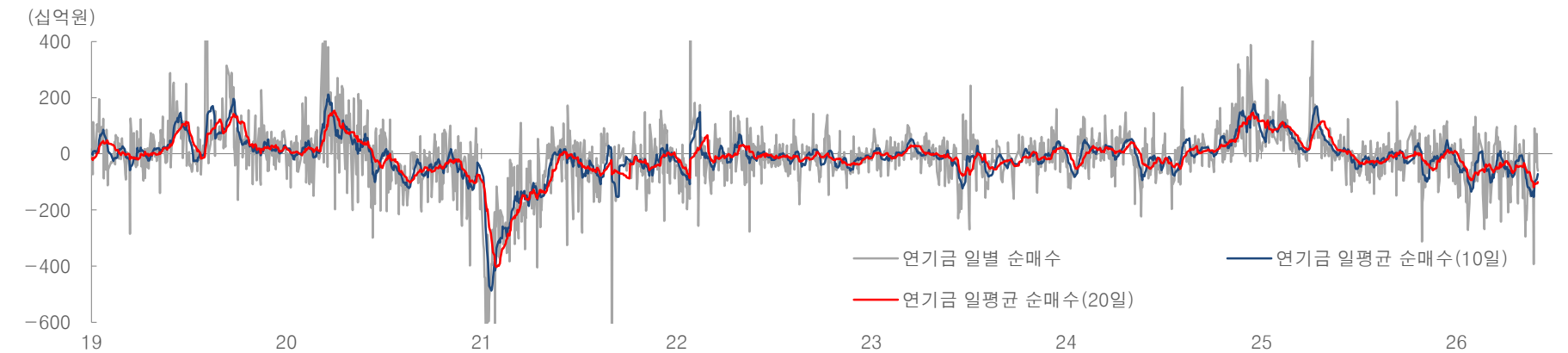
[연기금] KOSPI 밸류에이션 매력에도 연기금 6개월 연속 순매도. 매도 강도는 강화

2025년 6월 16일 이후 연기금 9.07조원 누적 순매도. 연기금 5월 2조 1,922억원, 6월 393억원 순매도로 6개월 연속 순매도 이어가는 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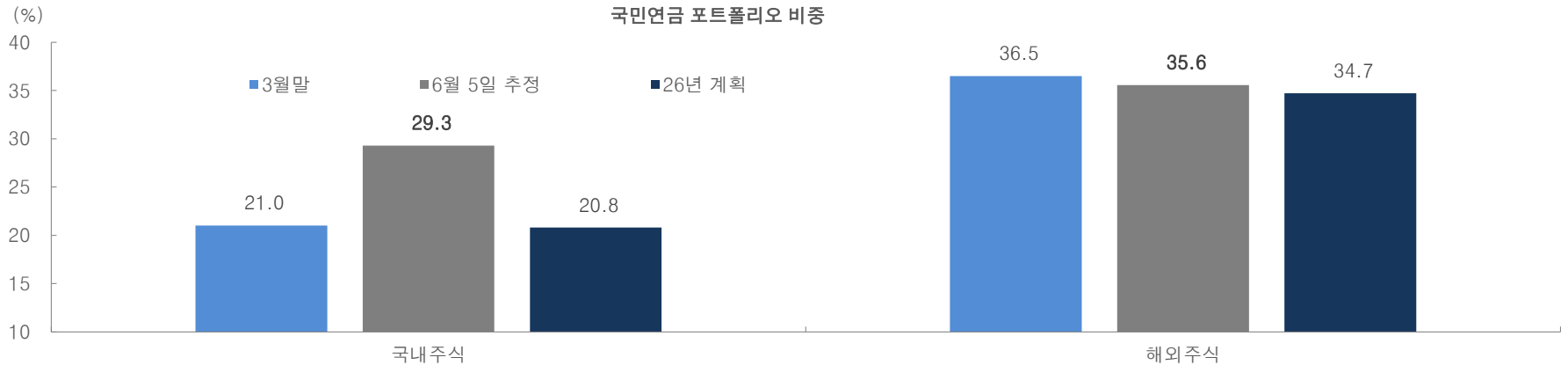
연기금 순매수 강도(20일 평균 순매수) 5월 8일 333억원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 1,011억원 순매도로 매도 규모 확대, 강화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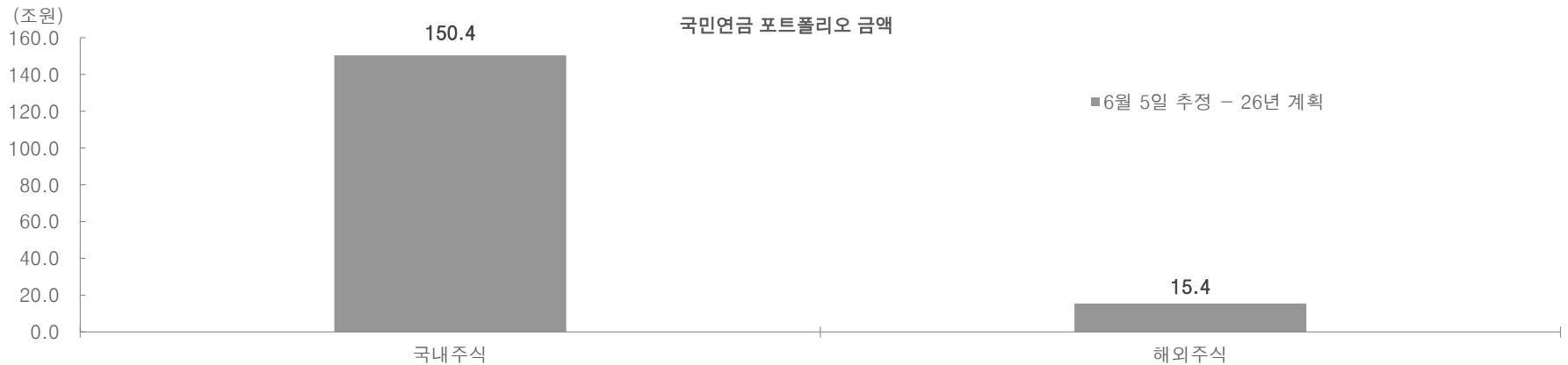
[연기금] 현재 국내 주식 OverWeight(8.5%p 추정) 폭 확대. 차익 매물 부담 심화

연금 포트 내 국내 주식 비중 6월 5일 기준 29.3%로 26년 계획대비 8.5%p Overweight. Overweight 폭 확대로 차익 매물 출회 압력 확대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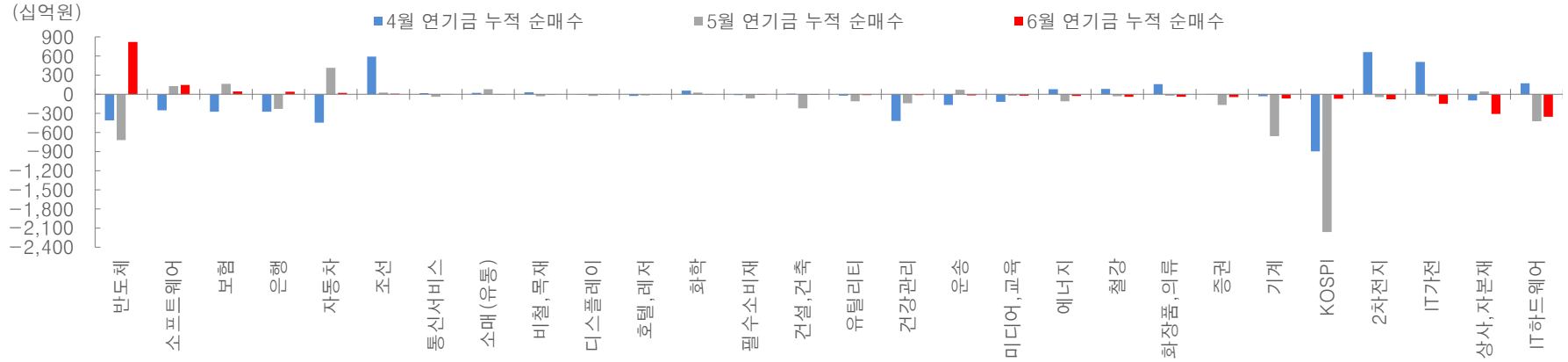
26년 계획 금액대비 국내 주식은 150.4조원이 높은 상황, 매수 여력 소멸,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 확대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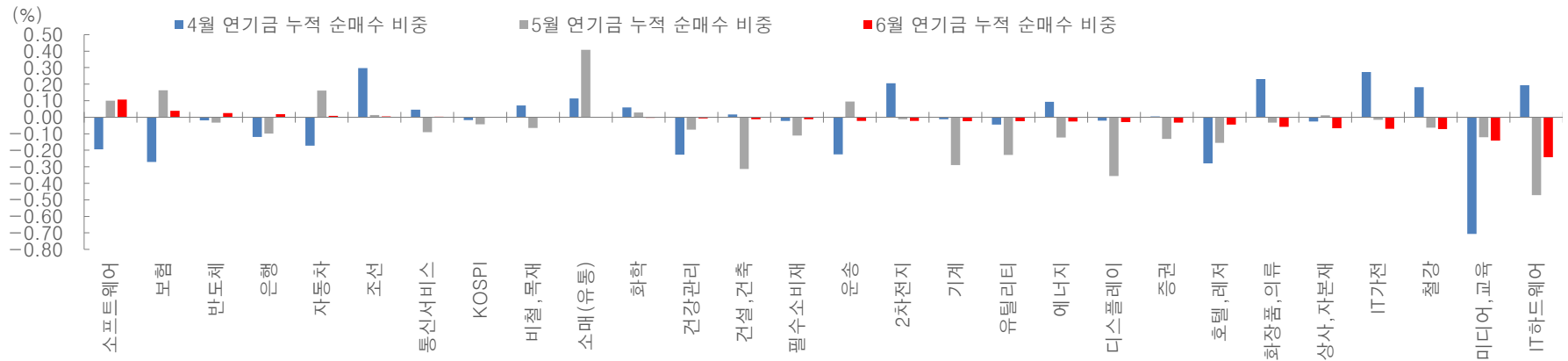
[연기금] 반도체, 소프트웨어, 보험, 은행, 자동차, 조선, 통신 7개 업종만 순매수

반도체, 소프트웨어, 보험, 은행, 자동차, 조선, 통신 7개 업종만 순매수.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IT가전, 2차전지 등 20개 순매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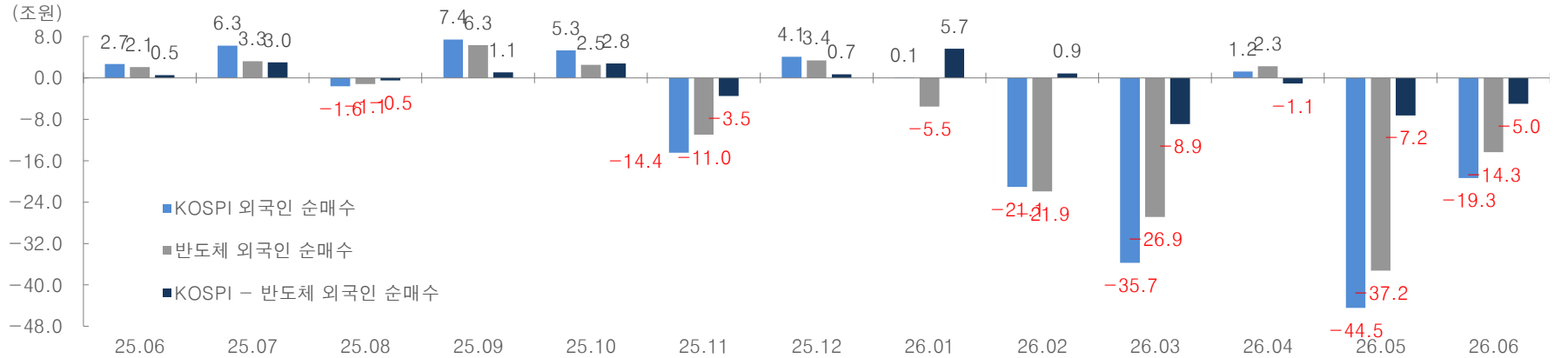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보험, 반도체, 은행, 자동차, 조선 등 매수 강화. IT하드웨어, 미디어/교육, 철강, IT가전, 상사/자본재, 화장품/의류 등 매도 강화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수급] 2개월 연속 순매도. 4거래일만에 KOSPI 19.3조원, 반도체 14.3조원 매도

2개월 연속 순매도. 매도 강도 5월보다 강화, 4거래일만에 19.3조원 매도. Non-반도체는 4개월 연속 순매도 기록 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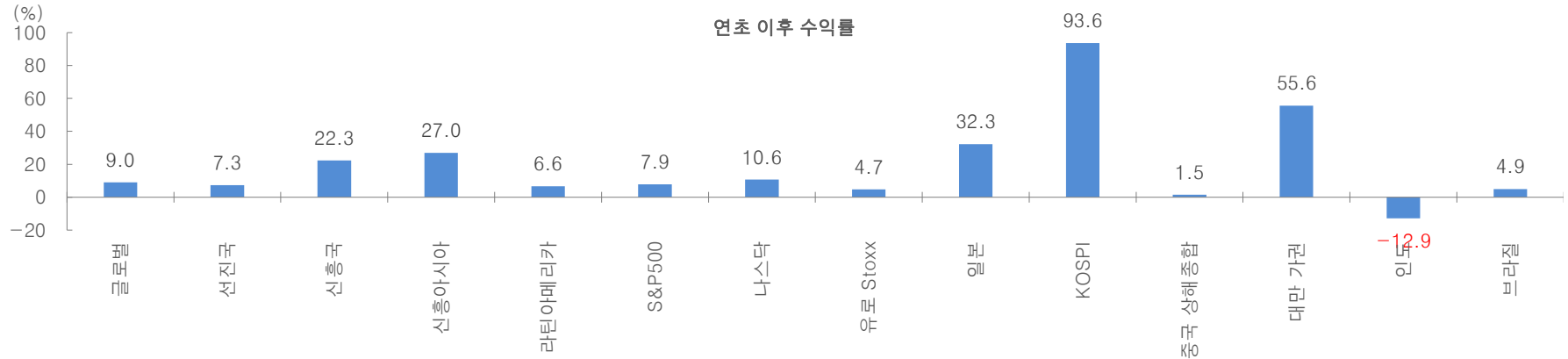
연초 이후 KOSPI 119.2조원 순매도. 5월 4일 대규모 순매수 이후 대규모 순매도 전환. 반도체, Non반도체 동시 순매도, 비중은 Non반도체가 더 커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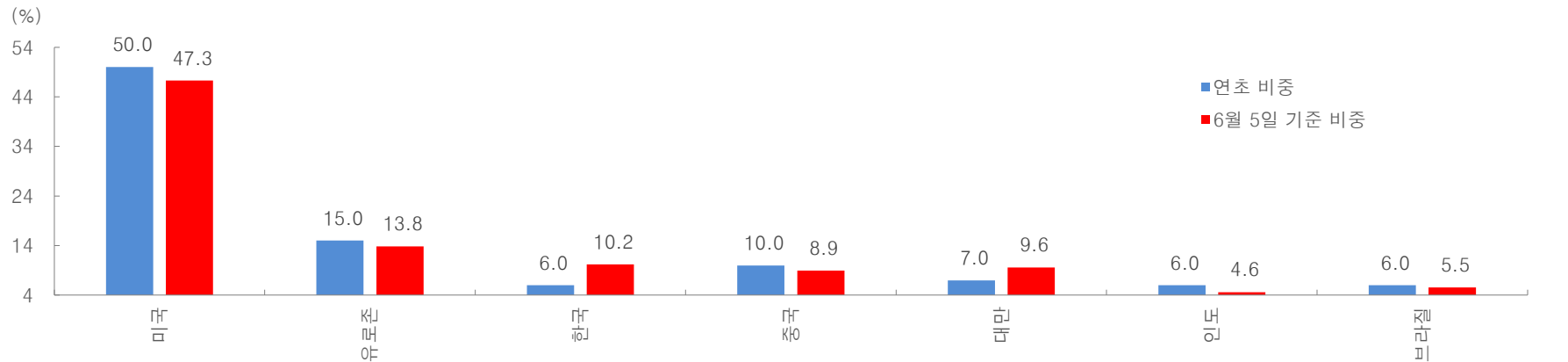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KOSPI 독주, 글로벌 증시대비 초강세로 인해 한국 증시 비중 Overweight 폭 확대

KOSPI만 93.6% 레벨업. 2위인 대만도 55.6%, 3위 일본은 32.3%. 다른 주요국 증시는 10% 이상 상승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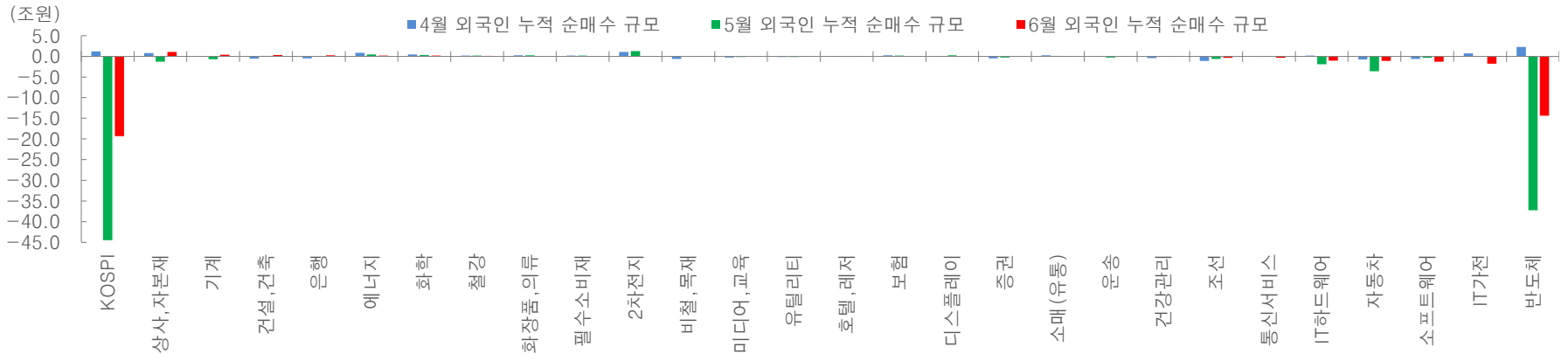
예를 들어 연초 포트폴리오 비중을 미국 50%, 유로존 15%, 한국 6%, 중국 10%, 대만 7%로 셋팅했을 경우 한국은 10.2%로 중국, 대만을 추월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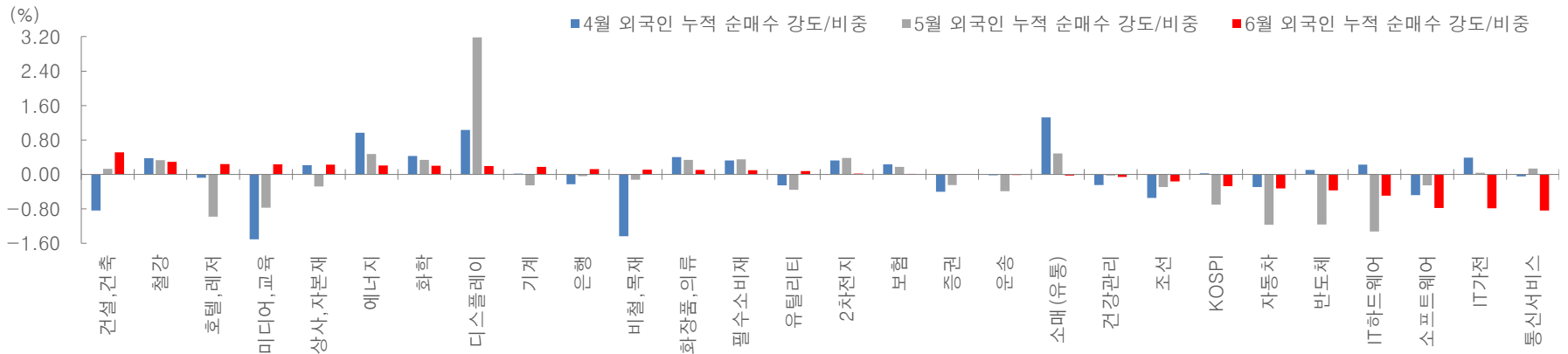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26개 업종 중 17개 업종 순매수. 매도는 단기 급등 업종 중심으로...

상사/자본재, 기계, 건설, 은행, 에너지, 화학, 철강,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 2차전지 등 실적 호전주, 소외주 중심으로 17개 업종 순매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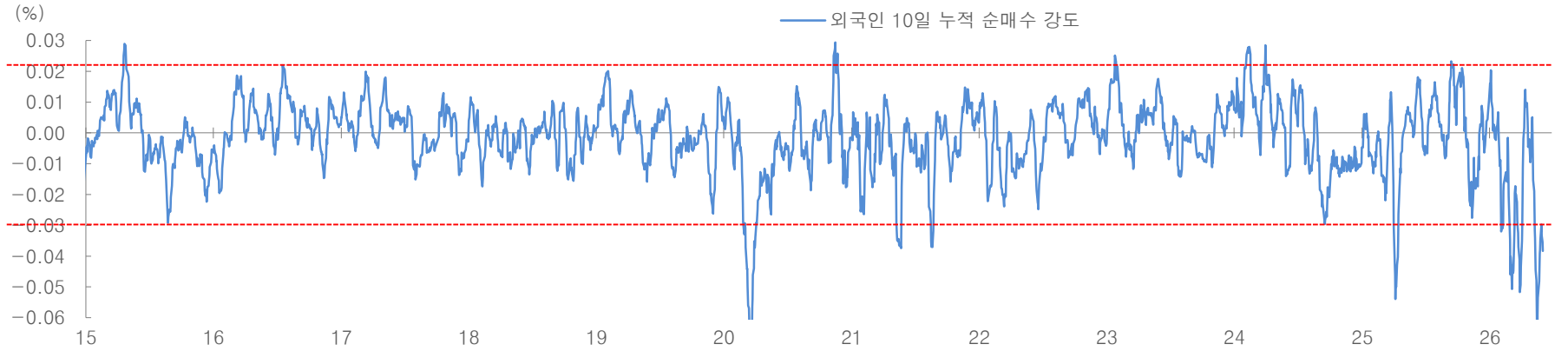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 강도 상위, 건설, 철강, 호텔/레저, 미디어/교육 등 내수, 소외주 중심. 통신, IT가전,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반도체 등 매도 압력 확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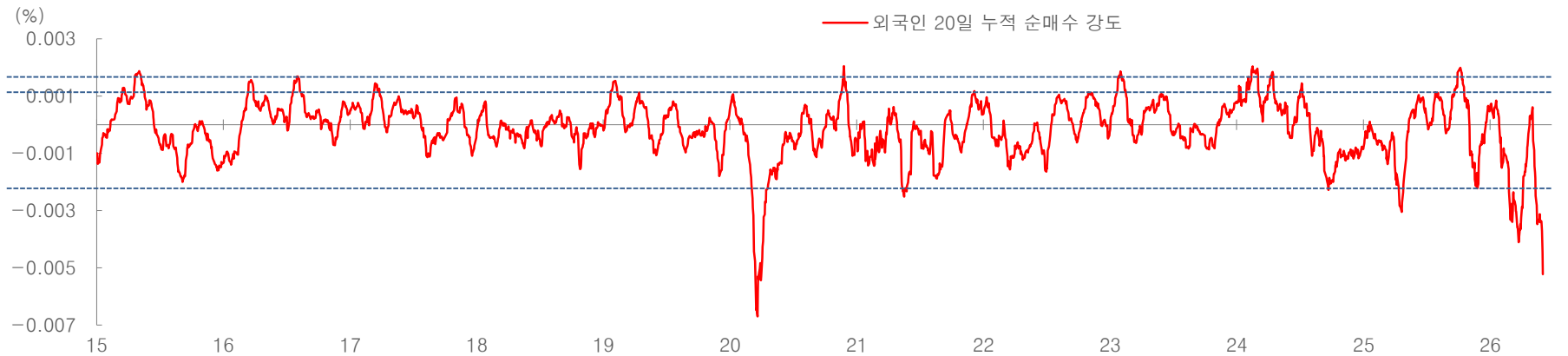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KOSPI, 10일 누적은 매도 Climax 통과, 20일 누적은 매도 Climax를 향하는 중

외국인 10일 누적 순매수 강도. 5월 후반부 매도 Climax 통과 이후 매도 규모 축소 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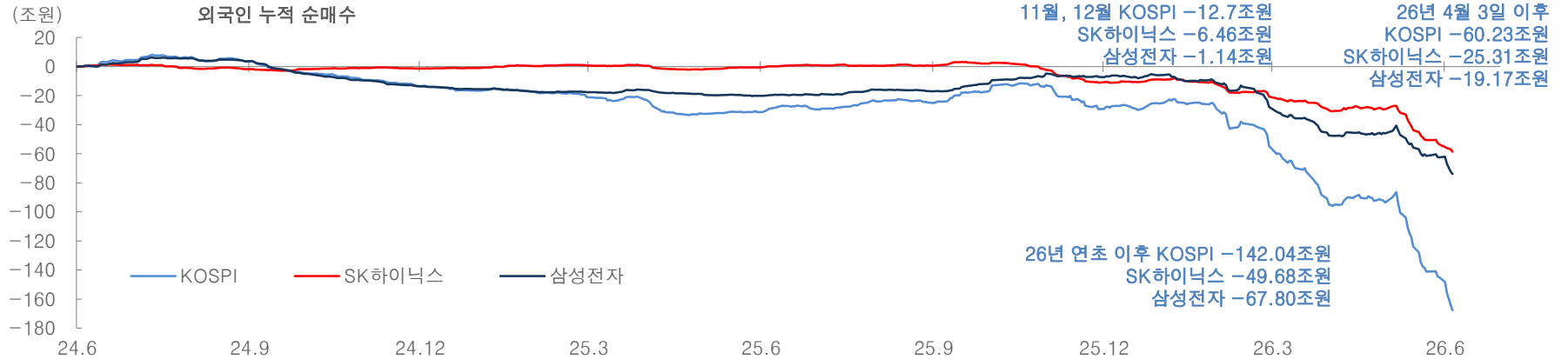
외국인 20일 누적 순매수 강도. 5월초 대규모 순매도로 매수 권역 이탈 이후 추가 매도 압력 확대 중. 매도 Climax를 향하고 있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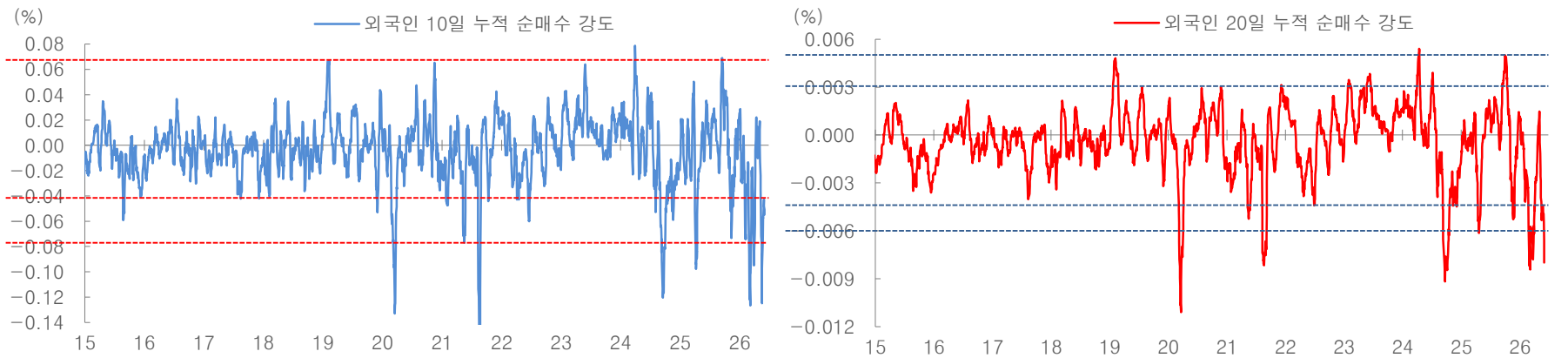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반도체, 10일 매도 Climax 통과, 20일은 아직... 추가적인 매물 소화 국면 감안

NXT 포함 6월초 이후 다시 강해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세. 단기 조정 폭이 크고, 강한만큼 외국인 매도는 진정될 것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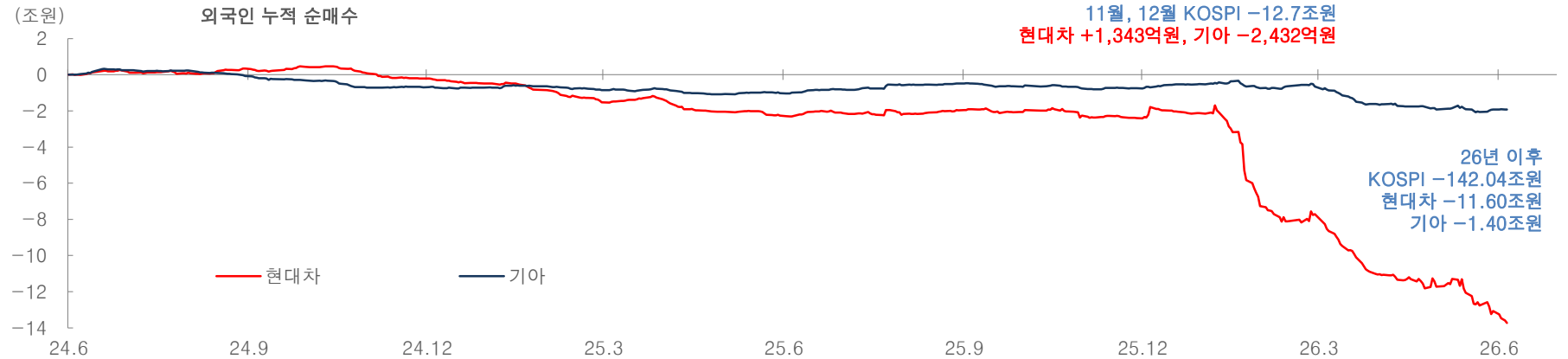
외국인 10일 누적 순매수, 매도 Climax 통과, 20일 누적 순매수는 아직... 리밸런싱 + 금리, 달러 상승에 의한 대규모 매도 압력 확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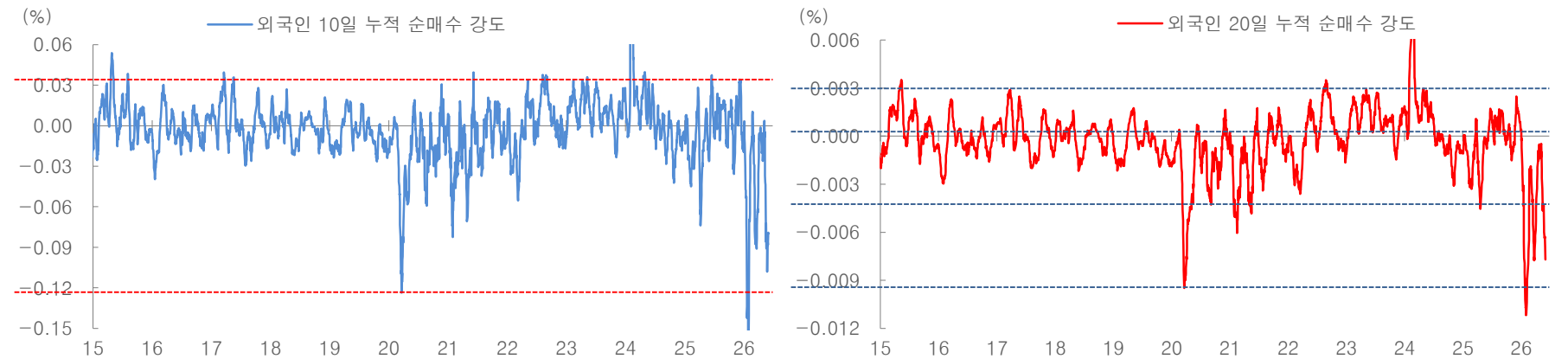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자동차도 2차 매도 Climax 통과 중.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한 상황

NXT 포함 1월 이후 외국인 현대차 11.6조원, 기아 1.4조원 순매도. 자동차 상대적으로 매도 강도는 약해, 특히, 기아는 매매 정체, 소폭 매수 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10일, 20일 누적 순매수 강도 3월 2차 매도 Climax 통과했지만, 다시 한번 매도 Climax를 향하는 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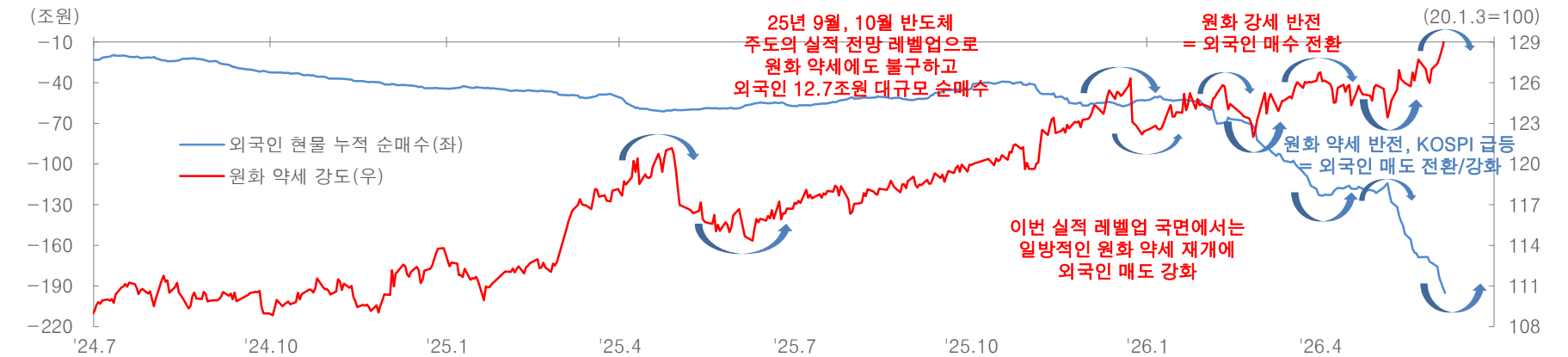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현물 매도 전환에도 외국인 지분을 39% 상회. 리밸런싱 성격의 매도임을 시사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보유 비중 39% 상회, 26년 5월 이후 최고치 경신. 외국인 투자자, 한국 주식 비중 축소 가 아닌 리밸런싱 성격의 매도로 판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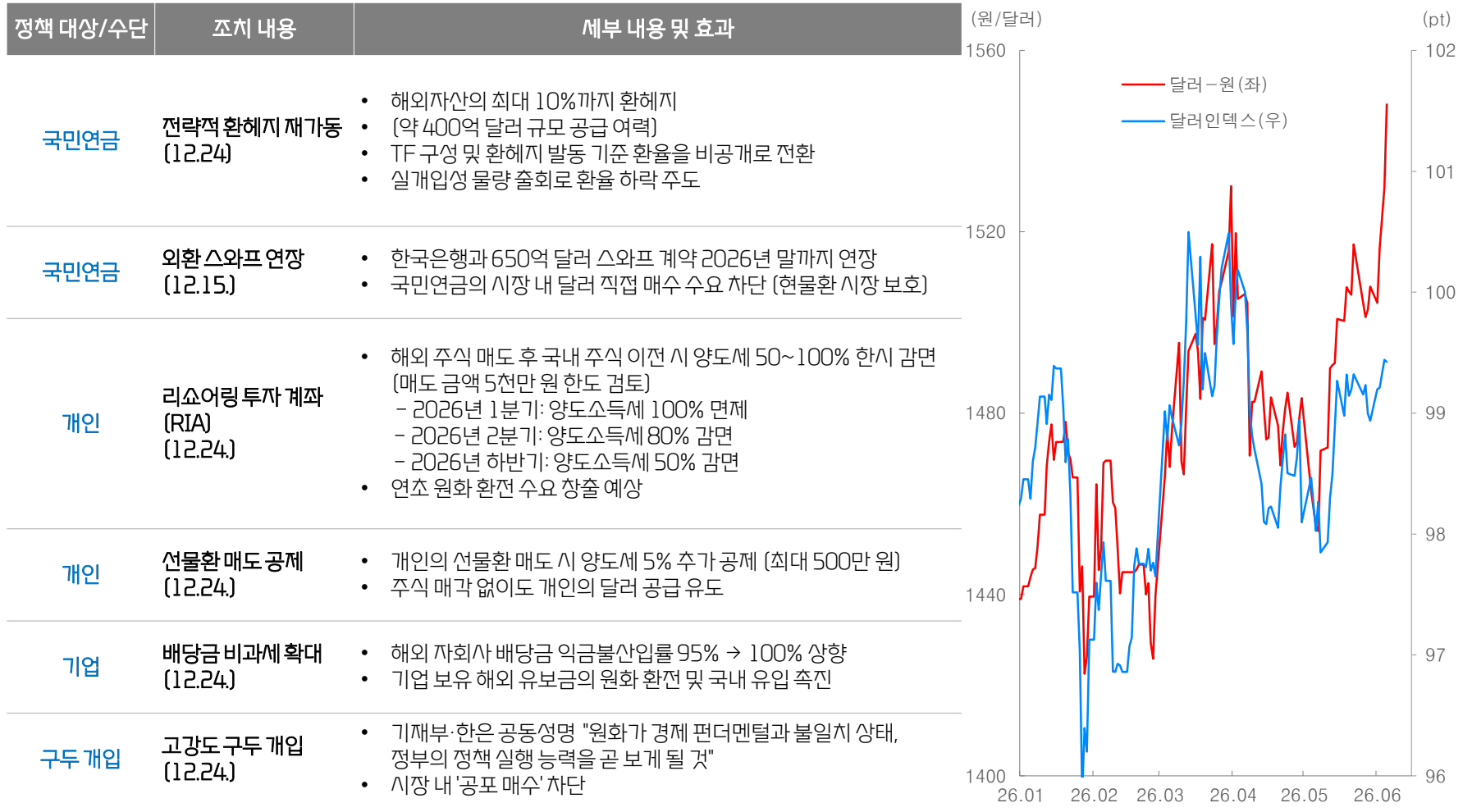
원화 변동성 확대 & 중동 리스크에 대규모 순매도, 원화 약세 반전과 함께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전환. 채권 금리, 원화 변동성이 아킬레스 건



자료: Bloomberg,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달러 환율] 유가 민감도는 낮아졌지만, 이번에는 채권금리 급등. 전고점 돌파

전방위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주요 조치 진행 중.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금리 급등 여파로 1,550원선대 진입 가능성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언론,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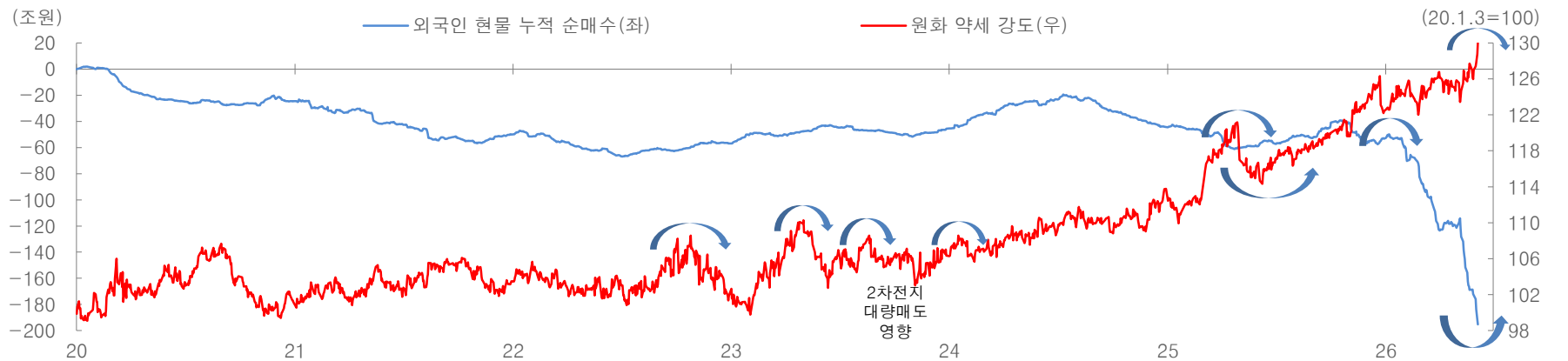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26년 3Q 중 1,400원 초반 전망. 원화 약세 진정, 정상화 시 외국인 순매수 전환

원/달러 환율 단기 급락 이후 되돌림 전개 중. 26년 3Q 중 1,400원선 하회 예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1,500원선 돌파는 단기 오버슈팅으로 판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대비 원화 약세가 꺾이면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 하향안정세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 확대될 것



자료: Bloomberg,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쏟림 현상 심화에 따른 순환매 장세 전개.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에 주목

- KOSPI는 8,000선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지속했으나, ADR(상승 종목 비율, 20MA)은 40%대에 진입. 코로나19 당시 ADR 40.24%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KOSPI의 극심한 쏟림 현상을 시사
-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도 업종은 단기 과열, 상승 누적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급락세를 시현. 주도 업종의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쏟림 현상에 소외되었던 업종의 순환매 장세 전개될 가능성 확대
- 반도체, IT 하드웨어 업종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사이클에 따른 이익 모멘텀 강화로 상승 추세를 지속. 여기에 미국 반도체 업종 강세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시장의 관심 확대되며 쏟림 현상 심화
- 다만 단기 과열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반전했으며, 브로드컴의 가이드언스 부진이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하며 낙폭 확대. 매물 소화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이익 모멘텀이 유효한 주도주를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
- 한편 쏟림 현상 완화됨과 동시에 순환매 전개되며 소매(유통), 보험, 은행 등 강세. 주도 업종 쏟림에 따라 순환매 장세가 연출된 것처럼, 단기 상승은 차익실현 압력을 높일 여지.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단기 변동성 경계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실적 대비 저평가/소외주 중심에 순환매 대응 지속할 필요. 화학, 에너지, 제약/바이오, 증권, 화장품/의류, 건설, 호텔/레저 등은 실적대비 저평가 수준에 위치

[모멘텀] IT하드웨어, IT가전 등 상승 누적에 따른 과열 부담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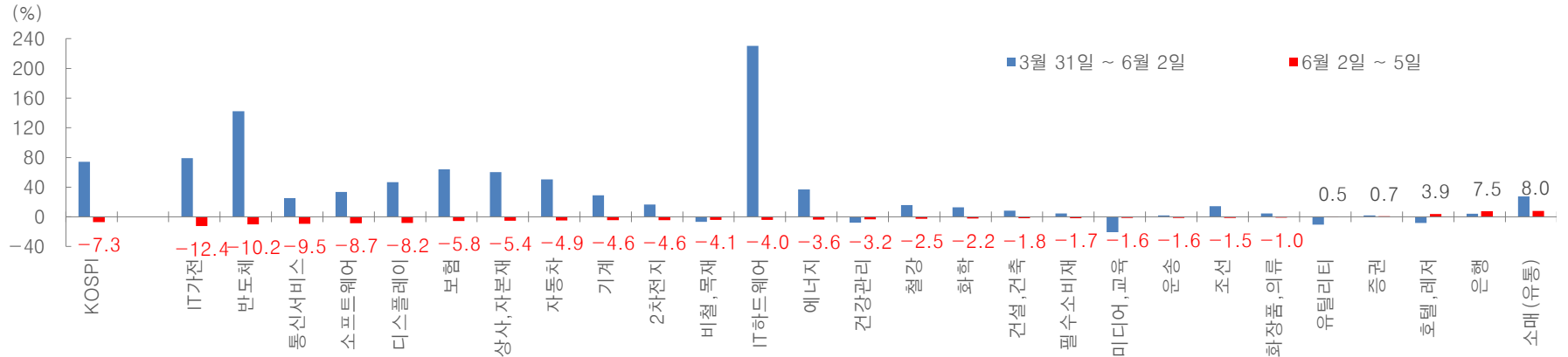
모멘텀 상위 업종: 소매(유통), 은행, 보험 업종 순환매 전개되며 강제 뚜렷

주요 지수	현재가 (b)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8,161	-5.5	-3.7	17.6	46.1	99.0	190.2	93.7	
에너지	7,740	-4.5	-5.2	-2.6	19.0	54.8	102.9	62.4	
화학	5,183	-3.5	-7.5	-19.1	8.7	7.3	56.7	15.9	
비철, 목재	6,638	-3.7	-7.7	-22.6	-25.9	-8.5	39.2	-6.2	
철강	2,667	-3.2	-8.2	-22.3	9.1	21.8	40.9	22.9	
건설, 건축	2,450	-2.9	-8.9	-19.5	14.7	55.5	63.0	61.2	
기계	13,331	-4.1	-7.7	-23.9	18.8	39.1	133.7	48.8	
조선	9,717	-1.1	-5.8	-15.5	0.8	7.9	46.3	11.5	
상사, 자본재	6,514	-6.5	-2.8	3.2	30.7	97.4	153.8	87.6	
운송	1,784	-1.4	-4.8	-5.9	-8.9	3.0	2.3	1.2	
자동차	21,000	-2.2	-5.1	24.5	22.0	72.2	152.1	77.1	
화장품, 의류	5,575	-1.8	-1.4	-10.9	7.4	9.3	16.1	13.7	
호텔, 레저	1,907	2.2	1.6	-10.5	-11.1	-15.2	-2.5	-17.5	
미디어, 교육	553	-1.7	-3.3	-15.5	-30.3	-24.6	-22.3	-29.9	
소매(유통)	3,214	-0.4	12.3	11.6	39.5	55.2	68.1	59.5	
필수소비재	7,333	0.7	-2.9	-6.6	5.2	6.1	13.2	7.7	
건강관리	9,102	-1.8	-5.3	-9.8	-16.5	-13.0	10.7	-14.0	
은행	3,380	4.0	9.9	2.1	6.6	23.0	56.5	26.3	
증권	3,339	-1.6	-0.4	-13.5	-4.2	48.5	82.1	48.7	
보험	18,044	-4.7	9.4	36.3	44.1	71.9	108.5	73.7	
소프트웨어	7,736	-3.7	-0.3	13.0	14.7	5.3	26.9	8.0	
IT하드웨어	5,712	0.4	-16.5	64.1	219.8	296.0	662.3	316.9	
반도체	60,399	-7.9	-3.3	41.4	88.5	231.2	566.1	190.7	
IT가전	3,710	-5.9	-9.2	5.6	61.3	75.2	172.9	100.3	
디스플레이	884	-5.1	-5.0	16.4	25.8	12.1	56.6	25.4	
통신서비스	515	-1.9	2.9	0.4	14.9	37.6	46.8	40.2	
유틸리티	1,204	-1.5	-2.9	-17.7	-18.1	-19.4	23.8	-11.3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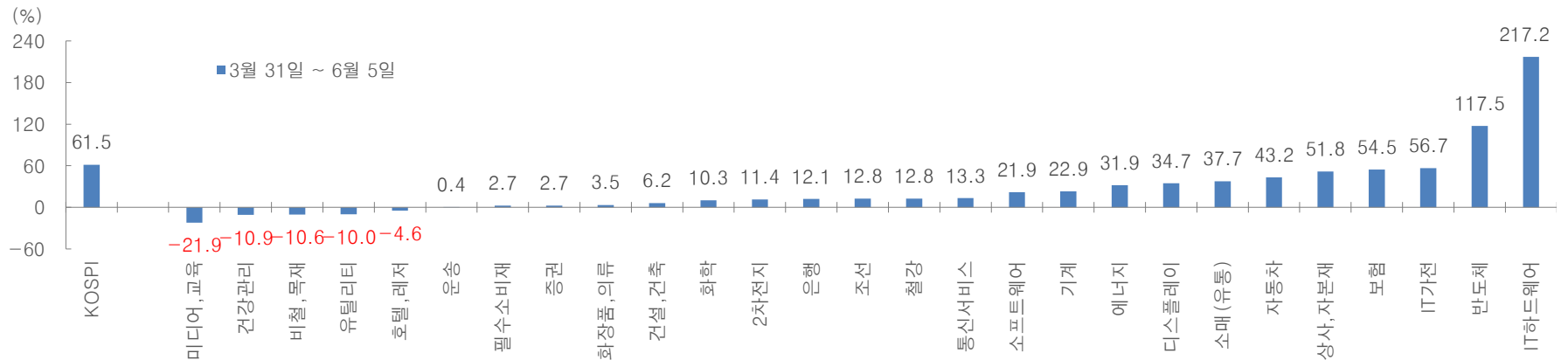
[가격 부담 vs 메리트] 상승폭 컸던 업종들의 낙폭도 커... 상대적 약세, 마이너스 수익률 주목

3월말 이후 상승 국면에서 상승 폭이 컸던 IT가전, 반도체, 보험, 상사/자본재 등 낙폭 커. 내수주, 소외주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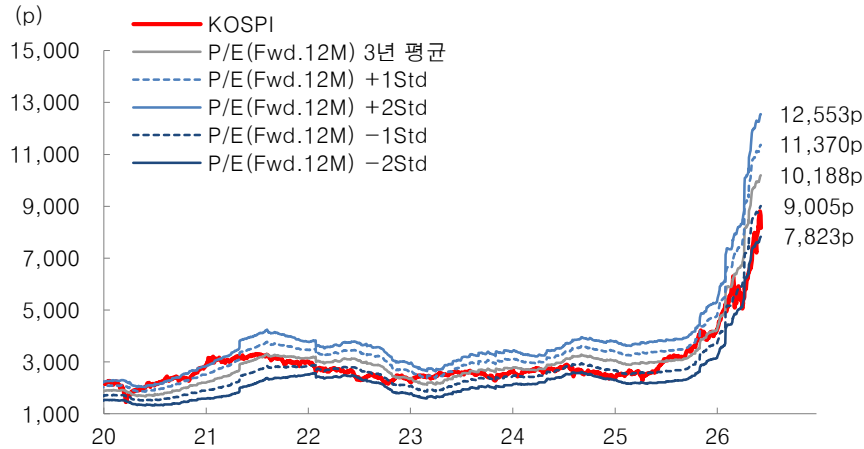
6월 조정에도 IT하드웨어, 반도체, IT가전 등은 가격 부담 여전. 미디어/교육, 건강관리, 비철/목재, 유틸리티, 호텔/레저는 마이너스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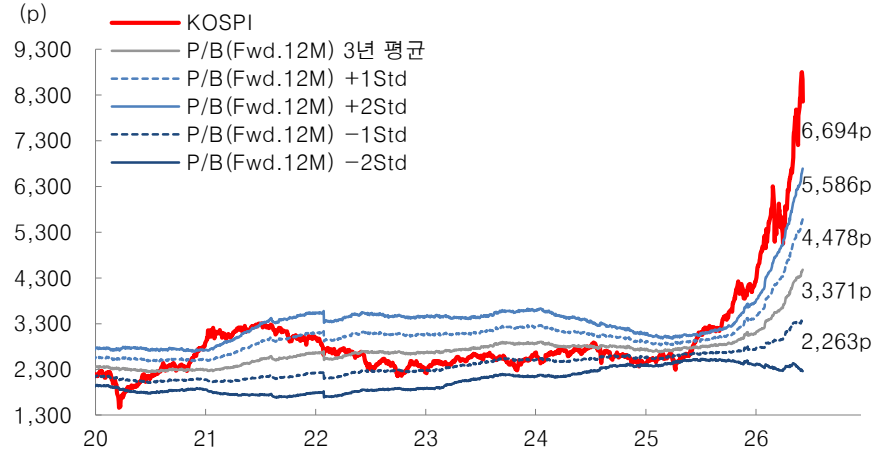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밸류에이션] 코스피 선행 EPS 상승 추세 지속, 선행 PER 재차 Deep Value 구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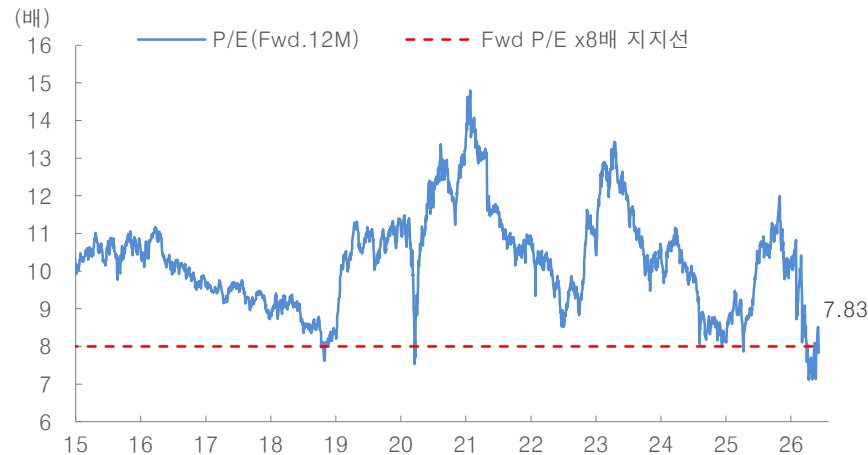
12개월 선행 PER Band, 선행 EPS 1,042.2pt로 상승 추세 지속



12개월 선행 PBR Band, 밸류에이션 Re-rating 진행 중



12개월 선행 PER 7.83배, 다시 Deep Value 구간으로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2개월 선행 PBR, 1.83배 수준으로 재차 하락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이익 모멘텀] 화학,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IT 가전 등 이익 모멘텀 강화

주간 이익 전망 증가 상위 업종: 화학, 디스플레이, IT하드웨어, IT가전, 반도체 등

업종	순이익 컨센서스(조원)				주간변화(%)			증감금액(억원)	밸류에이션 (12M Fwd.)			
	12M Fwd	FY1	FY2	FY2/FY1(%)	12M Fwd	FY1	FY2	12M Fwd	P/E	PEG	P/B	ROE
KOSPI	749.2	659.4	839.1	27.3	2.9	0.2	1.5	208,061	8.4	0.3	1.9	11.9
화학	2.4	1.3	3.6	180.1	8.7	0.0	0.1	1,942	30.4	0.2	1.0	3.3
디스플레이	0.7	0.5	1.0	93.3	5.6	0.0	0.0	388	11.0	0.1	1.0	9.1
IT하드웨어	3.2	2.6	3.9	49.4	5.5	0.6	3.3	1,682	52.0	1.1	7.0	1.9
IT가전	3.2	2.4	4.0	69.5	4.5	0.0	0.0	1,378	60.4	0.3	2.9	1.7
반도체	580.0	501.8	658.2	31.2	3.3	0.2	1.9	186,468	6.4	0.2	2.8	15.7
미디어,교육	0.4	0.3	0.4	40.7	2.9	-0.3	0.3	99	20.7	0.3	1.5	4.8
철강	2.6	2.2	3.0	34.1	2.5	0.0	0.0	632	15.0	0.4	0.5	6.6
호텔,레저서비스	0.6	0.6	0.7	21.9	2.4	1.3	0.1	149	11.5	0.5	1.0	8.7
기계	5.4	4.7	6.2	31.7	2.3	-0.1	0.0	1,224	40.0	1.3	5.3	2.5
운송	4.8	4.1	5.4	32.3	2.2	-0.1	-0.3	1,011	10.7	0.3	0.8	9.3
보험	9.4	8.6	10.2	18.5	1.9	-0.1	1.2	1,743	14.9	0.8	0.9	6.7
유틸리티	8.3	7.3	9.2	24.6	1.9	0.0	0.0	1,508	4.5	0.2	0.5	22.1
소매(유통)	1.8	1.7	2.0	20.9	1.6	0.0	0.0	293	12.6	0.6	0.5	7.9
상사,자본재	12.9	11.5	14.4	25.3	1.5	-0.5	-0.4	1,855	23.0	0.9	1.8	4.4
조선	9.6	8.8	10.4	18.4	1.4	0.0	0.0	1,352	14.4	0.8	3.1	6.9
건강관리	4.5	4.2	4.9	16.2	1.3	0.0	0.1	580	27.0	1.6	3.0	3.7
화장품,의류,완구	3.7	3.4	4.0	18.0	1.0	-0.2	-0.6	377	11.5	0.8	1.4	8.7
소프트웨어	6.6	6.1	7.1	15.0	1.0	-0.2	-0.2	644	21.2	1.3	1.8	4.7
필수소비재	3.9	3.7	4.1	10.9	0.9	0.1	0.0	358	11.0	1.0	1.1	9.1
자동차	27.3	25.9	28.6	10.4	0.8	0.1	-0.1	2,230	11.0	1.1	1.0	9.1
통신서비스	3.5	3.4	3.7	9.0	0.7	0.0	0.0	254	12.4	1.4	1.0	8.1
건설,건축관련	3.7	3.6	3.8	6.7	0.6	0.1	0.1	225	11.7	1.8	1.0	8.5
증권	12.5	13.1	11.9	-9.0	0.5	1.2	1.3	572	7.8	-	1.3	12.7
은행	22.4	21.8	23.0	5.2	0.4	0.0	0.0	942	8.0	1.4	0.7	12.6
에너지	14.2	14.3	14.1	-1.5	0.1	0.4	0.1	193	7.1	-	1.0	14.1
비철,목재등	1.5	1.5	1.5	-3.0	-0.3	0.0	0.0	-38	19.8	-	1.9	5.1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적대비 주가 수준] 화학, IT하드웨어, 기계 등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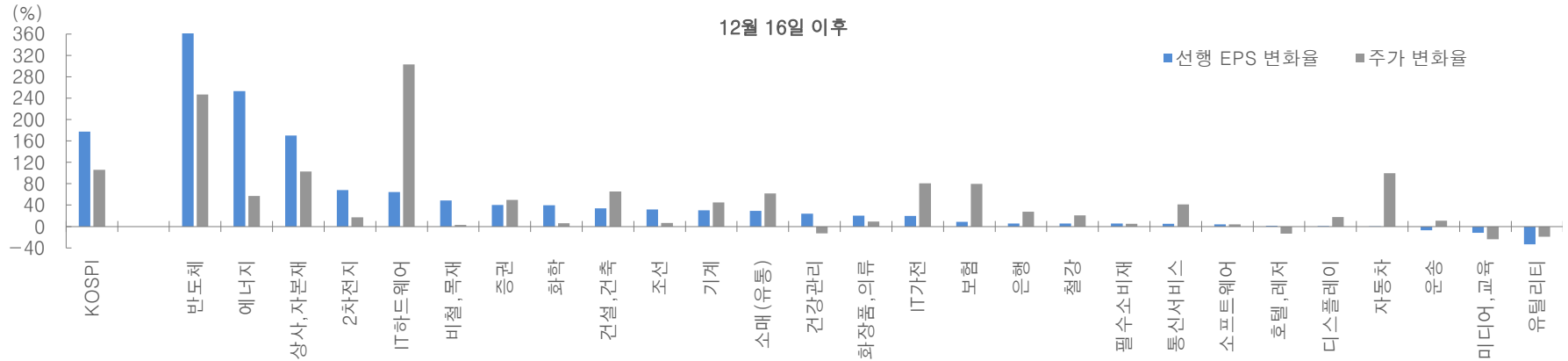
이익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 보험, 소프트웨어, 소매(유통), 통신서비스 등

업종	주간변화 (%)				월간변화 (%)				3M 변화 (%)			
	12M Fwd	수익률	OP변화율	수익률	12M Fwd	수익률	OP변화율	수익률	12M Fwd	수익률	OP변화율	수익률
KOSPI	2.9	5.7		-2.9	9.1	30.6		-21.5	69.1	56.3		12.9
화학	8.7	-2.5		11.1	15.0	-15.2		30.1	161.7	14.7		147.0
IT하드웨어	5.5	-4.4		9.9	11.1	67.7		-56.6	40.0	243.7		-203.7
기계	2.3	-5.6		7.9	3.8	-21.3		25.1	11.0	25.8		-14.8
운송	2.2	-5.1		7.3	2.8	-6.2		9.0	-4.9	-9.3		4.5
조선	1.4	-5.9		7.3	9.0	-11.8		20.8	14.8	4.0		10.8
철강	2.5	-4.4		6.9	1.0	-19.5		20.4	5.7	10.7		-5.0
미디어,교육	2.9	-2.6		5.5	2.4	-13.5		15.9	-11.6	-30.2		18.6
필수소비재	0.9	-4.2		5.1	4.1	-11.5		15.6	5.0	-0.4		5.4
건강관리	1.3	-3.7		5.0	0.1	-8.5		8.6	9.3	-17.4		26.7
건설,건축관련	0.6	-4.0		4.7	8.3	-16.7		25.0	24.3	25.7		-1.4
유틸리티	1.9	-2.0		3.9	-20.6	-16.1		-4.5	-32.6	-16.4		-16.2
비철,목재등	-0.3	-4.1		3.8	-9.4	-19.7		10.4	0.6	-26.2		26.8
호텔,레저서비스	2.4	-0.5		2.9	3.4	-11.1		14.5	-2.6	-13.4		10.8
IT가전	4.5	2.2		2.3	7.8	4.3		3.5	48.6	46.7		1.9
화장품,의류,완구	1.0	-0.4		1.5	3.0	-8.1		11.2	14.1	10.4		3.7
증권	0.5	0.1		0.3	8.1	-11.7		19.8	17.4	-5.5		22.9
에너지	0.1	0.9		-0.7	60.5	2.8		57.7	125.3	23.7		101.6
상사,자본재	1.5	3.6		-2.1	1.6	-2.9		4.5	1.3	6.4		-5.1
자동차	0.8	3.6		-2.8	0.5	28.5		-28.0	-1.8	25.1		-27.0
은행	0.4	5.8		-5.3	0.6	-1.9		2.6	3.4	1.4		2.0
반도체	3.3	9.2		-5.8	10.2	54.4		-44.2	101.2	104.6		-3.4
디스플레이	5.6	11.8		-6.2	5.6	31.0		-25.3	-4.4	38.6		-43.1
통신서비스	0.7	8.7		-7.9	-0.1	1.6		-1.7	0.8	16.0		-15.2
소매(유통)	1.6	13.0		-11.4	9.8	15.0		-5.2	18.3	45.0		-26.8
소프트웨어	1.0	14.9		-13.9	3.0	24.0		-20.9	2.9	26.8		-23.9
보험	1.9	20.5		-18.6	11.9	47.3		-35.4	12.7	57.6		-44.9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적대비 주가] 8,000 돌파시도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 이후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12개

선행 EPS 상승에도 주가 부진 : 반도체, 에너지, 상사/자본재, 2차전지, 비철/목재, 화학, 조선, 건강관리 등. 유틸리티, 미디어/교육 등 EPS 하락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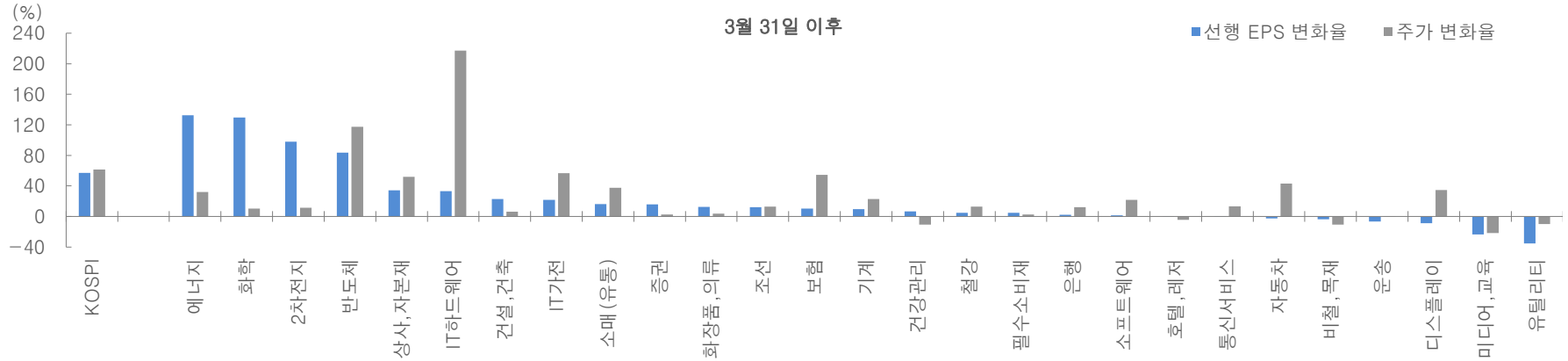
실적 개선 + 실적 대비 저평가: 에너지, 반도체, 상사/자본재, 2차전지, 비철/목재, 건강관리, 화학, 조선, 호텔/레저, 미디어/교육 등 12개 업종 저평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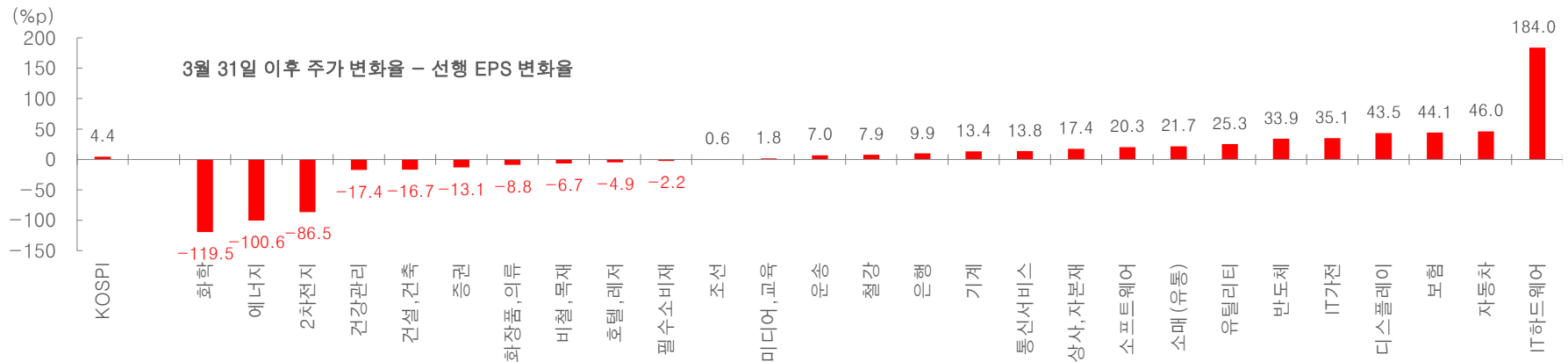
[실적대비 주가] 3월 31일 저점 이후로는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10개에 불과

EPS 상승에도 주가 약세 : 에너지, 화학, 2차전지, 건설, 증권, 화장품/의류, 건강관리 등. 유틸리티, 미디어/교육, 디스플레이, 운송 등 EPS 하락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적 개선 + 실적 대비 저평가: 화학, 에너지, 2차전지, 건강관리, 건설, 증권 등. 반도체 실적대비 고평가 영역으로 전환. 2차전지, 자동차 등 변동성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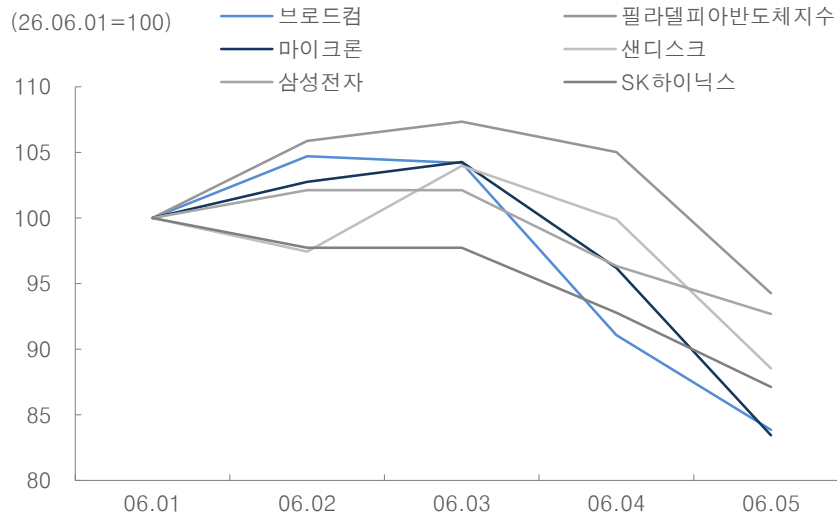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브로드컴 가이드선으로 위축된 투자심리,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투자 사이클

- 브로드컴은 FY2026 2분기 실적으로 매출 222억달러(+48% YoY), 영업이익 149억달러(+52% YoY)를 발표. 핵심인 AI 매출은 전년대비 +143% 성장하며 컨센서스에 부합. 다만 **3분기 AI 매출 가이드선이 160억 달러로 예상치 172억달러를 하회**
- 브로드컴의 부진한 가이드선으로 반도체 이익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12.6%), 마이크론(-7.7%), AMD(-3.6%), 샌디스크(-3.9%) 등 반도체 업종 낙폭 뚜렷. 이는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6월 10일에는 오라클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다른 빅테크 실적과 마찬가지로 AI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AI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누적된 자본 지출 우려가 부각되며 약세 전개할 가능성 높음
- 최근 알파벳은 800억달러 유상증자를 발표한 후, 증자 규모를 847.5억달러로 확대하며 자본 지출 우려가 확대. 그렇기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로 AI 투자 피크아웃 및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필요**

브로드컴 가이드선 부진으로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오라클은 가이드선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 수익성을 증명할 필요

Alphabet to raise \$84.75 billion in upsized equity offering to fund AI ambitions

By Reuters

June 4, 2026 12:36 AM GMT+9 · Updated June 4,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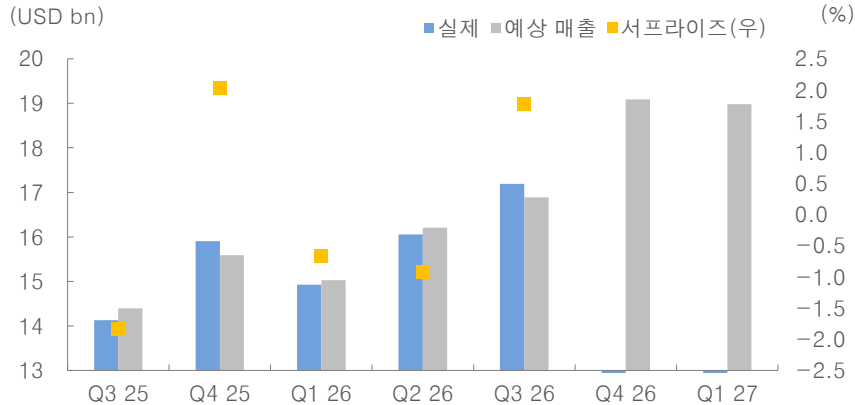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80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 발표
- 이후 규모를 847.5억달러로 확대하며 자본 지출 우려 확대
-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도 AI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지출 우려를 확인할 시 투자심리 위축될 가능성 높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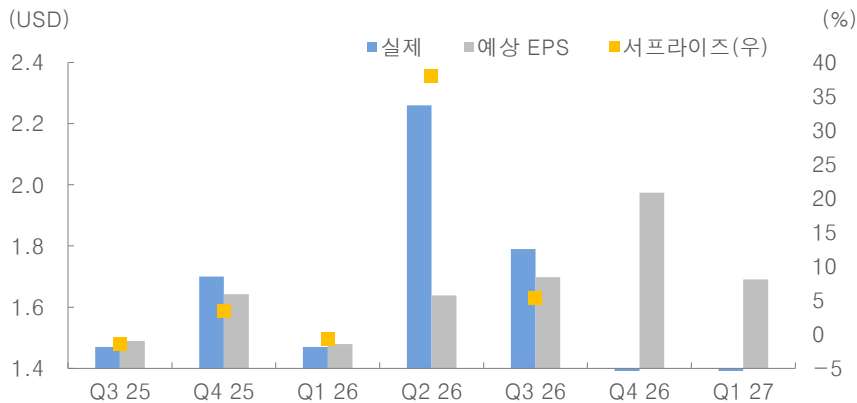
6월 10일 오라클 실적 발표, AI 투자와 수익성의 확인 필요

오라클 2026회계연도 4분기 매출 191억달러 예상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PS 1.97달러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오라클은 가이드언스 뿐만 아니라, 투자 자금, 수익성을 증명할 필요

Oracle shares fall as investors assess AI funding plan

Software company aims to raise up to \$50bn for expansion of cloud infrastructure

February 02, 2026 at 3:40 pm

- 최근 오라클은 AI 투자 자금 조달, 부채 우려로 주가 하락
- AI 투자를 위한 사모 신용 문제 확대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자료: BusinessDa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구글의 유상증자는 AI 자본지출 우려를 확대

Alphabet to raise \$84.75 billion in upsized equity offering to fund AI ambitions

By Reuters

June 4, 2026 12:36 AM GMT+9 · Updated June 4,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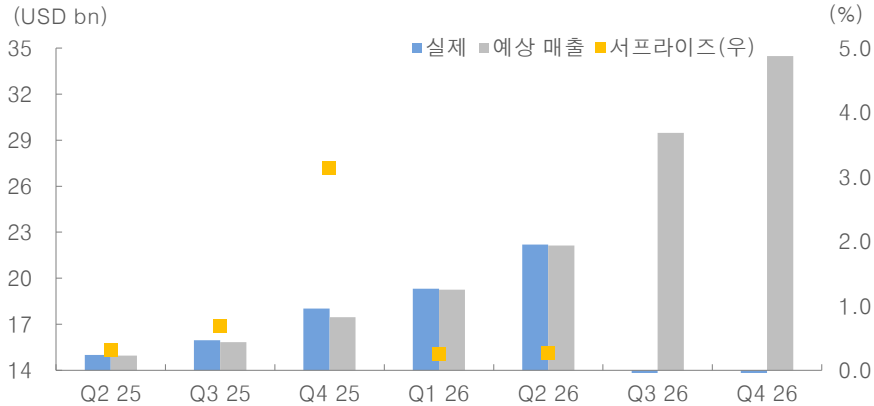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80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 발표
- 이후 규모를 847.5억달러로 확대하며 자본지출 우려 확대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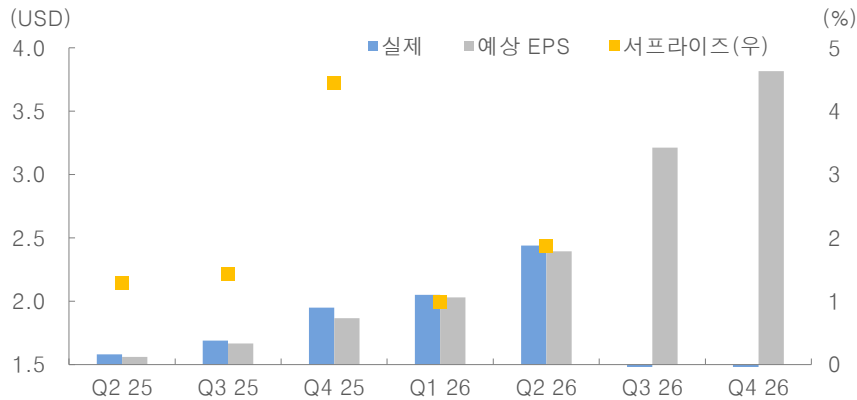
브로드컴 실적 발표 후 부진한 가이드언스로 주가 급락, 반도체 투자심리 훼손

브로드컴 2분기 매출 221.9억달러 기록하며 예상치 부합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브로드컴 2분기 EPS 2.44달러 기록하며 예상치 상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브로드컴의 AI 매출 가이드언스 부진으로 투자심리 후퇴

Broadcom's sales and AI chip forecast comes in below expectations, shares tumble

By Anhata Rooprai, Zaheer Kachwala and Stephen Nel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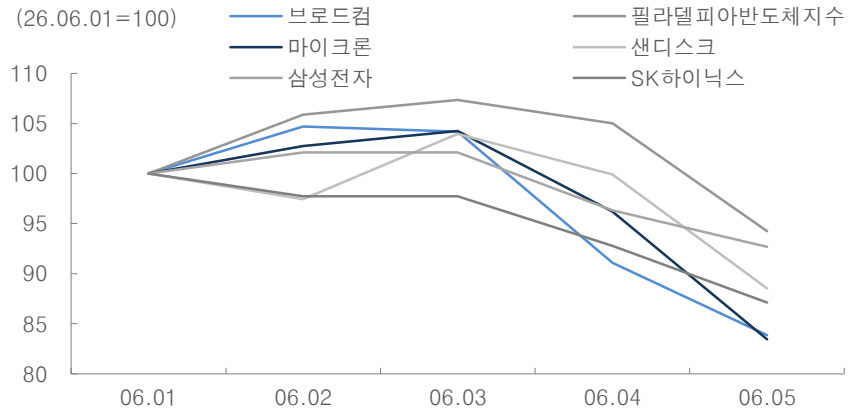
June 4, 2026 5:18 AM GMT+9 · Updated June 4, 2026



- 3분기 AI 매출 가이드언스로 160억 달러 제시
- 시장 예상치 172억 달러를 하회하며 투자심리 약화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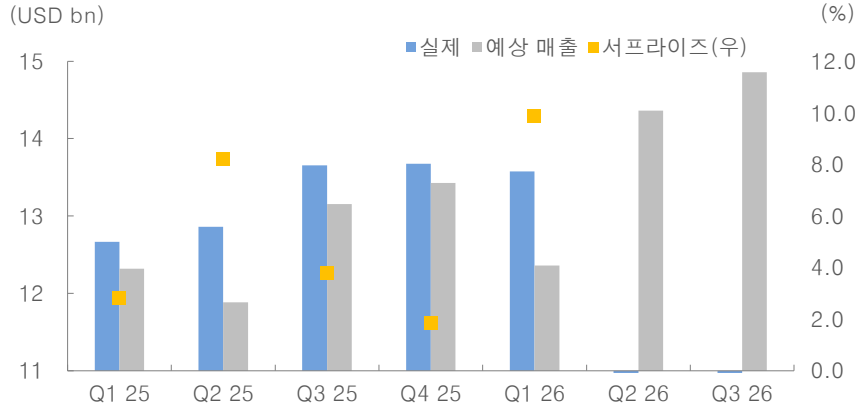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약화되며 급락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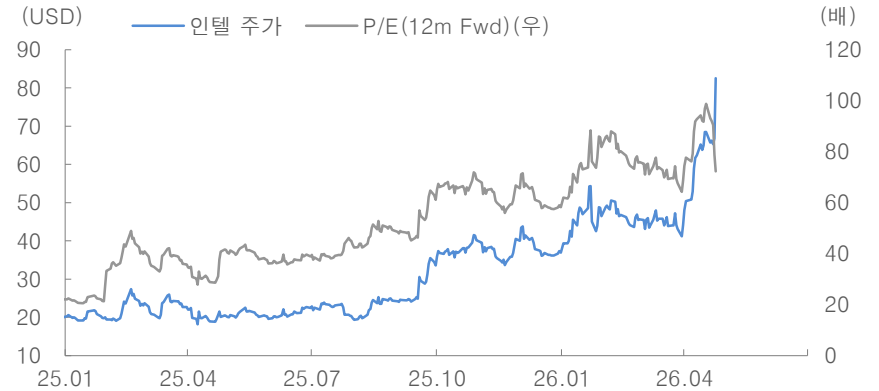
인텔 AI 데이터센터 수요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주가 24% 급등

인텔 26년 1분기 매출 135.8억달러 발표. 예상치 124.2억달러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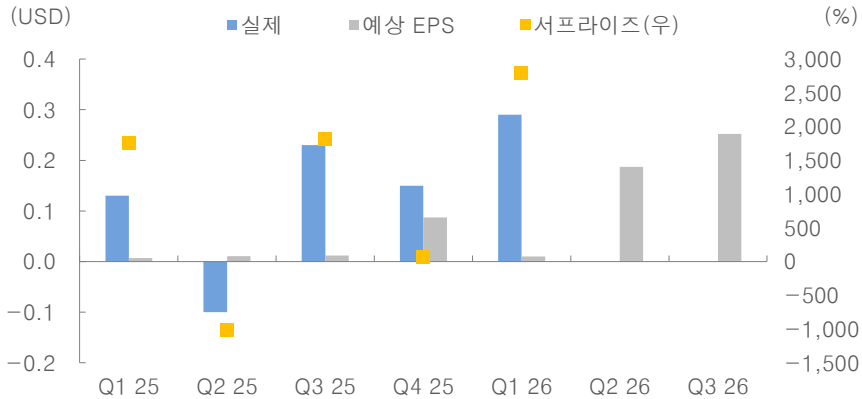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24% 급등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텔 26년 1분기 EPS 29센트 발표. 예상치 1센트 큰 폭 상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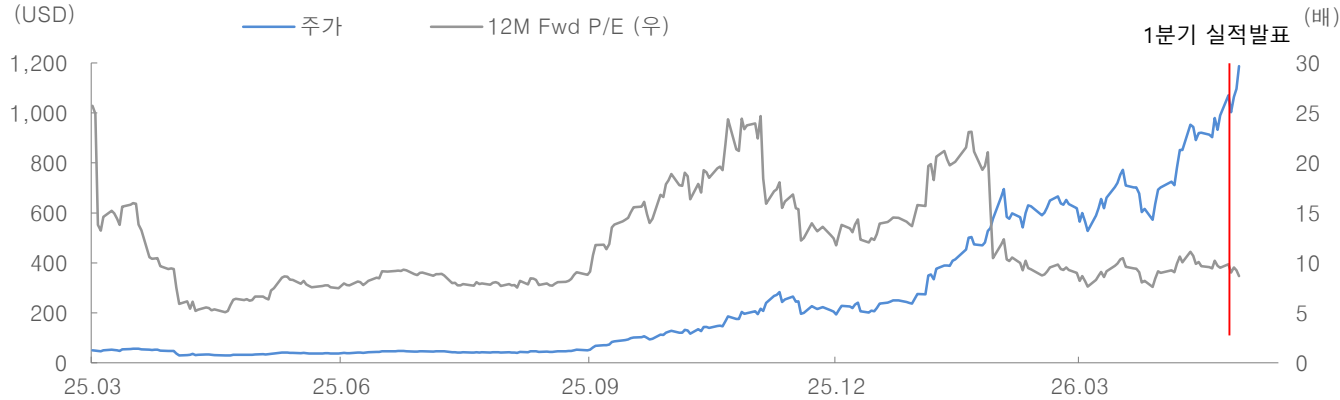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향 반도체 매출 증가, 가이드던스도 긍정적

-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 51억달러로 전년 대비 22% 상승
- AI 인프라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
- AI 형 CPU 수요 확대도 긍정적인 상황
- 2분기 실적 가이드던스로 매출 138~148억달러 제시
- 기존 예상치 130억달러를 상회
- 2분기 EPS로는 20센트를 제시했고, 예상 EPS 9센트 상회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샌디스크 실적 발표, 강한 수요 증명하며 주가 급등

샌디스크 주가 추이



- 샌디스크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6%대 급락
- 이후 8%대 급등하며 견조한 주가 흐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샌디스크 실적 발표 Q&A

- 데이터센터 부문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 중. 2026년 데이터센터 성장 전망을 기존 40%대에서 70% 중반까지 상향
- 2027년 출하량의 1/3이 장기계약으로 확보됐고, 해당 비중은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격 고정·변동 구조를 통해 NAND 사이클 변동성을 낮추고 수익성을 방어할 계획
- eSSD 비중은 25% 정도이며, 이후 비중을 늘려갈 계획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요 IB 샌디스크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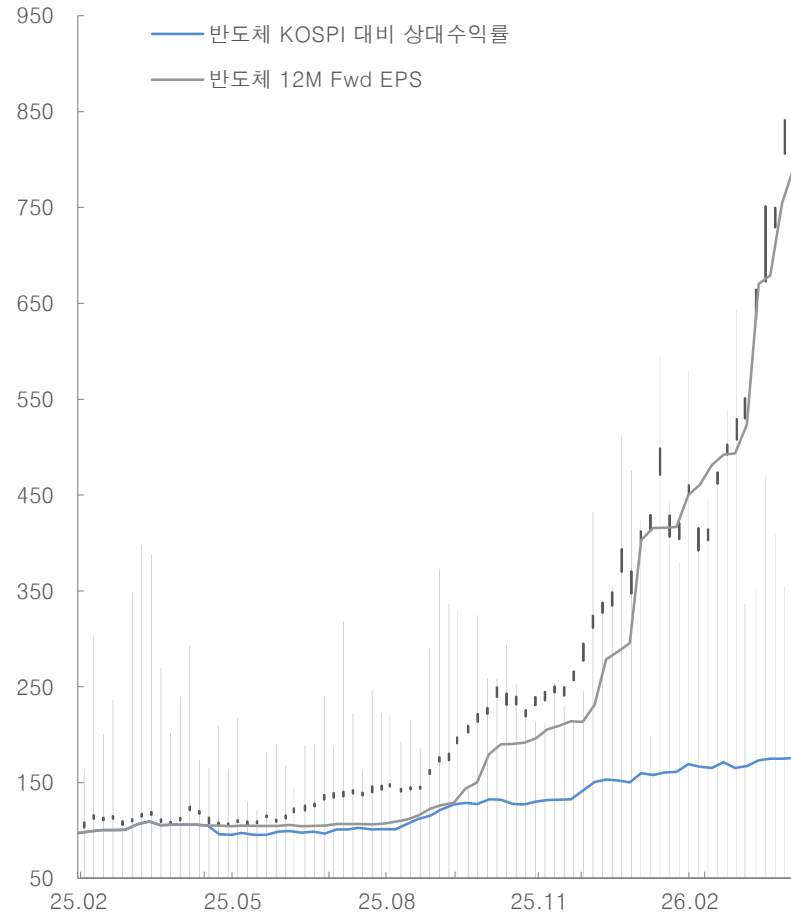
- Bofa: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550달러로 상향
- Citi: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300달러로 상향
- Bernstein: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700달러로 상향
- 골드만삭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200달러로 상향
- Cantor Fitzgerald: 비중확대, 목표주가 1,800달러로 상향

자료: 언론 종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 빅테크 투자 사이클, 호실적은 국내 반도체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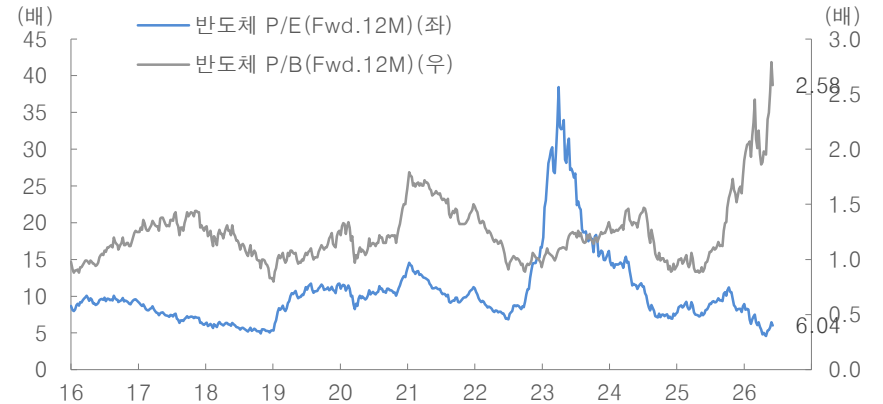
주도 업종 쏠림 현상으로 급등세 시현, 단기 과열 우려로 하락 전환

(25.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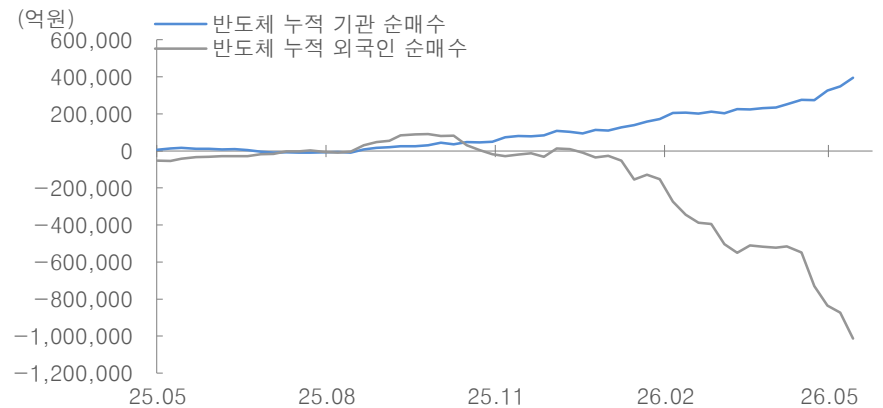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선형 P/E 6.04배로 소폭 반등, 여전히 저평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투자자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 출회 지속, 기관 순매수 확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젠슨 황 CEO의 삼포회동으로 피지컬 AI 모멘텀 부각, 단기 과열은 경계할 필요

- 6월 5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방문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 젠슨 황 CEO는 입국 직후 한국에 몇 가지 선물을 가져왔다고 언급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회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특히 지난해 11월 AI 인프라 구축을 논의했던 이른바 '1차 간부회동' 이후 약 7개월 만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후속 협력 발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
- 이번 방한은 단순한 HBM 공급망 점검을 넘어 피지컬 AI 산업 전반에 대한 엔비디아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HBM4 공급망 인증 완료와 베라 루빈 양산 계획을 언급. 또한 **한국을 로보틱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하며 피지컬 AI와 제조 AI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한국 R&D센터 채용을 시작했다며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뛰어난 전문성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
- 지난해 1차 간부회동이 AI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방한은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 특히 LG전자의 휴머노이드 사업, 현대차의 로보틱스 및 스마트팩토리, 네이버의 소버린 AI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
- 다만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 젠슨 황 CEO의 방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피지컬 AI, 로봇,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 급등한 후 과열 우려에 따라 차익매물 출회된 상황. 실제 협력 발표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 성과 도출이 지연될 경우 낙폭 확대될 우려 존재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삼포회동



자료: 한국경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인터뷰 주요 내용

- 삼성, SK, 현대차, LG,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과 회동을 진행
-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에 진입, 한국 공급망과 협력을 강화
- 로보틱스·피지컬 AI를 한국의 핵심 기회로 평가
- 한국 R&D센터 채용 시작, 로보틱스 연구개발 투자 적합
- 삼성·SK뿐 아니라 현대차·LG·네이버까지 협력 범위 확대

자료: 언론 종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젠슨 황 CEO의 한국 방문, 국내 기업과의 AI 협력에 주목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일정

날짜	내용
6월 5일	김포공항 도착, 기업 총수들과 '삼쑈회동'
6월 6일	'유 퀴즈 온 더 블록' 녹화
6월 7일	두산 베어스 경기 시구
6월 8일	LG그룹, 현대차, NAVER 등 방문

자료: 언론 종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젠슨 황 CEO 인터뷰 요약

- 삼성, SK, 현대차, LG,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과 회동을 진행
-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에 진입, 한국 공급망과 협력을 강화
- 로보틱스·피지컬 AI를 한국의 핵심 기회로 평가
- 삼성·SK뿐 아니라 현대차·LG·네이버까지 협력 범위 확대

자료: 언론 종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삼쑈회동



자료: 한국경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차 간부회동, 2차 삼쑈회동 비교

구분	1차 간부회동	2차 삼쑈회동
인물, 기업	이재용(삼성전자), 정의선(현대차)	최태원(SK), 구광모(LG), 이해진(NAVER)
협업	AI 인프라	피지컬 AI
성과	GPU 26만개 공급	-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차 간부회동 이후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 강세, 다만 시차는 존재해

1차 간부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참여



자료: 중앙일보,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차 간부회동 성과

- 한국 정부 및 주요 기업들과 협력해 최대 26만 개 규모의 Blackwell GPU 공급 계획을 발표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장기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HBM4, HBM5 등 차세대 메모리 협력을 공식적으로 언급
- 현대차와 AI 팩토리,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협력 기대

자료: 언론 종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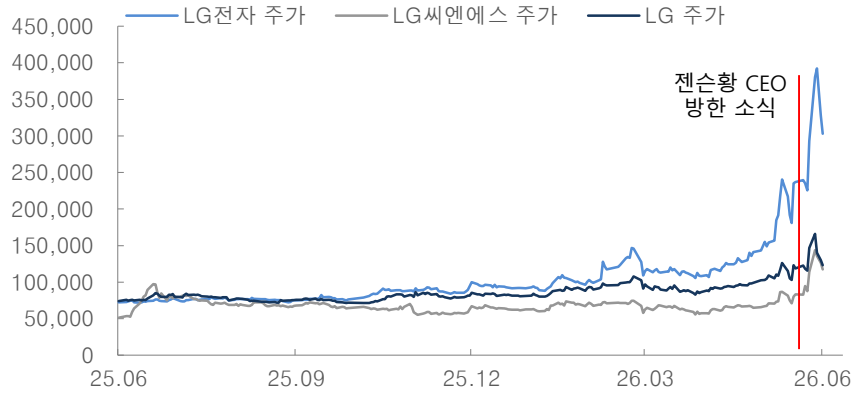
현대차 주가 흐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엔비디아 협력,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관련주 급등했지만, 차익실현 매물 출회

LG 그룹주 젠슨황 CEO 방한 소식으로 급등 후 차익매물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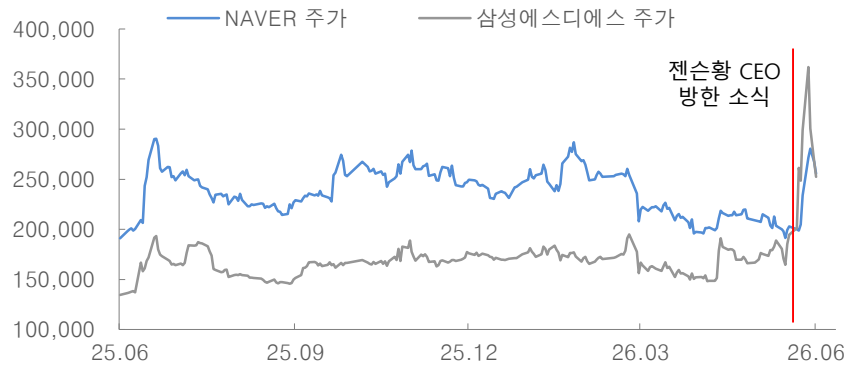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 CES 2026에서 홈로봇 클로이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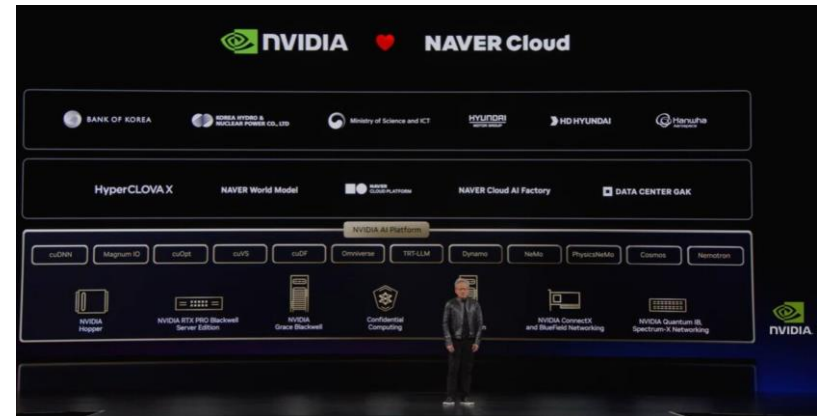
자료: L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소프트웨어 젠슨황 CEO 방한 소식으로 급등 후 차익매물 출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엔비디아, GTC2026 타이베이서 네이버 협력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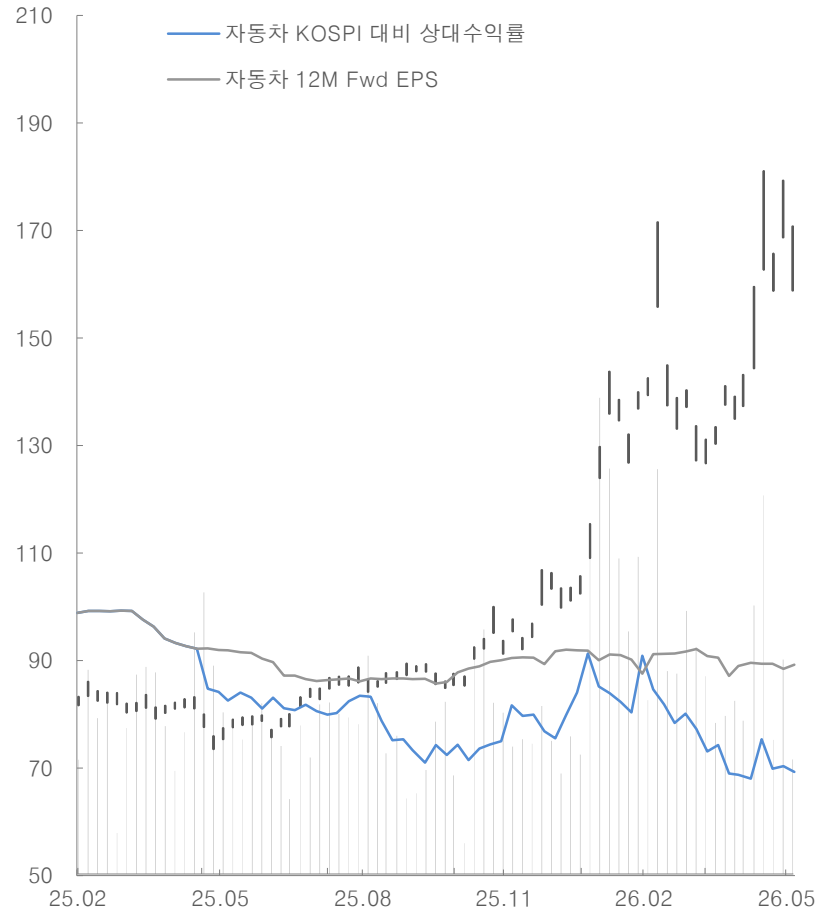


자료: NVID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동차] 피지컬 AI 모멘텀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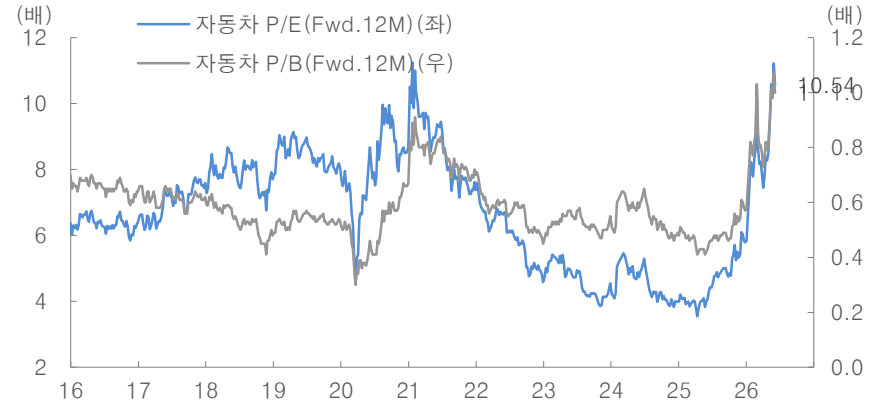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 반전

(25.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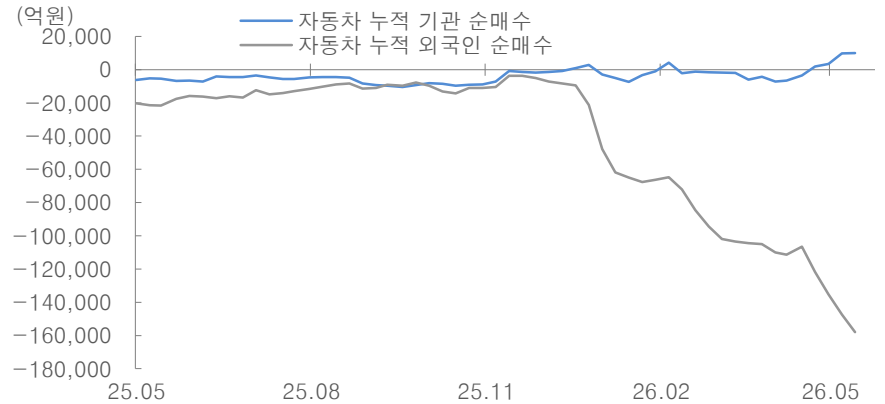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선행 P/E 10.54배로 상승,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 기관 순매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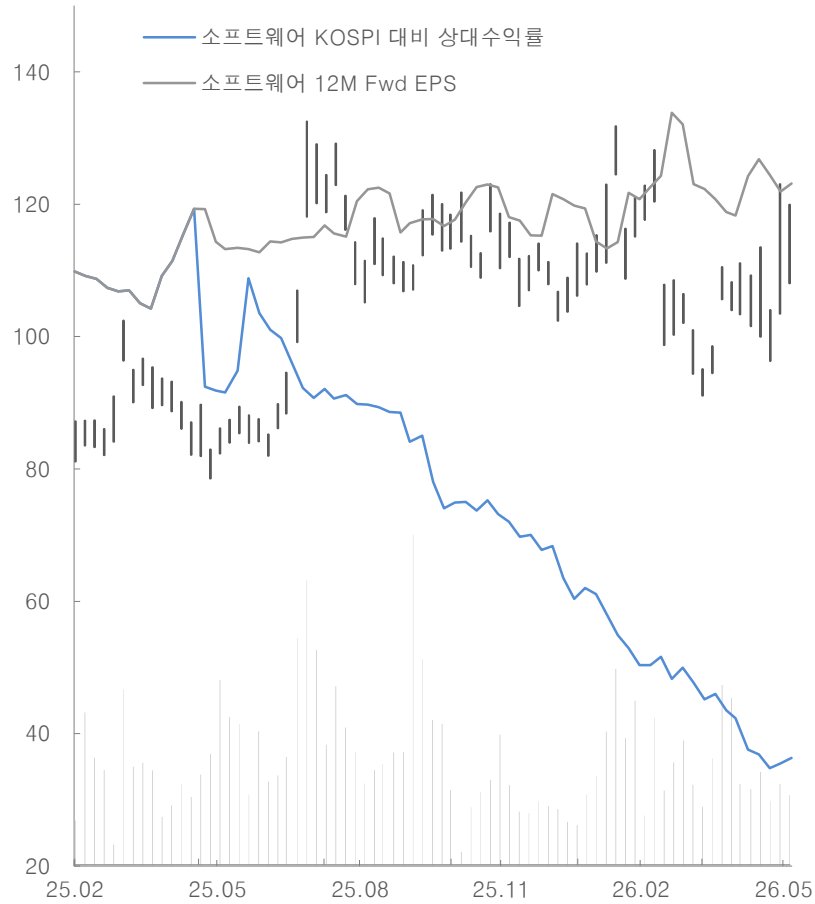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소프트웨어]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유입, AI 모멘텀 부각

젠슨황 CEO 방한 소식으로 강세 보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주가

(25.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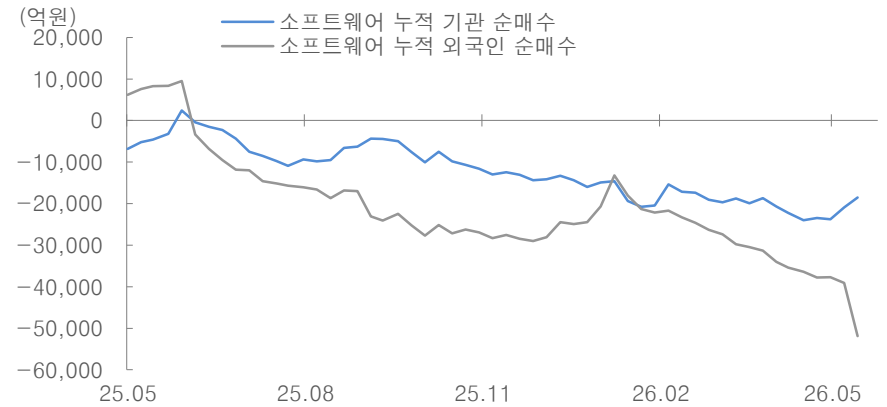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선형 P/E 18.9배, P/B 1.65배로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 기관 수급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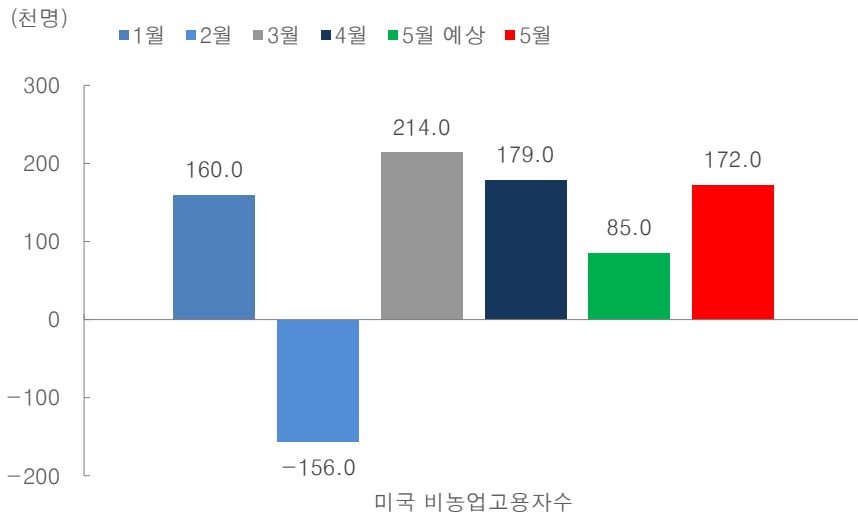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고용 서프라이즈로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10일, 11일 발표될 물가지표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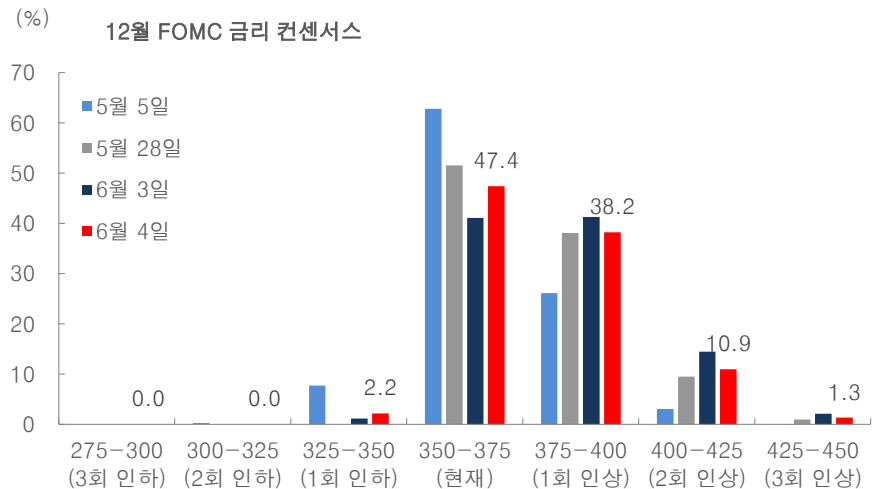
- 미국 5월 비농업고용은 17.2만명 증가하며 예상치 8.5만명을 크게 상회.** 실업률은 4.3%를 유지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ADP 민간 고용도 12.2만명 증가하며 미국의 견고한 고용을 시사. 세부적으로 비농업 고용에서 레저 및 접객 일자리가 7만명 증가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고, 월드컵을 앞두고 조기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 일각에서는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이 호텔, 음식점, 레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었다고 분석. 그럼에도 **견고한 고용 지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지지했고, 미국채 금리상방 압력**으로 작용. 미국채 2년물, 10년물 금리는 각각 4.145%, 4.532%로 상승
- 미국 5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는 54.0p, 54.5p로 확장세. **제조업 경기에서 신규 주문(전월대비 +2.7%p)과 생산 지수(전월대비 +0.9%p)가 동반 상승**한 점은 수요 측면의 강세를 뒷받침.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요인이며, 물가 82.1p로 높은 수준 유지. 서비스업 경기는 23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로 인한 기업 활동 지수(전월대비 +1.8%p)의 상승과 계절성 요인에 따른 신규 주문 지수(전월대비 +3.8%)의 급증**은 견고한 서비스업 경기를 지지. 다만, 제조업 경기와 마찬가지로 물가 71.3p가 높은 수준을 유지
- 미국 5월 CPI, PPI는 6월 10, 11일에 발표 예정.**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연으로 국제 유가는 높은 레벨에 위치. 고유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현재 물가는 상승 추세 지속. **5월 물가지표도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될 여지.** 6월 18일 FOMC를 앞두고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될 것으로 판단

5월 비농업고용은 17.2만명으로 예상치 8.5만명을 크게 상회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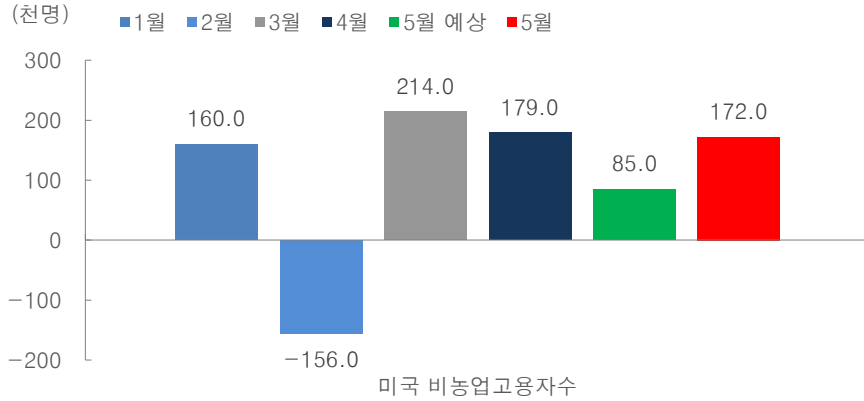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현재 동결 가능성이 소폭 높아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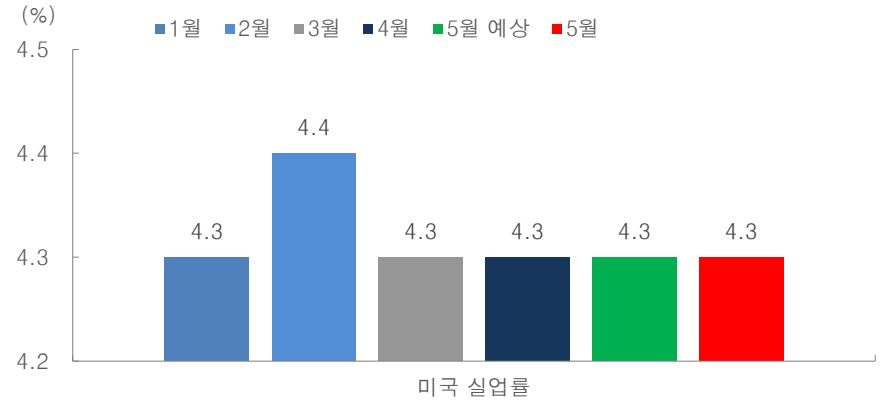
[고용] 비농업 고용 예상치를 크게 상회, 실업률은 4.3%로 유지

5월 비농업고용은 17.2만명으로 예상치 8.5만명을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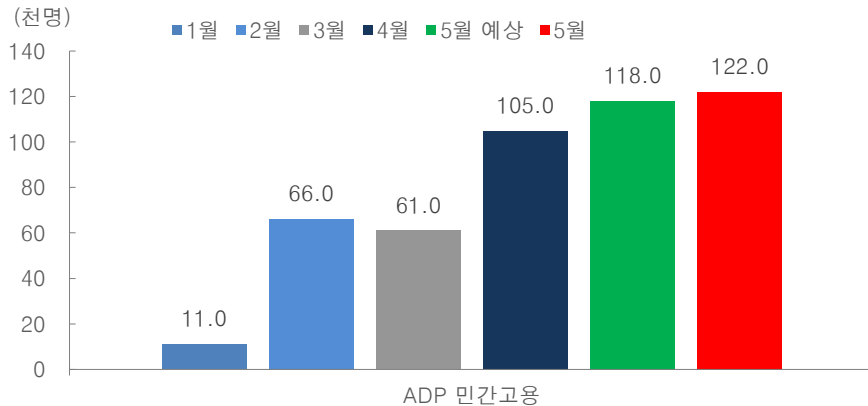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업률은 4.3%로 예상치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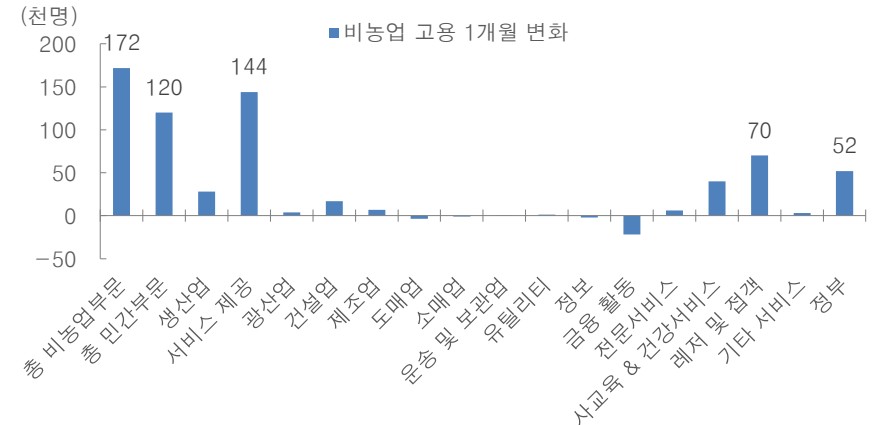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DP 민간고용도 예상치 상회, 빠른 고용 증가세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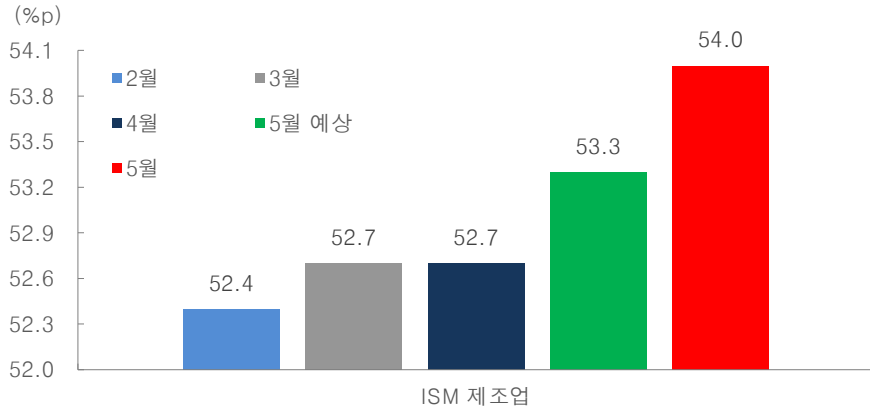
월드컵 앞두고 레저 및 접객 고용 증대



자료: BL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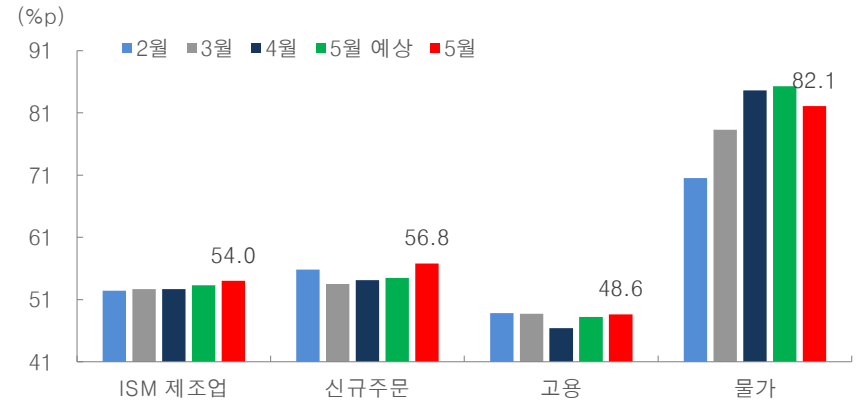
[ISM PMI]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 신규 주문 양호

제조업 지수는 5개월 연속 확장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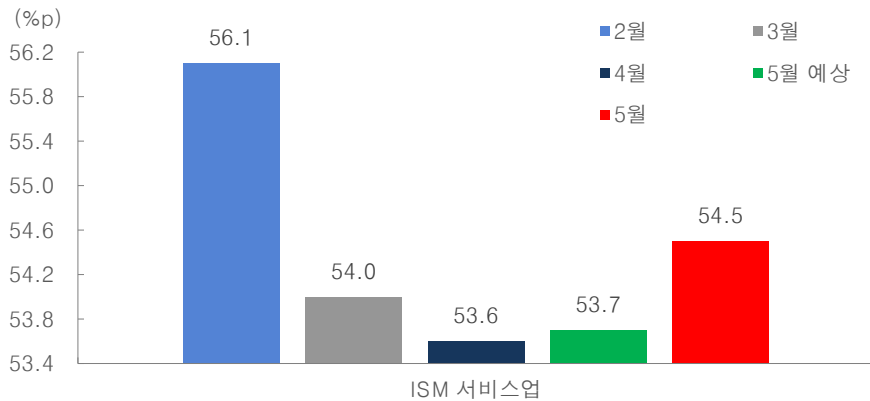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신규 주문 전월 대비 빠른 성장, 물가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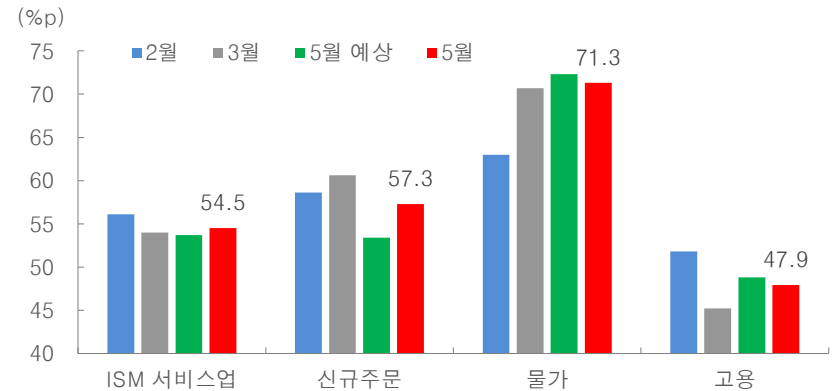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서비스업 지수는 23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위치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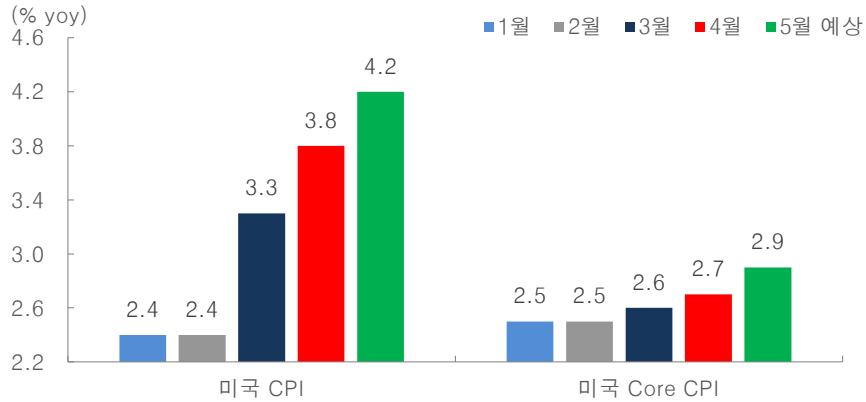
서비스업 고용 3개월 연속 위축, 12개월 이동평균 하회



자료: Bloomberg,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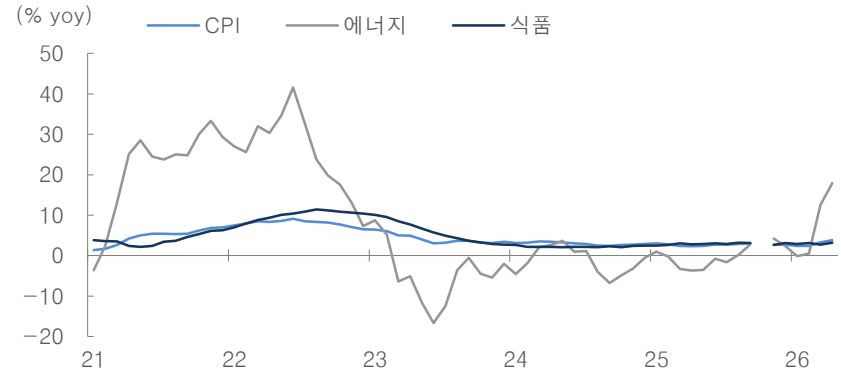
[물가] 고유가와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될 전망

고유가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5월 CPI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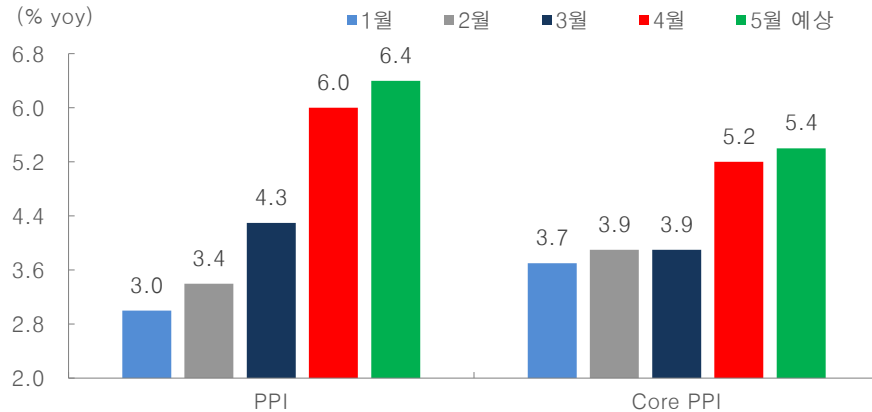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물가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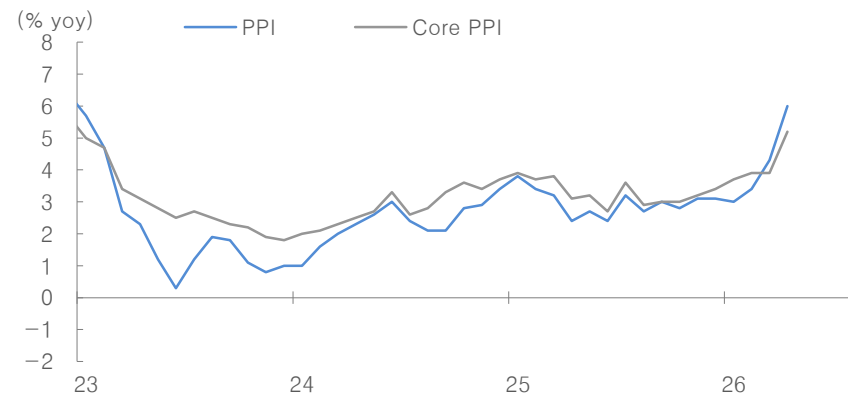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월 PPI, 전년 대비 6.0%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 대폭 상회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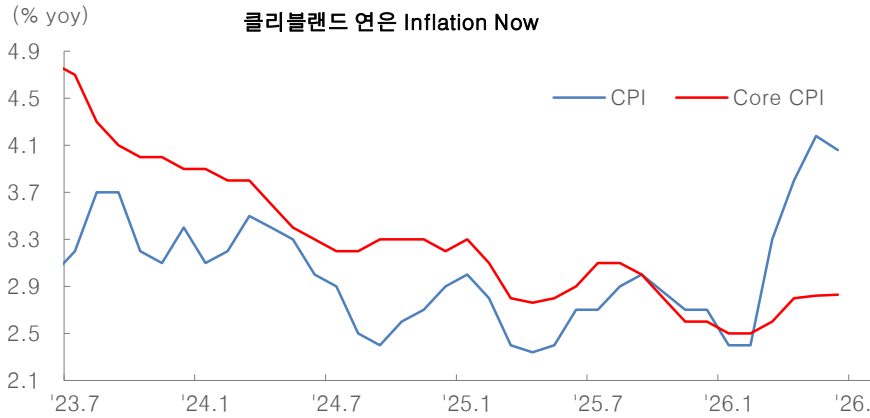
PPI / Core PPI 상승 추세가 팔라지는 중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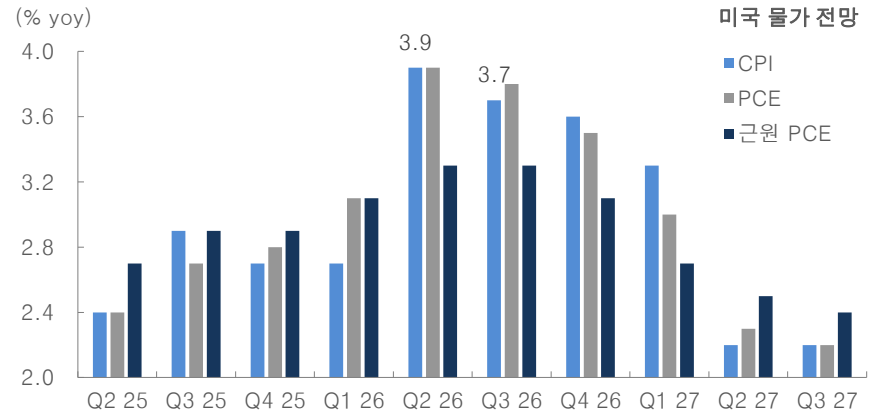
[물가] Core 물가 상승 폭 제한적. 물가 상승 압력 확산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

CPI 급반등 이후 6월 둔화 예상. Core CPI는 2% 후반에서 등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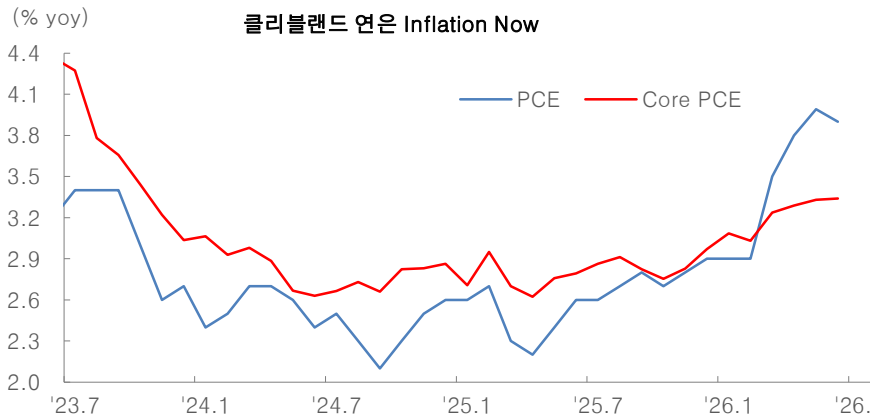
자료: US BLS, CEIC, 클리블랜드 연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2Q 물가 급반등 이후 하향 안정 예상. Core 물가 반등폭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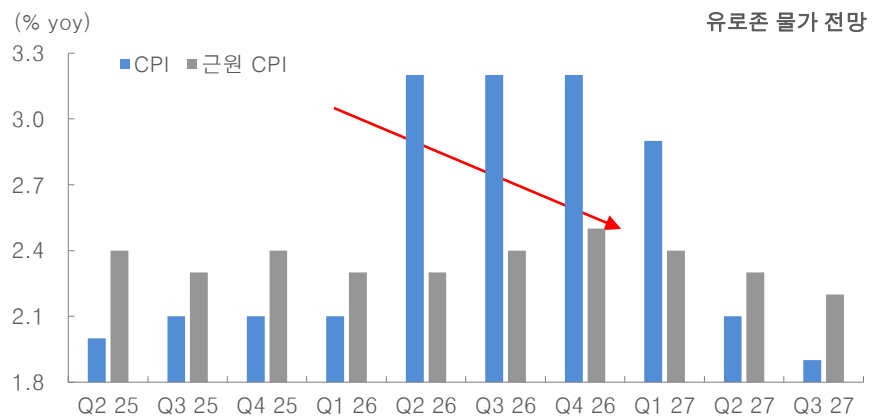
자료: US BLS, CEIC,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CE 급반등에 비해 Coer PCE 반등 폭은 제한적



자료: US BLS, CEIC 클리블랜드 연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도 2분기 물가 반등은 예상되지만, Core CPI 반등폭 제한적



자료: EURO Stat,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연준 위원 발언] 중동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 금리 인상 기조도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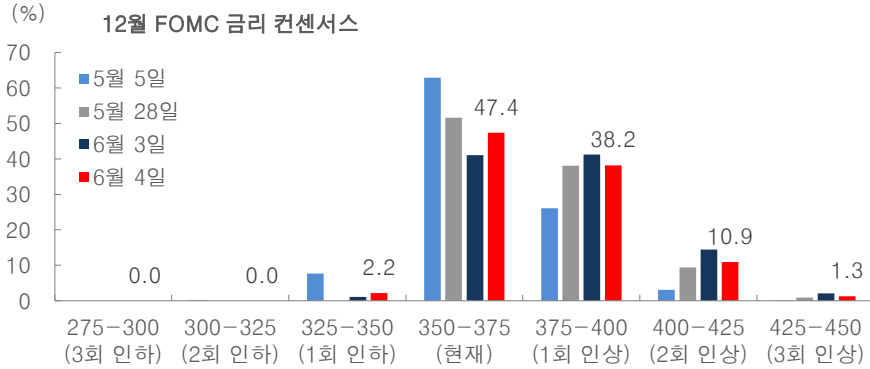
4월 FOMC 이후 연준 위원들의 주요 발언

위원(직책)	날짜	주요 내용 / 최근 발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4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르무즈 해협이 빠르게 재개방되는 시나리오에서도 Core PCE가 약 3%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우려 해협 폐쇄가 장기화되고 에너지 인프라 손상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 인플레 기대 안정을 위해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
베스 해덕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5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경제는 아직 견조하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추정치 부근에서 안정적 그러나 물가 압력이 광범위하고 유가 상승이 추가 인플레 요인이라고 평가 물가상방 리스크와 성장·고용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언급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5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인플레이션은 약 3%, 2027년에는 2% 목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 실업률은 4.25~4.5% 범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비에너지 투입비 상승, 공급망 차질이 물가와 성장 양쪽에 부담 현재 금리 수준은 리스크 균형에 적절하다고 평가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5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리스크가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쪽으로 이동했다고 평가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의미 있게 웃도는 가운데,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상할 가능성 언급 유가뿐 아니라 알루미늄, 헬륨, 디젤 등 산업용 투입비 상승이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변질 수 있다고 우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5월 6일 5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입재 재고가 소진되며 공급망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 충격에 가깝지만, 길어질수록 우려가 커진다고 언급 고용은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안정적이며, 물가는 최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5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물가 목표 복귀 의지를 재확인.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이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는 증거는 없다고 평가 현 통화정책은 다소 제약적이며, 이란 전쟁이 해결될 경우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5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리 동결에는 강하게 찬성했지만, 성명서가 다음 조치가 인하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 로리 로건, 베스 해덕, 닐 카시카리의 성명서 내 완화 표현 반대와 같은 방향의 문제의식

자료: 국내외 주요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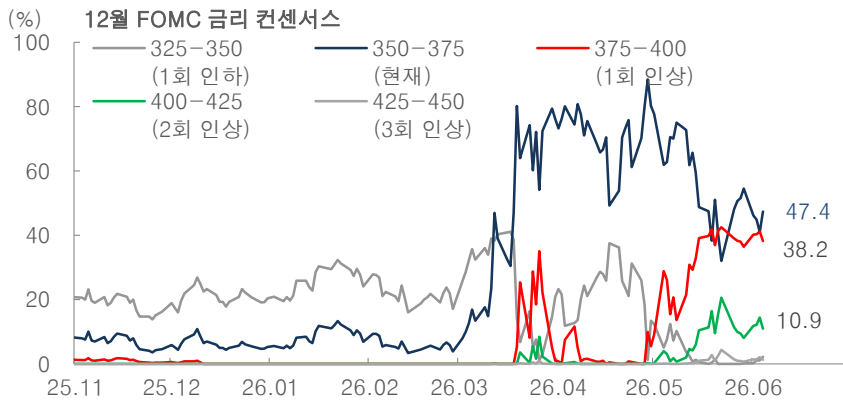
[통화정책 전망] 금리동결 가능성 축소,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금리동결 가능성도 점차 하락,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2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존재



자료: CME Group,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ME FedWatch, 금리인상 가능성 61.9%, 금리동결 가능성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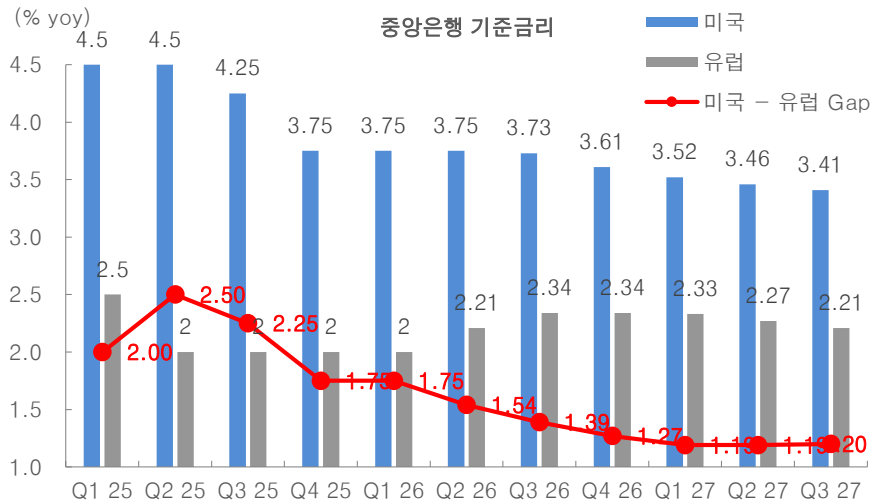
MEETING DATE	CME FEDWATCH TOOL - AGGREGATED MEETING PROBABILITIES			
	325-350	350-375	375-400	400-425
2026-06-17	4.55%	95.45%	0.00%	0.00%
2026-07-29	0.00%	96.00%	4.00%	0.00%
2026-09-16	0.00%	77.29%	22.71%	0.00%
2026-10-28	0.00%	64.00%	36.00%	0.00%
2026-12-09	0.00%	38.07%	61.93%	0.00%
2027-01-27	0.00%	22.00%	78.00%	0.00%
2027-03-17	0.00%	0.00%	96.86%	3.14%
2027-04-28	0.00%	0.00%	84.00%	16.00%
2027-06-09	0.00%	0.00%	82.00%	18.00%
2027-07-28	0.00%	0.00%	82.00%	18.00%
2027-09-15	0.00%	0.00%	27.11%	72.89%
2027-10-27	0.00%	0.00%	96.00%	4.00%
2027-12-08	0.00%	9.48%	90.52%	0.00%

자료: CM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채 10년물, 달러화 오버슈팅 국면 지속. 정상화만으로도 하향 안정국면 전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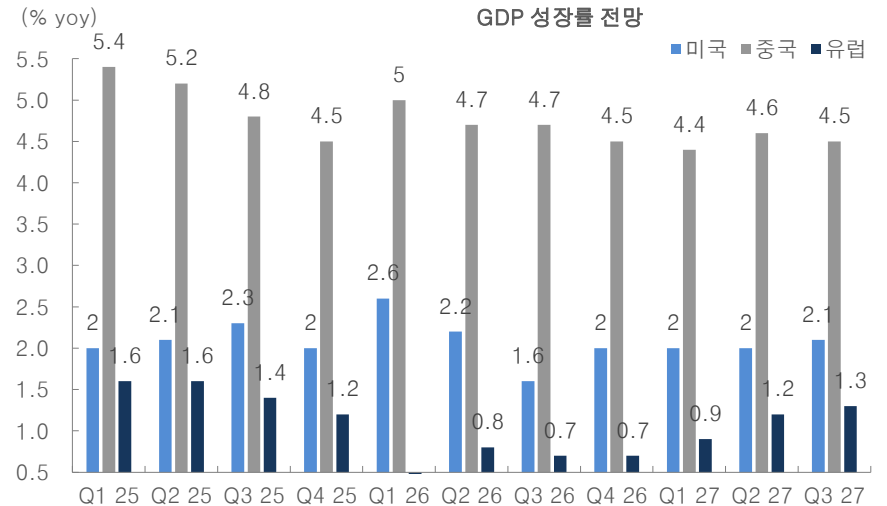
-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과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 및 기준금리 격차 축소는 채권금리 하향안정과 달러 약세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대신증권이 예상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분기까지 4.0~4.2% 도달. 달러화도 상반기 중 92p 수준까지 레벨다운될 전망이다**
- 하지만, 3, 4월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국제유가 100달러 상회에도 이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표출, 일본에 이어 중국, 유럽 등도 금리인상 시그널 강화로 인해 채권금리, 달러 등 중요 임계치에 넘어선 상황. 미국, 이란 휴전 협정 이슈에 다소 진정되는 듯 했던 채권금리, 달러는 지난 주말 고용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다시금 **미국채 10년물은 4.5%를 넘어섰고, 달러화는 100p에 상회**.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 경제지표 결과에 일희일비 중
- 다행히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 금리인상 우려 또한 경제지표 호조 속에 단기 우려를 자극하는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경제지표 호조, 물가 안정 확인시 채권금리 및 달러화 하향 안정 뚜렷해질 전망이다
-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유가 하락(80달러 초반, 또는 하회) - 물가 안정 기대를 자극하며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트럼프 관세 노이즈,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중국 경기부양정책 강화가 확인되면서 채권금리와 달러화 약세 압력은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 달러 약세, 채권금리 하향안정 전개시 Non-US로 글로벌 유동성 이동이 더 빨라질 것. 26년 미국에서 자금 이탈, Non-US로 자금 유입세 뚜렷**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유효. 유럽과 금리 격차 축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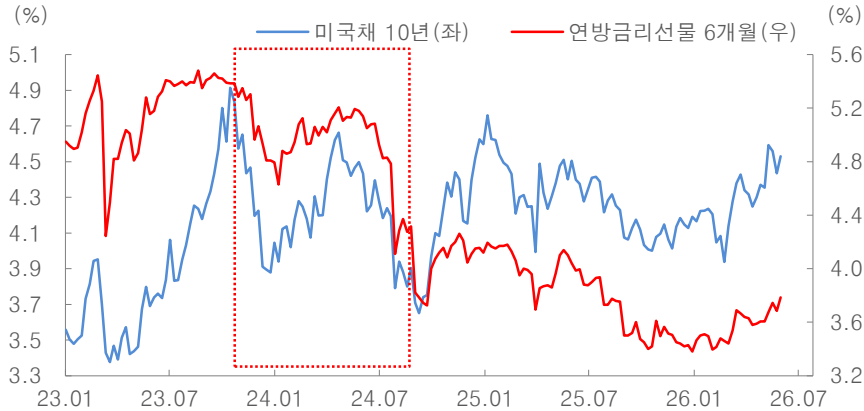
美 GDP 성장률, 24년의 압도적인 모습을 뒤로 하고 2% 성장으로 수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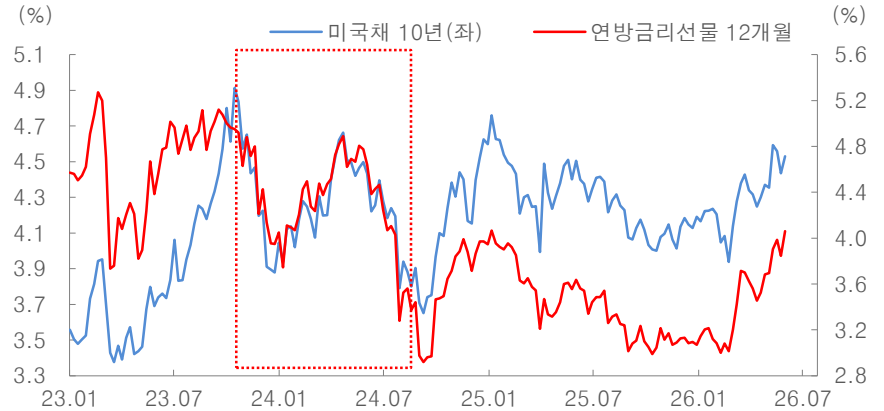
[미국 채권금리] 중동 리스크 완화 vs 고용 서프라이즈, 금리인상 우려 강화 = 채권금리 반등

미국채 10년물과 연방금리 선물 간의 동조화가 약화되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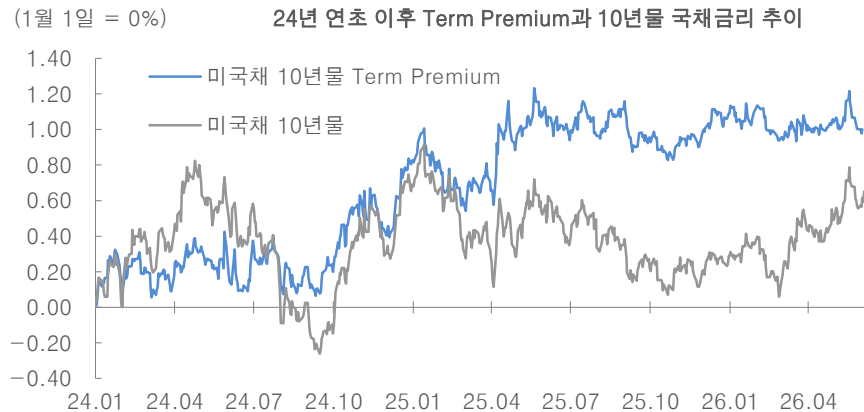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금리인하 인상 우려에 채권금리 급등. 24년 이후 상관관계 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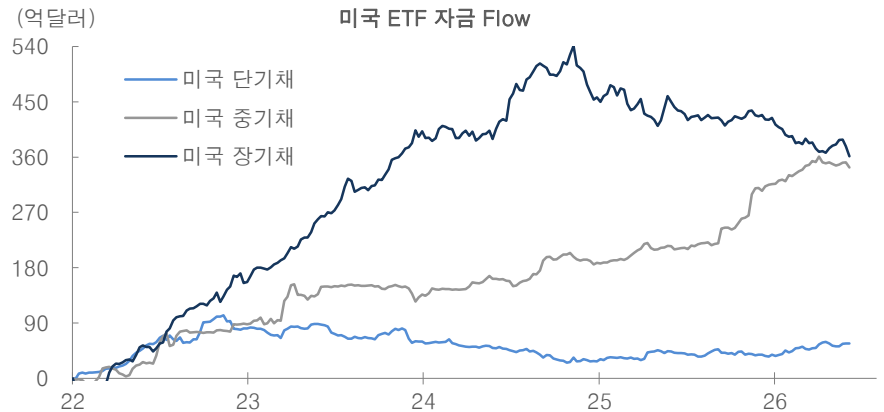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채 10년물과 Term-Premium 간 Gap 30bp 수준으로 축소



자료: 뉴욕연은,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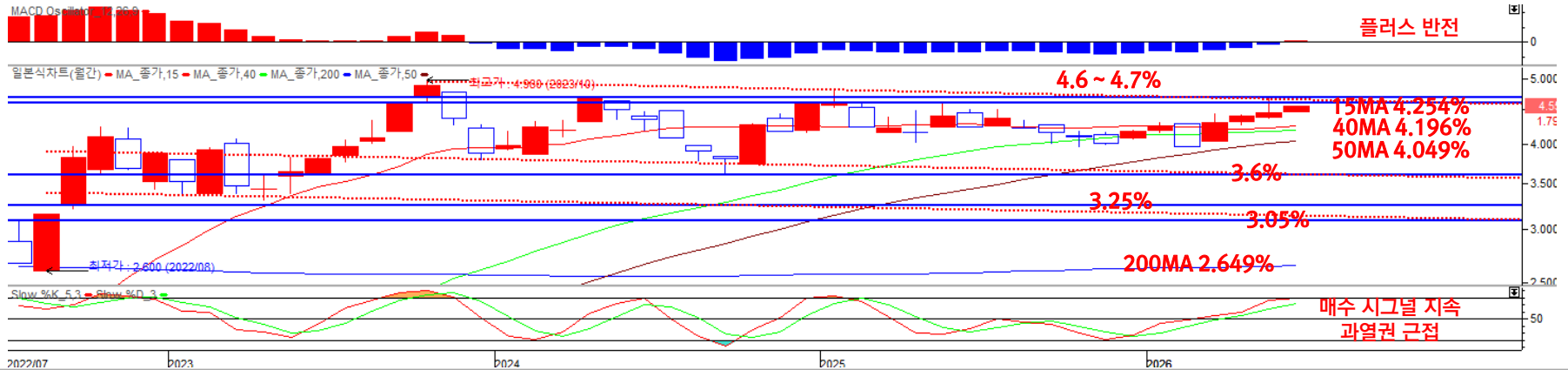
장기채로 2주 연속 대규모 자금 이탈(누적 27억달러)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채권금리] 10년물, 임계 수준(4.5%) 상회하며 OverShooting 국면 지속

미국채 10년물 월간 차트. 단기 박스권 하단인 4%에서 반등, 4.5% 돌파. 4.6 ~ 4.7% 돌파, 안착시 빠르게 5% 도달 가능성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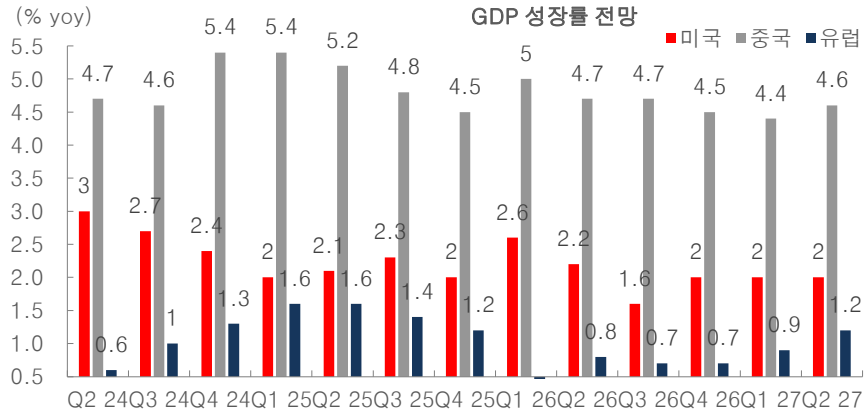
미국채 10년물 주간 차트. 4.0 ~ 4.25%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 단기 오버슈팅 전개. 중동 리스크 완화, 금리인하 기대 재유입 시 하락 반전 가능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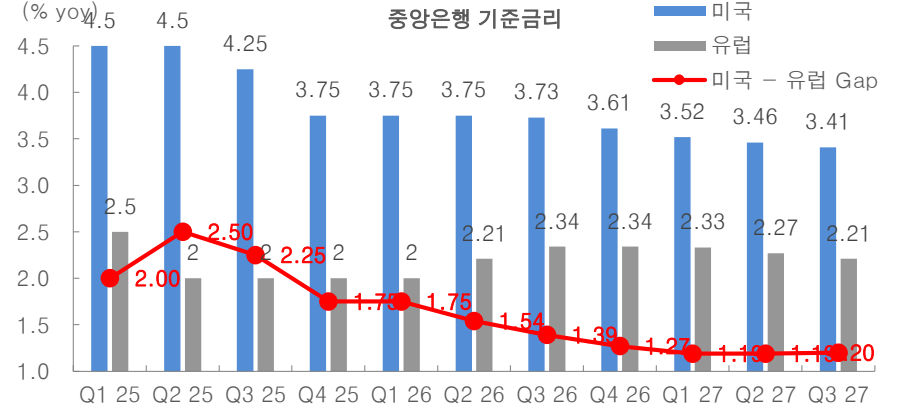
[미국 달러화] 미국, Non-US 간 경기/기준금리 축소 = 달러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

유럽과 경기 격차 축소. 중국과 경기 격차 확대 = 달러 약세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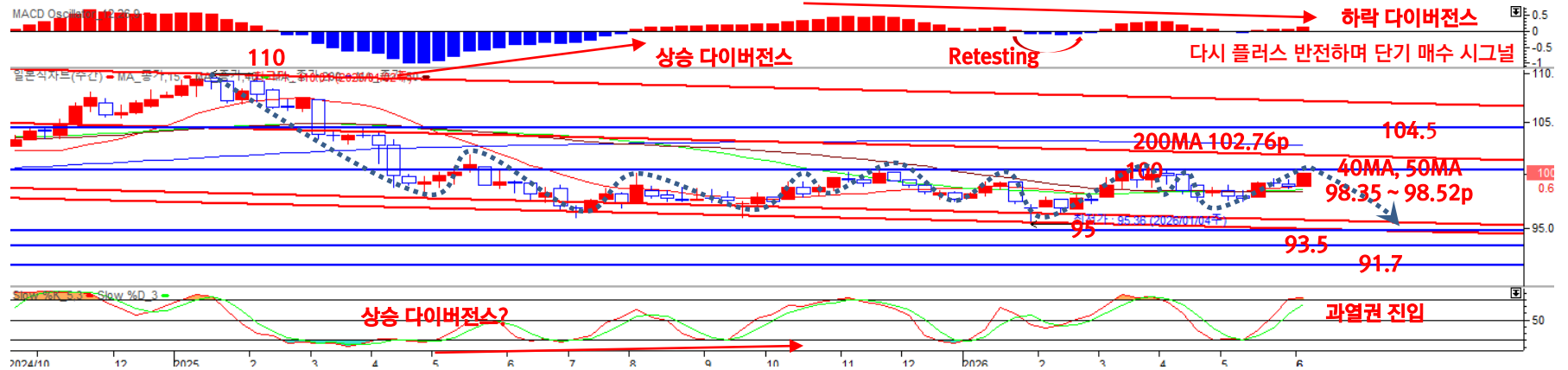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 유럽 간 경기 격차 축소에 이어 기준금리 격차도 축소 국면 진입



자료: FED, ECB,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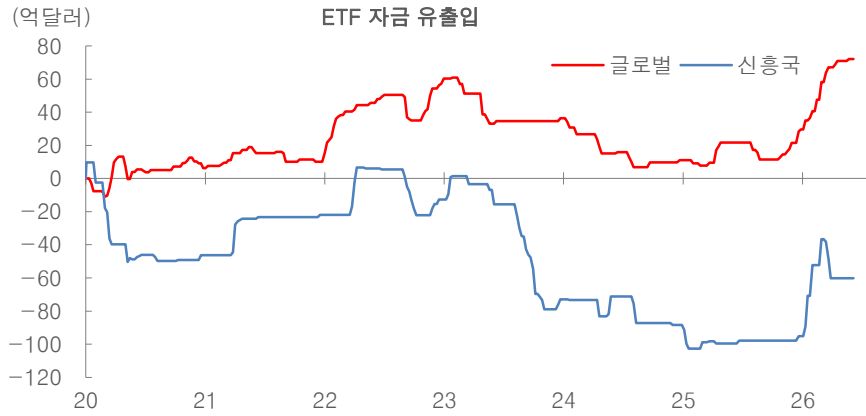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채권금리 급반등으로 100p 돌파 시도. 중동 리스크 완화, 채권금리 하락 반전 여부가 중요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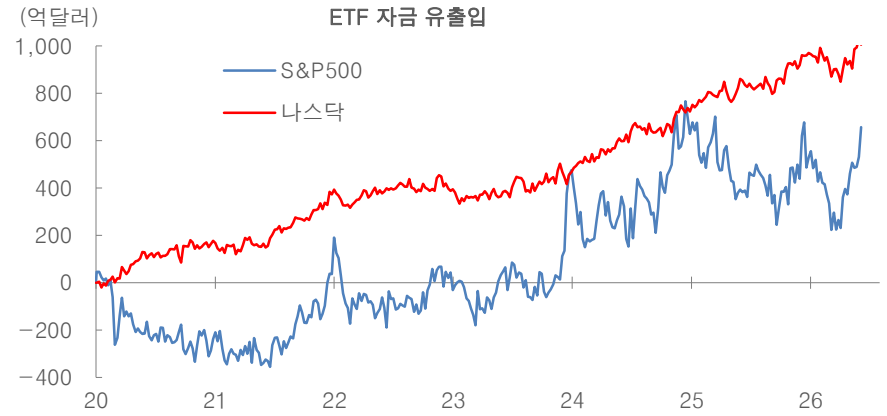
[글로벌 유동성] 달러 반등, 스페이스X 이슈로 US 자금 재유입, Non-US에서 단기 자금 이탈

26년에만 글로벌로 42.58억, 신흥국으로 34.86억달러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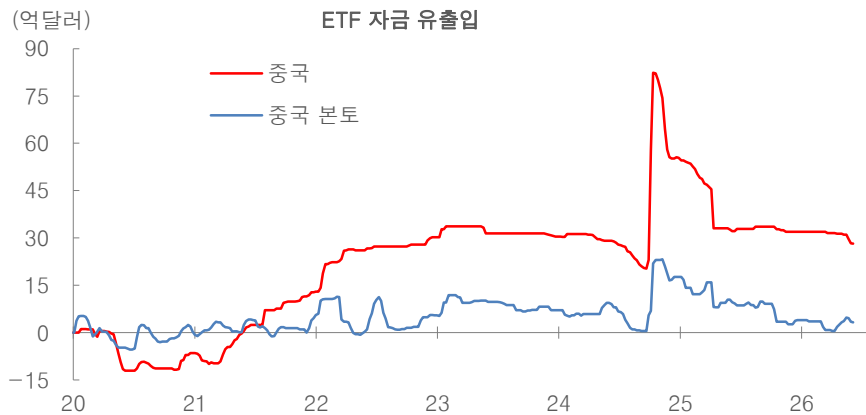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 S&P500 128.7억달러, 나스닥 35.78억달러 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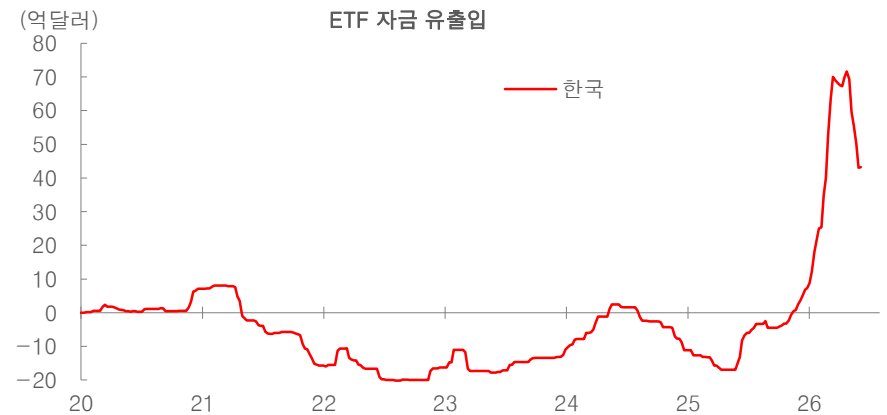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으로 자금 유입 전환. 중국 본토로 자금 유입 지속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에서 5주 연속 유출 이후 유입 전환. 26년 누적 +35.78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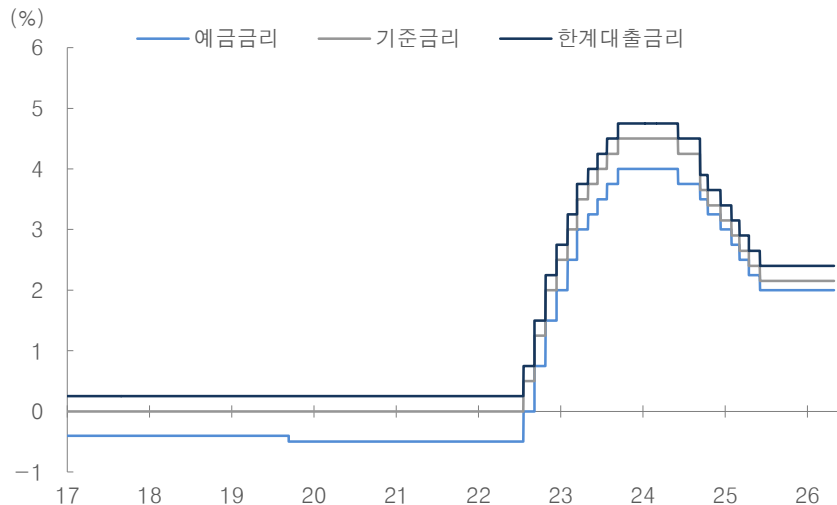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CB 매파적 동결 후 6월 금리 인상 시사,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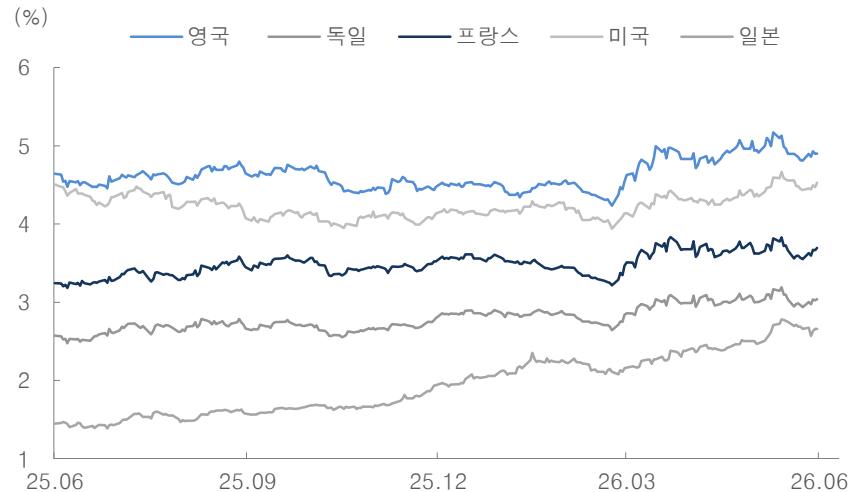
- **2026년 4월 ECB는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충격을 경계하며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 이는 2025년 7월 이후 7차례 연속 동결 조치이며,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오간 매파적 동결.
- 유럽의 CPI는 **5월 전년대비 3.2%까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 이는 **중동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했기 때문.** 이에 ECB는 데이터 기반 접근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6월 11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
- 경제 부문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은 실질소득 감소와 투자 위축 영향으로 -0.2%까지 하락하며 둔화세**를 지속. 다만 실업률은 6.2%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완충 역할을 하며 급격한 경기 침체는 방어
- 한편, 유럽의 매파적 기조가 강화되면서 유럽 내 주요국 국채 금리도 상승 추세 지속. 이는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 **6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혹은 매파적 기조가 강화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되며 글로벌 증시 하락 압력 확대** 감안

5월 비농업고용은 17.2만명으로 예상치 8.5만명을 크게 상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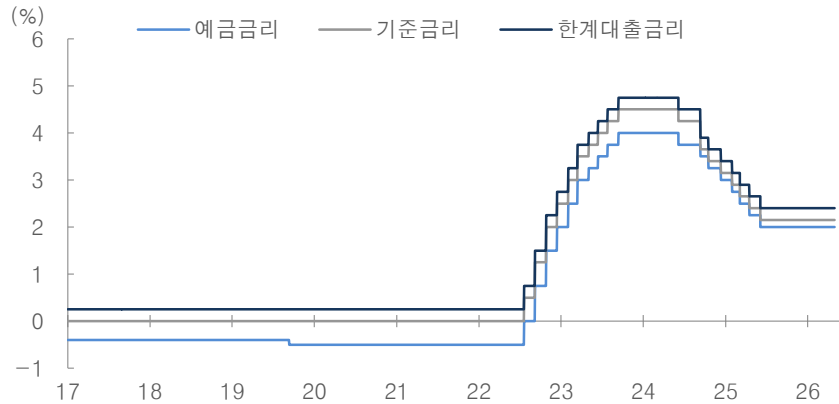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현재 동결 가능성이 소폭 높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금리 인상을 언급했던 4월, 매파적 기조가 강해진 ECB

유로존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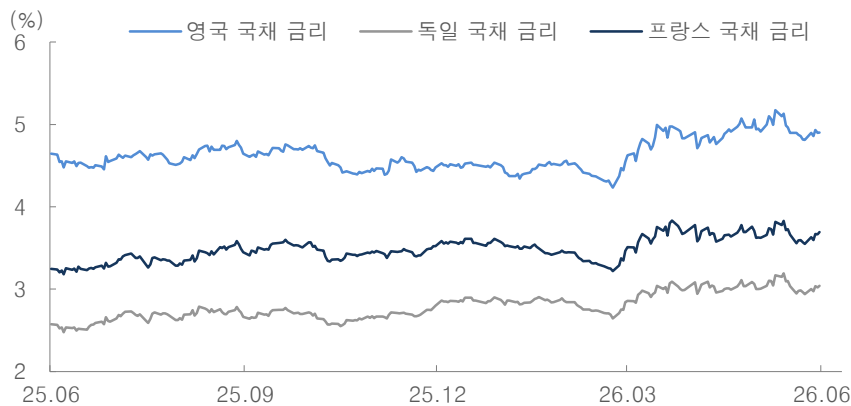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월 ECB 핵심 내용

- 정책금리 2025년 7월 부터 7차례 연속 동결
-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에너지 충격의 강도, 지속 기간, 2차 파급효과 추가 확인 필요
- 6월 회의까지 인플레이션 기대, 공급망, 임금 및 판매가격에 대한 데이트를 재검토
- 전쟁 이후 발표된 지표를 확인할 때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성장률 하락 위험이 심화
- 4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럽 내 주요국 국채 금리 추이(10년물)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월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ECB 인사들

ECB should raise rates in June, even if Iran peace deal is struck, Schnabel says

By Balazs Koranyi and Reinhard Becker

May 26, 2026 2:05 PM GMT+9 · Updated May 26, 2026



Key ECB policymaker quotes in run-up to June 11 policy meeting

By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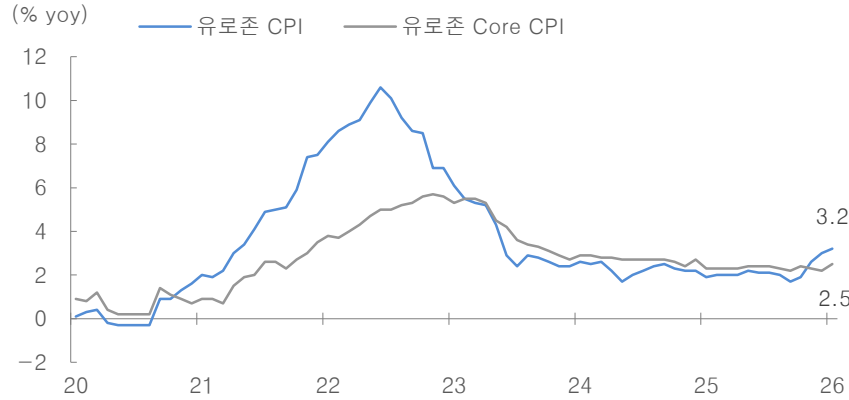
June 2, 2026 4:16 PM GMT+9 · Updated June 2, 2026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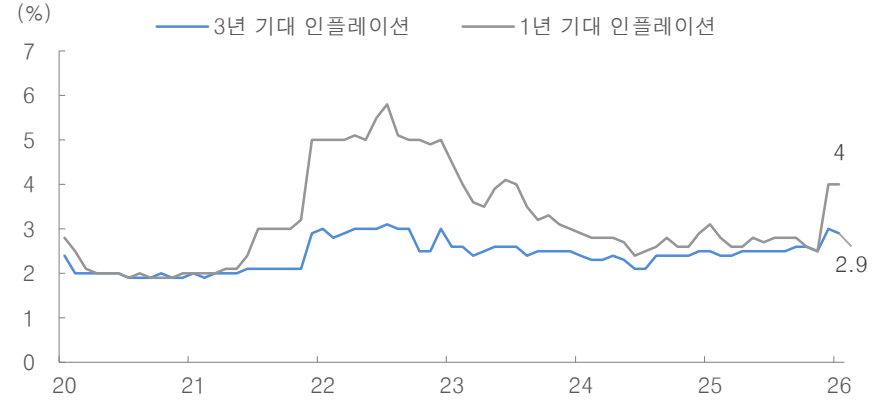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압력 확대, GDP 부진에도 실업률은 안정화

유로존 CPI 예상치 부합, 에너지의 상승폭 뚜렷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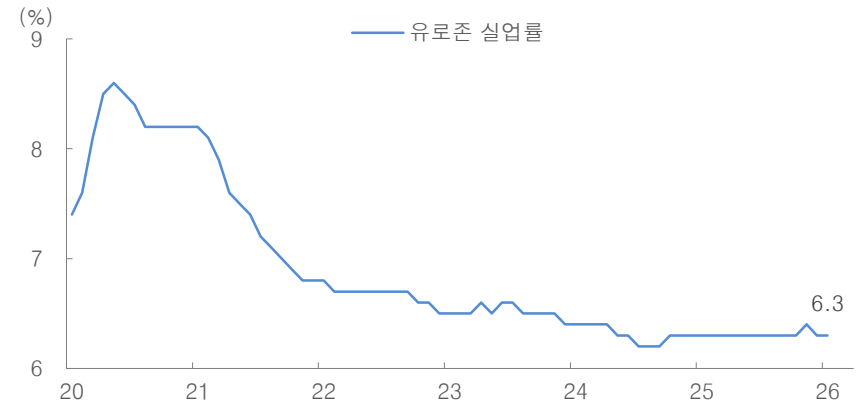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1분기 GDP는 -0.2%로 잠정치(0.1%), 이전치(0.2%) 하회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실업률 변동 없이 6%대 유지, 청년층 고용 상황이 부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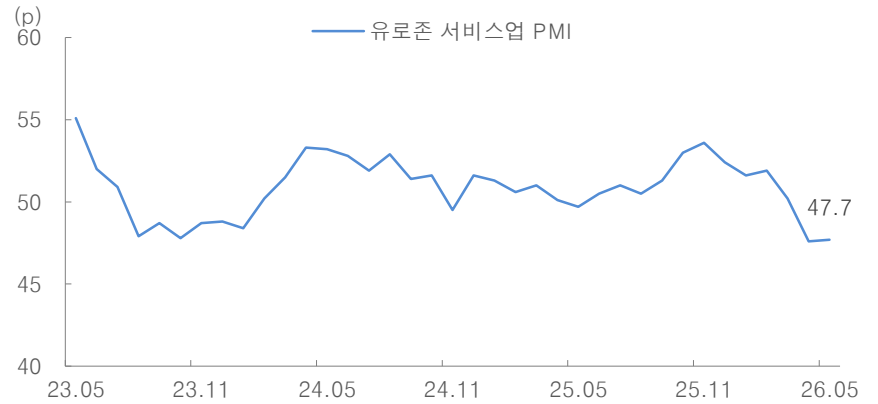
비용 압력 상승, 수요 약화로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둔화 우려 존재

제조업 PMI 확장세에도 성장 모멘텀 둔화, 신규 주문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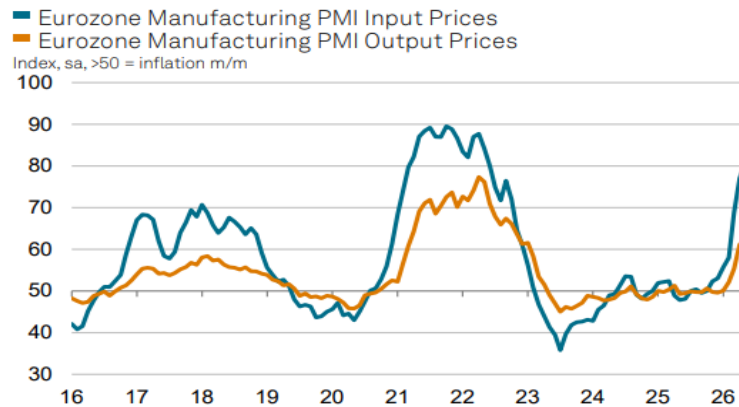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서비스업 PMI 예상치 상회에도 위축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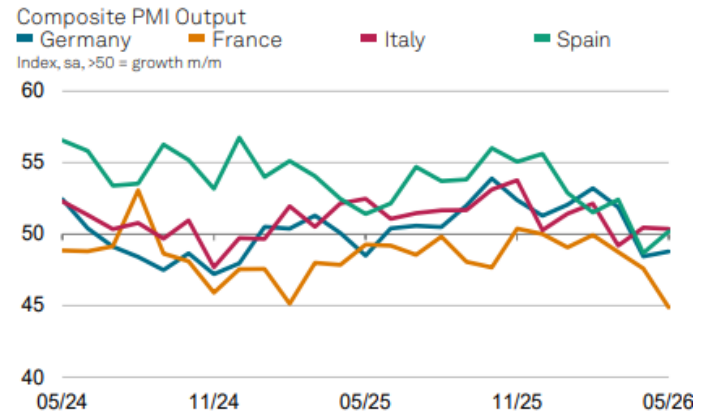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투입 비용의 상승폭이 판매 가격 대비 두드러짐



자료: S&P글로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프랑스 PMI 타국 대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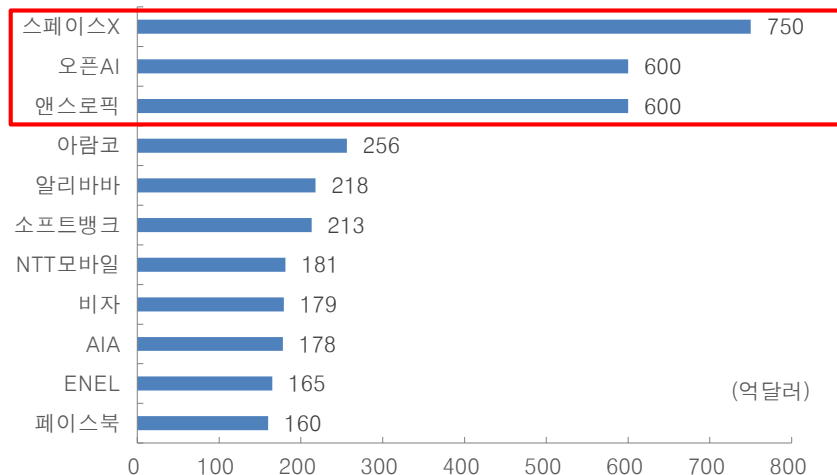


자료: S&P글로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스페이스X IPO, 성장 기대와 수급 부담의 양날의 검. 상장 이후에는 수급 부담 해소될 것

- 6월 12일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 **스페이스X는 기존 대형 IPO 사례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공모액 750억달러, 상장 직후 시가총액 1조 7,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초대형 혁신기업의 상장이 주식시장의 성장 기대를 자극할 수 있음.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과 AI인프라 확장성을 바탕으로 상장 이후 대형 성장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음. 대형 IPO 흥행은 위험자산 선호심리와 신규 자금 유입을 강화하고,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과거 미국의 대규모 IPO 사례를 살펴보면 지수는 평균적으로 상장 7거래일 전 하락한 후 강세 전환하는 경향. M7은 전반적으로 강세 전개했으나, 상장 이전 수익률이 상장 이후 수익률을 상회. 이번 스페이스X IPO에 과거 평균값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M7의 IPO 전후 수익률로 미뤄보아 시장의 관심이 IPO 기업으로 몰리며 기존 주도주의 수익률 둔화될 가능성 염두**
- 또한 대규모 공모에 따른 수급 부담은 유의할 필요. 스페이스X의 공모 규모가 전례 없이 큰 만큼 **공모 과정에서 시장 내 대기성 자금이 흡수될 수 있음**. 상장 이후 주요 지수 편입 시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존 주식에 대한 매도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 AI 업종 쏠림에 따른 부담도 존재. 대형 IPO의 상당 부분이 AI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대형 IPO의 흥행 여부가 AI 산업 전반의 투자심리를 좌우할 가능성. **공모 부진이나 상장 후 주가 부진이 나타날 경우 AI 업종 전반의 차익 실현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

공모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한 Big3



자료:국제금융센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PO 7거래일 전 지수는 하락했지만, IPO 후 M7과 동반 상승

평균	수익률 (%)						
	T-3M	T-1M	T-7D	T	T+7D	T+1M	T+3M
종목					7.4	2.2	-2.7
S&P500	0.2	0.0	-1.1		0.8	2.2	5.0
M7	12.7	11.2	7.8		0.1	2.7	1.0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사안에 따라 증시 영향 상이. IPO 7거래일 전 지수는 하락했지만, IPO 후 M7과 동반 상승

과거 공모액 100억달러 이상 IPO와 증시 영향

기업	상장일	공모가 (\$)	공모액 (\$Bi)	공모가 시총 (\$Bi)	공모비율 (%)		수익률(%)						
							T-3M	T-1M	T-7D	T	T+7D	T+1M	T+3M
비자 (V)	08.03.19	44	17.9	~37	~52	종목					13.2	22.1	49.9
						S&P500	12.5	-3.7	-0.8		3.3	7.1	4.0
						M5	-26.0	-2.9	0.2		2.9	11.9	12.9
제너럴 모터스 (GM)	10.11.18	33	18.1	~50	~32	종목					-1.1	-1.3	7.5
						S&P500	-10.5	2.6	-1.4		-0.6	4.2	11.7
						M6	18.4	2.3	-2.8		1.0	5.7	7.8
메타 (META)	12.05.18	38	16.0	~104	~15	종목					-16.5	-17.8	-48.0
						S&P500	5.2	-6.5	-4.3		1.7	3.8	9.3
						M7	48.4	42.6	42.2		-4.8	-3.7	-8.4
알리바바 (BABA)	14.09.19	68	21.8	~168	~15	종목					-3.7	-0.8	6.5
						S&P500	-2.4	1.2	1.3		-1.4	-5.3	2.5
						M7	12.5	3.0	0.4		-1.1	-5.4	-2.6
리비안 (RIVN)	21.11.10	78	11.9	~67	~18%	종목					45.0	13.8	-39.5
						S&P500	-4.0	6.5	-0.3		0.9	1.4	-2.7
						M7	10.1	10.9	-1.1		2.4	5.2	-4.6
					평균	종목					7.4	2.2	-2.7
						S&P500	0.2	0.0	-1.1		0.8	2.2	5.0
						M7	12.7	11.2	7.8		0.1	2.7	1.0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M5(애플, MS, 알파벳A, 아마존, 엔비디아), M6(애플, MS, 알파벳A,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대형 IPO 이후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은 상승하는 경향

거래대금 비중 변화(상장일 거래대금 대비)

기업	거래대금(%)		
	T + 7D	T + 1M	T + 3M
비자 (V)	22.8	3.6	6.8
제너럴 모터스 (GM)	6.5	7.5	2.0
메타 (META)	10.1	5.8	13.5
알리바바 (BABA)	11.3	3.5	9.9
리비안 (RIVN)	84.7	9.2	6.6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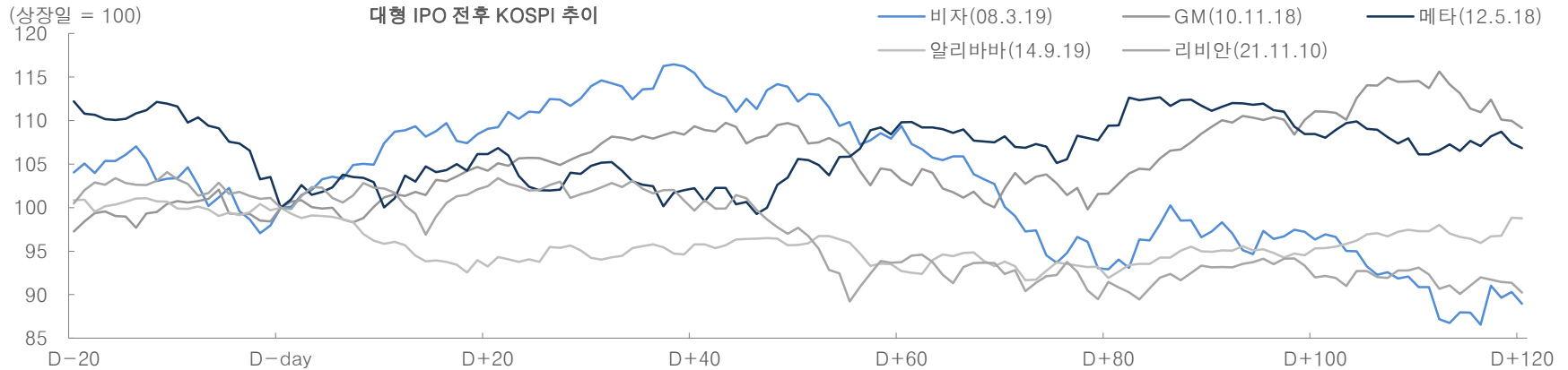
시가총액 비중 변화(S&P500 시가총액 대비)

기업	시가총액(%)		
	T + 7D	T + 1M	T + 3M
비자 (V)	0.71	0.79	1.18
제너럴 모터스 (GM)	0.46	0.44	0.44
메타 (META)	0.62	0.60	0.37
알리바바 (BABA)	1.22	1.25	1.43
리비안 (RIVN)	0.32	0.25	0.14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는 상장 10일 전부터 하방 압력 확대, 상장 이후 상승 반전하면서 2개월 뒤 전고점 돌파

과거 대형 IPO 당시 KOSPI는 10일 전후부터 하방 압력 확대. 상장 이후 분위기 반전, 상승 탄력 강화. 40일 전후 고점 형성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상장 전 5번 중 4번은 약세 기록. 상장 이후 20거래일에는 5번 중 4번 상승, 평균 수익률 3%. 40일 전후에서 고점형성하며 하락 반전



기업	KOSPI 수익률[%]							
	T-40D	T-20D	T-10D	T+10D	T+20D	T+40D	T+60D	T+120D
비자	-6.9	-4.0	-3.4	4.9	9.0	15.5	9.4	-11.0
GM	4.9	2.8	-0.8	-1.7	4.2	9.4	3.2	9.1
메타	-13.7	-12.2	-11.6	3.5	6.1	2.2	9.8	6.8
알리바바	1.7	-0.8	0.1	-1.6	-6.7	-4.2	-7.3	-1.2
리비안	-7.9	-0.5	-3.3	1.4	2.4	-0.3	-6.3	-9.7
평균	-4.4	-3.0	-3.8	1.3	3.0	4.5	1.8	-1.2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ig 3의 IPO는 역대급 규모, 시가총액으로도 미국 증시 내 상위권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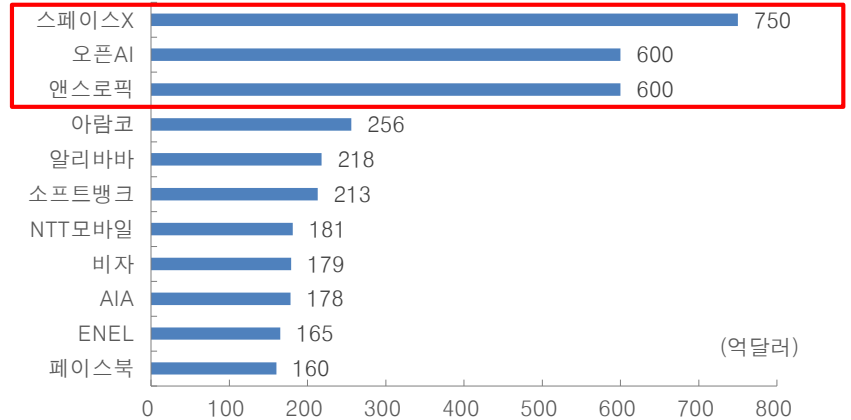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 대규모 IPO 예정 기업

역대 전 세계 1, 2, 3위 상장을 주도할 핵심 기업 'Big 3'

기업 (Company)	예상 공모액 (IPO Size)	예상 기업가치 (Valuation)	핵심 사업 (Core Biz)
SpaceX	\$750억	\$1.75조 S&P 500 시총 7~8위 수준	스타링크, 우주발사체, xAI (6월 상장 목표)
OpenAI	\$600억	\$1조 S&P 500 시총 12위 수준	AI 모델 (GPT) 및 서비스 (4분기~내년 초 예정)
Anthropic	\$600억	\$0.9조 S&P 500 시총 14위 수준	AI 모델 (Claude) 개발 (4분기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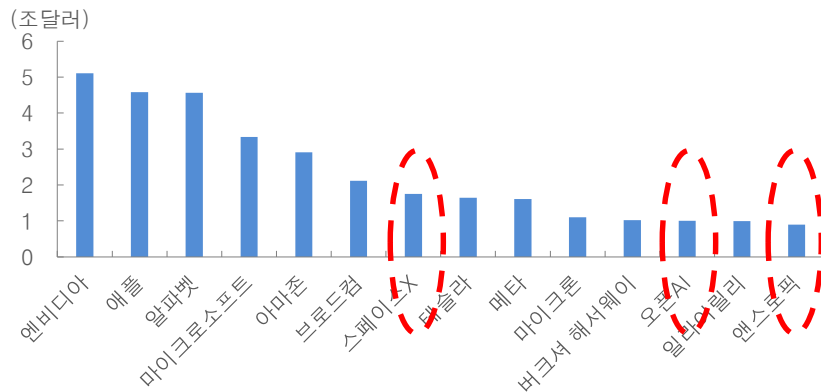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공모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



자료: 국제금융센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상장 직후 시가총액 상위권에 위치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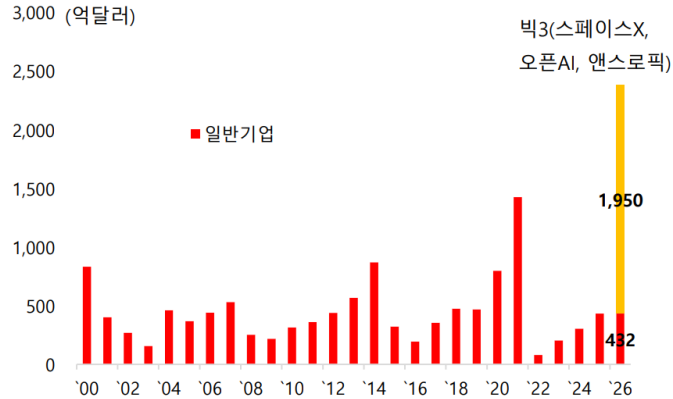
공모액 상위 기업 상장 직후 시가총액

회사명	상장국가	상장연도	공모액 (억달러)	상장 직후 시가총액 (억달러)	업종	비고
Aramco	사우디	2019	256	18,772	석유/화학	초과배정옵션 포함시 294억달러
Alibaba	미국	2014	218	2,314	IT/인터넷	미국에서 DR 상장
Softbank	일본	2018	213	547	통신	소프트뱅크그룹의 통신 자회사
NTT Mobile	일본	1998	181	761	통신	NTT 도코모의 전신
VISA	미국	2008	179	786	신용카드	
AIA	홍콩	2010	178	358	보험	
ENEL	이탈리아	1999	165	549	전력	미국에도 중복상장
Facebook	미국	2012	160	816	IT/인터넷	메타로 사명 변경
GM	미국	2010	158	495	자동차	재상장
ICBC(H)	홍콩	2006	140	1,391	은행	홍콩거래소 H주로 상장

자료: 국제금융센터(재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규모 IPO로 자금 흡수 우려 있지만, 시중 자금은 충분

미국 IPO 시장 역대 최대 규모 달성



자료: 국제금융센터(재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공모액 2,400억 달러 규모, 주식시장 활황과 고금리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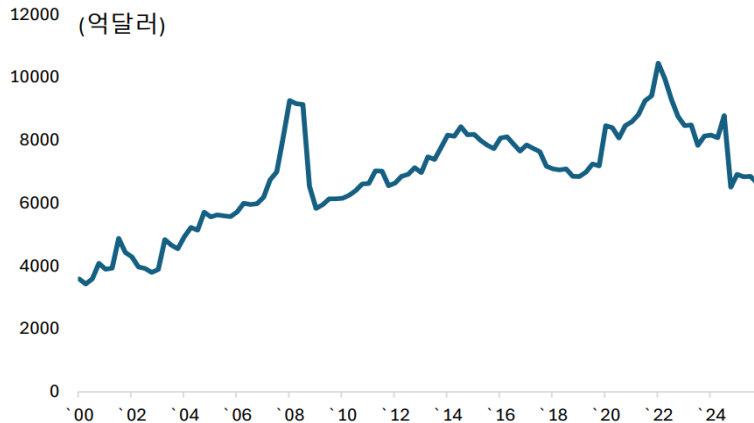
총 규모 (Total Scale)
2026년 일반 기업 예상 공모액 약 2,400억 달러 (SPAC 제외).
 SPAC 포함 시 2021년 역대 최대치(3,207억 달러) 상회 가능성.

"Big 3" 비중 ("Big 3" Weight)
스페이스X, 오픈AI, 앤스로픽 3개 기업의 공모액만 1,950억 달러 차지.

배경 (Catalyst)
주식시장 활황, 벤처캐피탈(VC) 자금 회수 폭발,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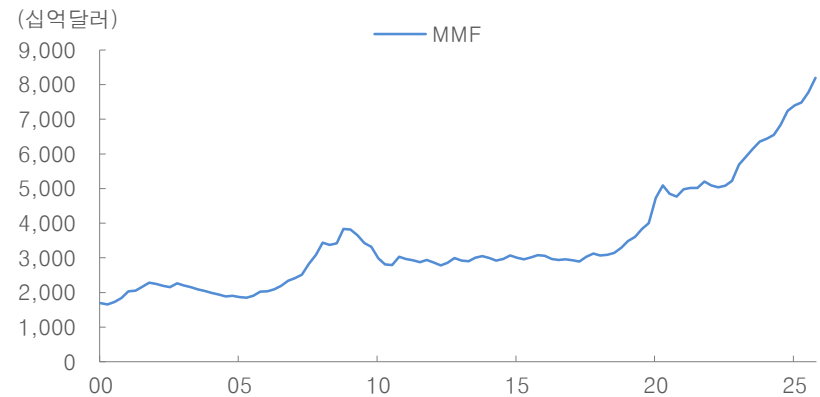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주식시장 투자예탁금은 감소



자료: 국제금융센터(재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감소된 투자 예탁금은 고금리 환경 속 MMF 등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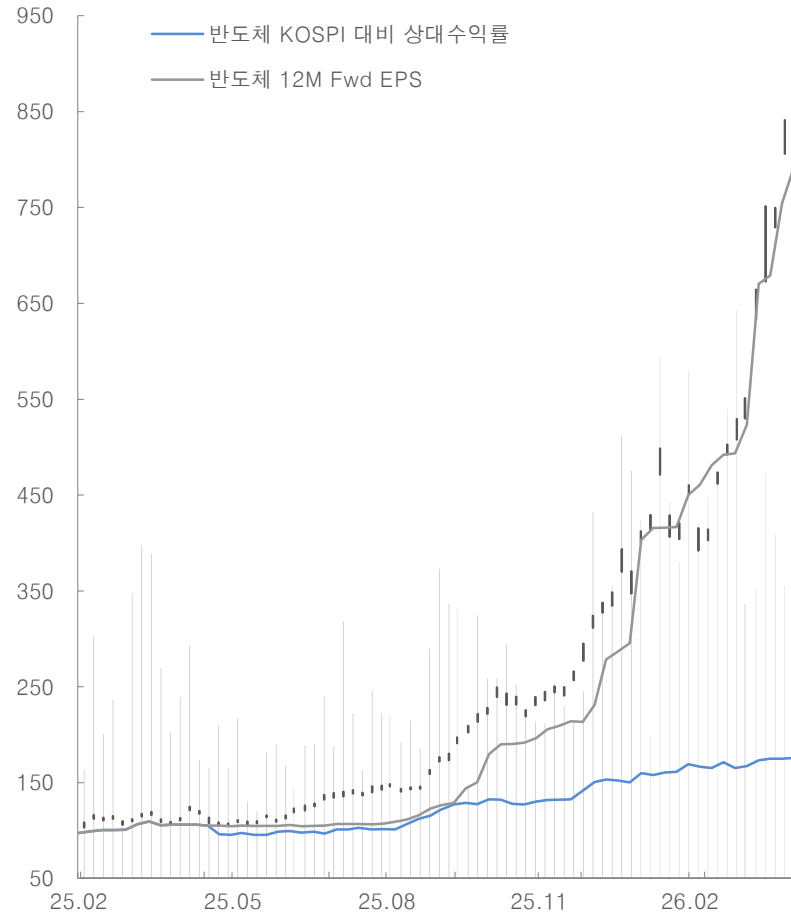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 오픈AI, 엔스픽 흥행 시 더욱 부각될 반도체 이익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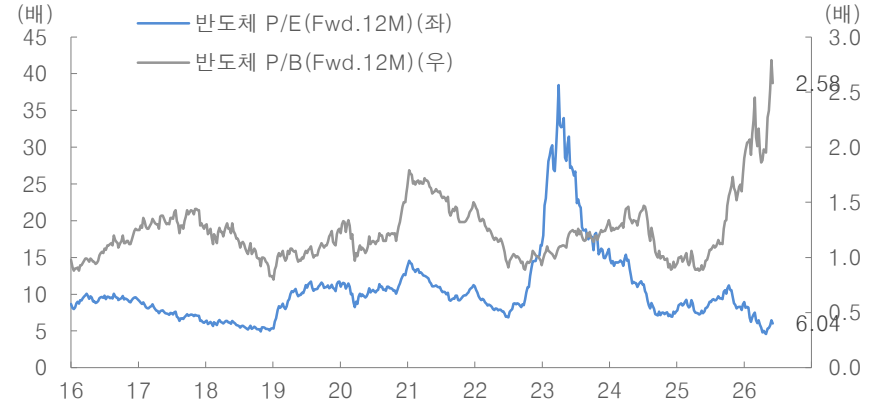
주도주 쏠림 현상 심화되며 주가 급등, 거래량 상승 추세

(25.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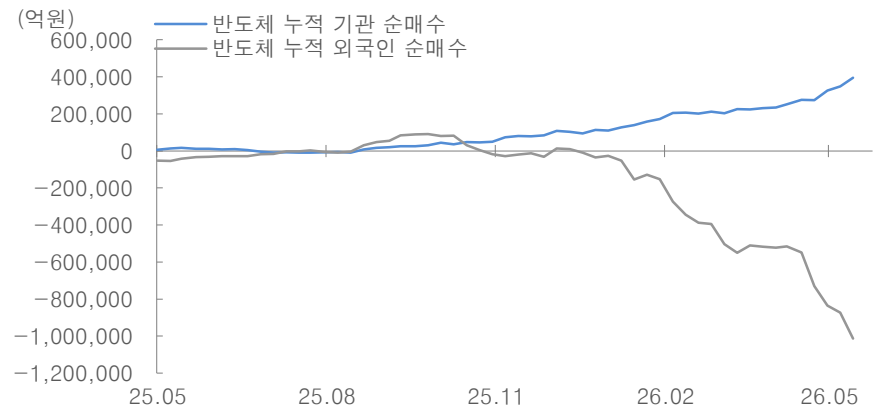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선행 P/E 6.44배로 밸류에이션 매력 여전히 높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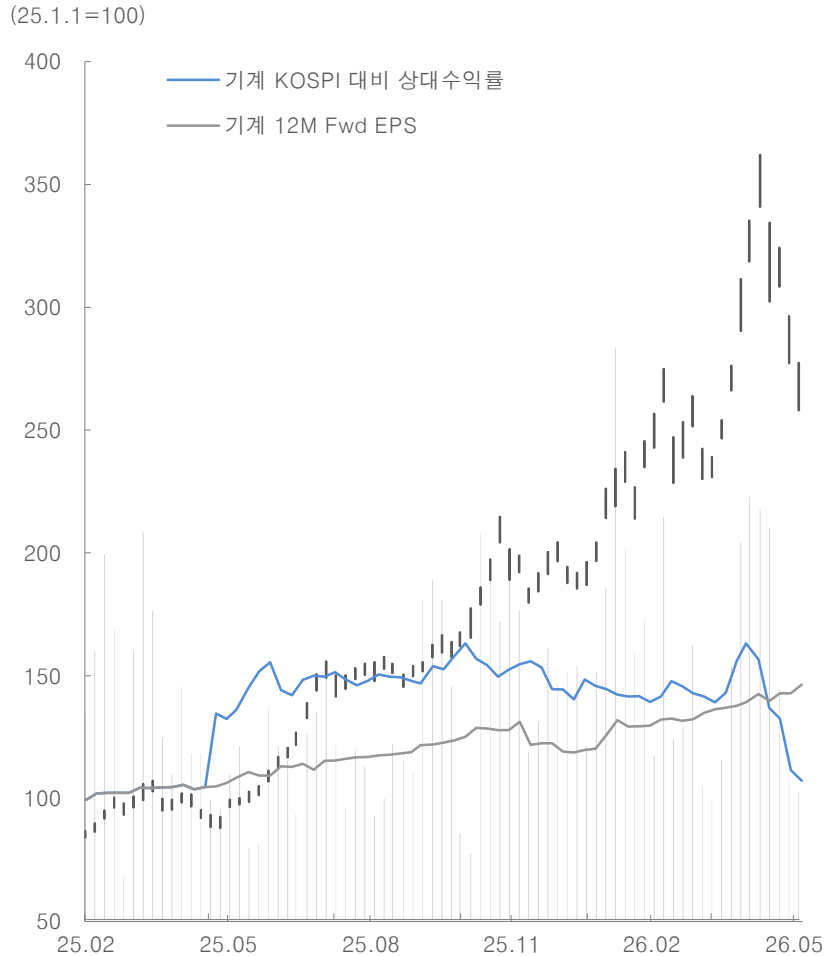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자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 출회 지속, 기관 순매수 확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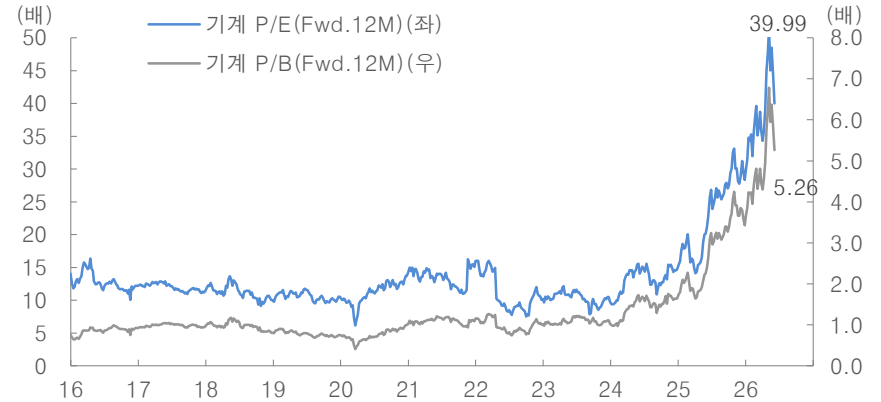
[기계]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으로 전력기기 주목받을 가능성 높음

최근 급등한 주가로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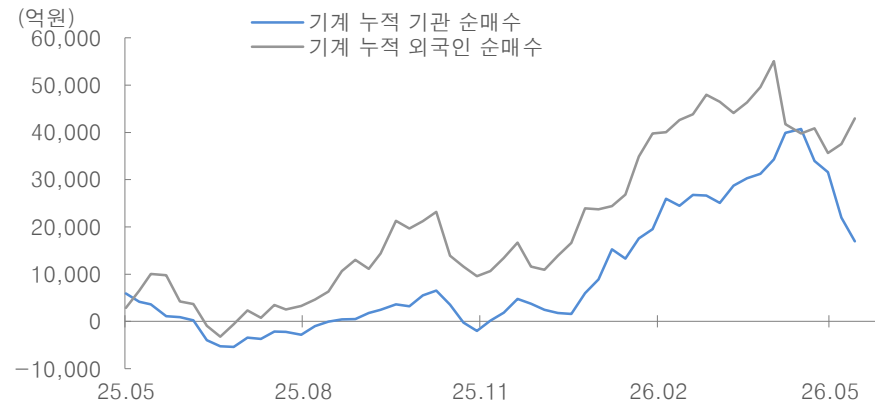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선행 P/E 39.99, P/B 5.26배로 과열 해소로 밸류에이션 급락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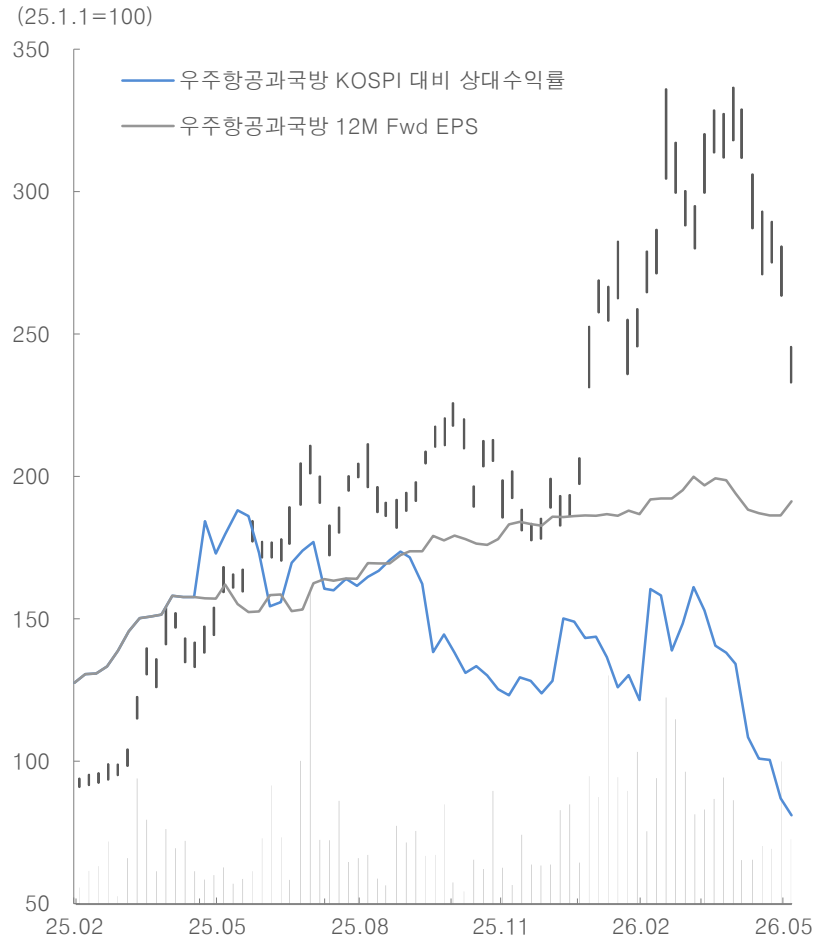
기관 순매도 확대, 외국인 순매수 재차 전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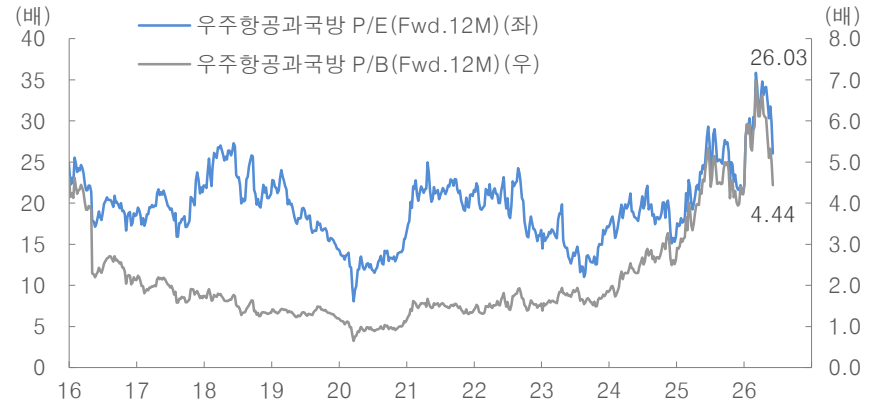
[방산] 스페이스X 상장으로 우주, 항공 모멘텀 강화될 여력 충분

주가, EPS 고점 확인 후 하락 반전한 후 낙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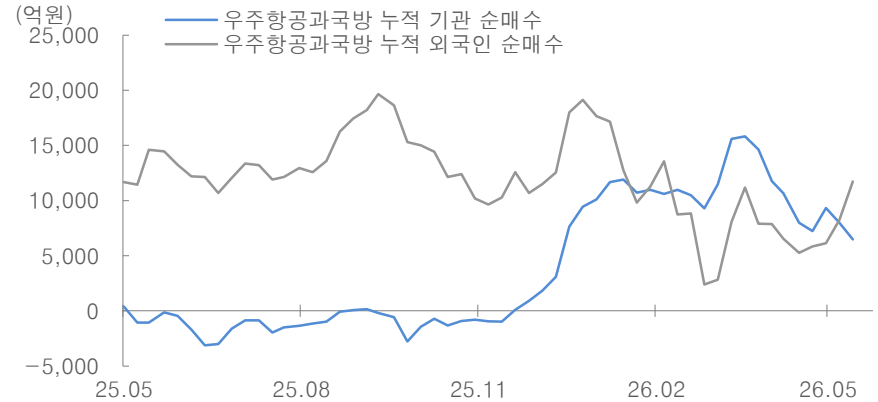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선형 P/E는 26.03배, P/B 4.44배로 급락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기관 수급 이탈하며 주가 약세 흐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과거 대규모 IPO 사례

	상장일	기업	공모가 (& Bil)	공모액 (\$ Bil)	공모가시총 (\$ Bil)	공모 비율 (%)
1	04.08.19	Google	85	1.9	~23	~7
2	07.06.22	Blackstone	31	4.8	~33	~14
3	08.03.19	Visa	44	17.9	~37	~52
4	10.11.18	General Motors	33	18.1	~50	~32
5	12.05.18	Facebook/ Meta	38	16.0	~104	~15
6	14.09.19	Alibaba	68	21.8	~168	~15
7	17.03.02	Snap	17	3.4	~24	~17
8	19.05.10	Uber	45	8.1	~76	~11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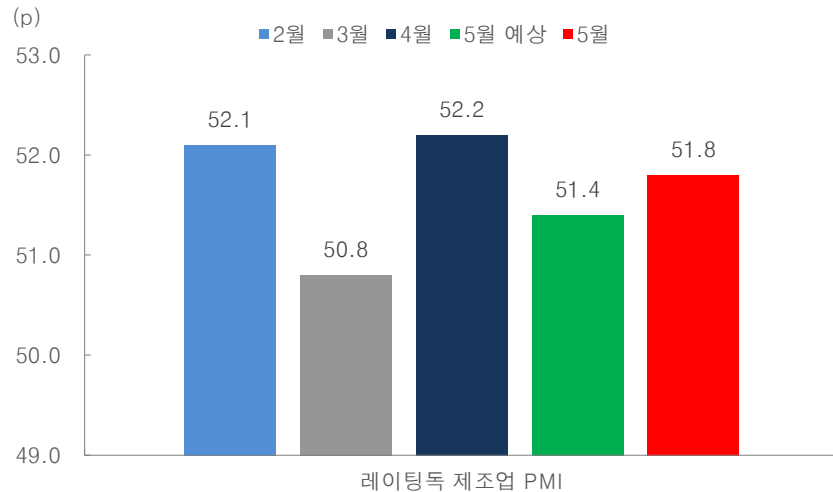
	상장일	기업	공모가 (& Bil)	공모액 (\$ Bil)	공모가시총 (\$ Bil)	공모 비율 (%)
9	20.09.16	Snowflake	120	3.4	~33	~10
10	20.12.09	DoorDash	102	3.4	~39	~10
11	20.12.10	Airbnb	68	3.5	~47	~8
12	21.03.11	Coupang	35	4.6	~60	~8
13	21.06.30	DiDi Global	14	4.4	~61	~7
14	21.07.29	Robinhood	38	2.1	~32	~7
15	21.11.10	Rivian	78	11.9	~67	~18
16	23.09.14	Arm Holdings	51	4.9	~55	~9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중국, 경기 회복 모멘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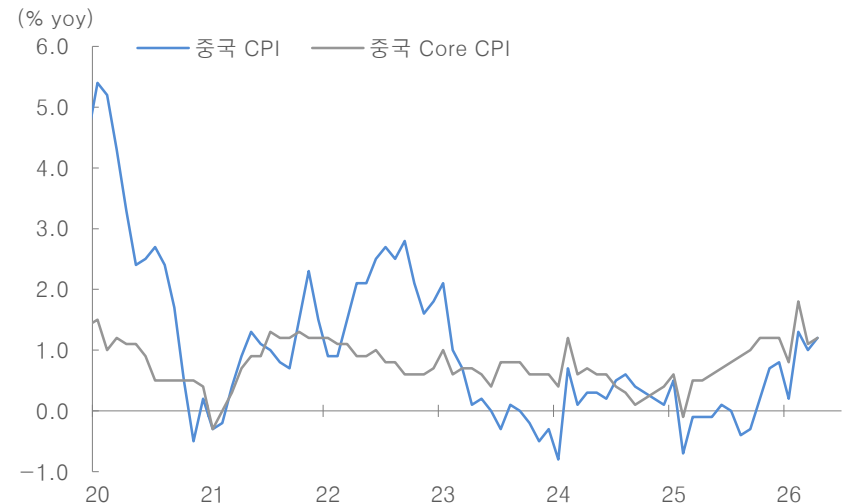
- **중국 5월 제조업 PMI는 51.8p로 성장 속도는 완화되었으나 6개월 연속 확장 국면 유지.** 중국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이어갔고, 시장 수요 개선, 신규 고객 확보, 신규 주문 증가 등이 제조업 경기 확장에 근거.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투입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 공급망 차질은 리스크 요인
- **서비스업 PMI는 54.4p로 6개월 연속 확장 국면 유지.** 서비스업 총활동과 신규 사업 모두 3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고, 고용도 다시 확대. 다만 비용 압력도 상승. 유가 및 원재료 가격 상승, 조달, 임금 및 기타 인건비에 따른 비용이 주된 상승 요인
- **중국 물가는 디플레이션 구간에서 벗어나 리플레이션에 진입하는 중.** 중등 사태에 따른 원유, 원자재 비용 상승과 첨단 산업 투자와 제품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5월 CPI, PPI가 둔화한다면 중국의 경기 우려 부각될 수 있고, 동시에 추가 경기부양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 존재
- 4월 수출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로 선제적 구매 확대되며 큰 상승폭을 기록.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국의 에너지 수입은 급감했지만, 예상치를 상회. 5월 수출과 수입 모두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수입 호조는 경기 모멘텀을 지지

성장 속도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운영 여건은 양호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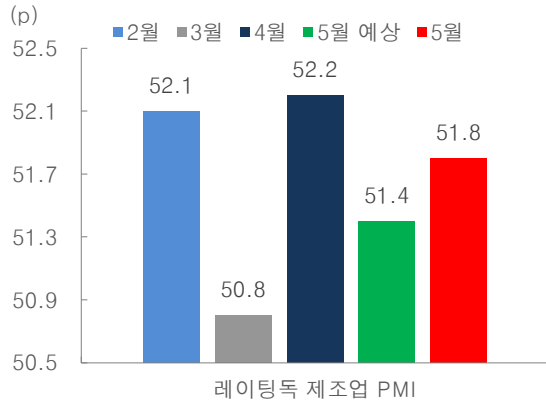
중국 소비자 물가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온건한 반등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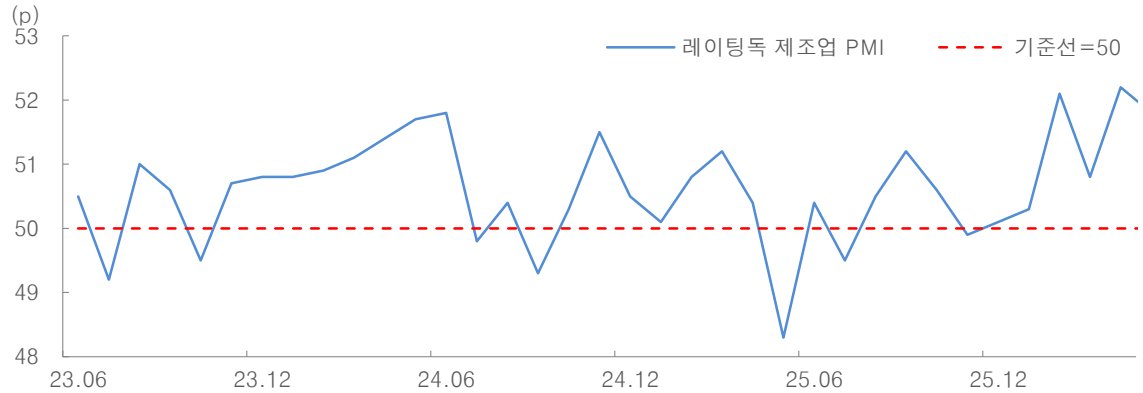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비스업의 견고한 확장세

제조업 PMI 전월대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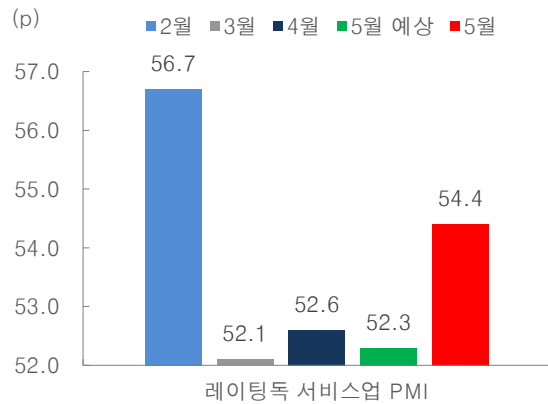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성장 속도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운영 여건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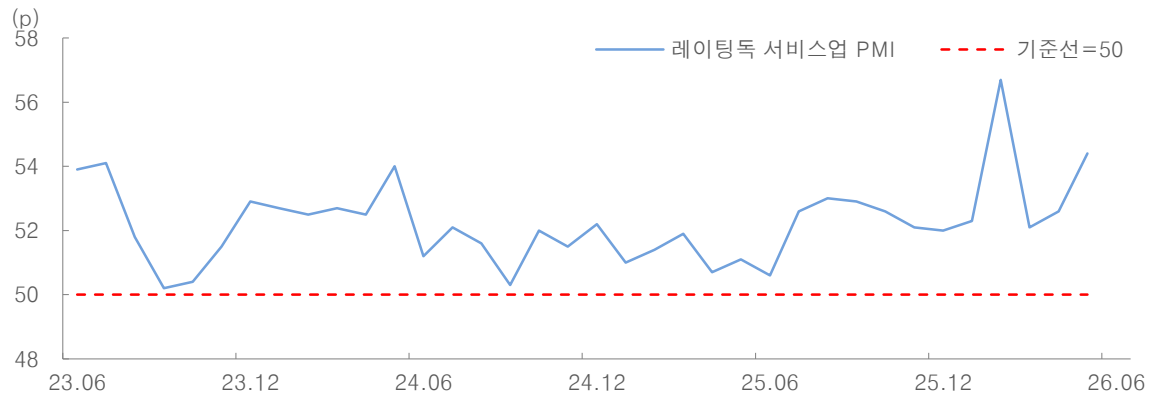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서비스업 PMI 가파른 상승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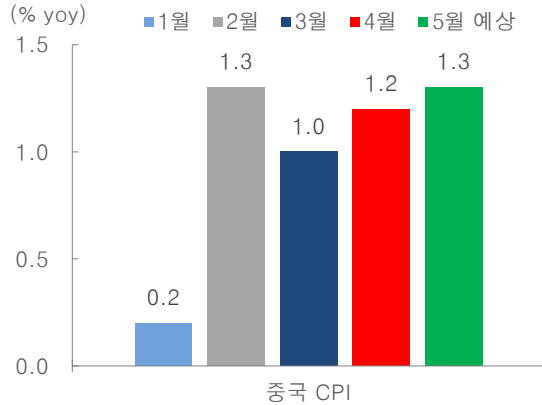
기업 활동 지수, 신규 사업 빠른 성장률을 기록, 3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성장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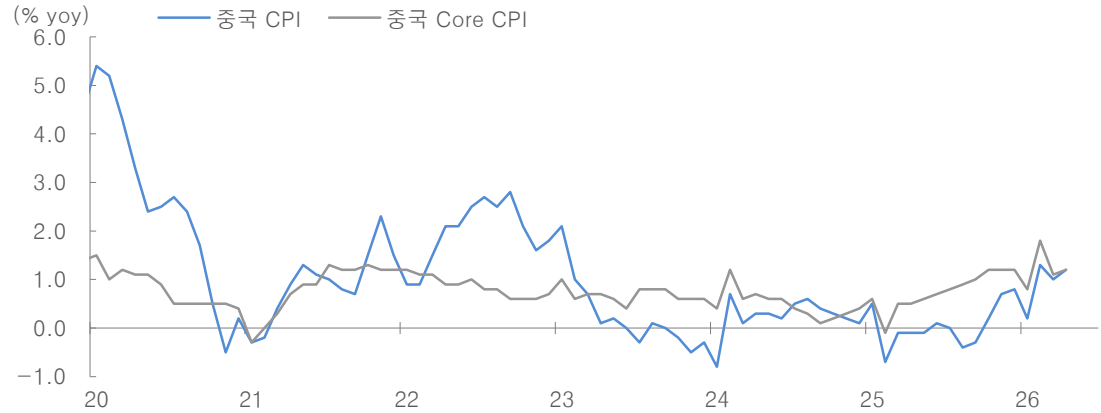
중국 물가는 디플레이션에서 리플레이션으로,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

5월 CPI +1.3%로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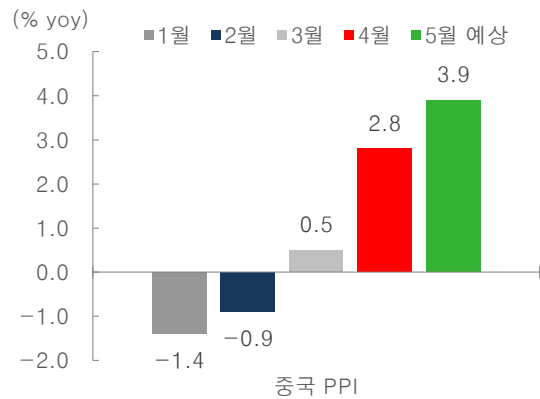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소비자 물가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온건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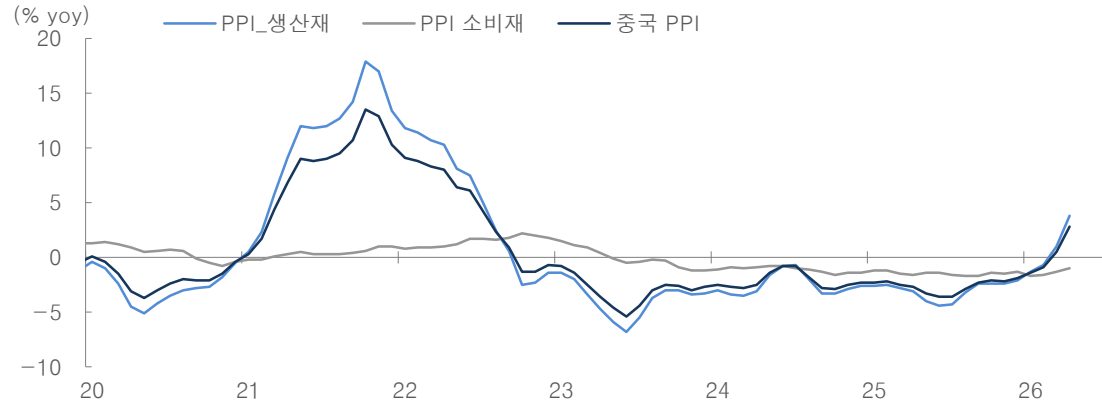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월 PPI +3.9%로 상승 추세 예상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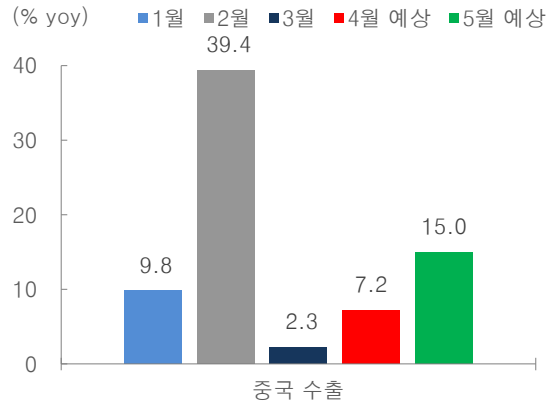
중국 생산자 물가는 2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임. 물가 환경 개선을 시사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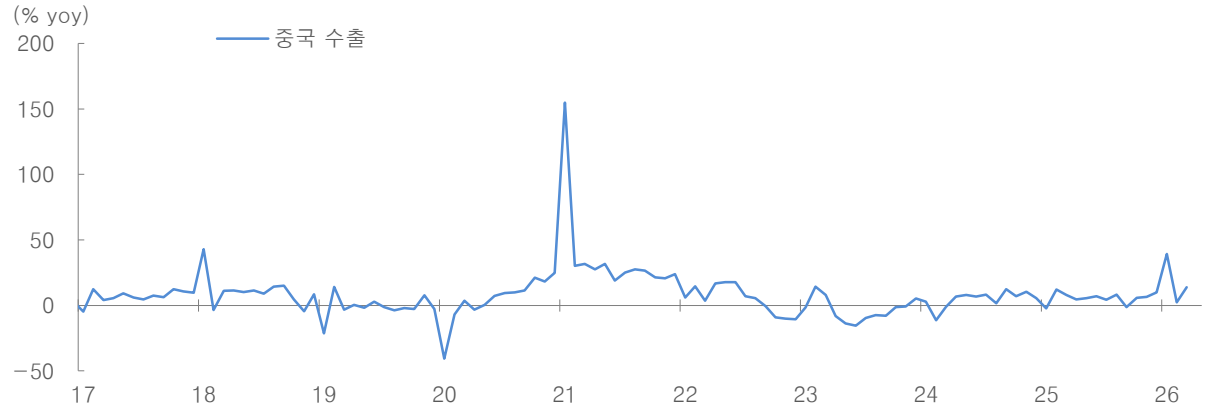
중동 불확실성에도 중국의 무역 부문 활황 유지

5월 수출 상승세 지속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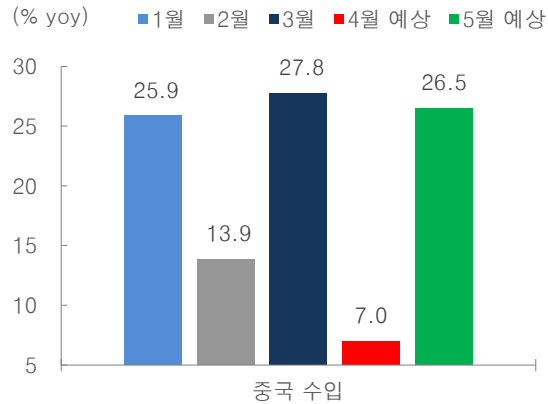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대미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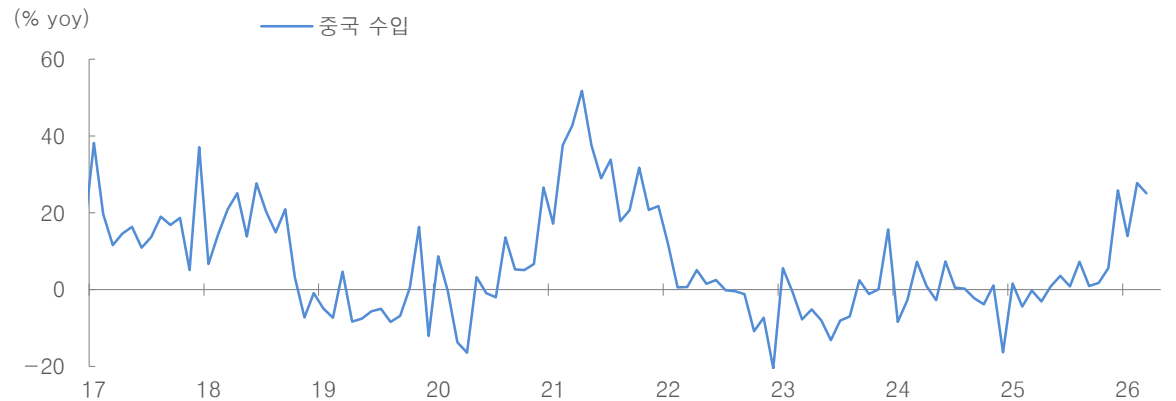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월 수입도 전월대비 증가 예상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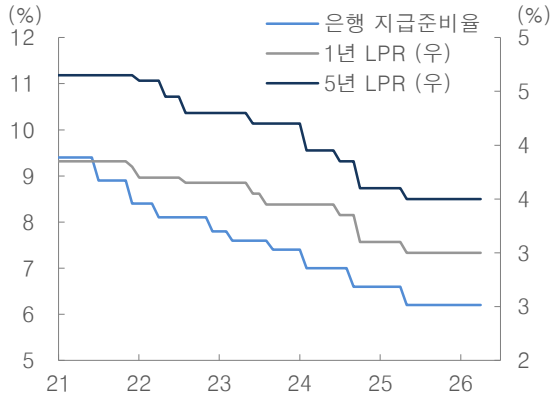
4월 수입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속에도 상승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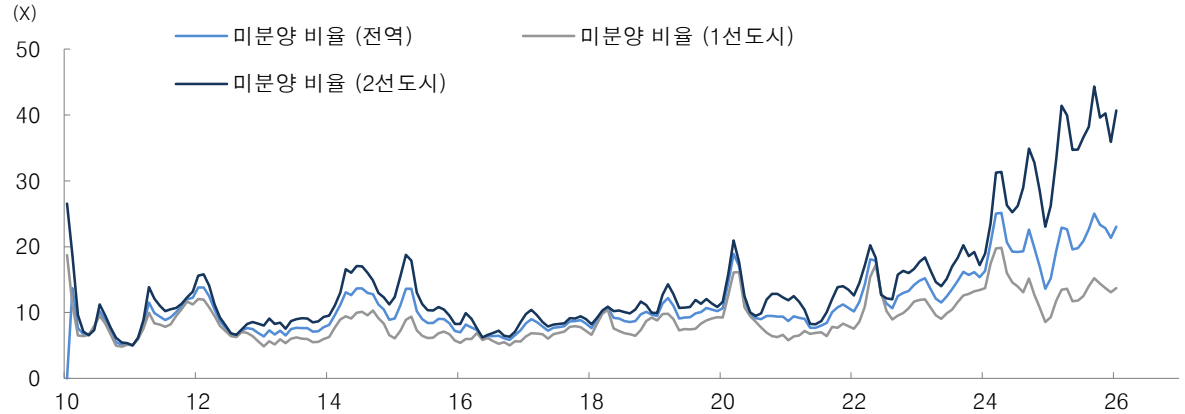
소비 회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

LPR금리 12개월 연속 동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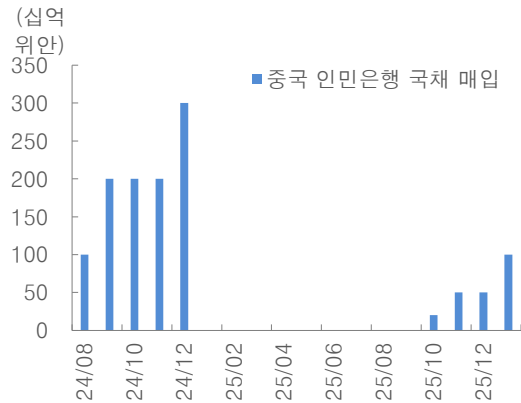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위축된 부동산 경기는 소비심리 약화의 원인



자료: 주요 언론,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BOC는 국채 매입 확대 가능성도 시사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선 도시들은 소비 유도를 위해 부동산 규제까지 추가 완화

구분	2025년 12월(1224 대책)	2025년 8월(808 대책)
외지인 매입 제한(시내)	사회보장보험(2년) 납입 이력 필수	사회보장보험(3년) 납입 이력 필수
외지인 매입 제한(외곽)	사회보장보험(1년) 납입 내역 필수	사회보장보험(2년) 납입 내역 필수 조건 충족 시 다주택 허용
다자녀 가정	시내 기준, 매입 가능 주택 수 확대 (현지인: 3채 / 외지인: 2채)	주택 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 (최대 160만원)
주택담보대출 금리	1주택·2주택 구분 폐지, 동일 금리 적용	1주택·2주택 금리 차등 적용
주택공적금 대출 LTV	2주택 LTV 25%로 완화	일괄 30%(지역 구분 없음)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허가제 → 신고제 전환	기존 유지

자료: State Gri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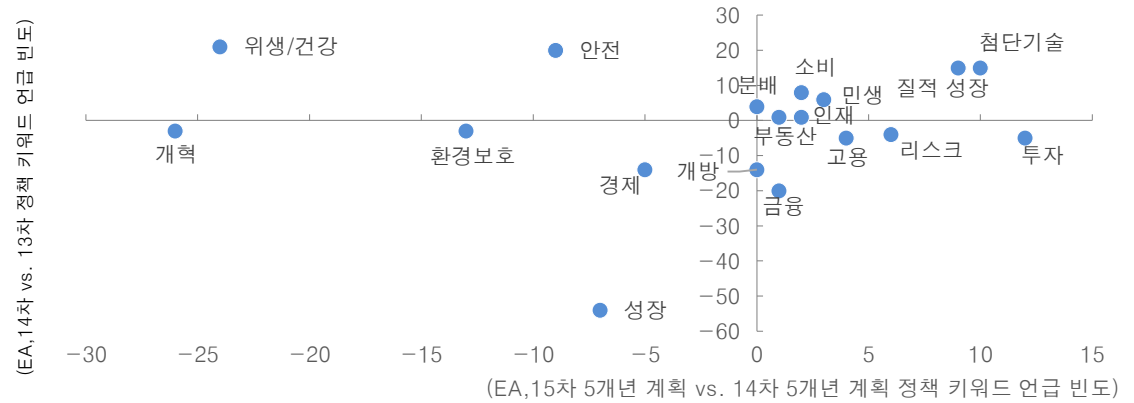
질적 성장과 투자 확대를 위해 유동성 공급과 전력망 투자 확대

1월 1Y MLF 금리 인하(1.55→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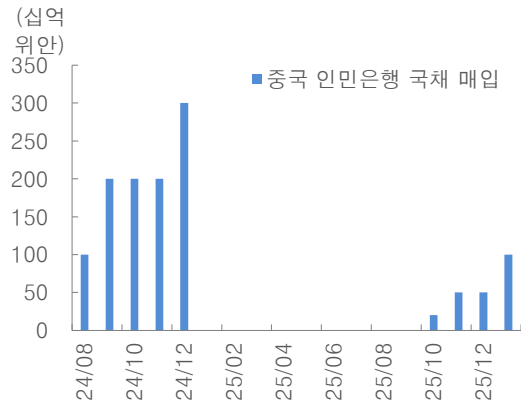
자료: Lianhe Zaobao,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질적 성장 방향은 맞지만 이는 향후 5년을 위한 목표, 지금은 부양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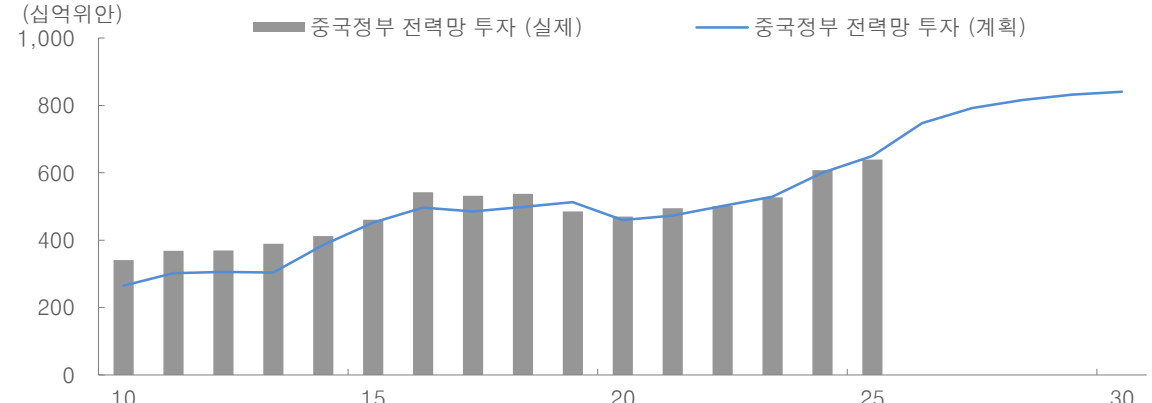
자료: 중국 정부 공식사이트,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다시 한번 유동성 투입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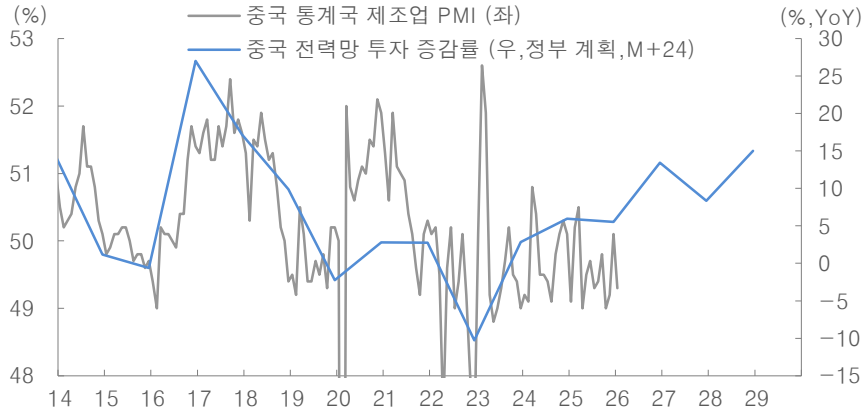
질적 성장 + 투자 모두 잡기 위해 전력망 투자 목표치 상향



자료: State Gri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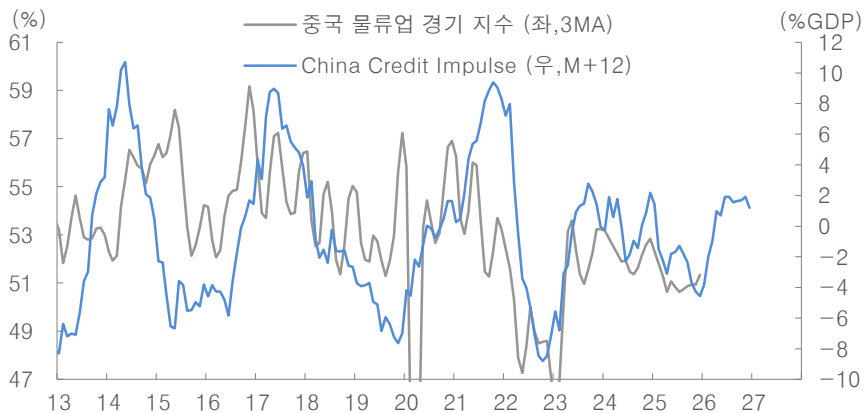
26년 중국 경기 회복 가시화 예상. 위안화, 비철금속 강세 전망

전력망 투자가 제조업 PMI를 24개월 선형. 연내 경기 반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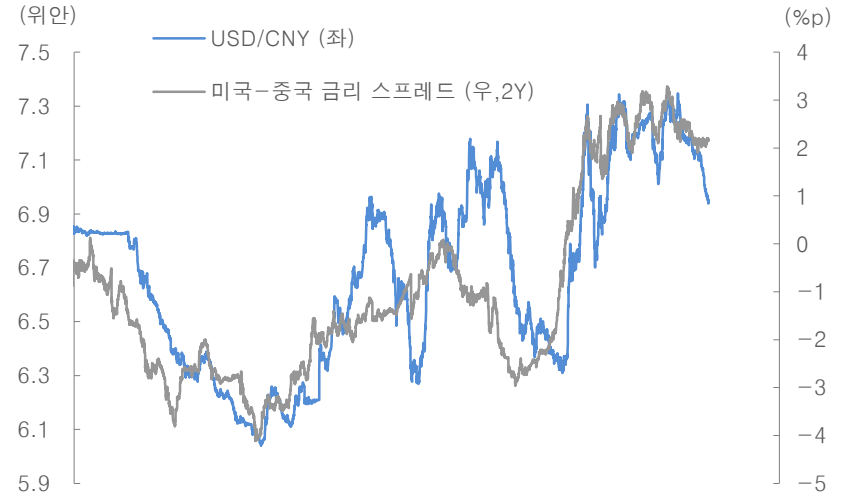
자료: State Grid, W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가 부양으로 내년까지 정책 효과 발생 예상



자료: W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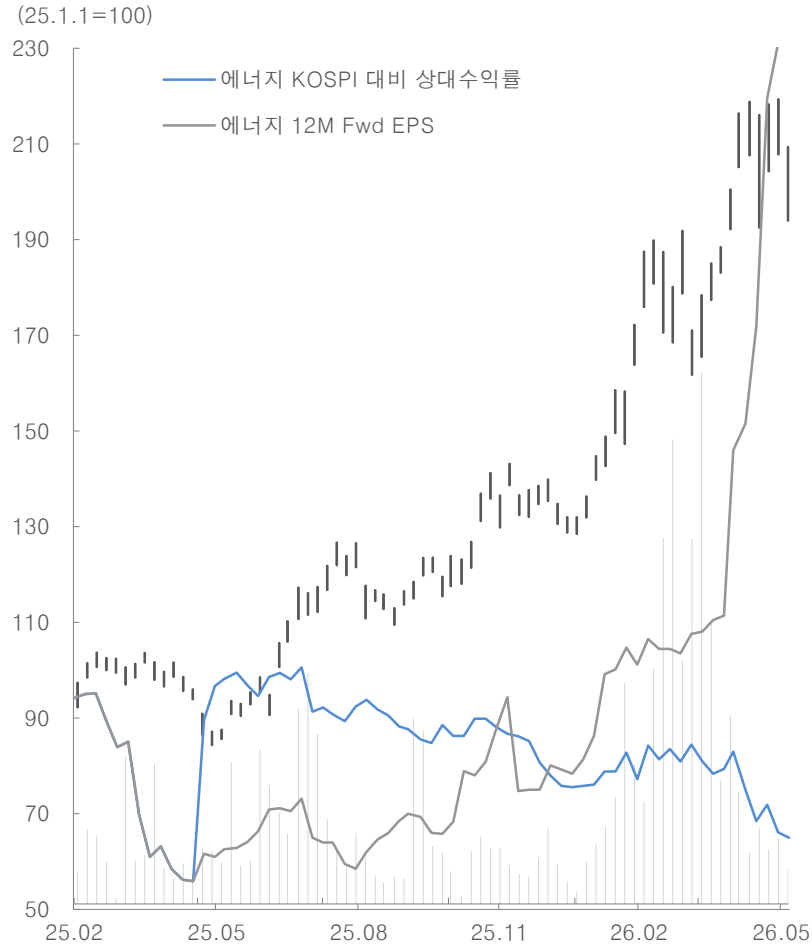
FX는 성장률 함수, 추가 부양으로 위안화, 비철금속 강세 예상



자료: CEIC,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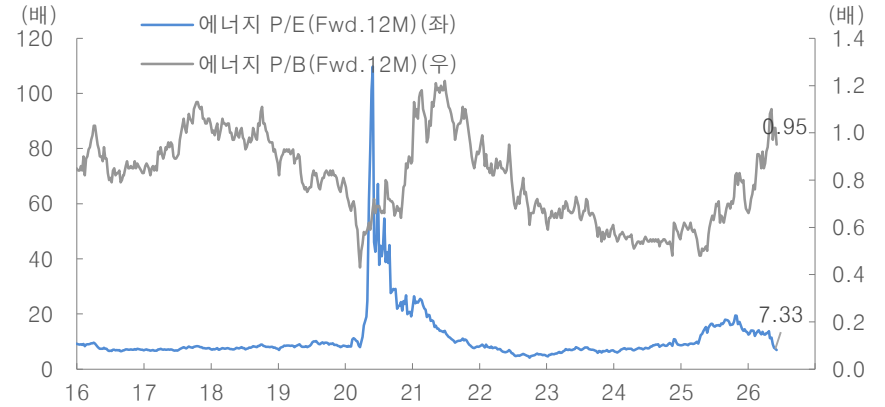
[에너지]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지연, 중동 리스크로 인한 반사 수혜 기대

EPS, 주가 상승 추세이지만, KOSPI 대비 수익률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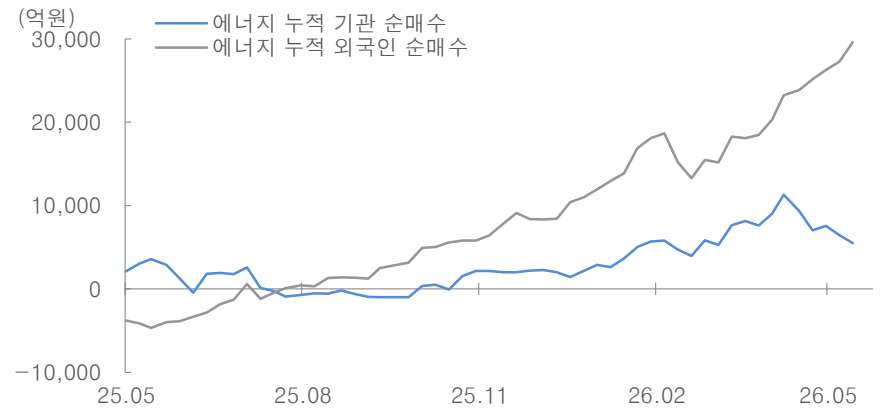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선형 P/B 상승 추세, 그럼에도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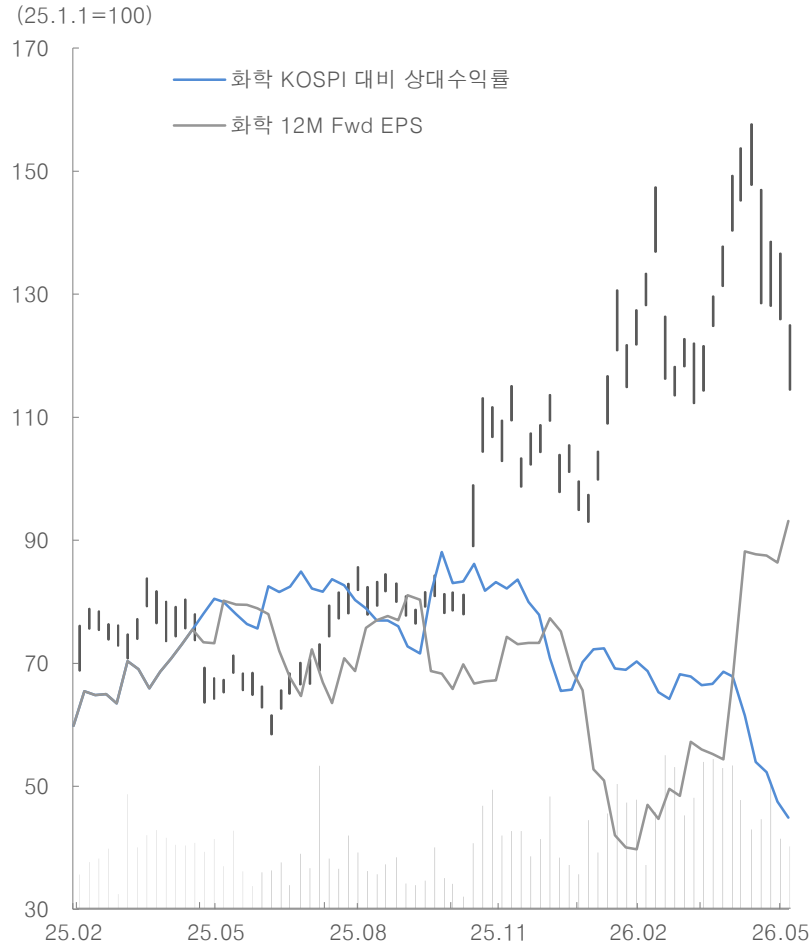
외국인 수급 유입 확대, 기관 순매도 전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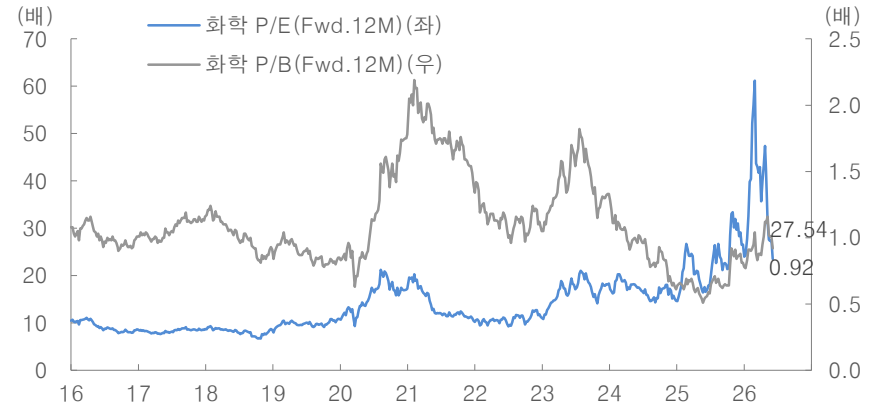
[화학] 실적 대비 주가 매력도 확대, 2차전지 턴어라운드 기대감

선행 EPS 상승 흐름 뚜렷, 그럼에도 주가 흐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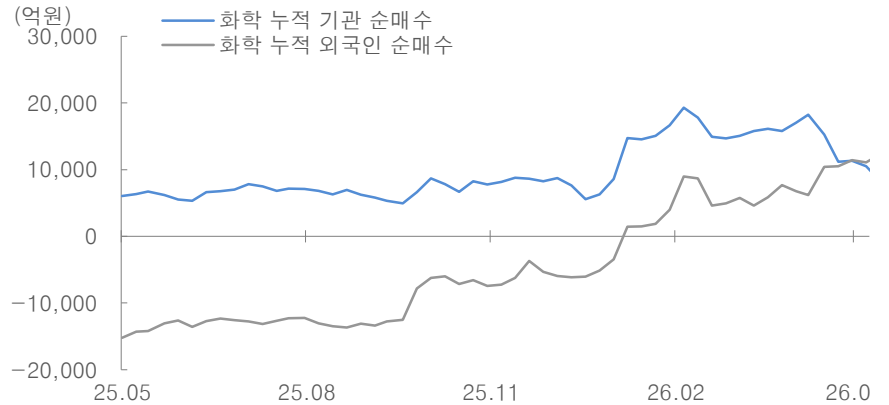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 PBR 0.92배로 저평가 구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순매수 확대, 기관 순매수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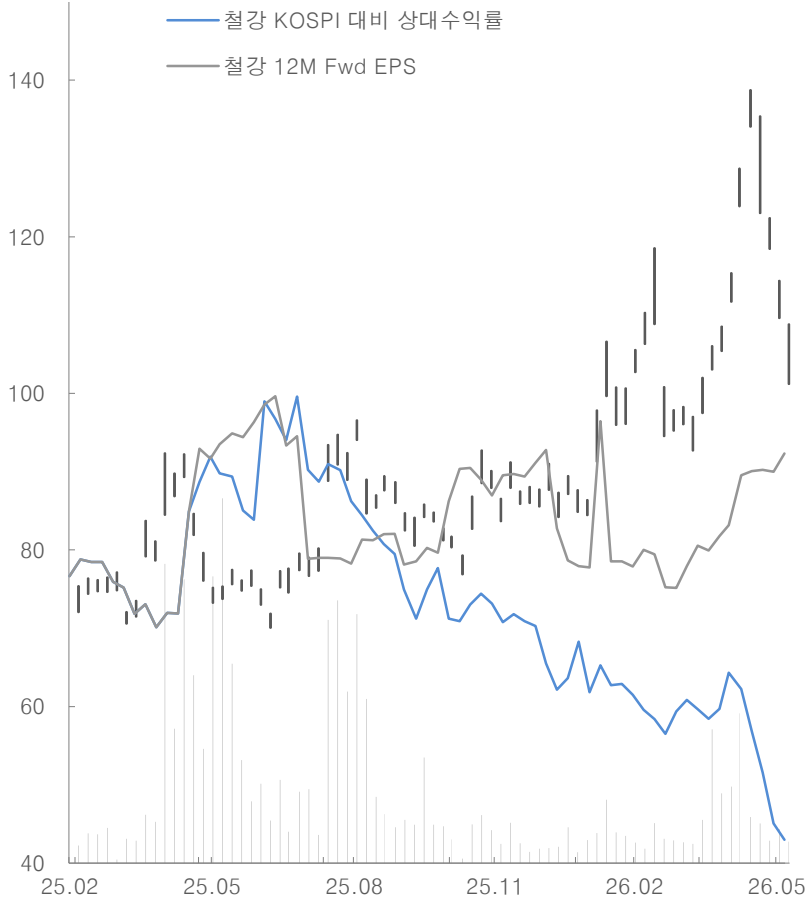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철강] 중국 공급 축소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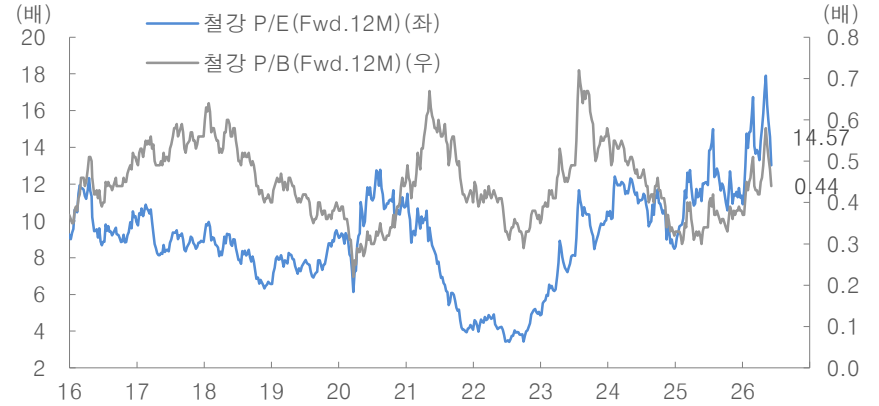
주가, EPS 동반 상승 추세, 거래량도 회복된 모습

(25.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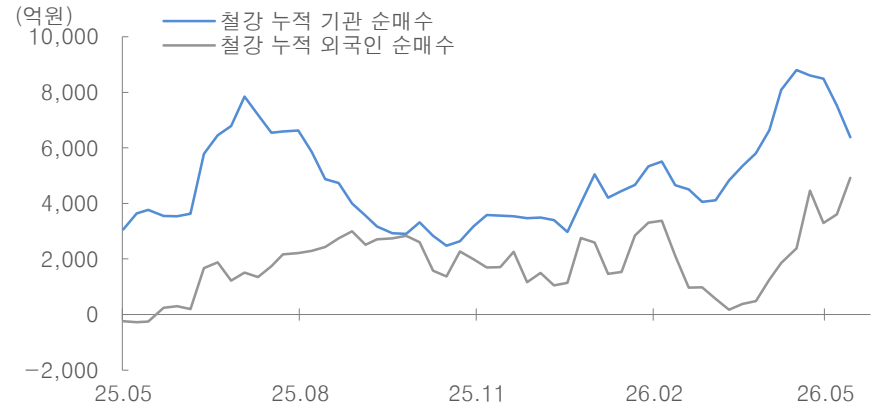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지 않아, 선행 P/B 0.44배로 하락세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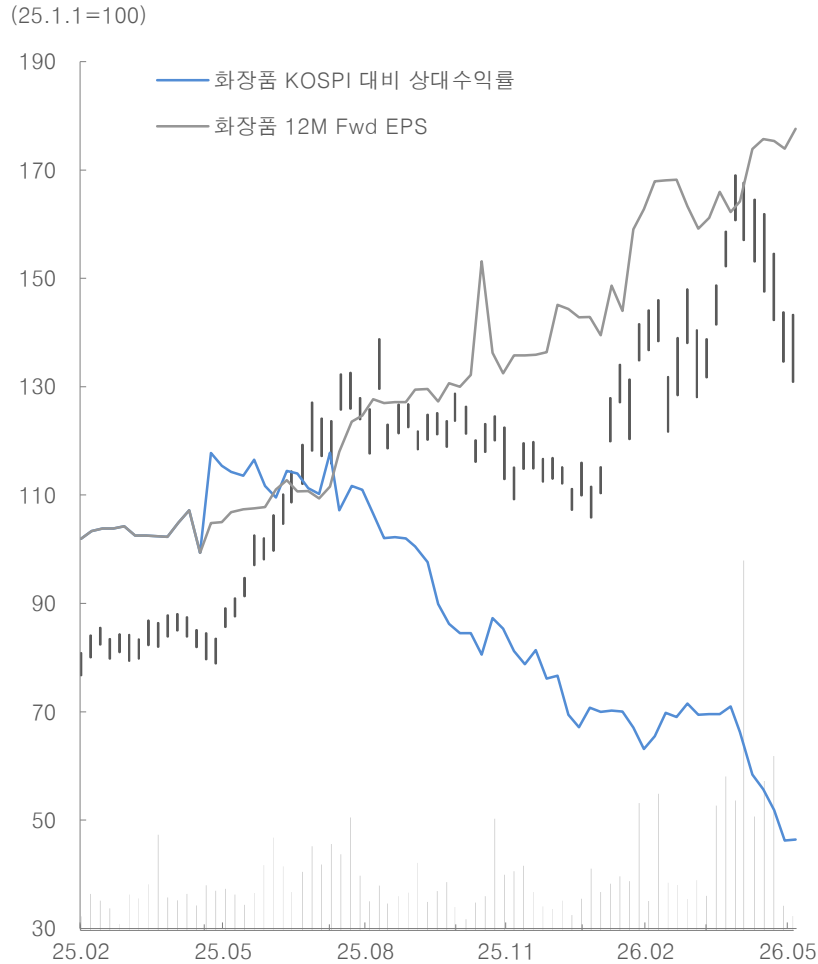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 지속되는 중, 기관 순매도 전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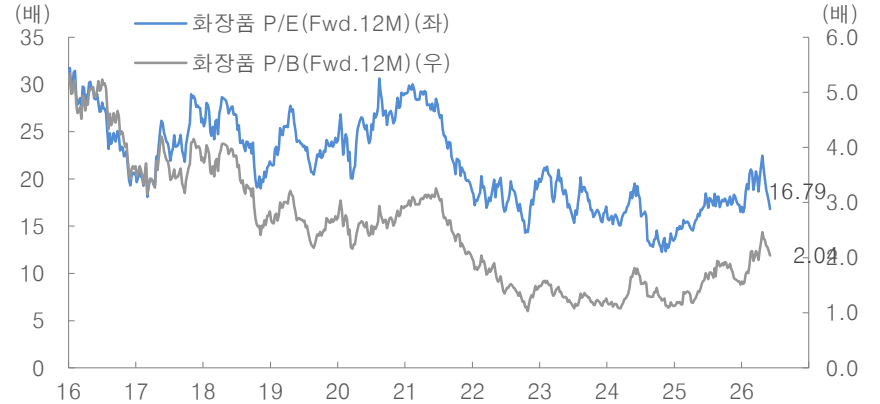
[화장품] 중국 소비경기 회복 시 수혜 기대, 글로벌 수출 실적에 따른 강세 흐름

EPS 상승 흐름 뚜렷, 주가 신고가 경신 후 하락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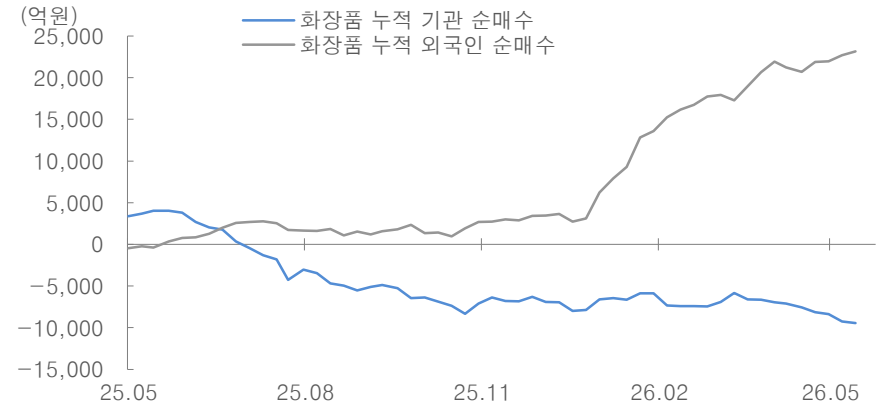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화장품 밸류에이션 P/E 16.79배로 상승 흐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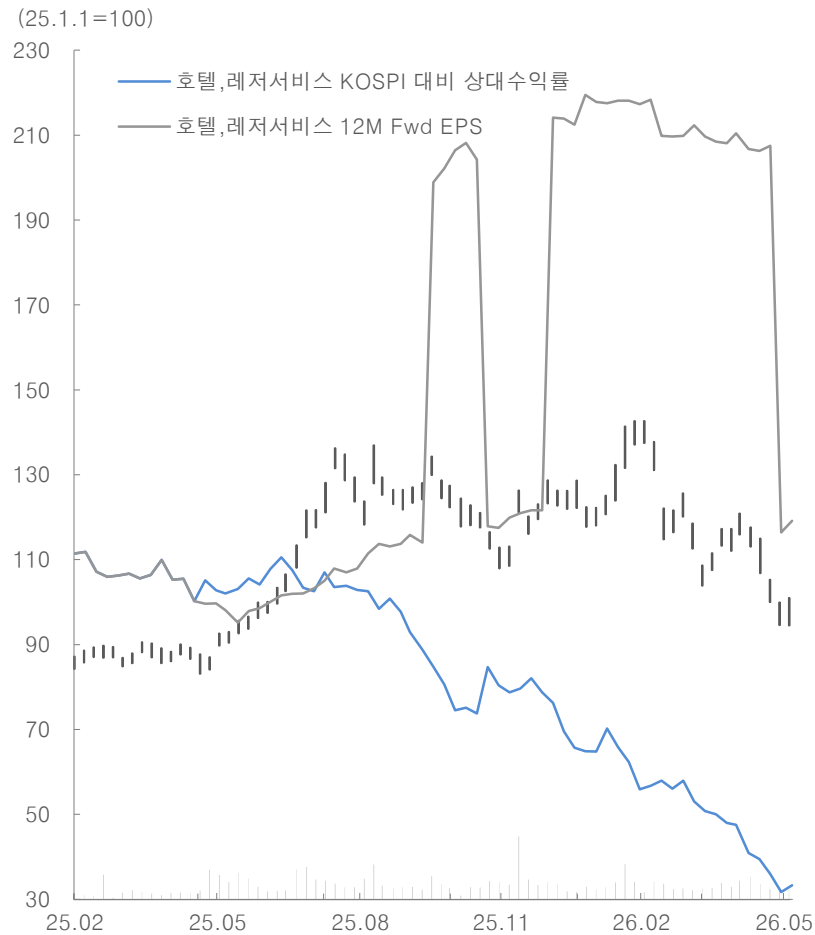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확대, 기관 수급 유입은 저조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호텔,레저] 관광객 여행 수요 유효.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

시장에서 소외되며 부진한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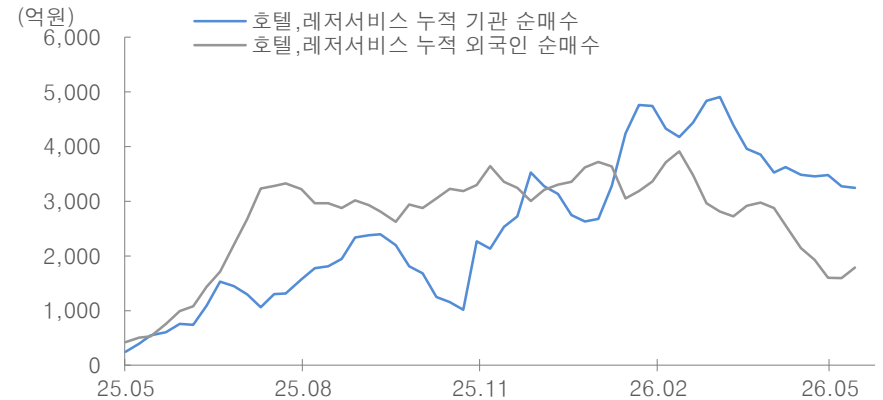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호텔/레저 밸류에이션은 저점을 다지는 중. P/E 11.7배, P/B 0.95배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국인, 기관 수급 이탈 지속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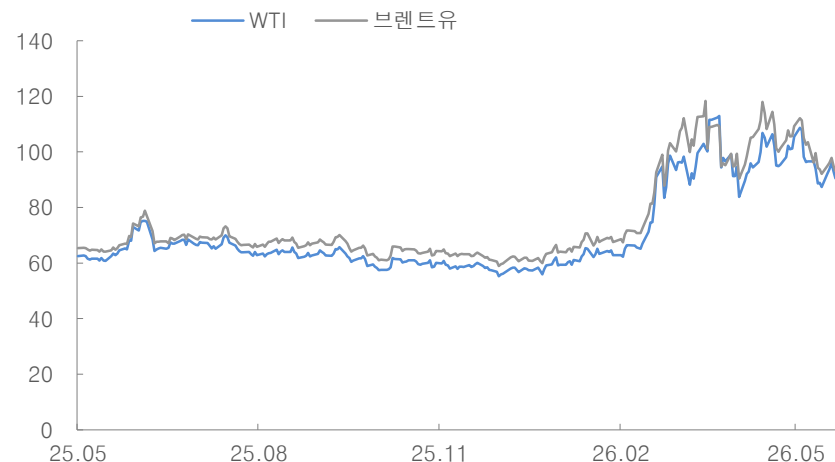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지연 장기화, 결국 협상 테이블로 향할 가능성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동 내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며 불확실성 확대**.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했고, 이란은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무력 충돌이 격화. 특히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
- 양측의 군사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 WTI는 90달러선을 하회했으나, 군사적 충돌 이후 95달러 부근까지 반등. 미국은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란이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을 더욱 반영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발언도 종전 협상 지연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언급.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 여기에 이란 동결 자산을 활용해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인프라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거론. **미국의 협상 타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며 종전 협상 불확실성 확대**
- 한편 이란의 원유 저장 여력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정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워터코닝 현상 등으로 생산능력이 훼손될 가능성 높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과 미 하원의 종전 촉구 법안 발의 등 정치적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 장기화는 부담 요인. 결국 **미국의 정치적 압력과 이란의 생산능력 훼손 리스크로 협상에 나설 유인이 존재하며, 단기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종전 논의는 재개될 가능성 충분**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지연으로 내리지 못하는 유가

(USD.Bbl)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발언과 중동 내 군사적 충돌 지속

US eyes Iranian assets for Gulf allies' reconstruction, source says

By David Lawder, Eman Abouhassira and Ahmed Elimam

June 7, 2026 7:28 AM GMT+9 · Updated 35 mins ago



One killed in Iranian attack on Kuwait, airport terminal damaged

By Ahmed Elimam

June 3, 2026 3:20 PM GMT+9 · Updated June 4, 2026



자료: Reuters, 연합뉴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동 내 군사적 충돌과 미국의 이란 압박 태도는 종전 기대감을 약화

중동 지역 내 군사적 충돌 지속

US says it struck Iranian drone command sites at the weekend

By Reuters

June 1, 2026 12:33 PM GMT+9 · Updated June 1, 2026



One killed in Iranian attack on Kuwait, airport terminal damaged

By Ahmed Elimam

June 3, 2026 3:20 PM GMT+9 · Updated June 4, 2026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하원,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법안 통과

US House votes for measure that would end Iran war, in blow to Trump

By Patricia Zengerle

June 4, 2026 6:24 AM GMT+9 · Updated June 5, 2026



- 미국 하원은 이란 전쟁 종식 결의안을 통과
- 미군이 이란 관련 군사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 필요
- 다만 상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로 당장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자료: new arab,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이란 전쟁 조기 종식 약속

Trump, campaigning for Republicans in Wisconsin, vows quick end to Iran war

By Renee Hickman and Bo Erickson

June 5, 2026 7:06 PM GMT+9 · Updated June 6, 2026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이란 동결 자산으로 걸프 지역 국가 피해 복구 및 재건

US eyes Iranian assets for Gulf allies' reconstruction, source says

By David Lawder, Eman Abouhassira and Ahmed Elimam

June 7, 2026 7:28 AM GMT+9 · Updated 35 mins ago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의회에서 군사행동 종료를 시사, 전쟁 장기화를 지속할 수 없는 이란

이란 협상안 거절하고 장기 봉쇄를 시사한 미국, 군사행동은 종료

Apr 26, 2026 - Politics & Policy

Iran offers U.S. deal to reopen strait but postpone nuclear talks



Barak Ravid

Trump Tells Aides to Prepare for Extended Blockade of Iran

The president prefers decisive victories, but none of the available options provides him with a swift exit from the conflict

Trump Tells Congress Iran Conflict Is Over, Sidestepping War Authorization

The administration says the war ended with an April 7 cease-fire

By [Lara Seligman](#) [Follow](#), [Robbie Gramer](#) [Follow](#) and [Lindsay Wise](#) [Fo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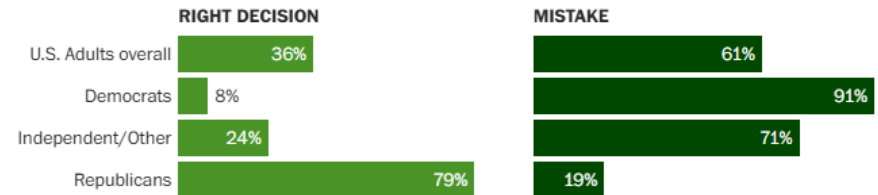
Updated May 1, 2026 4:17 pm ET

자료: Axios, Reuters, WSJ,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인 61%가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 실수라고 응답

Six in 10 say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was a mistake

Q: Considering everything, do you think the United States did the right thing in using military force against Iran, or do you think this was a mistake?



Note: Percentage skipping question not sh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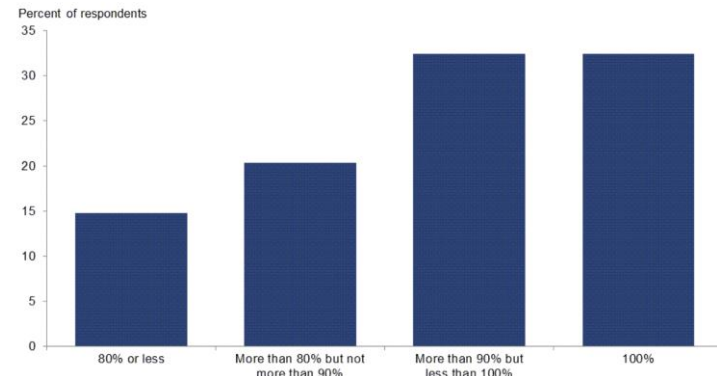
Source: Washington Post-ABC News-Ipsos poll April 24-28, 2026, among 2,560 U.S. adults with an error margin of +/- 2 percentage points; error margin is larger among subgroups.

자료: WP,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최소 10%의 영구적 생산성 훼손 발생할 예정

What share of shut-in production in the Persian Gulf do you expect will return eventually?

About two-thirds of respondents think at least 90 percent of shut-in production in the Persian Gulf will return to market eventually.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하나, 핵 합의 문제로 협상 결렬

양 측이 제시한 협상안

미국	순번	이란
현재 핵 능력 해체	1	영구적 종전 요구
핵무기 개발 포기 서약	2	NPT 내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우라늄 농축 금지	3	역내 분쟁 전면 종료
농축우라늄 IAEA에 인도	4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시설 해체	5	대이란 제재 전면 해제
IAEA의 이란 접근권/감독권 보장	6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 체계 구축
대리 세력 이용 정책 포기	7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항로 재개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8	선박당 200만달러 통행료 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	9	통행료 수익 오만과 분배
미사일 사거리/수량 제한	10	통행료를 전후 복구 비용 활용
미사일 사용 자위 목적 제한	11	-
대이란 제재 완전 해제	12	-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지원	13	-
스냅백 조항 폐지	14	-
미공개(예상: 해협 통행료 결제 통화)	15	-

자료: The JoongAn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이란이 핵 포기를 거부했으며, 미국으로 복귀

US leaves Iran peace talks without a deal

By Ariba Shahid, Asif Shahzad and Parisa Hafezi

April 12, 2026 8:21 AM GMT+9 · Updated 54 mins ago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ance told reporters after the talks ended.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We've made very clear what our red lines are."

자료: Reuter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이란, 미국의 핵 포기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 결렬

Iran Says 'Unreasonable' U.S. Demands on Nuclear Issue, Hormuz Led to Failure

By Benoit Fau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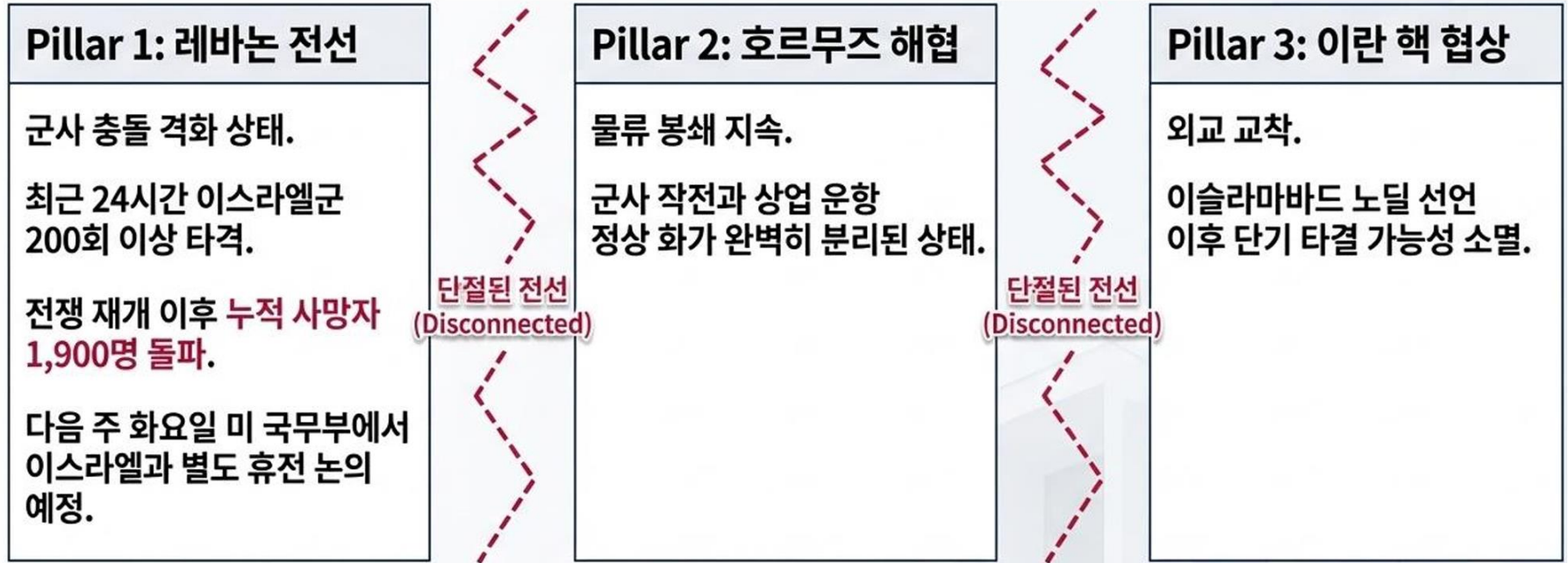
Iran's state broadcaster said "unreasonable demands" by the U.S. were responsible for the failures of talks after 21 hours. "Despite various initiatives from the Iranian side, the unreasonable demands of the American side hindered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it said. "American greed prevented reaching an agreement."

The state broadcaster said the disagreements included the Strait of Hormuz, which Iran wants to keep controlling, and its nuclear program. Iran has always insisted on its right to enrich uranium for civilian purposes.

자료: WSJ,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절반의 휴전협상. 레바논 전선에서 군사적 충돌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전. 핵 협상 난항

실질적인 휴전 합의인가? 휴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전선에서 군사 충돌은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속, 이란 핵 협상은 노딜...



- 미국/이란 간의 휴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내용은 불이행. 1차 협상은 있었지만, 시행 여부 불투명
- 휴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레바논 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은 오히려 격화. 별도 휴전 논의 중
- 호르무즈 해협도 여전히 봉쇄. 기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 휴전 협의 내용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협상 진행. 결렬...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켜질 수 있을까?

미국과 이란 간 Red Line 충돌. 좁힐 수 있을까?

미국 15개 요구안과 이란 10개 요구안 중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핵 프로그램 해체 vs 인정,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 제재 및 자산 동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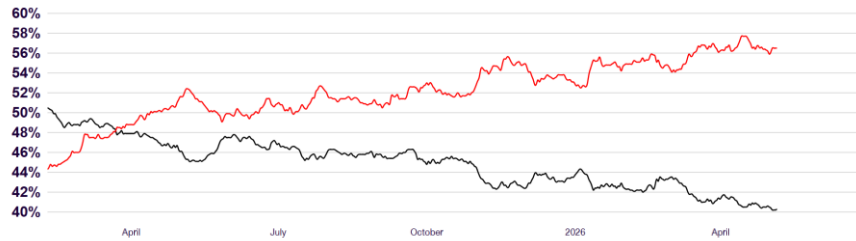
미국 핵심 목표 (US Red Line)	이란 방어선 (Iran Defense Line)
[핵 프로그램]	
장기적 핵무기 추구/수단 확보 포기에 대한 '명시적 약속', 핵시설 해체.	평화적 핵기술 및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호르무즈 해협]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협 재개방.	최종 합의 전까지 현 상태(통제권) 유지.
[제재 및 자산]	
연계 무장세력 지원 중단, 탄도미사일 역량 제한.	동결 자산 즉각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역내 전쟁 완전 종료.

- 미국의 전쟁 정당성 확보(핵위협 재거)와 이란의 지정학적 지렛대 유지(호르무즈 해협 통제) 사이의 타협점 부재
- 트럼프 협상 결렬시 강력한 군사행도 나설 것임을 시사 "우리는 재정비를 진행 중" "협상 결렬시 새로운 공습에 나서기 위해 미 함선에 최고의 탄약을 싣고 있다" "약 24시간 안에 알게 될 것"
- 종전 협상은 유효하고,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협상 기대가 실망감을 전환됨에 따른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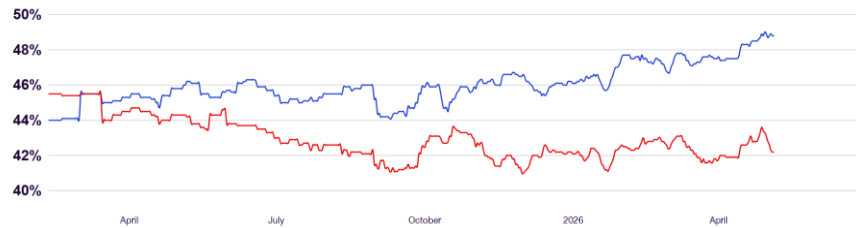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은 확대, 미국의 목적은 중국의 미국산 원유 구입 확대

트럼프 지지율 저조한 상황, 민주당 우위 구도 지속

President Trump Job Approval



2026 Generic Congressional Vote



Trump: Favorable/
Unfavorable

View Poll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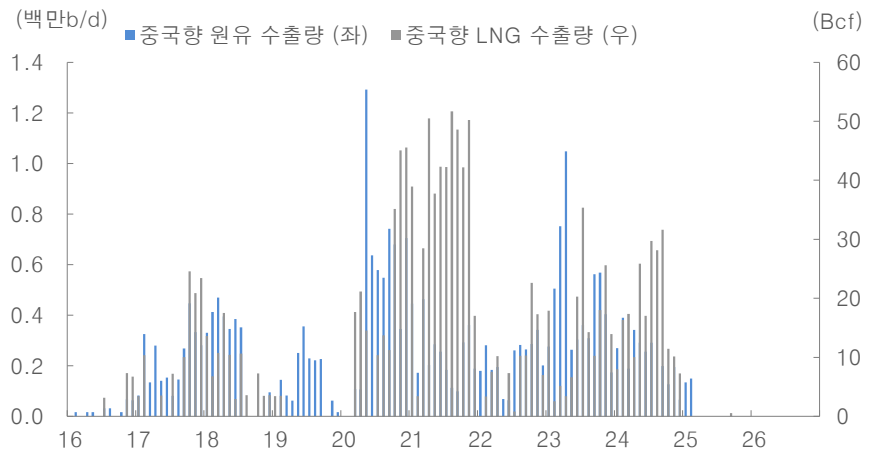
자료: RealClearPolitic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계속해서 이란산 원유를 구입하고 싶은 중국

"He said that strongly, but at the same time, he said they buy a lot of [Iran's] oil there, and they'd like to keep doing that. He'd like to see Hormuz Strait opened. I said, 'Well, we didn't stop it, they [Iran] did, and then we stopped them.'"

자료: Fox New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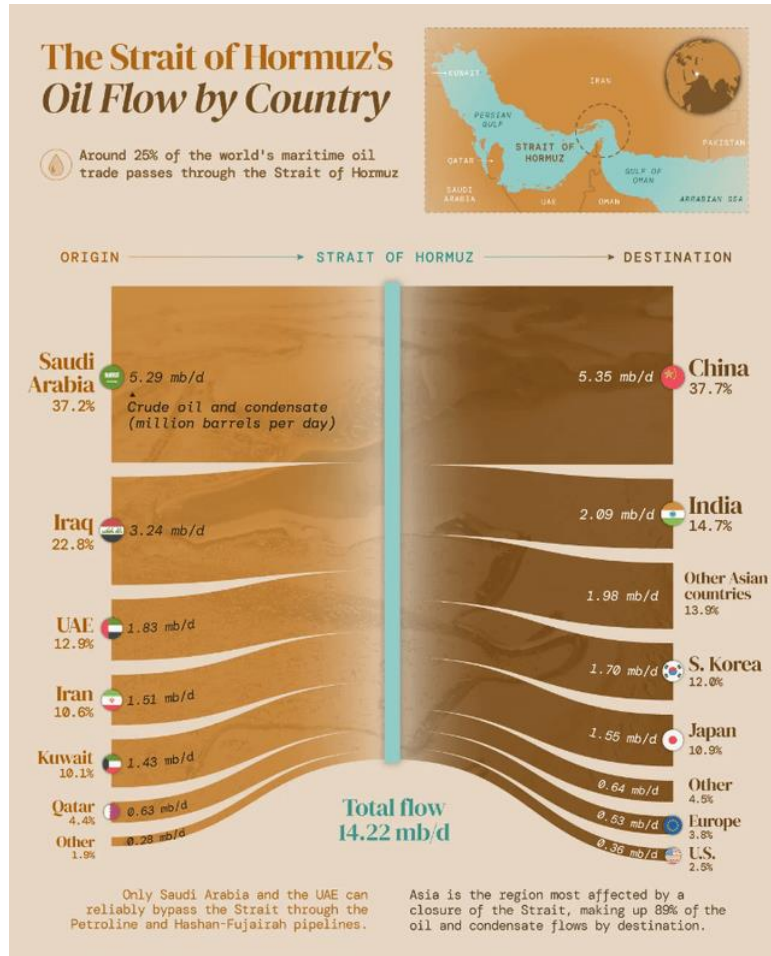
중국에 미 에너지 구매 권한 밝힌 베센트, 결국 전쟁은 수단일 뿐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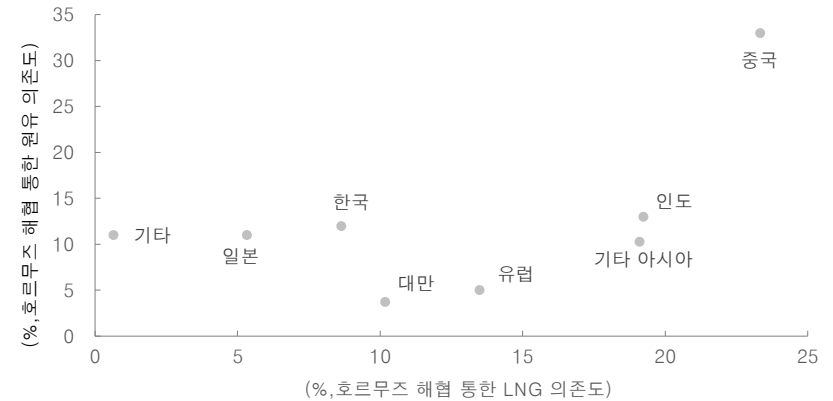
이란 사태의 최대 피해는 중국과 동아시아, 미국산 원유를 고민해야 하는 중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대부분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향



자료: Reddi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걸프만의 원유, LNG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국



자료: E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원유를 구매할 것을 제안

EXCLUSIVE CHINA

U.S. Has a Big Ask for China: Buy Less Oil From Russia, More From America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weighs pushing the tricky trade-off along with other economic goals prior to the Trump-Xi summit

By [Lingling Wei](#) Follow and [Gavin Bade](#) Follow

March 5, 2026 3:12 pm ET

자료: WSJ,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력은 단기적 영향,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 장기화 국면은 경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무력 충돌 시 평균 5거래일 이내에 증시 정상화.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 악세 압력 확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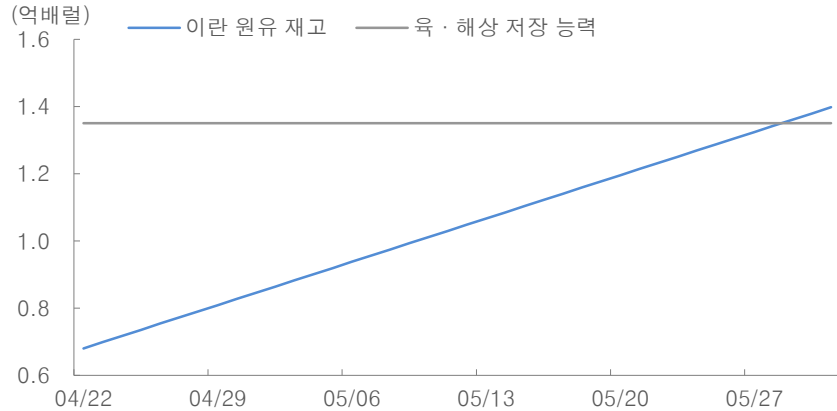
사건명	발생일자	S&P500 누적수익률 (%)										KOSPI 누적수익률 (%)									
		T+0	T+1	T+2	T+3	T+5	T+10	T+20	T+40	T+60	T+90	T+0	T+1	T+2	T+3	T+5	T+10	T+20	T+40	T+60	T+90
9/11 테러	01.9.11	0.00	-4.92	-5.47	-7.00	-11.60	-4.72	-0.08	2.54	6.02	3.21	-1.84	-13.64	-9.35	-12.43	-11.95	-14.27	-7.83	2.68	18.01	30.49
아프가니스탄 침공	01.10.7	0.16	-0.67	-1.20	1.06	2.06	0.36	1.64	6.53	8.54	2.49	0.26	-0.90	1.39	0.56	3.15	5.47	9.97	28.61	38.56	47.74
이라크 전쟁	03.3.20	0.19	2.49	-1.12	0.08	-0.63	0.28	2.24	8.31	14.24	12.31	4.92	6.27	5.18	2.44	1.38	0.64	13.09	14.32	21.44	29.75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06.7.12	-1.09	-2.38	-2.85	-2.99	-1.00	-0.32	-0.52	2.18	6.11	9.75	-0.29	-1.19	-3.48	-3.48	-5.14	-1.64	1.11	4.35	3.96	8.62
아랍의 봄	10.12.17	0.08	0.34	0.94	1.28	1.12	1.19	4.05	6.94	4.94	7.60	0.85	0.55	1.39	1.44	1.01	2.08	4.92	-1.60	-2.67	9.39
리비아 NATO 개입	11.3.19	0.43	1.94	1.57	1.87	3.15	4.61	3.61	5.03	-0.22	5.60	1.13	2.27	2.79	2.71	4.85	8.27	9.26	8.22	4.47	10.83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13.8.21	-0.58	0.28	0.67	0.27	-1.05	0.04	4.43	4.19	7.85	10.95	-1.08	-2.05	-0.94	0.00	-0.18	2.39	6.24	7.77	4.01	6.02
크림반도 병합	14.3.18	0.72	0.10	0.71	0.41	0.37	1.44	-0.85	2.08	4.95	6.71	0.66	0.53	-0.42	0.38	0.71	3.34	3.36	2.87	4.37	5.26
솔레이마니 암살	20.1.3	-0.71	-0.36	-0.63	-0.15	0.23	2.20	-0.99	-9.32	-21.99	-10.07	0.06	-0.92	0.02	-1.10	1.44	3.47	-2.58	-8.65	-21.03	-10.5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2.2.24	1.50	3.77	3.51	1.91	3.27	0.81	6.97	3.98	-7.68	-10.42	-2.60	-1.57	-0.75	-0.75	1.01	-1.44	0.37	0.32	-4.68	-14.23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23.10.7	1.18	1.82	2.35	2.79	1.63	-0.80	2.35	7.90	12.02	18.05	0.21	0.21	-0.04	1.93	2.19	-1.19	-1.47	4.22	10.47	9.02
미드나잇 해머 작전	25.6.22	-0.22	0.74	1.86	1.86	3.21	4.99	5.28	7.84	10.09	13.56	1.48	1.23	4.23	4.38	2.63	2.57	7.06	8.33	14.03	32.37
평균 (12개)		0.14	0.26	0.03	0.12	0.06	0.84	2.34	4.02	3.74	5.81	0.31	-0.77	0.00	-0.33	0.09	0.81	3.63	5.95	7.58	13.73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 약화. 2010년 이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 증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그림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증시 변동성 확대 불가피
- 이번 사건의 포효 작전도 장기화 여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따라 원자재 가격 및 증시 흐름이 결정될 전망

자료: LSEG,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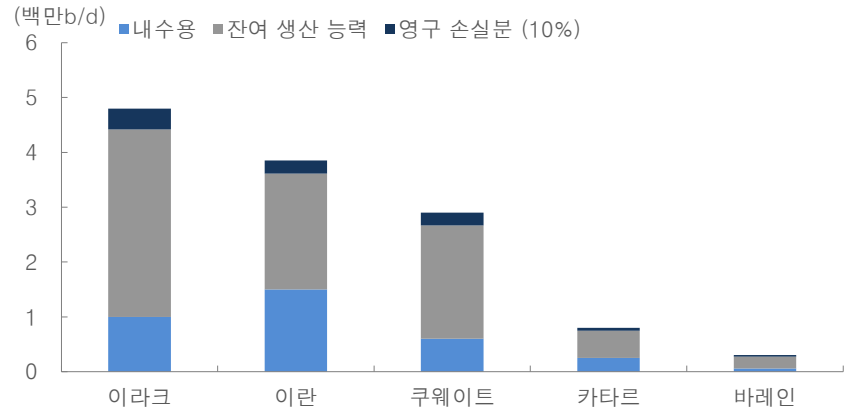
미국과 이란 합의 불발 시 이란 유정 영구적 생산성 훼손 우려 부각

5월 말이면 포화될 이란 저장고, 유정 폐쇄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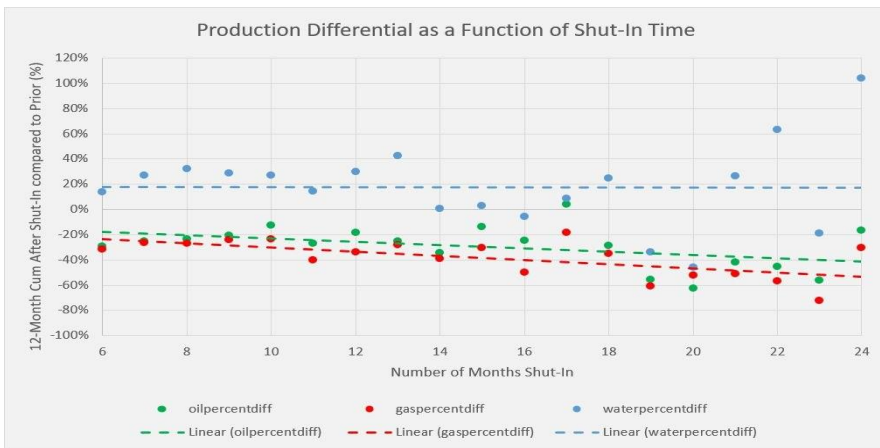
자료: Aljazeer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등 영구적 생산성 훼손되기 시작



자료: TGS, OPE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워터코닝 현상으로 영구적 생산성 훼손



자료: TG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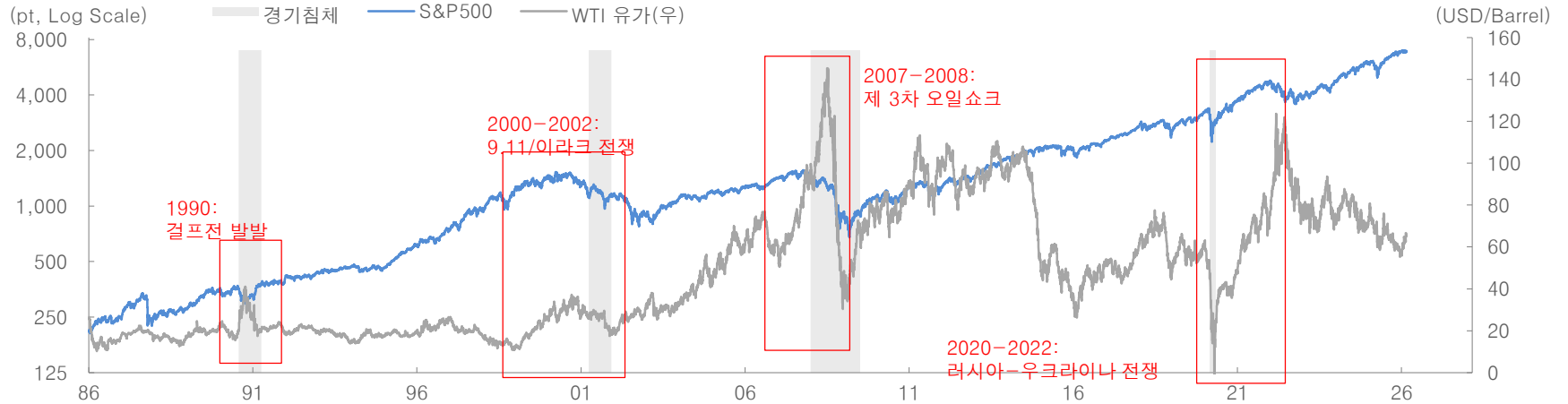
증산 + 수출 재개 시 뒤늦게 확인될 생산성 훼손



자료: JODI, OPEC, Saudi Aramco,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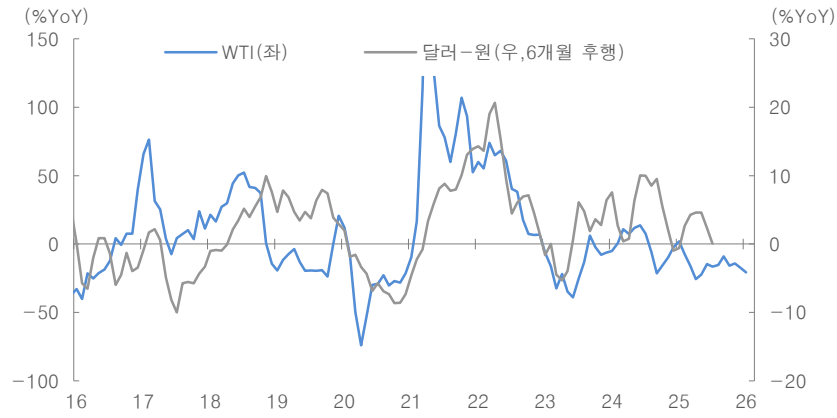
우려를 키우는 점은 결국 유가, 고유가로 인한 주식시장 버블 붕괴 &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과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유가 레벨업이 장기화된 이후 경기 침체 & 버블 붕괴, 증시 대세 하락국면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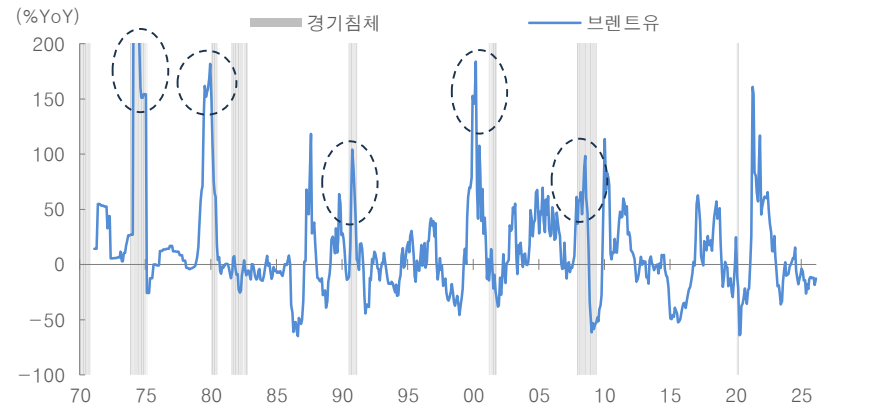
자료: CEIC,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가 상승은 결국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00 달러 이상의 고유가 장기화되면 리세션 우려 커질 듯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시나리오 분석에 근거한 금융시장 전망. 현재 수준에서는 KOSPI, 위험자산 비중확대 전략 유효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미국, 이스라엘 합동 이란 공습 작전. 상황 전개와 분쟁 완화 시점에 근거한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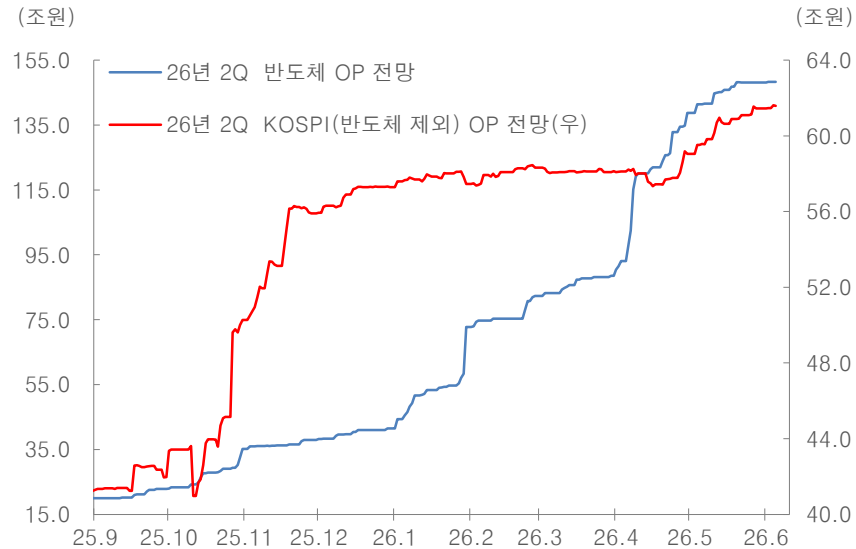
'사자의 포효 (Lion's Roar)' 예상 시나리오	금융시장 예상 흐름 및 투자전략 제안						
	예상 소요 기간	유가 등 상품시장	경제 및 외환시장	금리 및 채권시장	주식시장	대응 전략	
예상 시나리오	1. 초단기	1주일 전후	유가 10~15% ⁺ (협상 재개 및 OPEC+ 증산으로 조기 안정)	실물 경제 영향 無 달러-원 1,470원대 급등 이후 빠르게 안정	TB 10년 금리 4.0% 하향 돌파, 추가 하락	KOSPI & 글로벌 증시 5% 내외 조정 이후 상승 추세 재개	주식, 원화 비중확대 원유 비중 축소
	2. 단기	1~3개월 이상	유가 15~20% ⁺ (친미 vs. 시아파 전쟁 격 화, 홍해 봉쇄 영향 ⁺)	경기/물가 불확실성 ⁺ 달러-원 1,480원까지 상승 후 점차 안정	TB 10년 금리 3.7~3.8% 영역까지 하락	KOSPI & 글로벌 증시 10% 내외 조정 이후 분위기 반전 모색	변동성을 활용한 주식, 원화 비중확대 원유 비중 축소
	3. 중기	6개월 이상	유가/곡물 30% 이상 ⁺ (친미 수니파 참전, 호르무즈 해협 불가항력 발생)	물가 ⁺ , 경제 ⁻ 달러-원 1,480선 상회 이후 더딘 안정. 1,400원대 중반 지속	TB 10년 금리 3.5~3.6%대 (금리인하 개시 전저점) 진입	KOSPI & 글로벌 증시 20% 내외 조정 이후 지지력 테스트. 분위기 반전까지 시간 필요	원유, 곡물, 달러 비중확대 주식, 원화 비중 축소
	4. 장기	1년 이상	고유가(\$100) 장기화 (중동 전쟁 확산 속 이란 내 분리주의 발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달러-원 1,500선 돌파 이 후 1,400원대 후반에서 등 락 지속	TB 10년 금리 3.2%까지 하락(기준금리 중립금리 수준(3.0%)까지 인하 예상)	KOSPI & 글로벌 증시 30% 이상 조정. 대세 하락 국면 전개	원유, 곡물, 달러, 채권 비중확대 주식, 원화 비중 축소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체되어 있는 실적 전망. 6월 중순 이후 프리어닝시즌 돌입시 상향 조정 재개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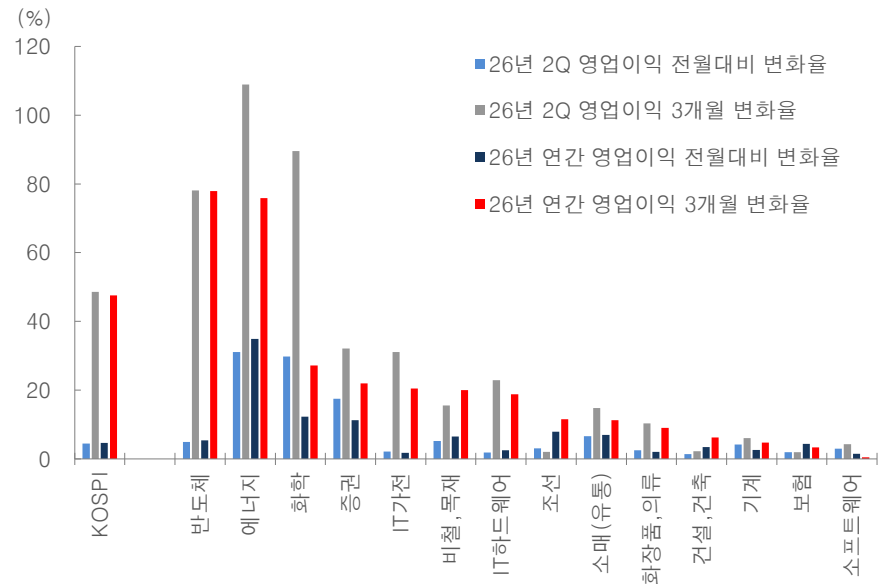
-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에도 KOSPI 이익 전망 상향조정 지속. 다만, 속도나 폭은 크게 약화된 상황. 이례적으로 반도체 이익전망은 거의 멈춰있는데 반해 오히려 non-반도체 실적 전망 상향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에너지, 화학, 증권, 비철/목재, 소매(유통) 등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영향으로 판단
- 26년 2분기 영업이익 전망 에너지, 화학, 증권, 소매(유통), 비철/목재, 반도체, 기계, 조선, 소프트웨어 등 18개 상향 조정. 전체 26개 업종 중 2/3 업종에 실적 기대가 유입되는 중. 유틸리티, 운송, 필수소비재, 호텔/레저 등 하향 조정. **26년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모두 상향조정 중인 업종은 에너지, 증권, 반도체, 증권, 조선, 기계, IT가전 등 15개.** 1분기 실적 시즌 종료 이후에도 이들 업종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 반도체의 압도적인 실적 레벨업, 실적 개선 주도력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Non-반도체 실적도 견고한 상황.**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과 함께 **Non 반도체 2분기 실적은 62조원대로 레벨업되었고, 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 245조원 상회.** 이는 24년 KOSPI 전체 영업이익(223조원)을 넘어섰고, 25년 272조원에 근접하는 수준
- 25년과 달리 26년에는 **반도체 이외 업종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근거한 투자 확대 가능성** 높다고 판단

반도체 실적 전망 전체. Non-반도체 실적 전망 완만한 상승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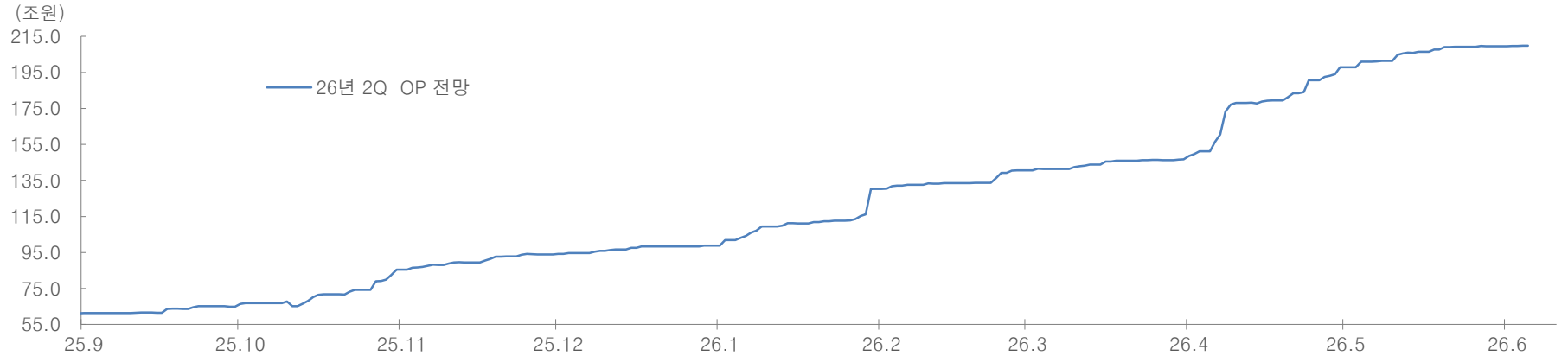
26년 2분기, 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 동반 상향 조정 업종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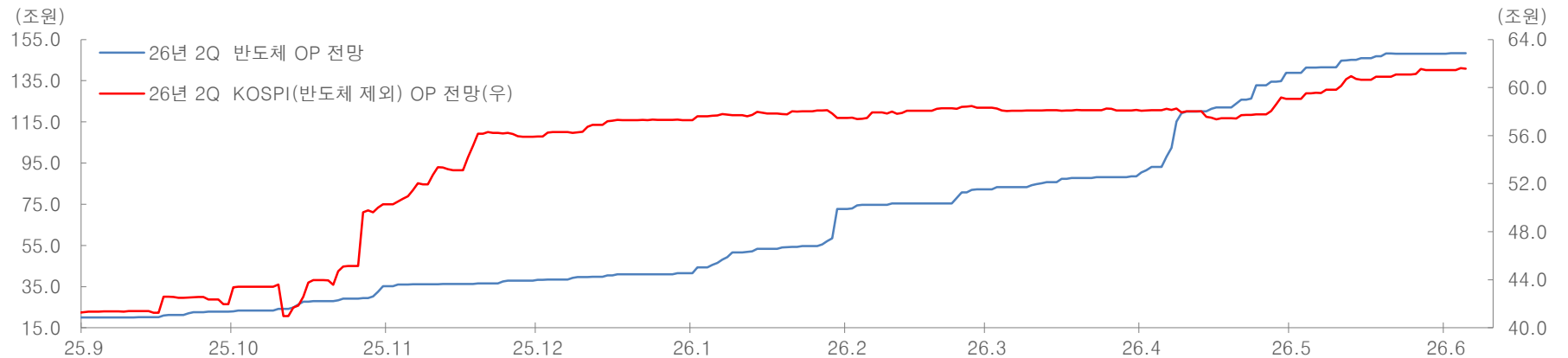
[26년 2Q 실적 전망] 반도체는 실적 전망 정체. Non-반도체 실적은 완만한 우상향

26년 2Q OP 전망, 실적 전망 정체. 4월 이후 63.2조원 상향 조정, 210조원대에 근접한 수준까지 완만한 상향 조정 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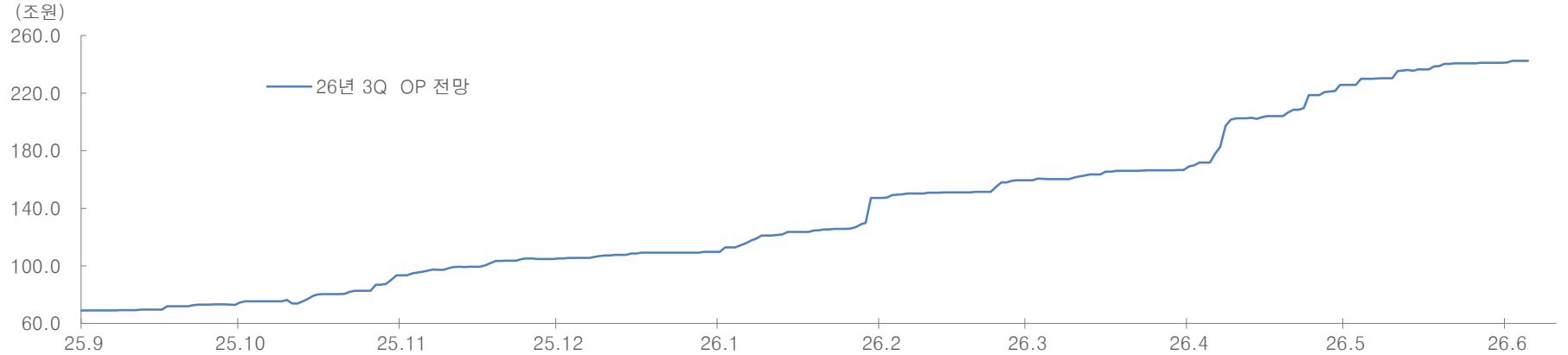
반도체 OP 전망 148조원에서 정체. 반도체 제외한 업종 OP 전망은 62조원까지 상향 조정 지속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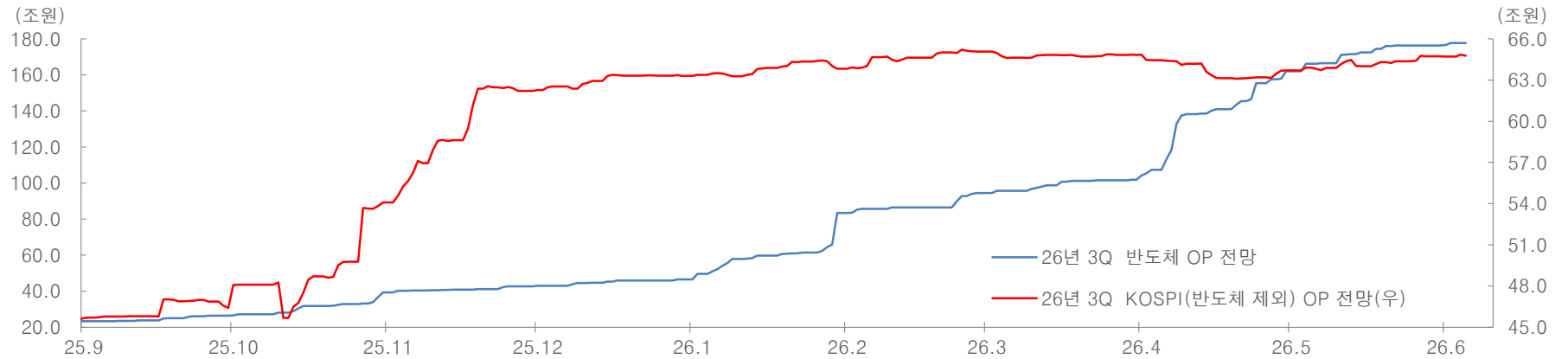
[26년 3Q 실적 전망] 반도체 177조원, KOSPI 242조원으로 레벨업 이후 정체

26년 3Q OP 전망, 3월말 이후 75.8조원 레벨업, 242조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 2분기 실적 시즌 시작될 경우 상향 조정 재개 예상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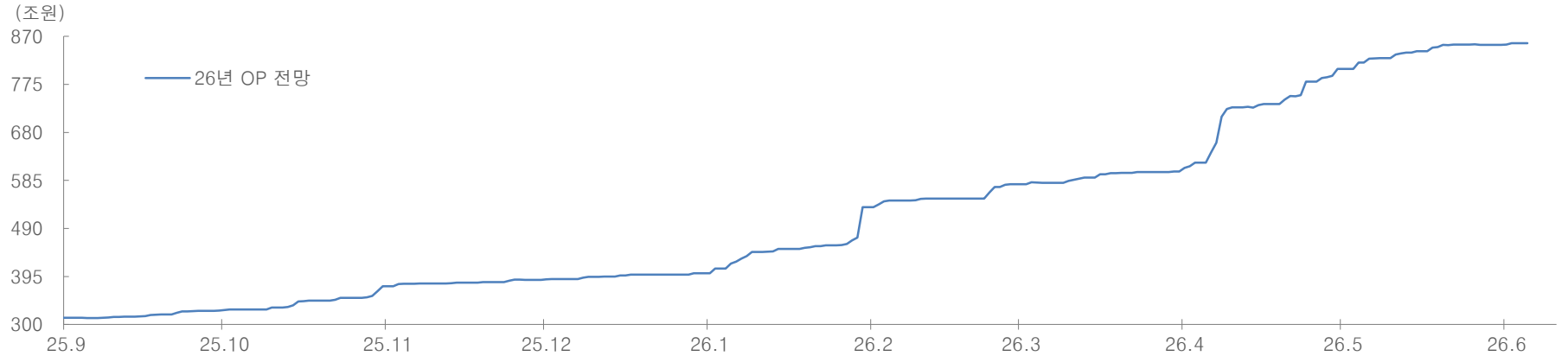
반도체 OP 전망 3월말 이후 75.8조원 상향조정되며 177조원 상회 전망. 반도체 제외한 업종 OP 전망은 65조원 수준에서 정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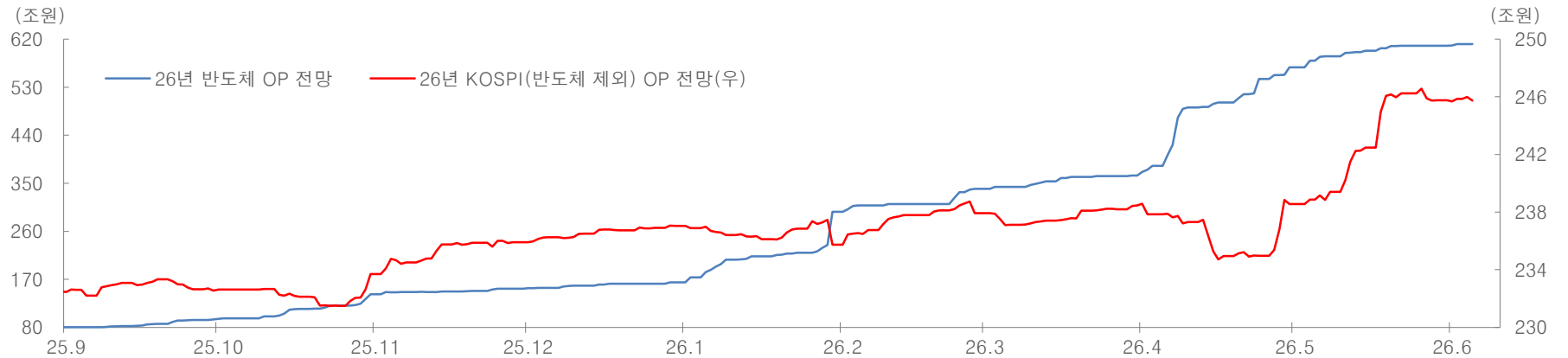
[26년 연간 실적 전망] 반도체 실적 610조원 상회, KOSPI 850조원대로 레벨업

26년 연간 OP 전망은 연초 이후 455조원, 4월 이후 246조원 레벨업. KOSPI 26년 영업이익 전망 850조원 상회할 것으로 기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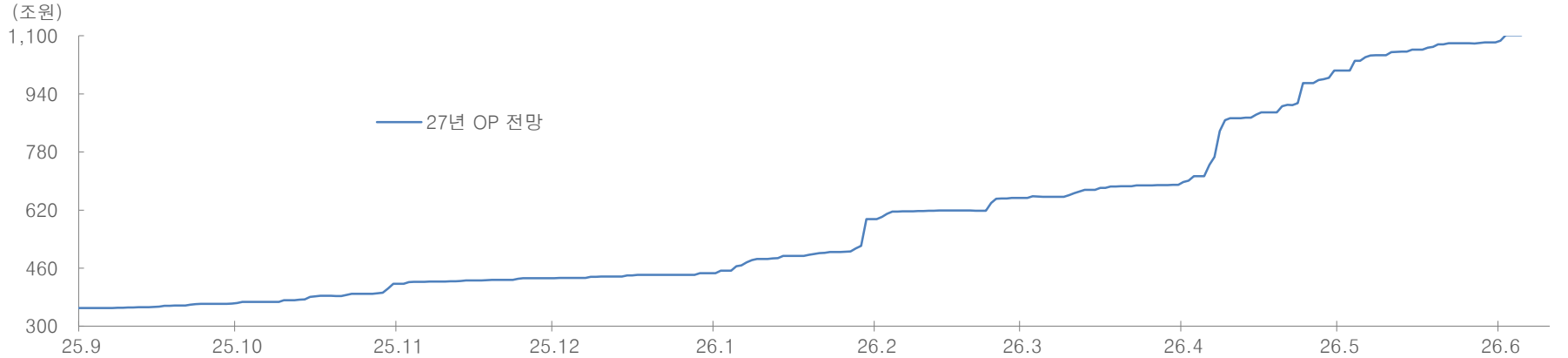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 연초 이후 446조원 레벨업. Non-반도체 실적 전망도 레벨업되면서 245조원대로 24년 KOSPI 전체 OP(223조원) 상회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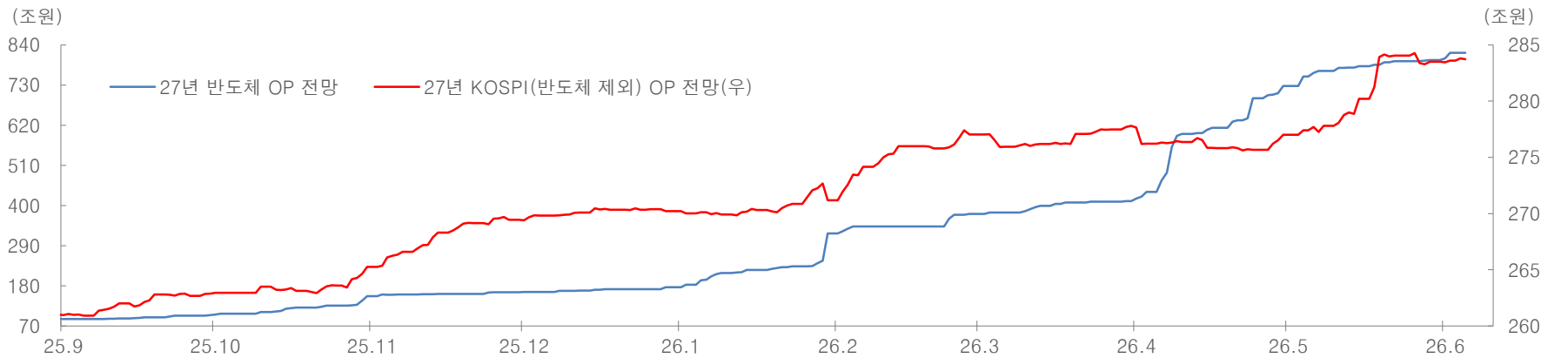
[27년 연간 실적 전망] 반도체 실적 820조원 근접, KOSPI 1,100조원대로 레벨업

27년 연간 OP 전망은 연초 이후 655조원, 4월 이후 412조원 레벨업. KOSPI 27년 영업이익 전망 1,100조원 시대 진입 기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 연초 이후 642조원 레벨업. Non-반도체 실적 전망도 레벨업, 283조원대로 25년 KOSPI 전체 OP(272.8조원) 상회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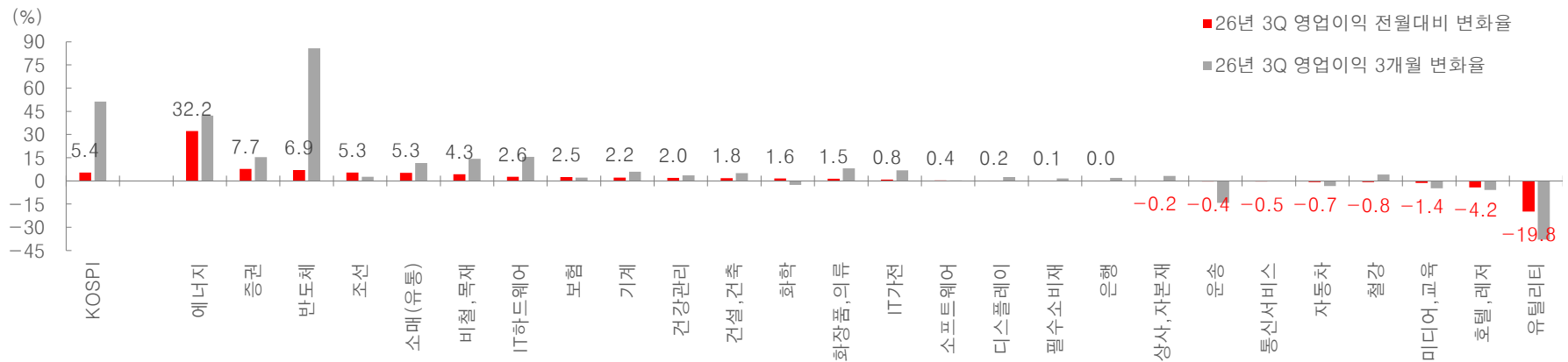
[실적전망 변화율] 에너지, 증권, 반도체, 증권, 조선, 기계, IT가전 등 15개 업종 동반 상향 조정

에너지, 화학, 증권, 소매(유통), 비철/목재, 반도체, 기계, 조선, 소프트웨어 등 18개 상향 조정. 유틸리티, 운송, 필수소비재, 호텔/레저 등 하향 조정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너지, 증권, 반도체, 조선, 소매(유통), 비철/목재, IT하드웨어, 보험, 기계 등 18개 상향 조정. 유틸리티, 호텔/레저, 미디어/교육, 철강 등 하향 조정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적전망 변화율] 반도체, 에너지, 화학, 증권, 조선, 소매(유통) 등 16개 업종 동반 상향 조정

에너지, 화학, 증권, 조선, 소매(유통), 비철/목재, 반도체, 보험, 건설, 기계, IT하드웨어 등 20개 상향. 유틸리티, 미디어/교육, 상사/자본재 등 하향 조정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너지, 보험, IT하드웨어, 반도체, 소매(유통), 증권, 조선, 건설, 기계 등 17개 상향 조정. 유틸리티, 호텔/레저, 미디어/교육, 상사/자본재 등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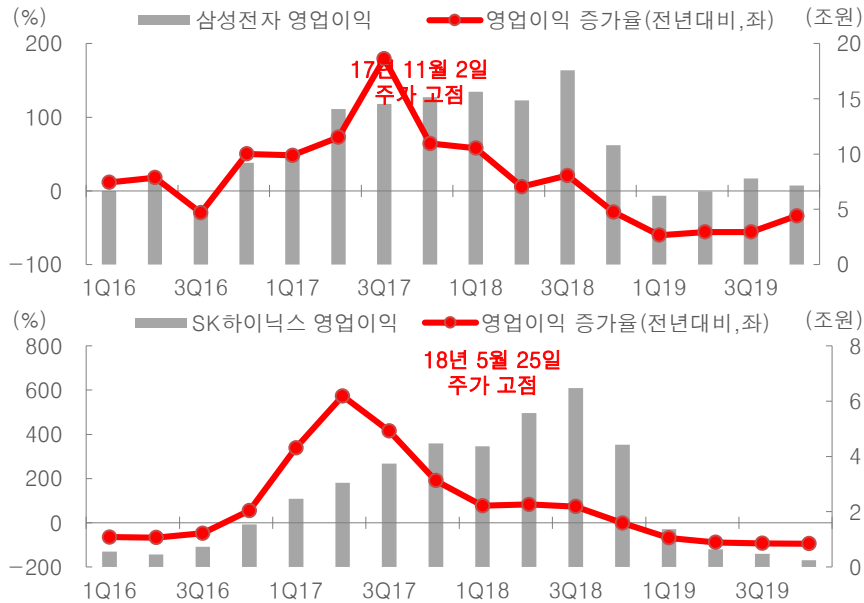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 Peak Out 논란 시기상조. 오히려 실적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때

-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모멘텀 Peak Out 논란은 시기상조.** 삼성전자 이익 모멘텀, 전년대비는 2분기, 전분기 대비는 1분기 고점으로 주가 또한 고점 통과 우려 유입. 엔비디아, TSMC 모두 이익 모멘텀 고점 통과 이후 상승추세 지속/강화 중. 2017년,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 삼성전자 주가 고점은 17년 11월 2일, SK하이닉스는 18년 5월 25일. 이익 모멘텀 고점은 2016년 상반기와 17년 2분기였고, 실적 고점은 2018년 3분기. **영업이익 고점 통과 우려가 유입되는 시점이 주가 고점일 가능성 높다고 판단.** 현재 27년까지 실적 레벨업 전망 유입 중.
- 반도체 실적 호조는 지속될 전망.** 반도체 업종의 2분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변화율은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53.8%, 37.4% 수준. 하지만, **Trend Force 2분기 반도체 가격 변화율 58~75% 예상(전분기 대비) 수준.**
-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반도체 2분기 수출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40.6%로 1분기 46.1%로 소폭 둔화되지만, 반도체 2분기 이익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37.2%로 1분기 153% 대비 큰 폭 둔화. **반도체 실적 기대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
- 추가적인 반도체 중심의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높다고 판단.** 이러한 반도체 이익 모멘텀 강화,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흐름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 KOSPI 주도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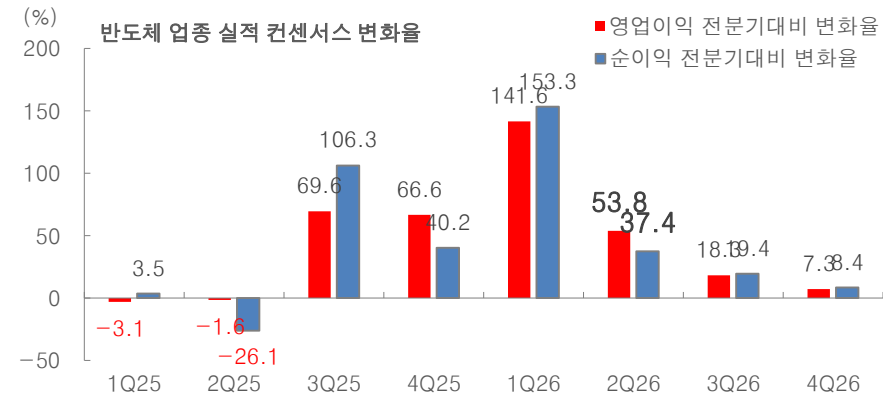
이익 모멘텀 정점과 주가 고점은 일치하지 않아... 감익 우려 유입이 관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분기 이익 증가율, 반도체 가격 상승률 전망보다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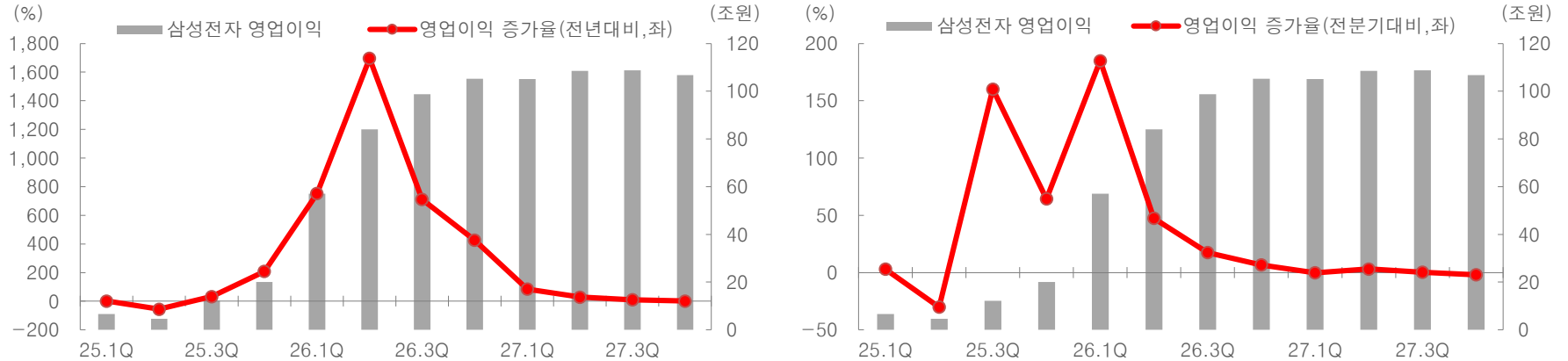
전분기 대비 가격 변화율	26년 2분기		26년 3분기
	기존	변경(최신)	신규
전체 Dram	13 ~ 18% 상승	58 ~ 63% 상승	3 ~ 8% 상승
전체 Nand	18 ~ 23% 상승	70 ~ 75% 상승	8 ~ 13% 상승



자료: Trend Force,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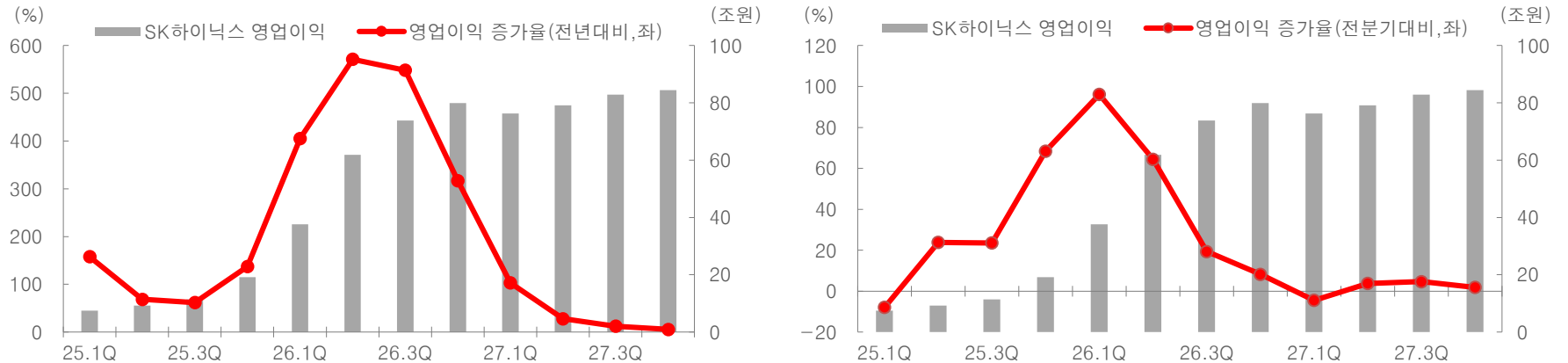
[실적 모멘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26년 상반기 이익 모멘텀 Peak Out?

삼성전자 이익 모멘텀, 전년대비는 2분기, 전분기대비는 1분기 고점. 모멘텀 Peak Out 논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하이닉스 이익 모멘텀, 전년대비는 2분기, 전분기대비는 1분기 고점. 모멘텀 Peak Out 논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엔비디아, TSMC 사례] 이익 모멘텀 정점 통과에도 주가는 상승 추세 지속

엔비디아 EPS 모멘텀,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23년 3분기 고점. 주가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행진 중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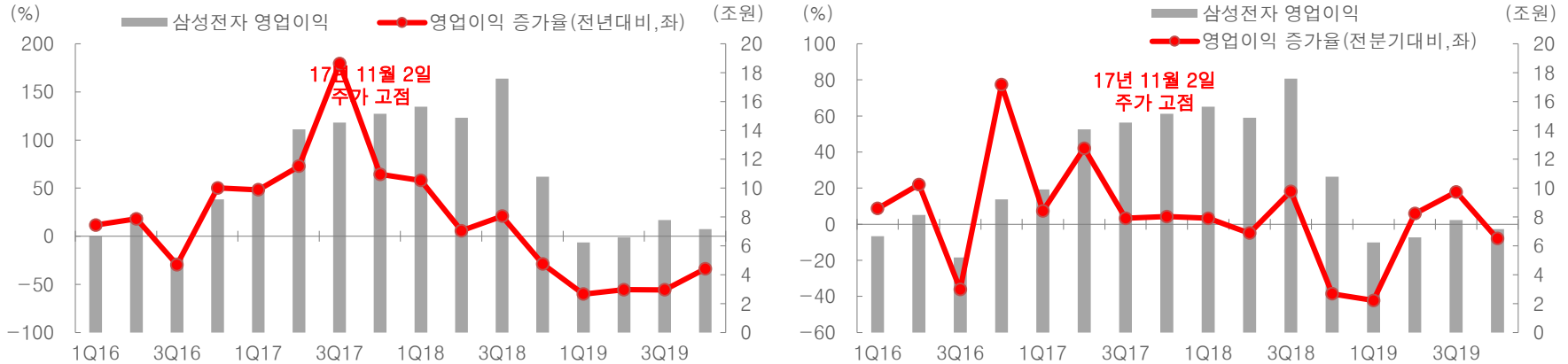
TSMC EPS 모멘텀, 연간 기준으로는 25년 1분기, 전분기대비로는 24년 3분기 고점. 주가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행진 중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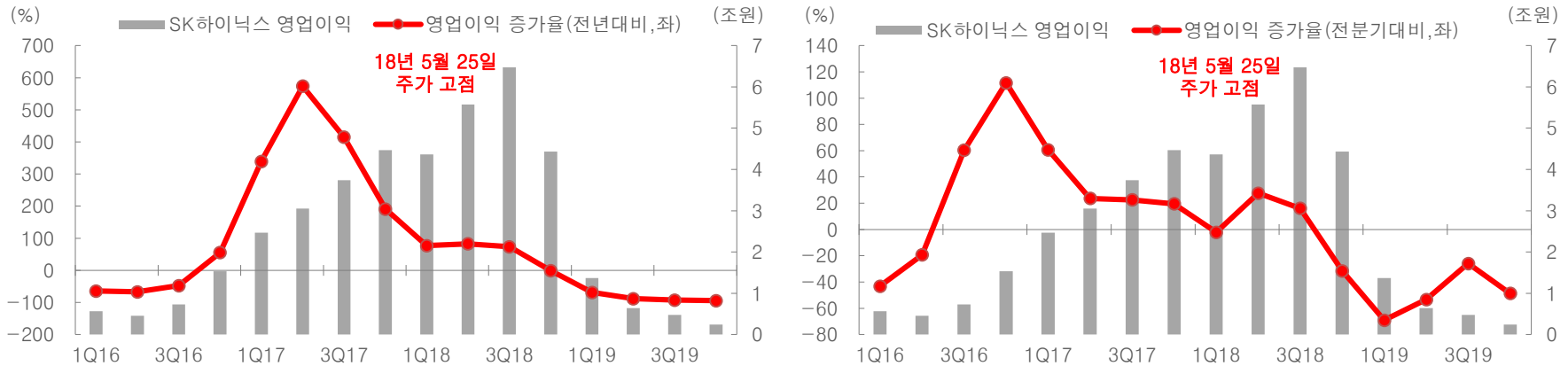
[실적 모멘텀]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주가 고점은 실적 정점 우려가 유입될 시점

2017년,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 주가 고점은 17년 11월 2일. 모멘텀 고점은 17년 3Q, 16년 3Q, 실적 고점은 2018년 3분기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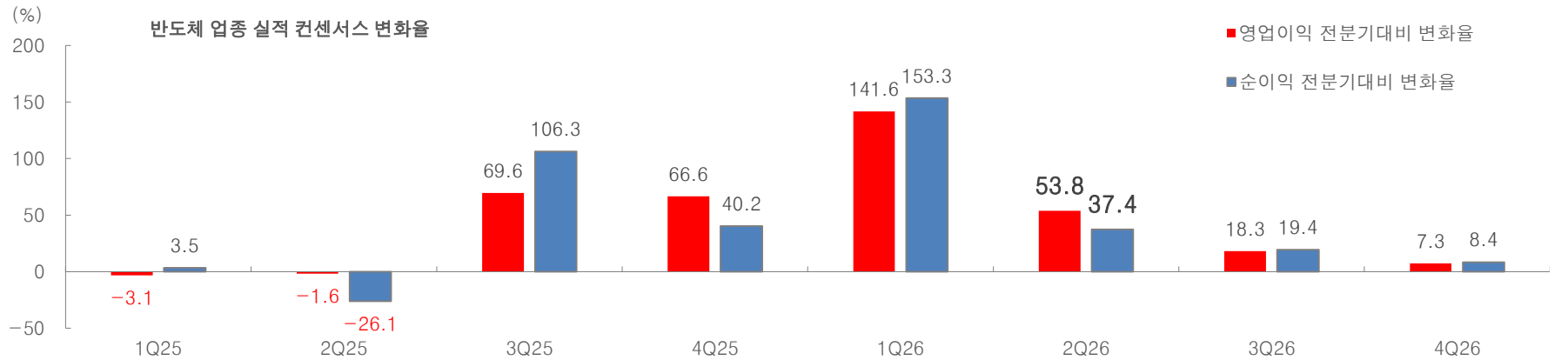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 주가 고점은 18년 5월 25일. 모멘텀 고점은 17년 2Q, 16년 4Q, 실적 고점은 2018년 3분기



자료: Trend Forc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삼성전자 실적 전망]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아직 저평가 아닐까?

전분기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변화율 53.8%, 37.4%. 하지만, Trend Force 2분기 반도체 가격 변화율은 58 ~ 75% 수준



자료: E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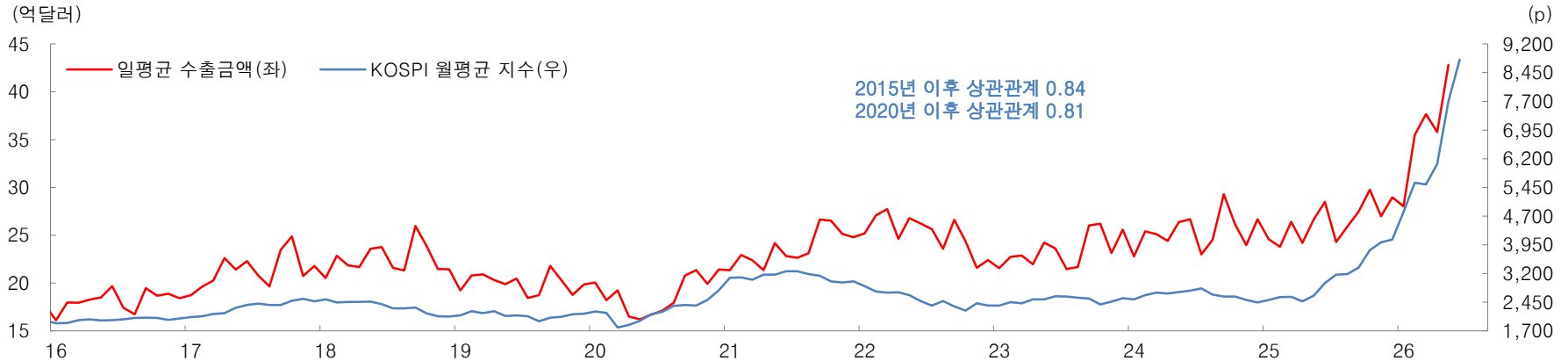
Trend Force는 반도체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 기존 전망대비 Dram은 2배 가까운, Nand는 3배 이상 가격 증가 예상

전분기 대비 가격 변화율	26년 1분기		26년 2분기		26년 3분기
	기존	변경(최신)	기존	변경(최신)	신규
전체 Dram	55 ~ 60% 상승	93 ~ 98% 상승	13 ~ 18% 상승	58 ~ 63% 상승	3 ~ 8% 상승
전체 Nand	33 ~ 38% 상승	85 ~ 90% 상승	18 ~ 23% 상승	70 ~ 75% 상승	8 ~ 13% 상승

자료: Trend Forc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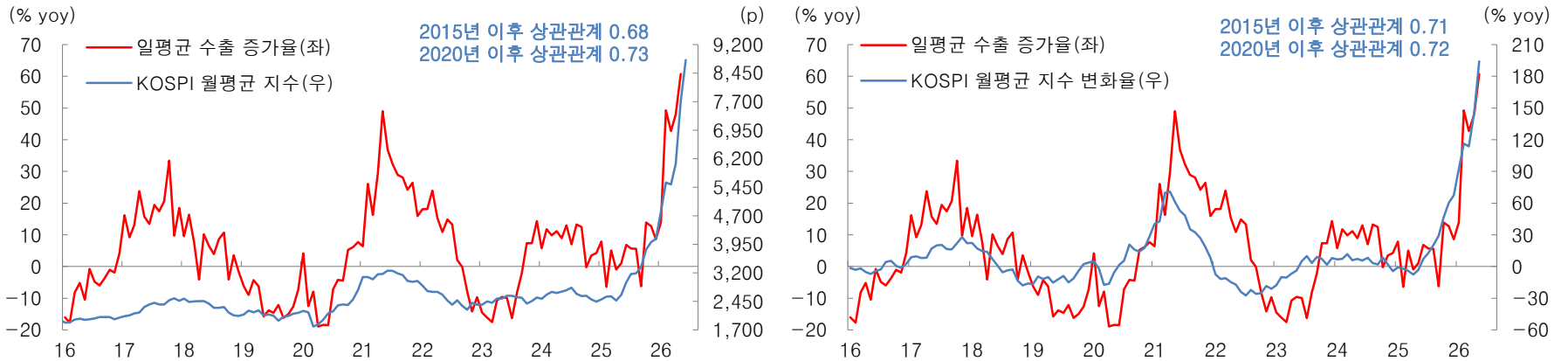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일평균 수출 금액과 KOSPI 간 상관관계 0.8 이상

일평균 수출 금액과 KOSPI 월평균 지수 간의 상관관계 0.84(2015년 이후)에 달해. 일평균 수출 금액 사상 최고치 행진 중에는 KOSPI 상승 추세 지속



자료: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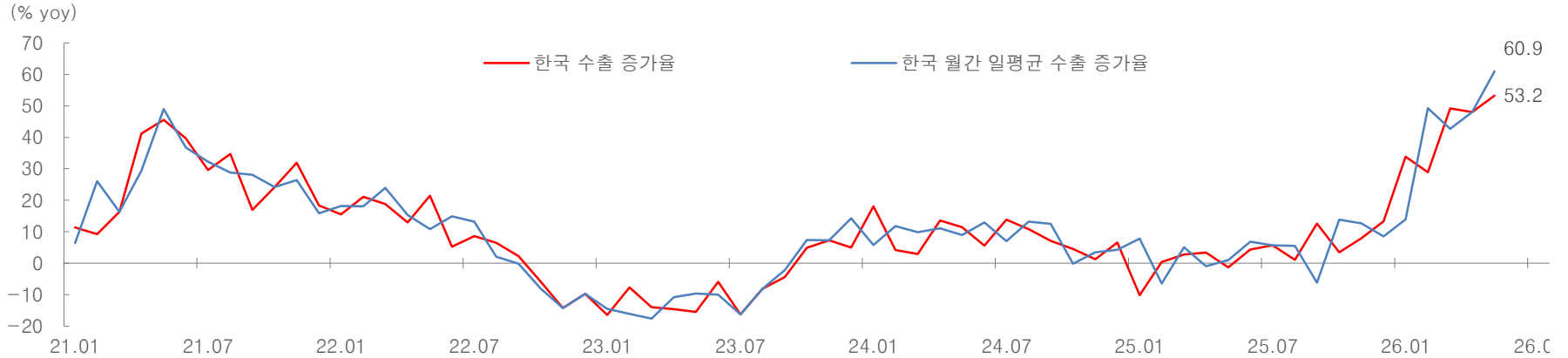
수출 증가율과 KOSPI 지수, KOSPI 지수 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는 0.7 수준. 반도체 수출 모멘텀 강화 국면에서는 KOSPI 상승 추세 전개



자료: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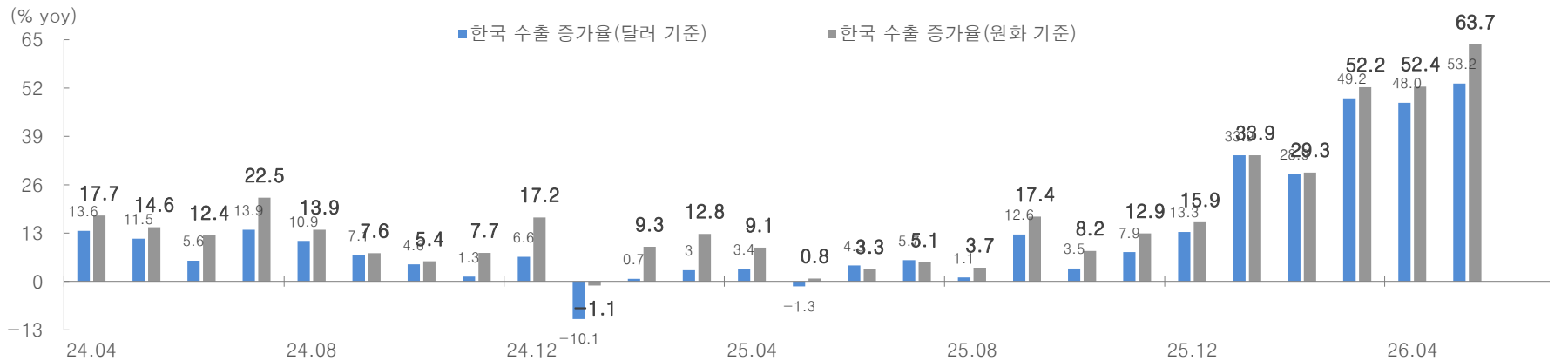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5월 수출 증가율 53.2%, 일평균 60.9%. 환율 효과 10%p 유입

5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 52.5%로 모멘텀 강화. 반도체 179.7%, 컴퓨터 275.7% 수출 증가로 한국 수출을 견인



자료: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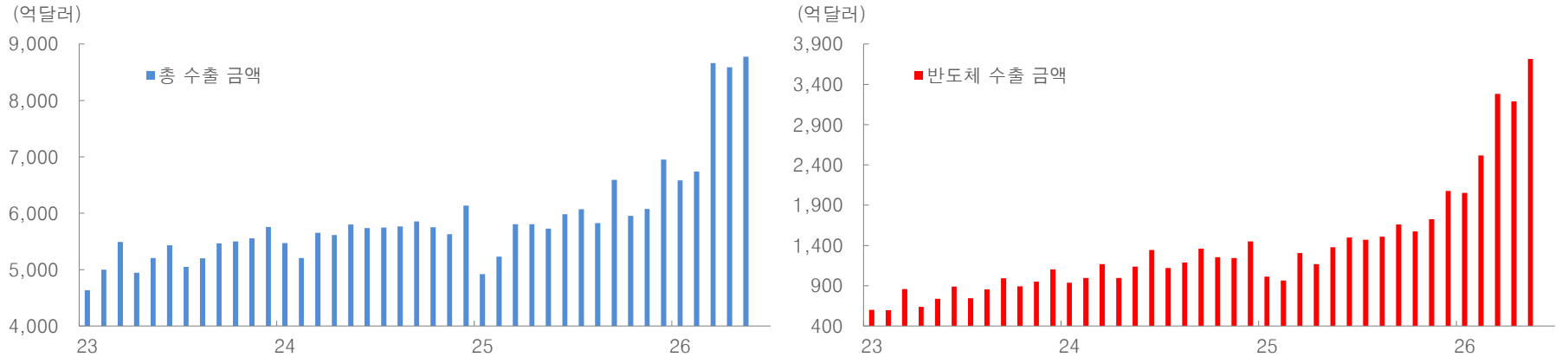
일평균 수출 금액은 3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 반도체도 16억달러로 사상 최대 일평균 수출 금액 기록



자료: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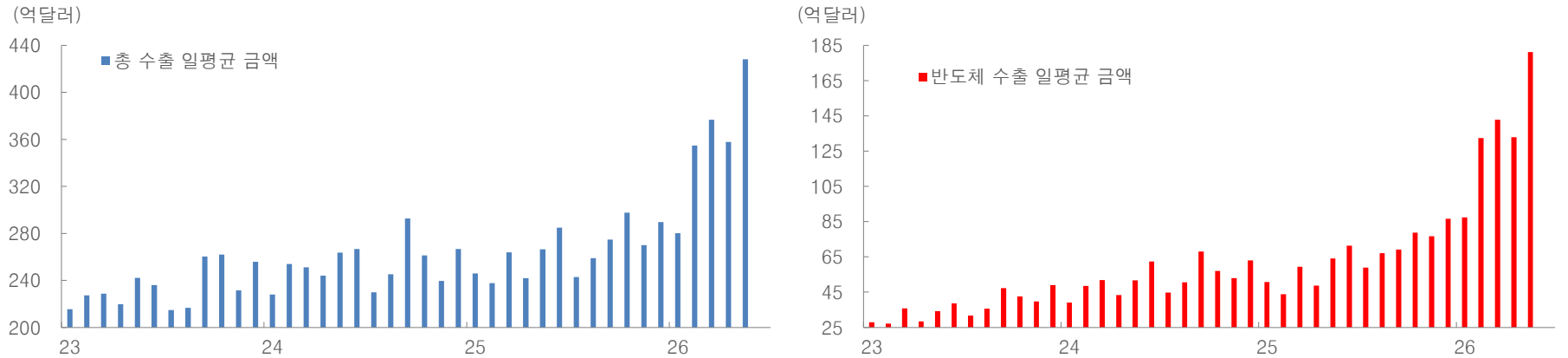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총 수출, 반도체 수출 모두 사상 최대 금액 경신

계절성 영향으로 4월 수출 금액 소폭 감소했지만, 5월에는 다시 사상 최대 금액 경신. 총 수출은 전월대비 2.2%, 반도체 수출은 전월대비 2.8% 상승



자료: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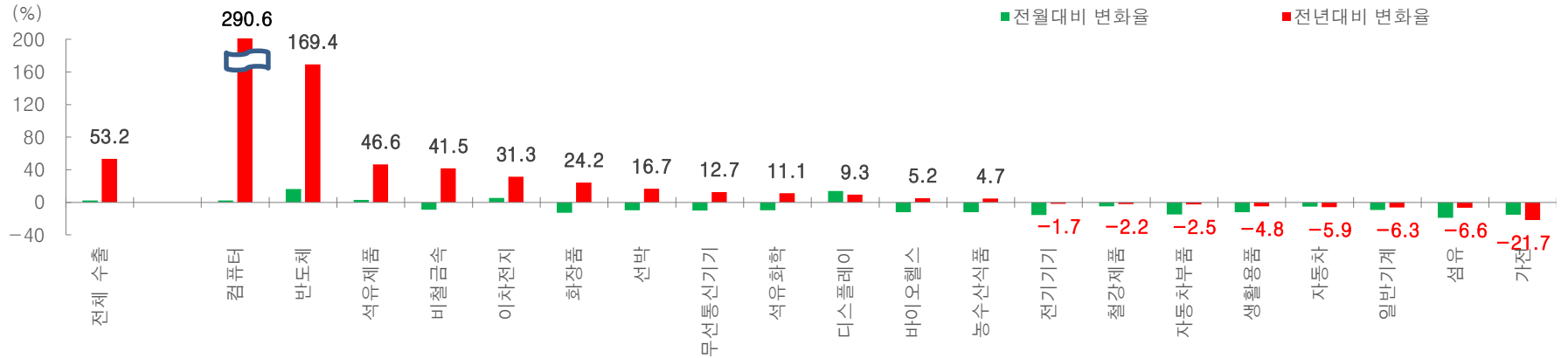
일평균 수출 금액은 428억달러로 레벨업(직전 고점 376.6억달러).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도 181.25억달러로 전 고점 142.7억달러 크게 상회



자료: 산업통상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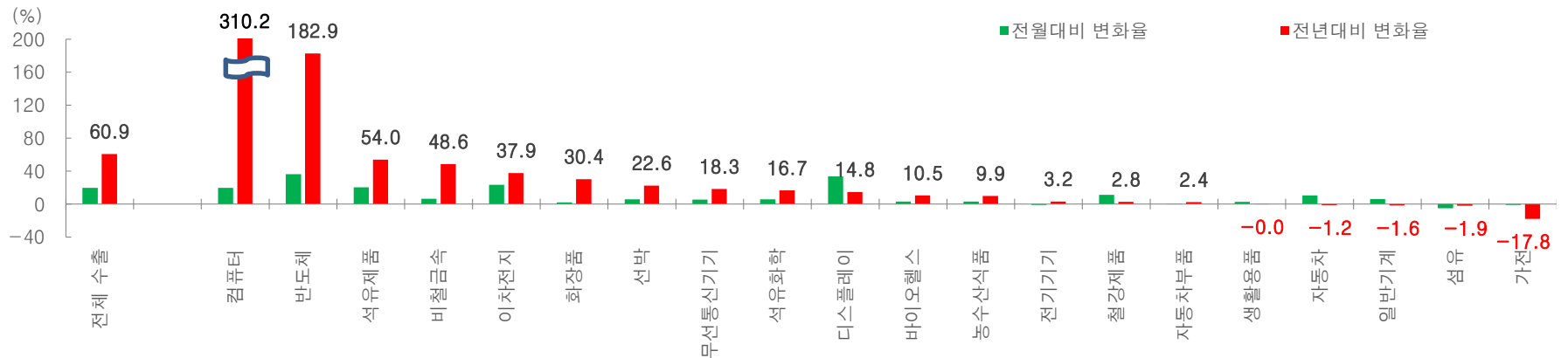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컴퓨터, 반도체에 이어 석유 제품, 비철금속, 이차전지, 화장품 등 수출 모멘텀 견고

수출 금액 변화율. 컴퓨터, 반도체 세자리수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 비철금속, 이차전지, 화장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높은 증가세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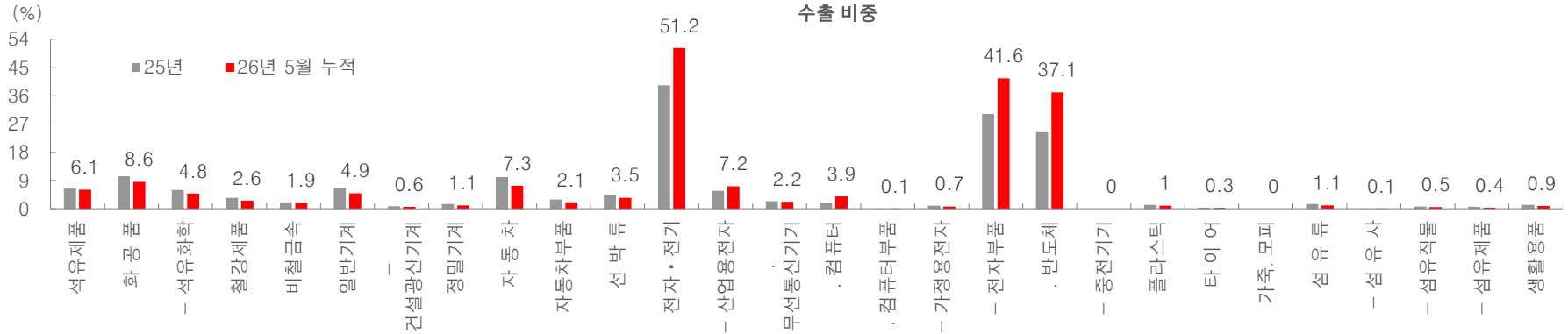
일평균 수출 금액 변화율. 20개 산업 중 15개 산업의 수출, 전년대비 증가세 기록. 소수 업종 수출 개선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수출 개선세 확인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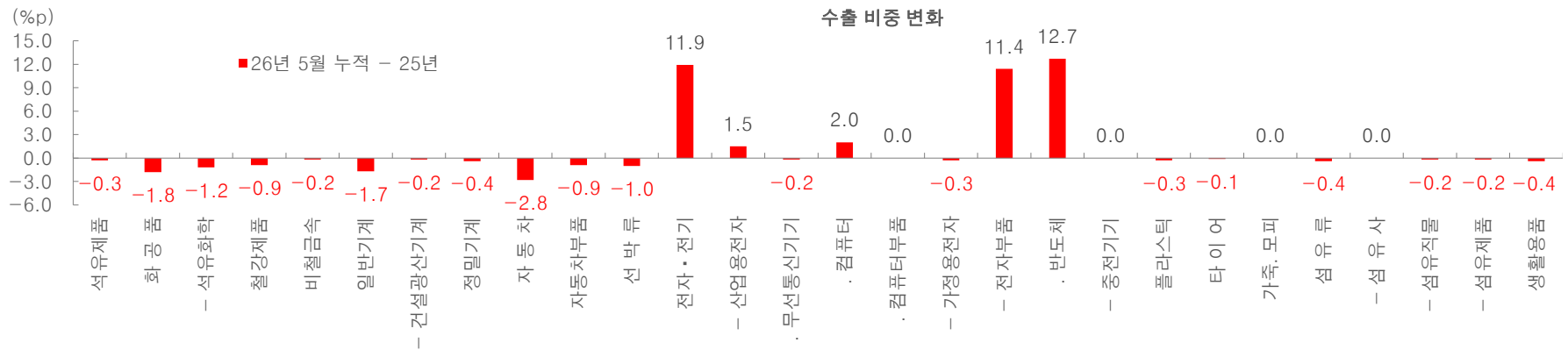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수출 비중 큰 폭으로 증가

50%를 상회한 전자/전기 산업. 반도체가 37.1%로 레벨업되었고, 컴퓨터, 산업용전자도 증가세 뚜렷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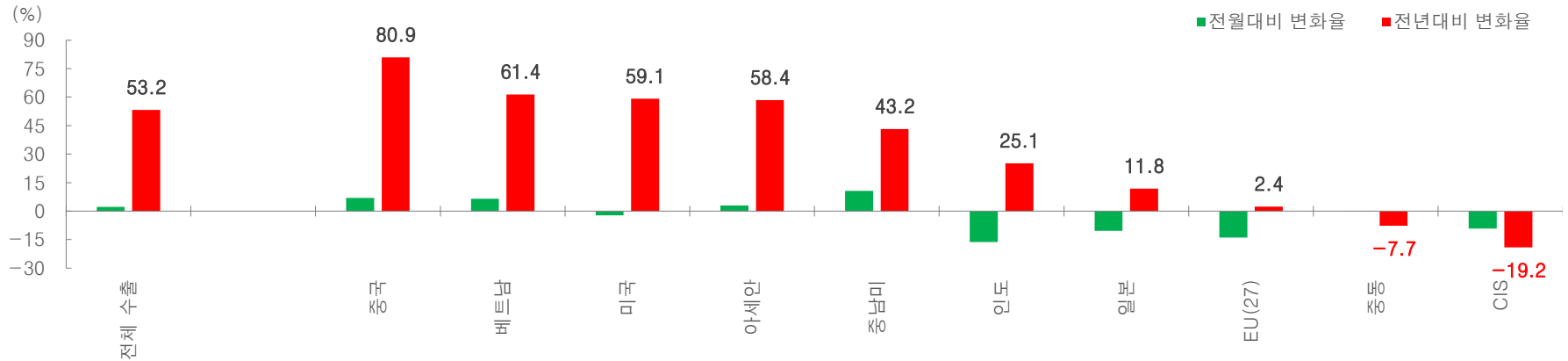
수출 비중이 증가한 산업은 반도체, 컴퓨터, 산업용전자 뿐. 증가율 측면에서 컴퓨터 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큰 상황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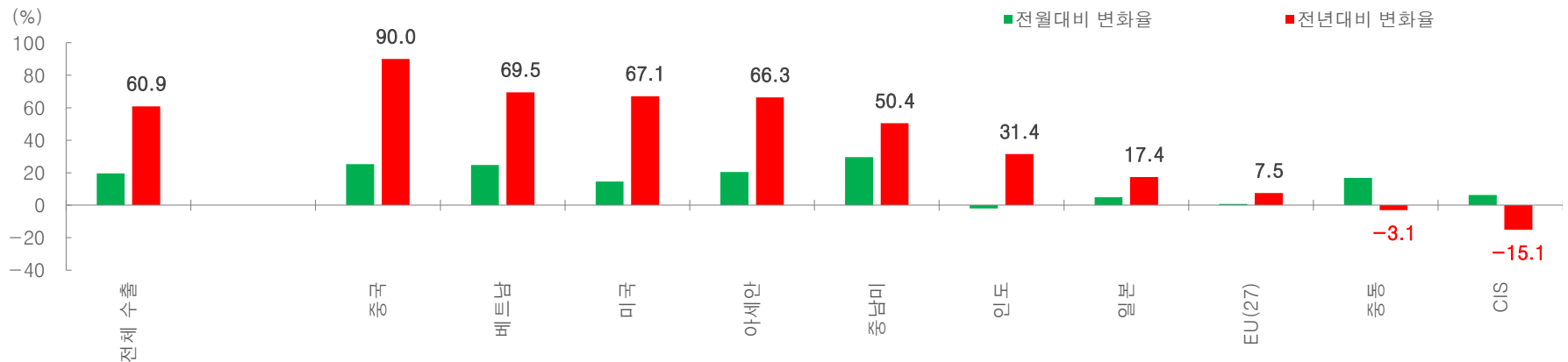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중국, 베트남, 미국, 아세안 등 주요국 수출 큰 폭으로 증가

수출 금액 변화율. 중국, 베트남, 아세안, 중남미가 전월대비,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동반 개선. 중동, CIS 수출만 감소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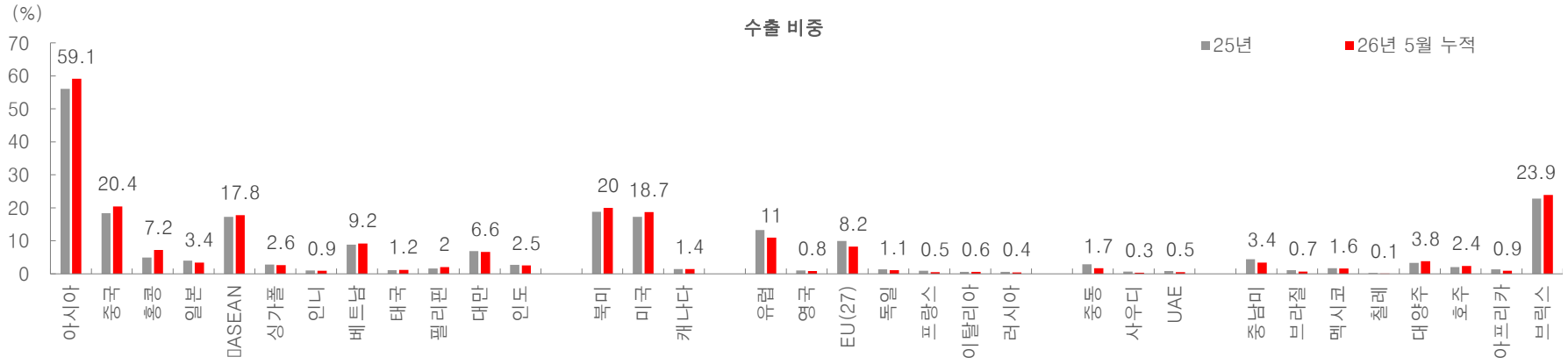
일평균 수출 금액 변화율. 주요국 10개국 중 8개 국가 전년대비 수출 증가. 전월대비 변화율은 인도만 감소했고, 인도를 제외한 9개국 전월대비 수출 증가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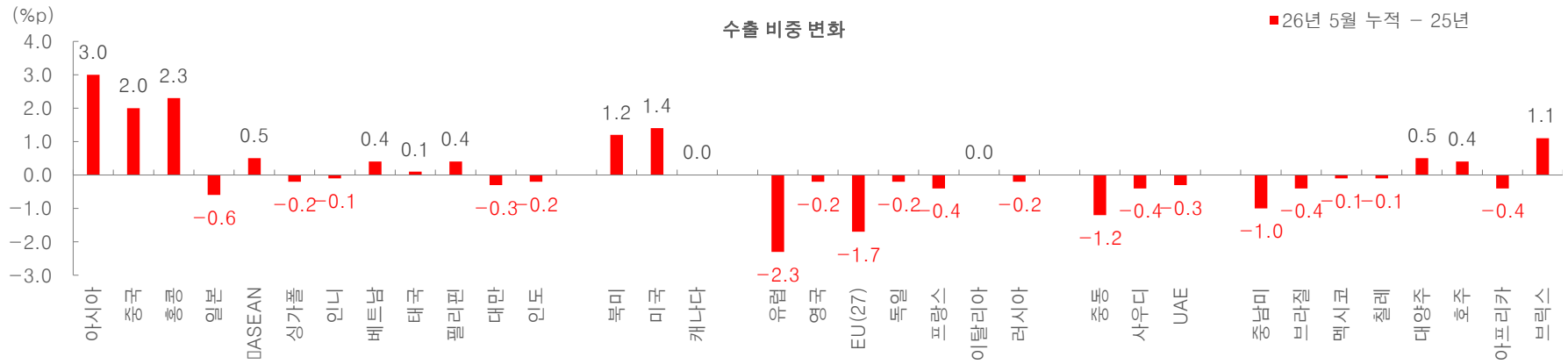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아시아 수출 60%에 근접. 중국, 홍콩 수출 레벨업. 미국 수출도 회복세 뚜렷

아시아 수출 비중이 60%에 근접. 중국 수출은 20%를 상회하며 아세안 수출을 앞질러... 미국 수출도 회복세 뚜렷. 유럽, 중남미 수출 비중 축소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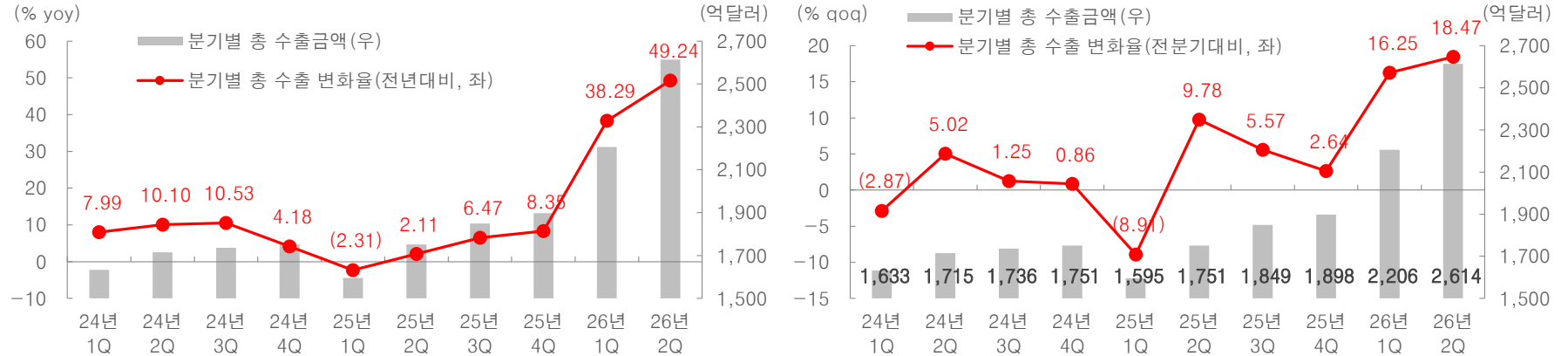
아시아, 중국, 홍콩, 미국 수출 비중 큰 폭으로 레벨업. 반면, 유럽 수출 비중은 2.3%p 레벨다운. 홍콩, 사우디, 중남미도 수출 비중 축소



자료: 관세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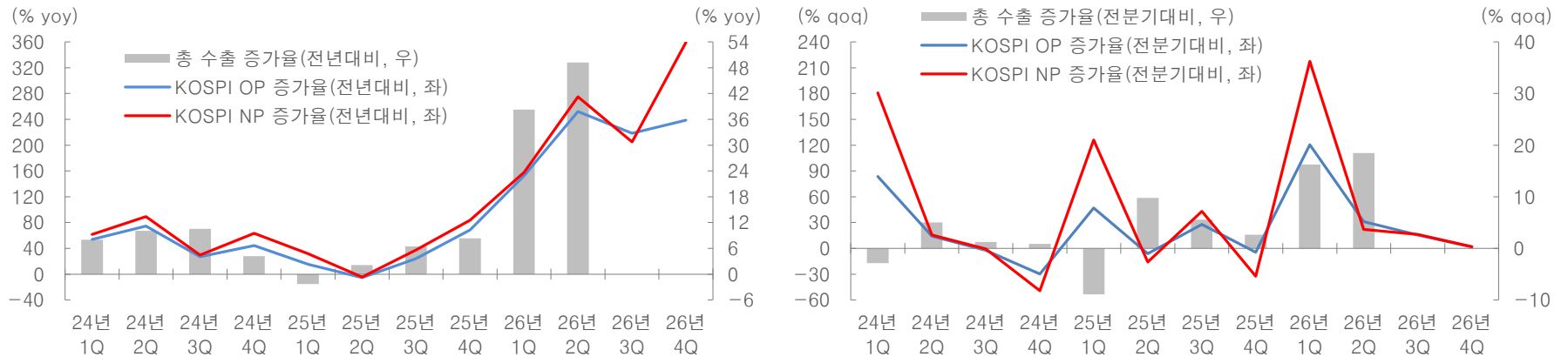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26.1Q보다 2Q에 더 강해진 총 수출 모멘텀. 실적 전망 추가상향 조정 가능성

총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는 추가적인 레벨업 전망. 전분기대비 변화율도 1분기보다 소폭 추가적으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



자료: 관세청,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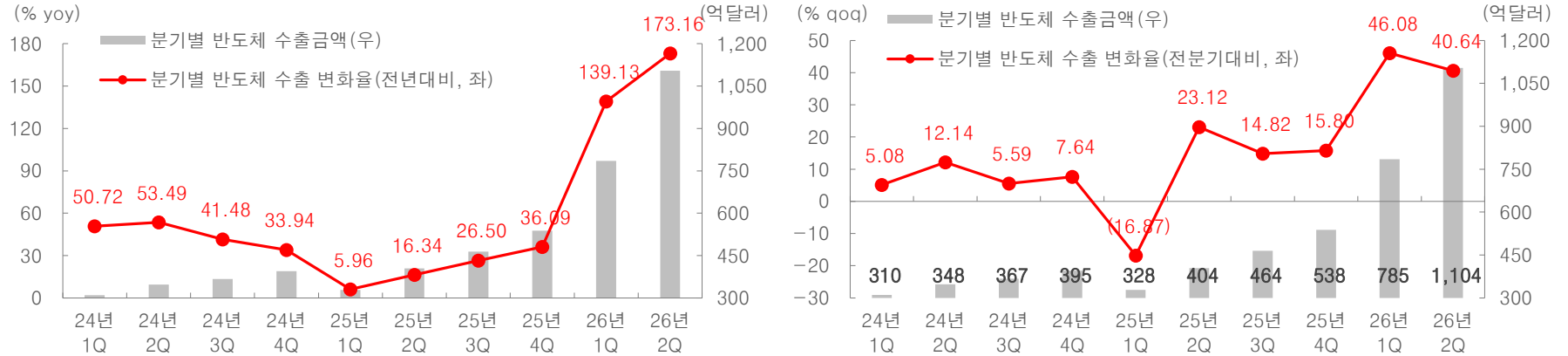
수출 전년대비 변화율 큰 폭 레벨업, 이익 증가율 또한 모멘텀 강화 예상. 전분기 대비 변화율은 1분기 대비 보다 높아지지만, 이익 변화율은 레벨 다운



자료: 관세청,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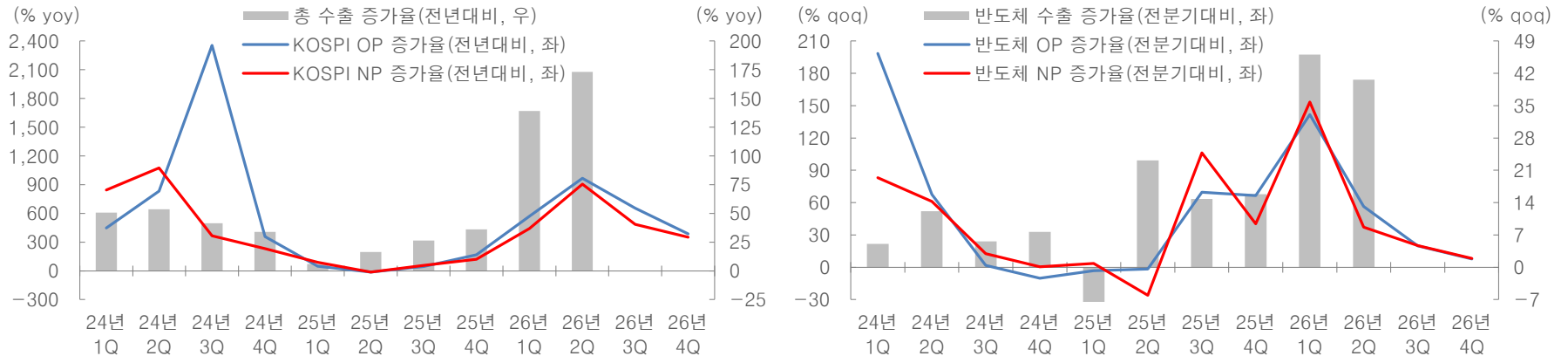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26.1Q보다 2Q에 더 강하고 견고한 반도체 수출 모멘텀. 실적 전망은?

총 수출 증가율, 전년대비는 추가적인 레벨업 전망. 전분기대비 변화율은 1분기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



자료: 관세청,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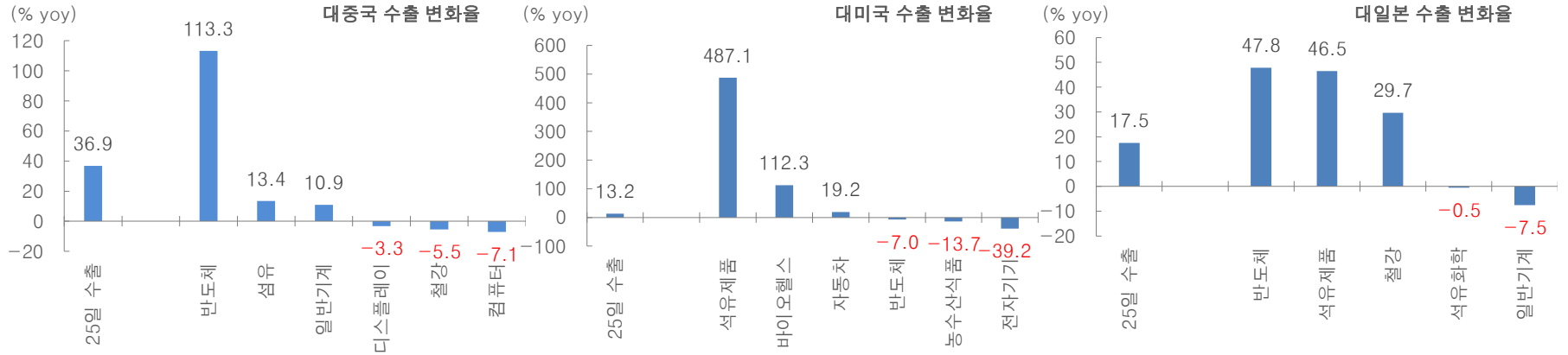
반도체 수출, 이익 변화율은 2분기 추가적인 레벨업 가시화. 전분기대비 변화율은 수출 둔화 폭보다 이익 변화율 둔화 폭이 더 큰 상황



자료: 관세청,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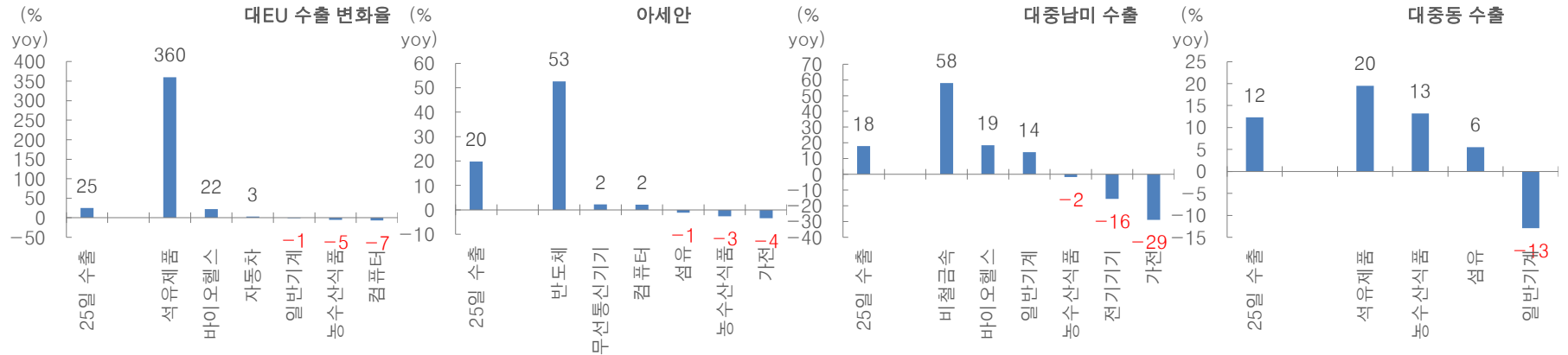
[수출 모멘텀]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 증가율이 국가별 1위, 2위권에서 앞치락 뒤치락 중

중국, 일본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 뚜렷. 미국은 석유제품, 바이오헬스 수출 큰 폭으로 증가.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감소 반전



자료: 관세청,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럽, 중동으로 수출 석유 제품이 가장 강해. 아세안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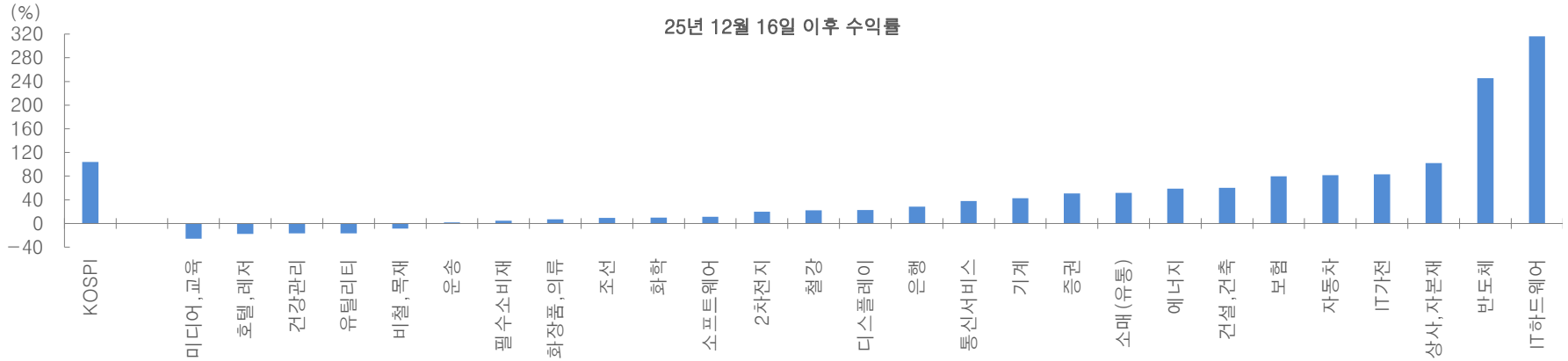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투자전략 : 주도주는 변동성을 활용한 매집 전략. 실적대비 저평가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유효

- KOSPI가 9,000선에 근접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 다수의 업종들이 빠르게 과열권에 진입, 상승 피로가 커지는 상황에서 채권금리 레벨업이 변동성을 자극. **최근 급등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40, 50MA 지지력 확보 여부를 주목하며 이번 조정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 낙폭과대, 소외주들은 200일 또는 480일 이동평균선에서 분위기 반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 저평가 & 낙폭과대 업종은 건강관리, 화학, 비철목재, 운송, 에너지, 조선, 철강, 기계, 건설, 증권, 필수소비재,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미디어/교육, 14개 업종으로 절반 이상 업종이 저평가 영역에 위치. 과도한 쓸림현상 영향으로 판단. 이들 업종 중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 중이면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화학, 에너지, 철강, 기계, 건설, 호텔/레저. 상품 가격 상승 시 수혜 업종과 상대적 약세를 이어왔던 업종들이 다수 포진**
- 저평가 또는 낙폭과대 업종에는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은행, 통신이 있음. 가격 메리트나 실적대비 저평가 정도가 약함에 따라 실적 전망 변화에 민감도 높음. **현재는 디스플레이, 은행이 실적 전망 상향 조정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 확대.**
- 가격 메리트가 약한 업종에는 반도체, 자동차, IT가전,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소매(유통), 보험이 있음. 대부분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선행 EPS 상승 추세를 뚜렷.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패턴을 보면 가격, 과열 부담이 있는 업종들에 매도가 집중되고 있어 **실적 전망 상향 조정과 함께 외국인 순매수 기록 중인 업종은 없음.**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외국인 매매 변화 가능
- 전체 업종 중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 중이고, 외국인 순매수까지 유입 중인 업종은 화학, 에너지, 철강, 기계, 건설, 호텔/레저, 디스플레이, 은행.** 지정학적 리스크 변동과 주가 레벨에 따른 외국인 차익 매물 출회 속에 소외 업종 중심으로 차별적인 순매수 전개
- 5월, 6월초 KOSPI 급등, 9,000선 근접을 주도한 **반도체, 자동차, 증권, 상사/자본재와 2차전지, 조선** 등은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 진입.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단기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 단기 가격 부담 해소 이후 다시 KOSPI 상승을 주도할 전망
-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4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수준과 현재 주가 수준을 확인.** 이동평균선과 지수 간 정배열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견고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Holding 전략이 유효. 조정시에는 4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반면, 역배열이 진행 중이라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필요. 강한 조정 국면이 진행 중인 관계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
- **5월부터 6월초 급등으로 다수 업종들에서 과열양상** 뚜렷. 상승 추세가 강했던 업종은 40MA, 50MA에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던 업종은 200MA, 480MA에서 지지력 테스트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전망
- 현재 **40, 50MA에서 지지력 테스트 중이거나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증권, 미디어/교육, 인터넷, 은행, 통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단기 등락을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 상승 추세가 강한 만큼 동 지수대에서 지지력 확보시 빠르게 상승 추세를 재개해 나갈 수 있음. 이미 상승 추세를 재개, 전고점을 넘어선 업종은 디스플레이, 지주사, 유통, 보험. 단기 과열 및 상승 피로 누적. 추격매수보다는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국면을 비중확대, 분할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 **40, 50MA 지지력 확보 여부 주목. 200, 480MA 지지력 테스트 중인 업종은 철강, 화학, 조선, 기계, 건설, 음식료, 에너지, 화장품/의류, 방산.** 40MA, 50MA 이탈시에도 200MA 지지력 기대, 분할매수 대응 유효, 200일선 또는 480일선을 이탈한 제약/바이오, 운송, 비철/목재, 여행레저, 섬유 의복, 유틸리티는 480일선 또는 상승 추세대 하단 지지력 확보, 200일선, 480일선 돌파/안착 여부를 확인한 이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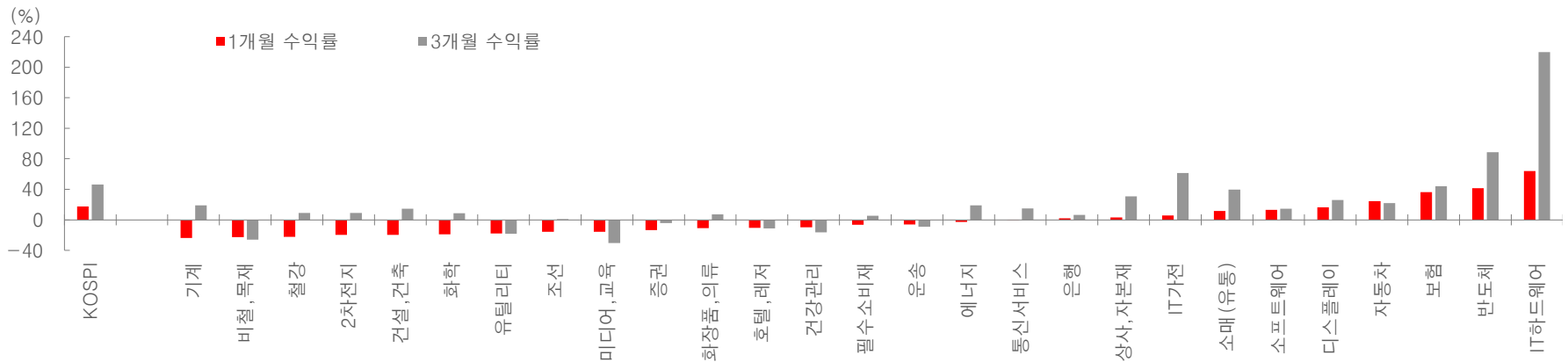
[낙폭과대] 25/12/16 이후 미디어/교육, 호텔/레저, 건강관리, 유틸리티, 비철/목재 (-) 수익률

25년 12/16 이후 수익률 : IT하드웨어, 반도체 수익률 압도적인 1, 2위. 미디어/교육, 호텔/레저, 건강관리, 유틸리티, 비철/목재 5개 업종 (-)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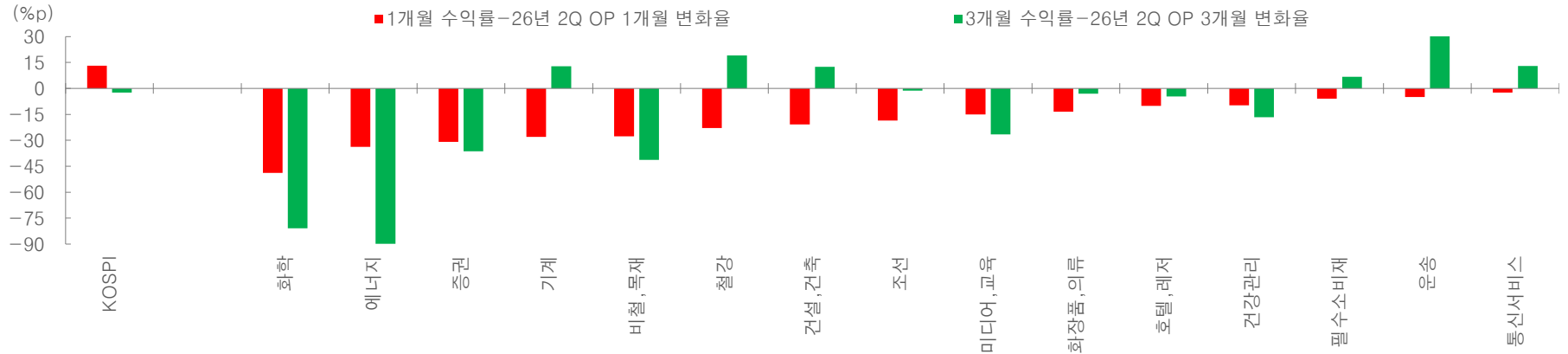
IT하드웨어, 반도체, 보험, 자동차, 디스플레이 강세 뚜렷. 기계, 비철/목재, 철강, 2차전지, 건설, 화학, 유틸리티, 조선, 미디어/교육 16개 업종 약세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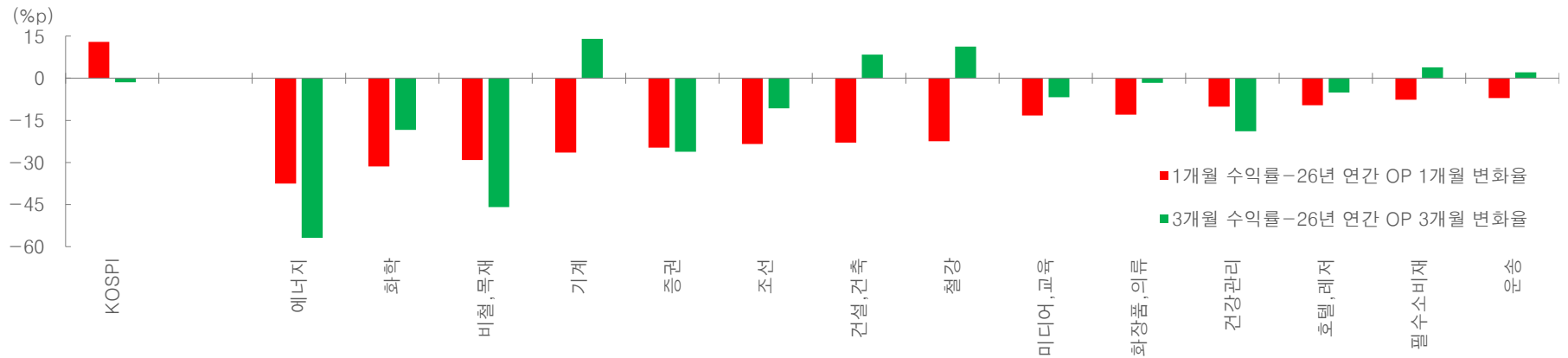
[실적대비 저평가] 에너지, 화학, 기계, 증권, 조선, 건설, 미디어/교육 등 2Q/연간 실적대비 저평가

26년 2분기 영업이익 대비 저평가: 화학, 에너지, 증권, 기계, 비철/목재, 철강, 건설, 조선, 미디어/교육,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등 15개 업종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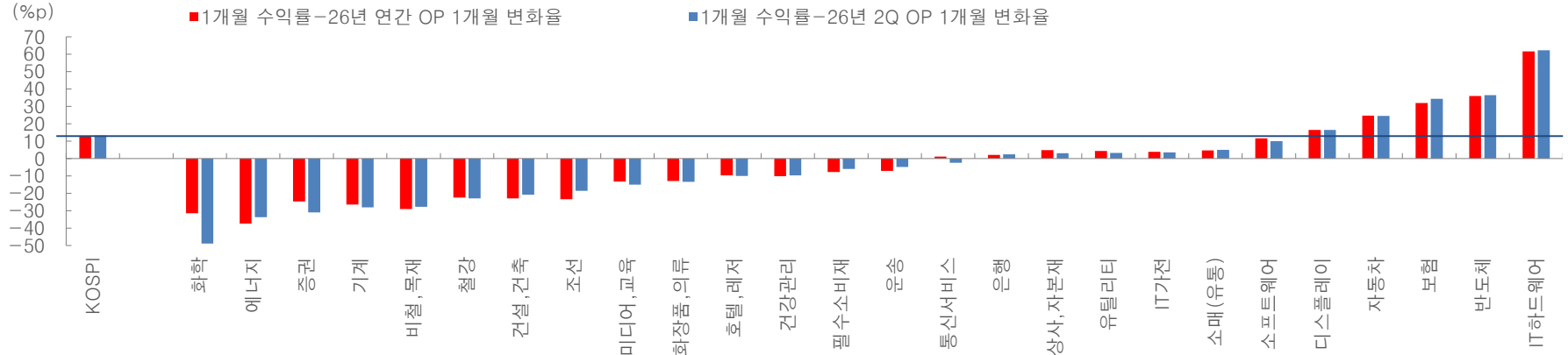
26년 연간 영업이익 대비 저평가: 에너지, 화학, 비철/목재, 기계, 증권, 조선, 건설, 철강, 미디어/교육, 화장품/의류, 건강관리 등 14개 업종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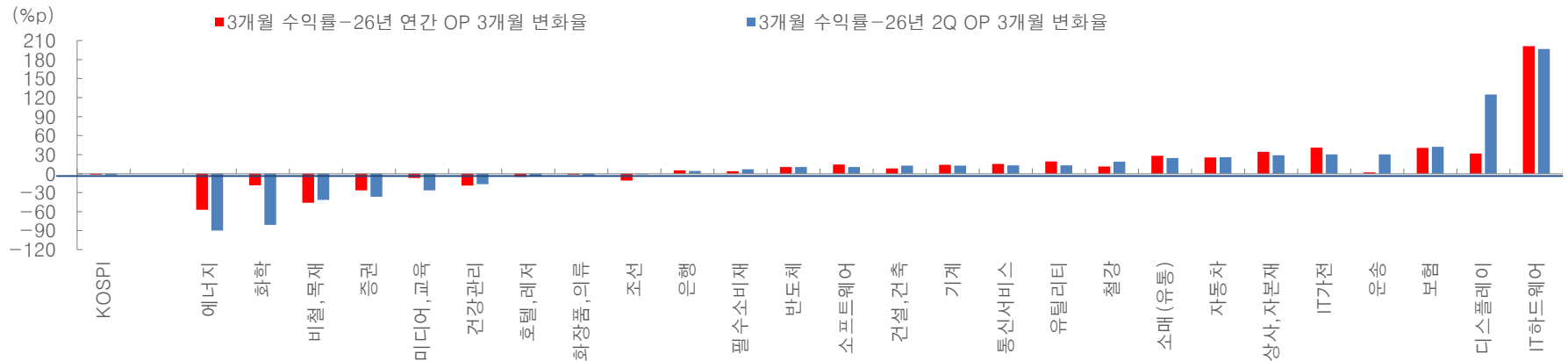
[실적대비 주가 변화율] 1개월 고평가 전환. 3개월 매력도는 높지만, 단기 매력 약화

1개월 실적 대비 주가 변화율. 연간, 2Q 기준 +13%p, +13.2%p 고평가 확대. IT하드웨어, 반도체, 보험, 자동차,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 고평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개월 실적 대비 주가 변화율. 연간, 2Q 기준 -1.4%p, -2.4%p 저평가완화, 에너지, 화학, 증권, 비철/목재, 미디어/교육, 건강관리, 조선 등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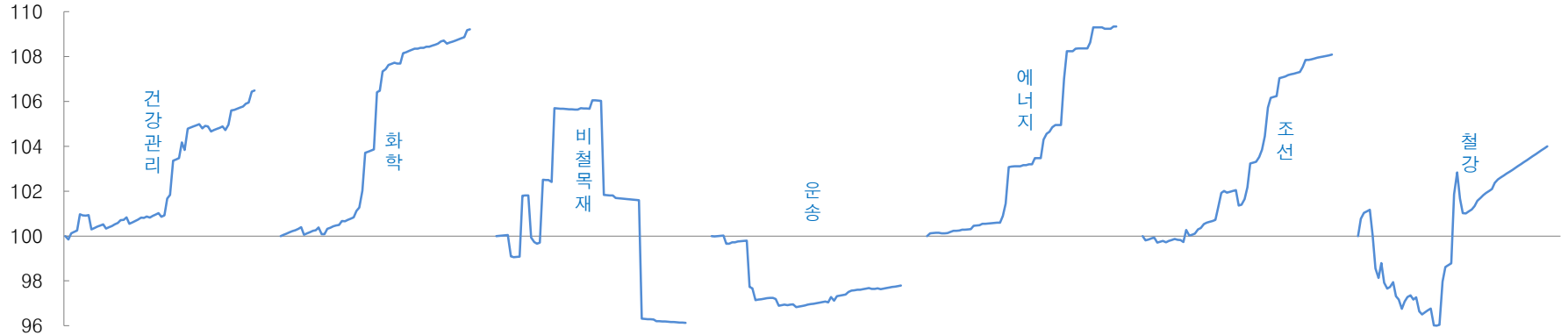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저평가 & 낙폭과대 1] 건강관리, 화학, 비철목재, 운송, 에너지, 조선, 철강

실적 전망 상향: 건강관리, 화학, 운송, 에너지, 조선, 철강 / 정체/하향: 비철목재

(26.4.1=100)

4월 이후 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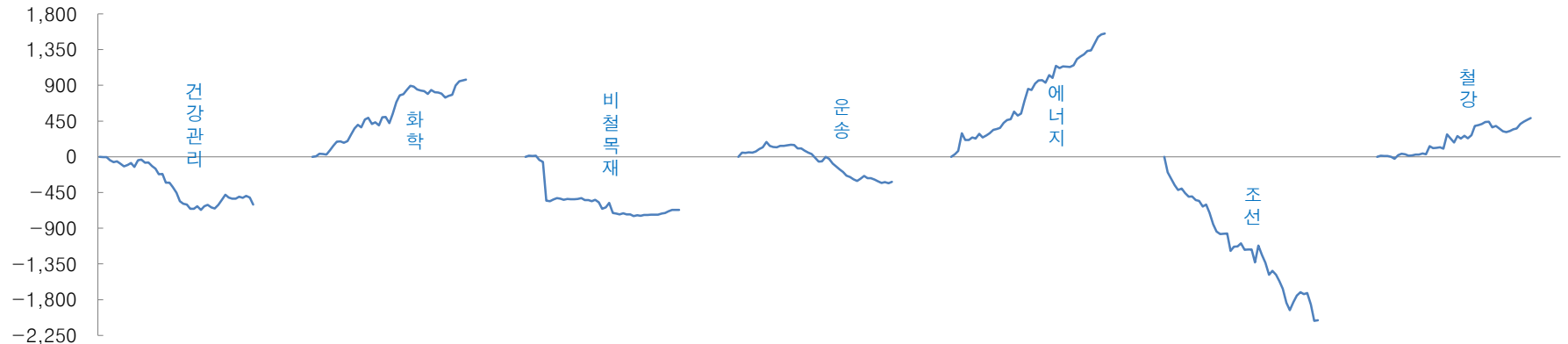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화학, 비철/목재, 에너지, 철강 외국인 매수 지속. 건강관리, 조선 매도 전환, 운송은 매도 강도 완화

(26.4.1=0. 십억원)

4월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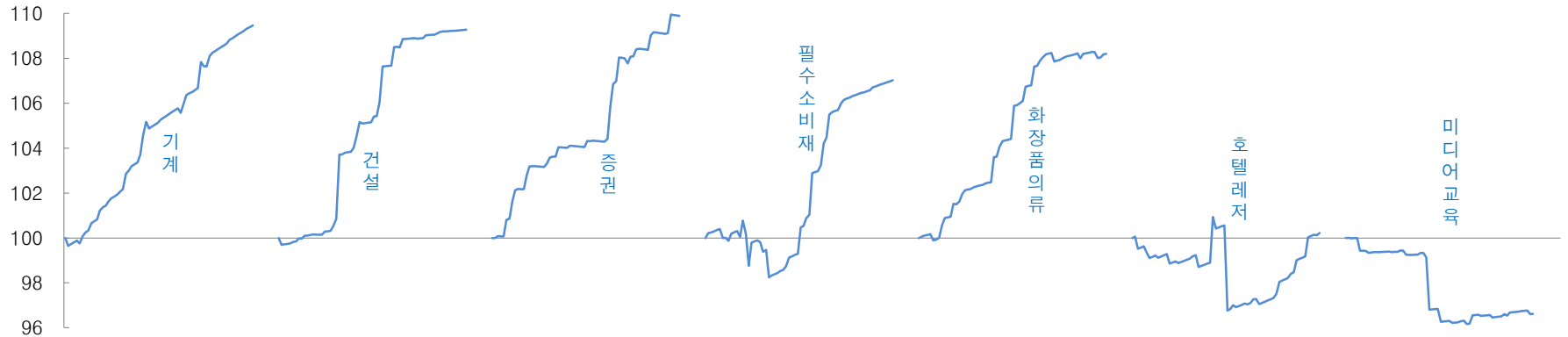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저평가 & 낙폭과대 2] 기계, 건설, 증권, 필수소비재,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미디어/교육

실적 전망 상향: 기계, 건설, 필수소비재, 호텔/레저 / 정체/하향: 증권, 화장품/의류, 미디어/교육

(26.4.1=100)

4월 이후 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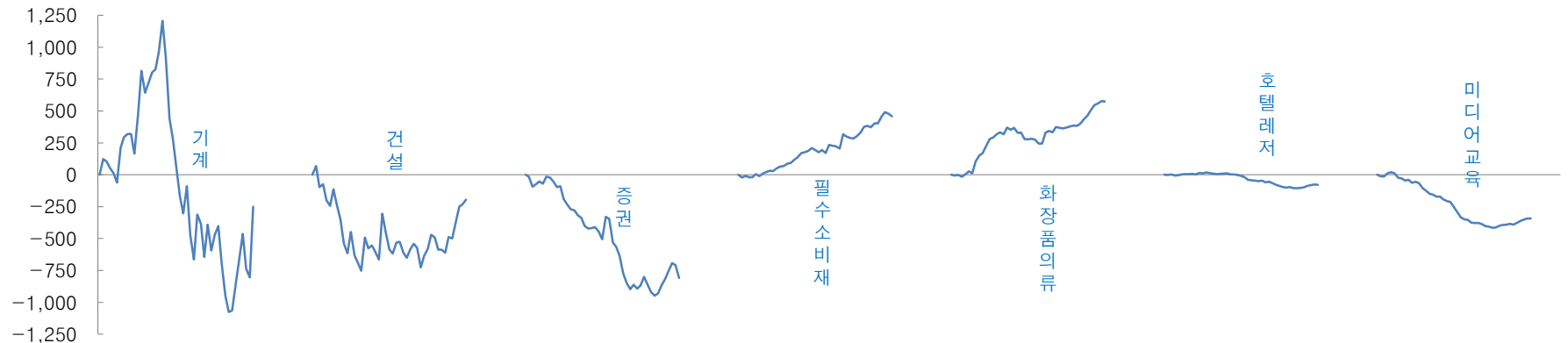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계, 건설, 화장품/의류, 호텔/레저, 미디어/교육 매수 전환 & 강화. 증권, 필수소비재 매도 전환

(26.4.1=0. 십억원)

4월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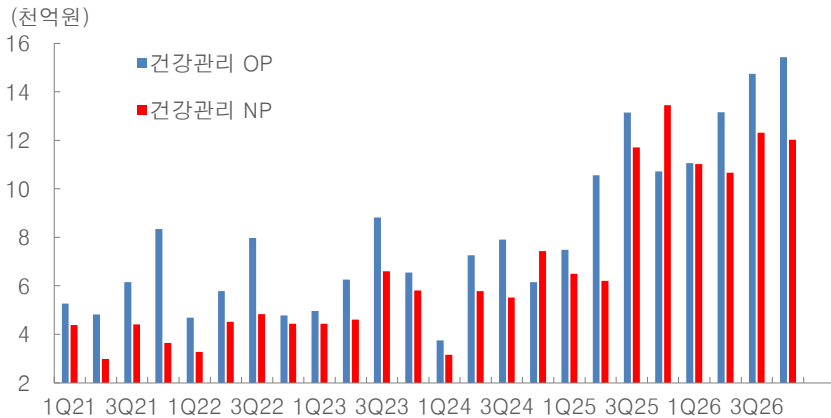
[제약/바이오] 2,130선 지지력이 마지노선. MACD OSC 상승 다이버전스 진행 중

KRX 바이오 Top10 지수 일간차트. 박스권 하단인 480일선 이탈, 2,130선 지지력 확보가 마지노선. MACD OSC 상승 다이버전스로 분위기 반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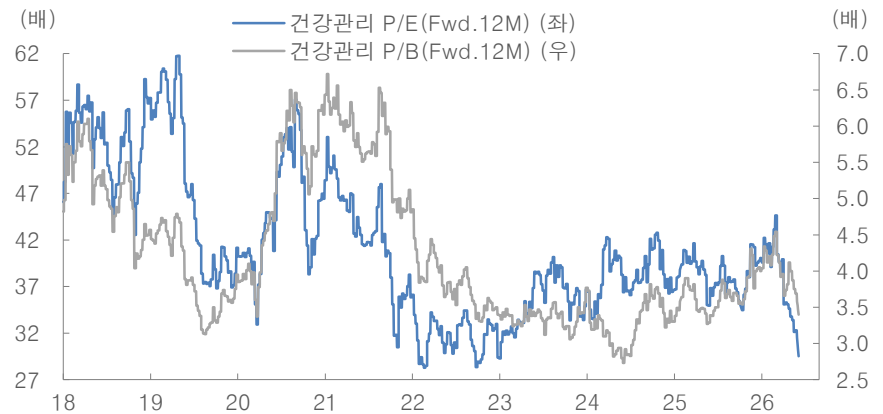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 1Q 저점으로 26년 4Q까지 실적 레벨업 전망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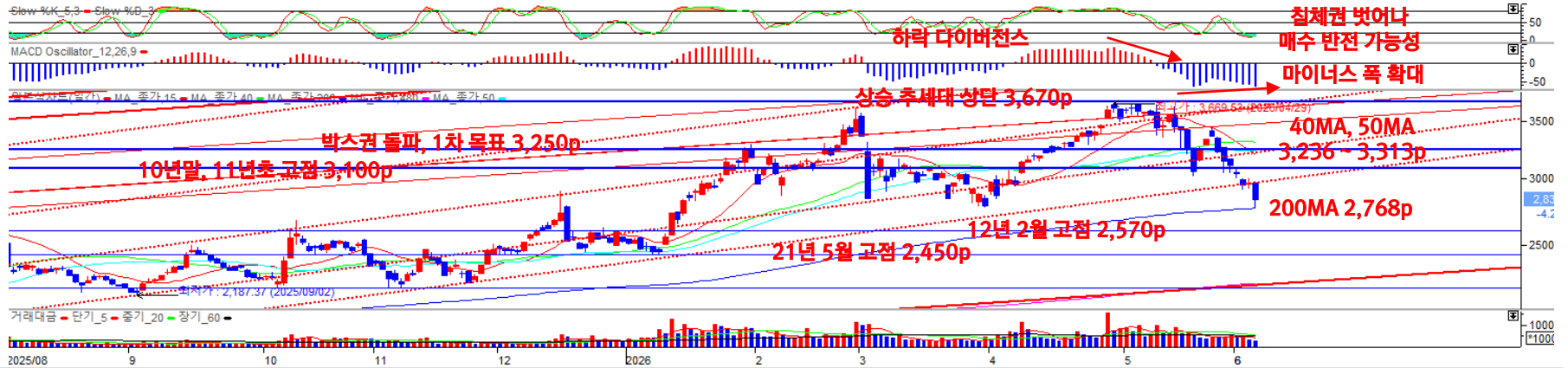
선형 PER(29배), PBR(3.4배)로 역사적 저점권으로 레벨다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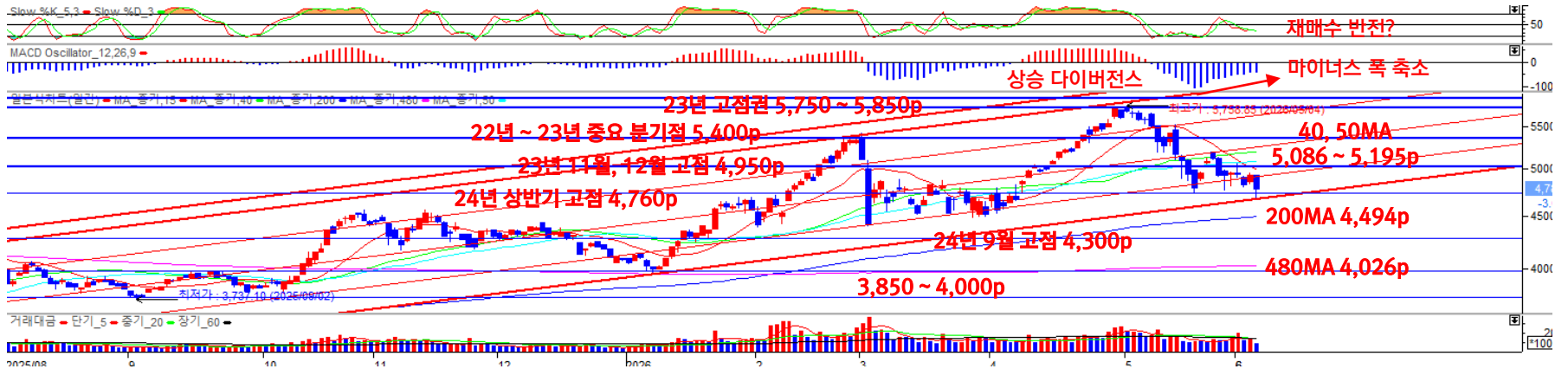
[철강/화학] 철강, 200MA 지지력 테스트. 화학은 직전 저점 지지력 테스트 중

KRX 철강 일간차트. 단기 과열 부담에 하락 반전, 40MA, 50MA 이탈, 안착에 실패하면서 200MA 지지력 테스트 진행 중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화학 일간차트. 단기 과열 부담, 상승 피로 누적에 5,750선에서 하락 반전. 40, 50MA 이탈, 회복 실패로 상승추세대 하단, 20MA 지지력 테스트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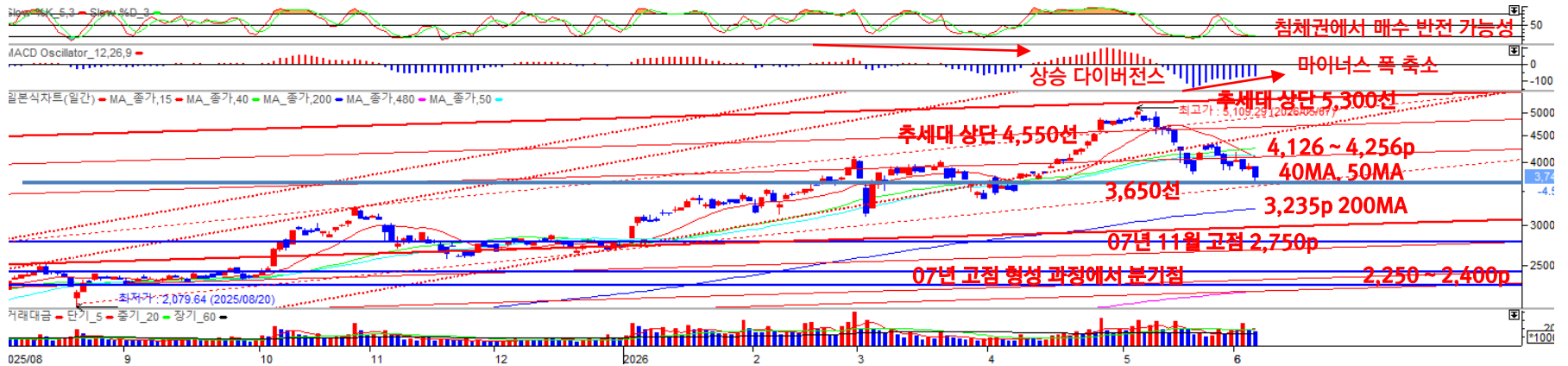
[조선/기계] 조선, 기계 모두 전고점 돌파 이후 하락 반전. 200MA, 중요 분기점 지지력 테스트 중

FN조선해운지수 일간차트. 전고점이자 박스권 상단(35,600선) 돌파이후 하락 반전. 40, 50MA 이탈, 안착 실패로 200MA 지지력 테스트 중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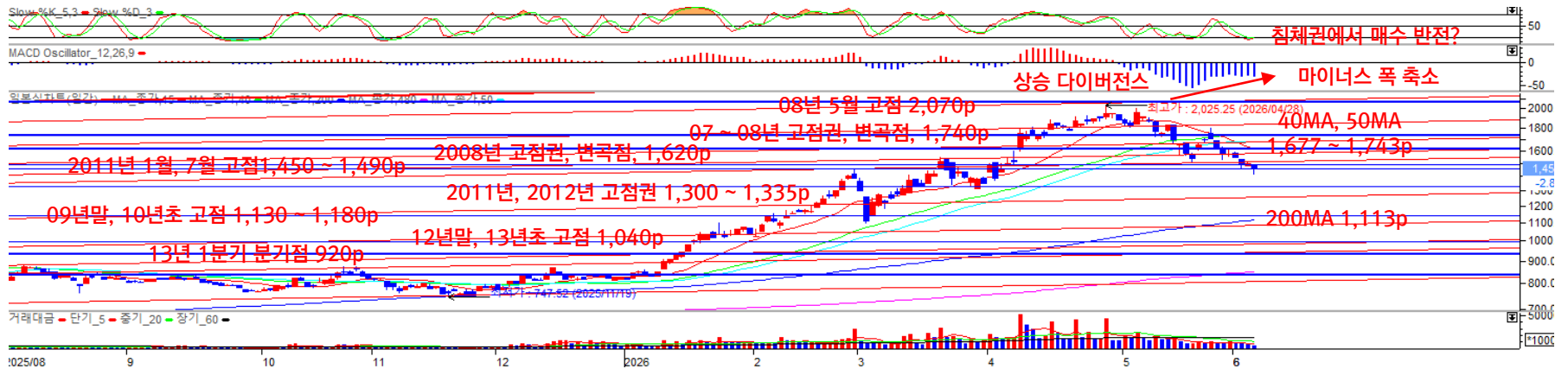
기계 일간 차트. 추세대 상단 저항에 하락 반전. 3,650선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가 관건. 이탈시 200MA 지지력 테스트 불가피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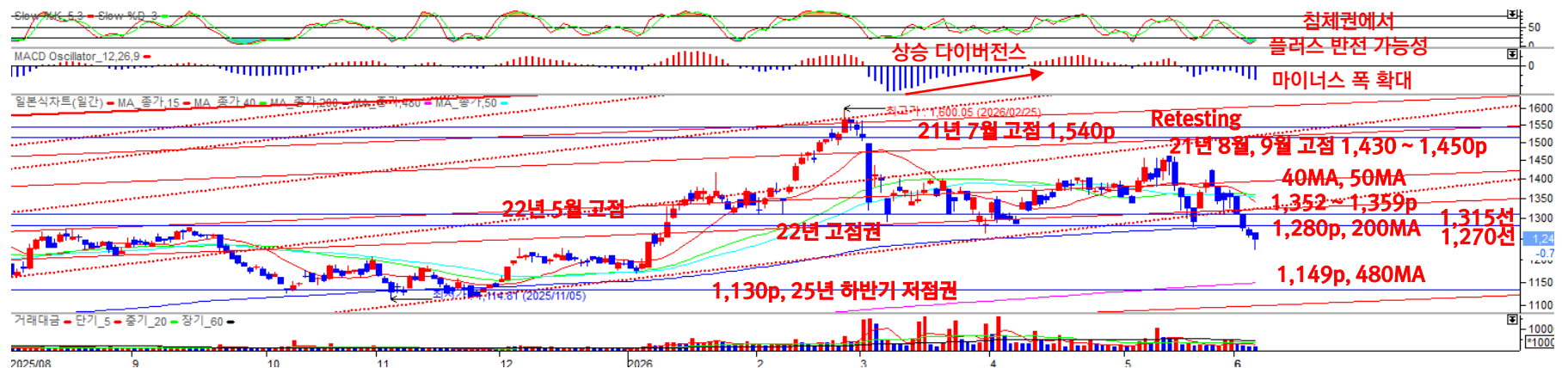
[건설/운송] 40, 50MA 이탈, 회복 실패로 하락세 지속. MACD OSC 상승 다이버전스 진행 중

KRX 건설 일간차트. 2,000선 돌파 이후 하락 반전. 40, 50MA 이탈로 1,400선대 지지력 테스트 진행 중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RX 운송 지수 일간차트. 단기 급락 반전으로 40MA, 50MA 이탈, 회복 실패, 200MA마저 하회. 480MA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 높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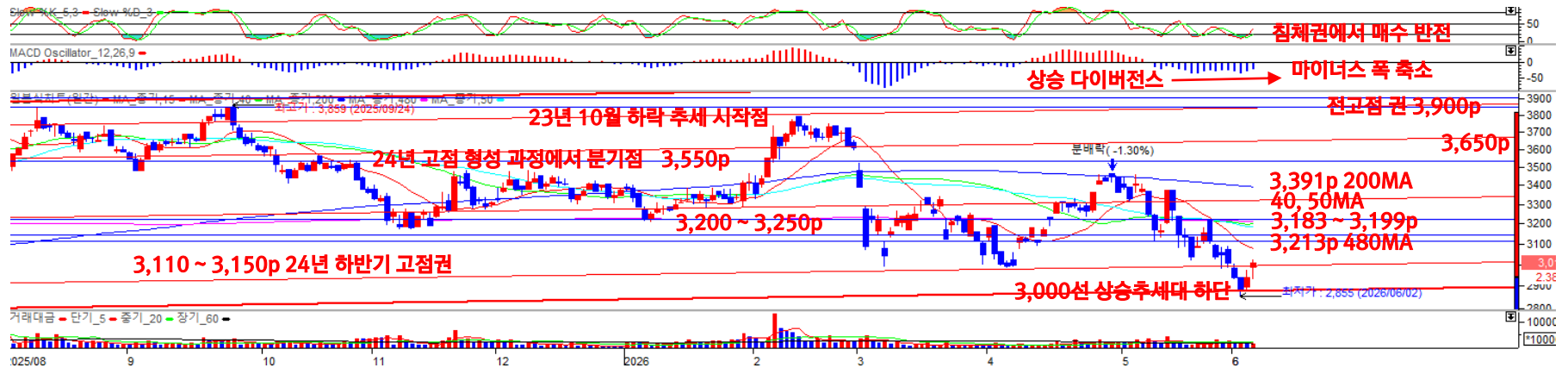
[비철목재/여행레저] 480MA 이탈한 비철목재, 여행레저는 추세대 하단에서 분위기 반전 시도

비철목재 일간 차트. 4,200선 하회에 이어 480MA마저 하향 이탈. 3,500 ~ 3,600선대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가 관건. MACD OSC 상승 다이버전스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Tiger 여행레저 일간 차트. 200MA 저항에 하락 반전. 40, 50MA 이탈로 상승추세대 하단인 3,000선 지지력 바탕으로 분위기 반전 모색 중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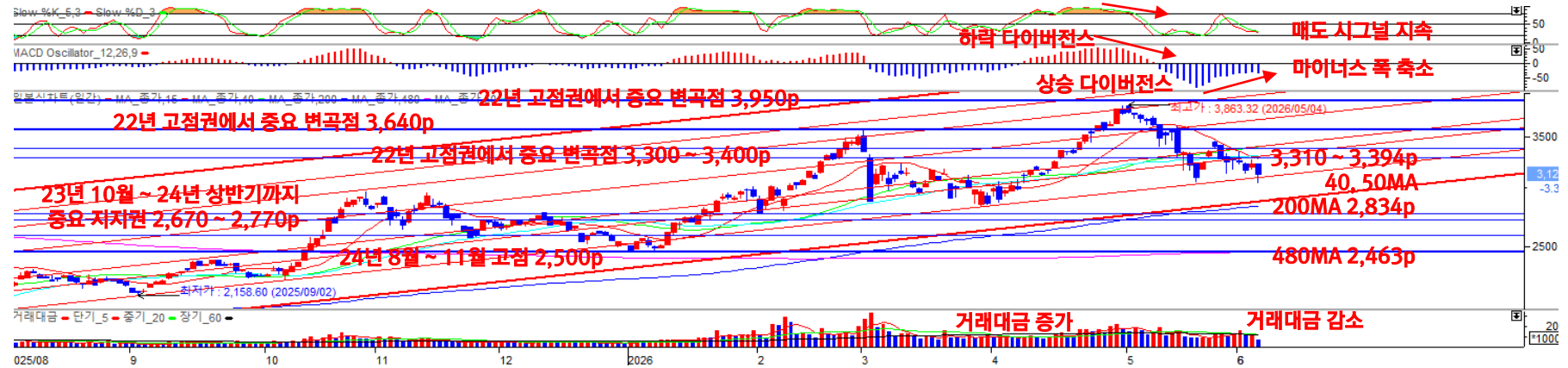
[음식료/에너지] 음식료, 200MA 지지력 테스트 중. 에너지는 전 저점 지지력 확보 여부 중요

음식료품 일간 차트. 전고점 안착에 실패한 이후 하락 반전. 40, 50MA 이탈로 200MA 지지력 테스트 중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에너지화학 일간 차트. 3,950선 돌파에 실패,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진입, 40, 50MA 이탈로 200MA 지지력 테스트 전개 가능성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화장품/섬유의복] 화장품은 480MA, 섬유의복은 하락추세대 하단에서 지지력 확보 중요

Tiger 화장품 ETF 일간 차트. 4,180선대 저항에 하락 반전. 40, 50, 200MA 하향 이탈로 480MA 지지력 테스트 진행 중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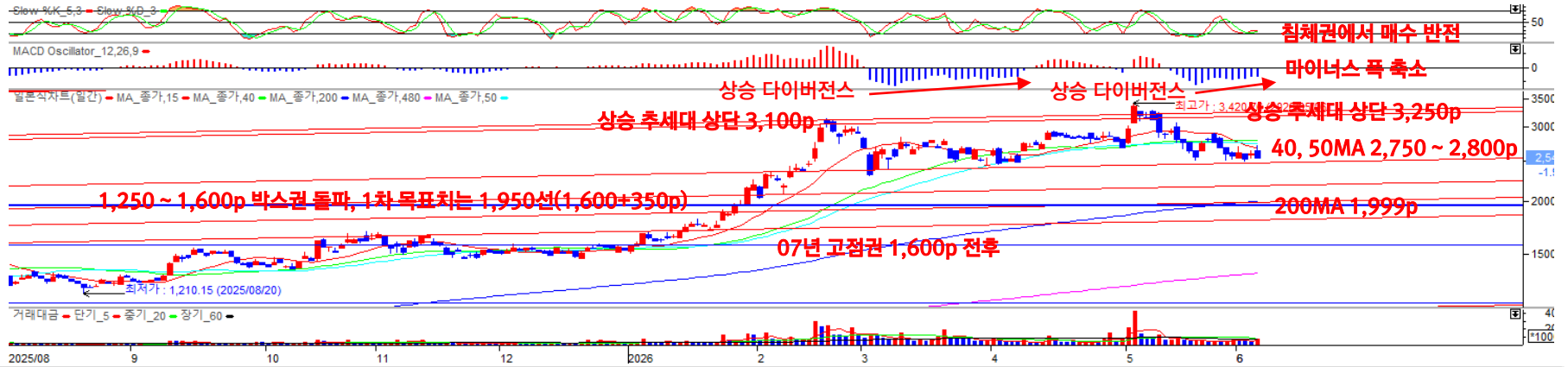
섬유/의복 일간 차트. 전고점, 박스권 상단에서 하락 반전. 중요 지지권 이탈, 박스권 하단이자 상승추세대 하단에서 분위기 반전 모색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증권/콘텐츠] 증권, K콘텐츠 모두 40MA, 50MA 돌파/안착 여부가 관건

KRX 증권 일간차트. 전 고점을 넘어 4,000선까지 상승 여력 존재. 과열해소, 매물소화 과정에서 40MA, 50MA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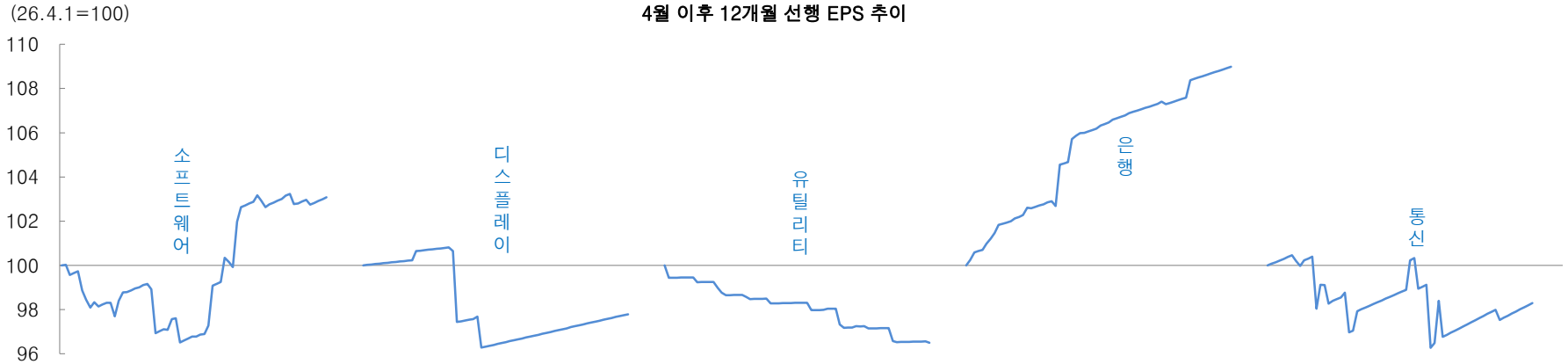
KRX K콘텐츠 일간차트. 상승추세 이탈 이후 1,700선 지지력 바탕으로 분위기 반전 모색 중. 40, 50, 480일선 돌파/안착 시도 여부가 중요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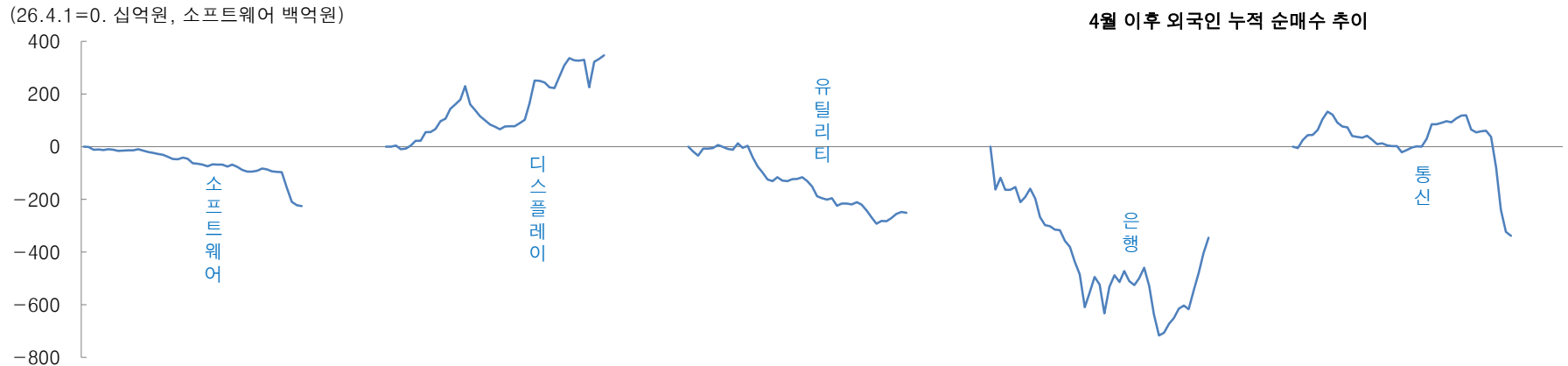
[저평가 or 낙폭과대]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은행, 통신

실적 전망 상향: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은행, 통신 / 정체/하향: 유틸리티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은행 매수 전환 & 강화. 소프트웨어 매도 강도 완화. 통신은 매도 강도 강화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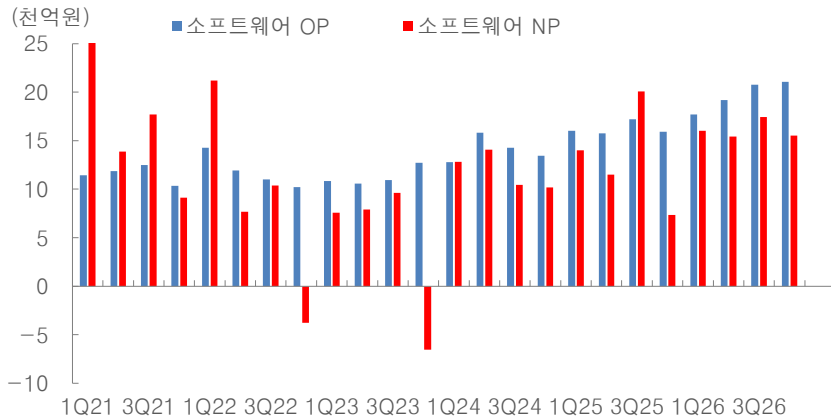
[인터넷] 40, 50MA 돌파/안착 이후 급반등. 다시 40, 50MA 지지력 테스트 진행 중

KRX 인터넷 Top10 지수 일간차트. 40, 50MA 돌파, 안착한 이후 급반등. 박스권 상단이자 전고점 수준에서 하락 반전. 다시 40, 50MA 지지력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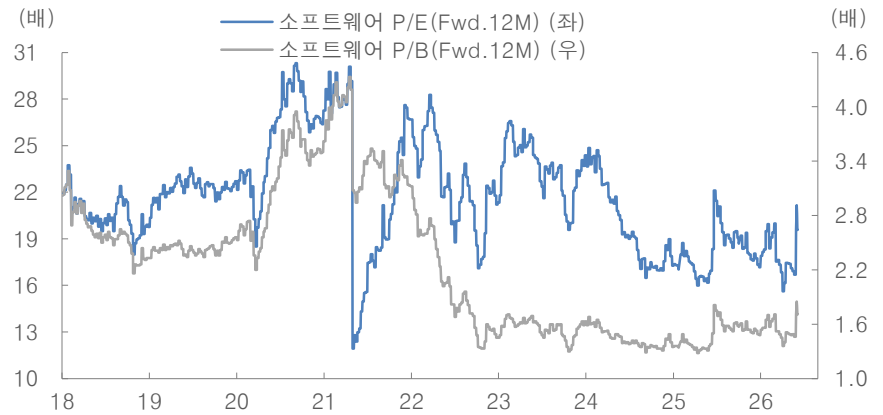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사상 최대 이익 경신할 전망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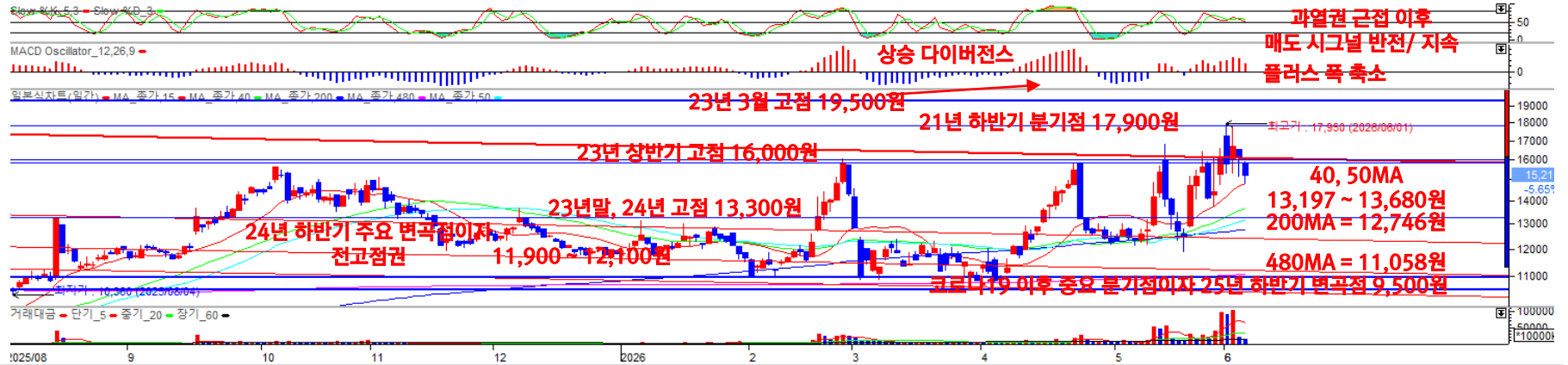
선행 PER 19.57배, 선행 PBR 1.71배로 반등, 과거 평균대비 저평가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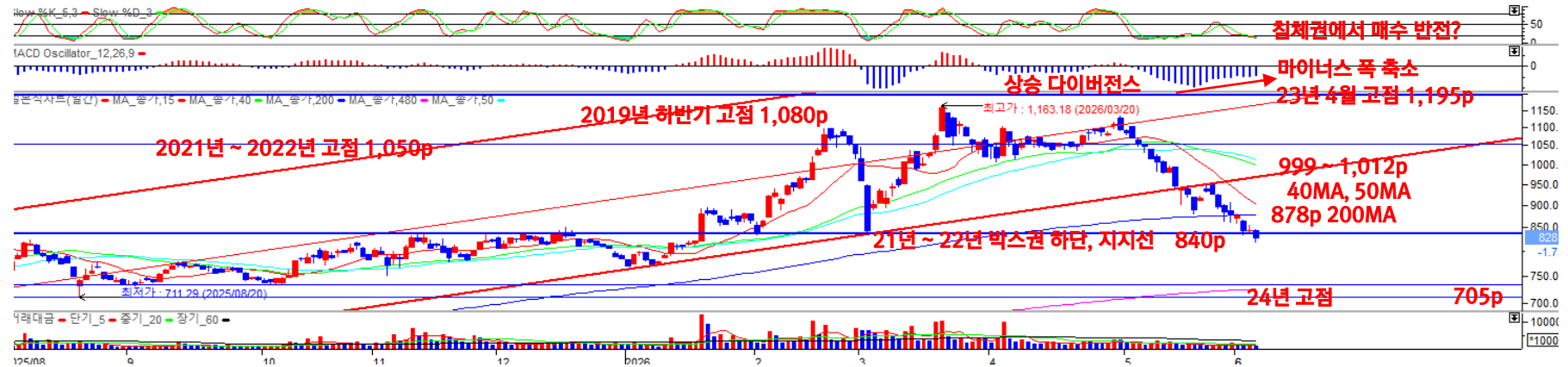
[디스플레이/유틸리티] 디스플레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유틸리티는 200MA 하향 이탈

디스플레이 일간 차트. 200MA 지지력 확보 이후 급반등. 단숨에 40, 50MA를 넘어 전고점 도달. 40, 50MA 지지력 재확인 이후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RX 유틸리티 일간차트. 200MA마저 하회하면서 올해 3월초 저점인 840선 지지력 테스트. 이탈시 480MA 지지력 테스트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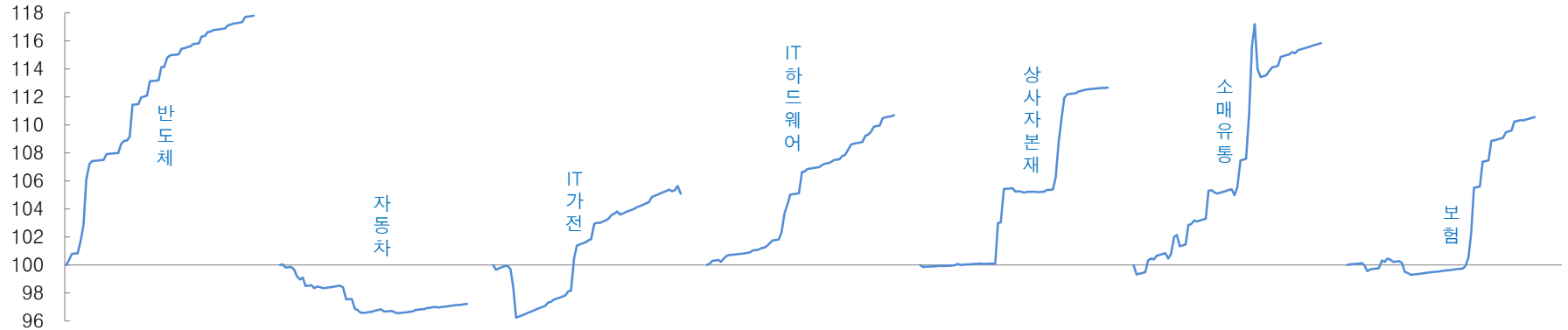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가격 메리트 약화] 반도체, 자동차, IT가전,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소매(유통), 보험

실적 전망 상향 : 반도체, 자동차, IT하드웨어, 소매(유통), 보험 / 정체, 하향조정 : IT가전, 상사/자본재

(26.4.1=100)

4월 이후 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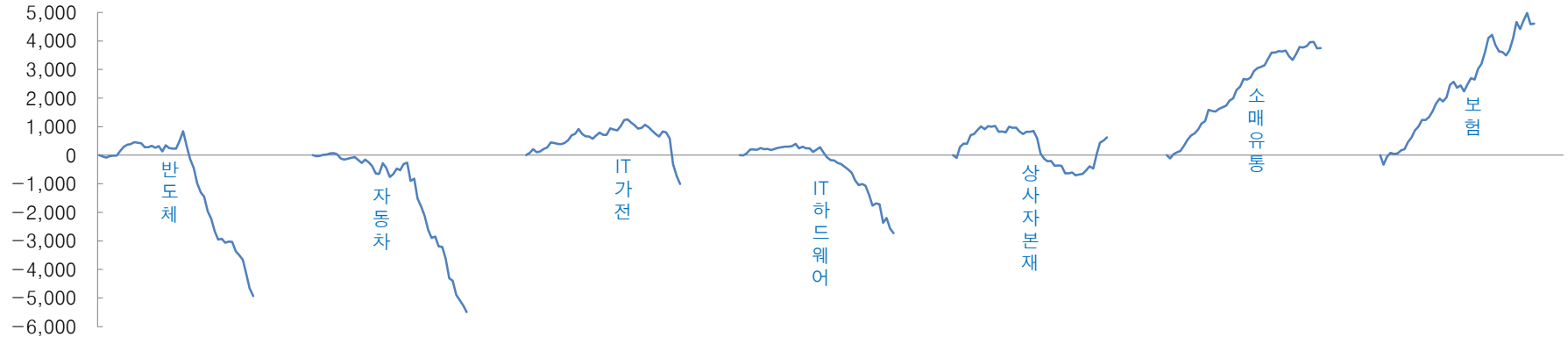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 자동차, IT가전, IT하드웨어 매도 지속/강화 중. 상사/자본재는 매수 전환, 소매(유통), 보험은 매도 전환

(26.4.1=0. 십억원, 반도체 백억원, 기계, 디스플레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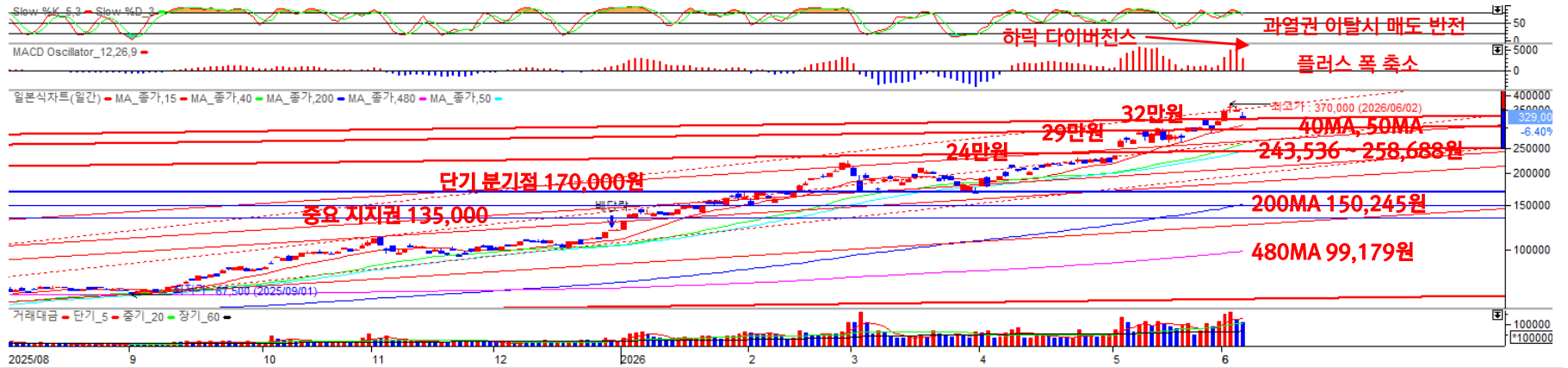
4월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삼성전자] 단기 급등, 상승추세대 상단 도달. 하락 반전으로 40, 50MA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

삼성전자 일간차트. 급등으로 상승 피로 누적, 과열 심화. 급락 반전으로 단기 과열 해소, 매물소화 국면 진입 가능성. 40, 50MA 지지력 테스트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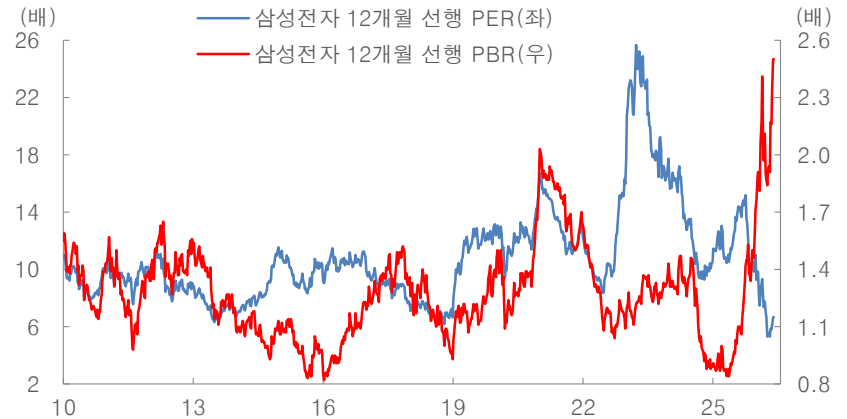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 2Q OP 85조, 26년 3분기 102조원까지 레벨업 전망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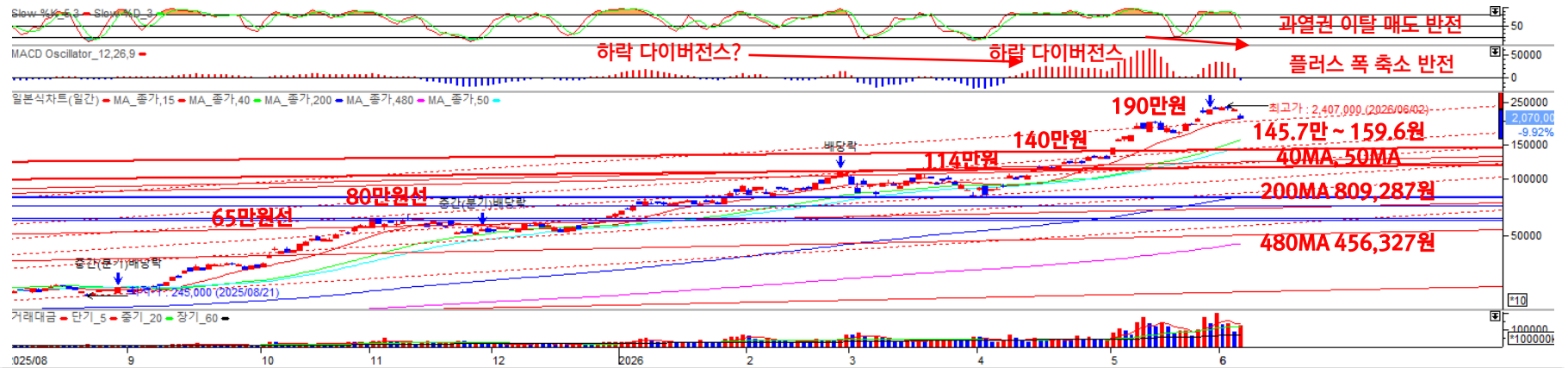
실적 전망 레벨업으로 선행 PER 6.67배, PBR 2.5배에서 등락 중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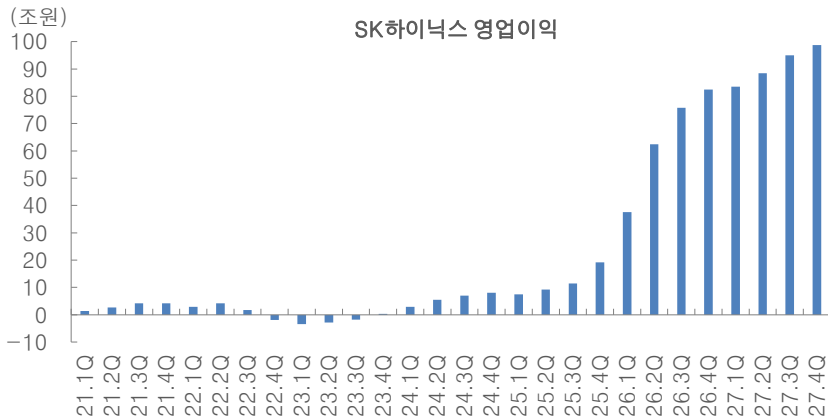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 행진에 240만원 돌파 시도. 하지만, 급락 반전으로 단기 조정 전환

SK하이닉스 일간차트. 6월초 단기 급등으로 240만원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OverShooting.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시 40, 50MA 중요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Q 영업이익 62조원, 3Q 75조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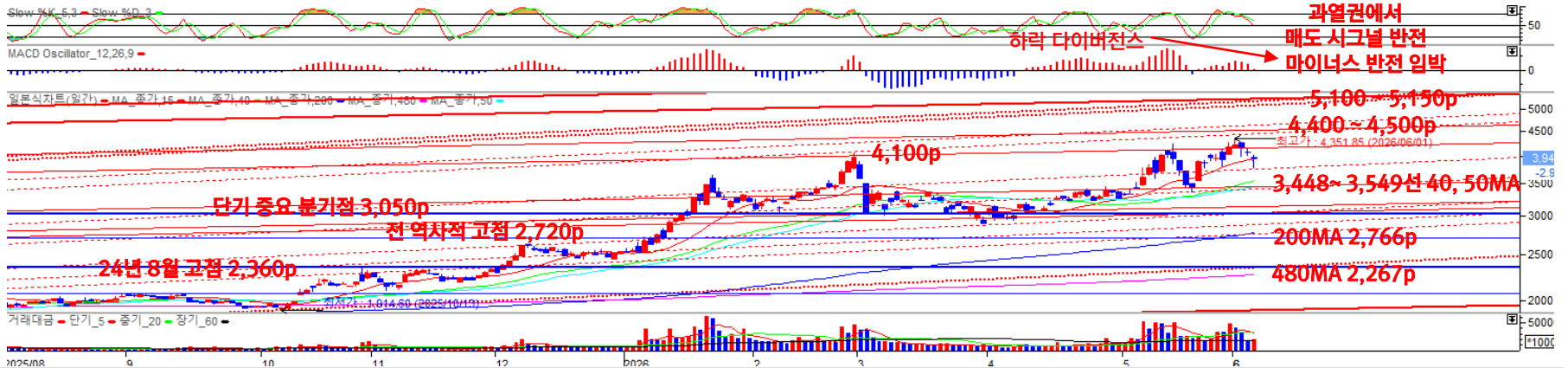
선행 PER 5.9배에 불과. 선행 PBR은 3.01배로 전고점 돌파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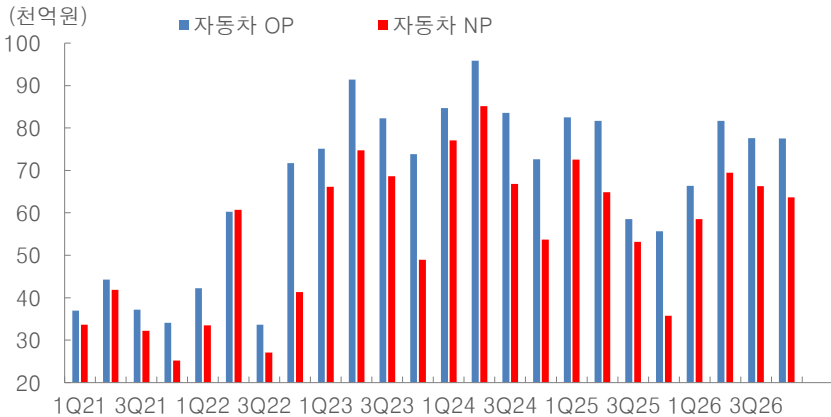
[자동차] 40, 50MA 지지력 바탕으로 상승추세 지속. 단기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가능성

KRX자동차 일간 차트. 40, 50MA 안착 확인 이후 가파른 상승 재개. 4,400 ~ 4,500선까지 상승 가능. 단기 조정시 40, 50MA 지지력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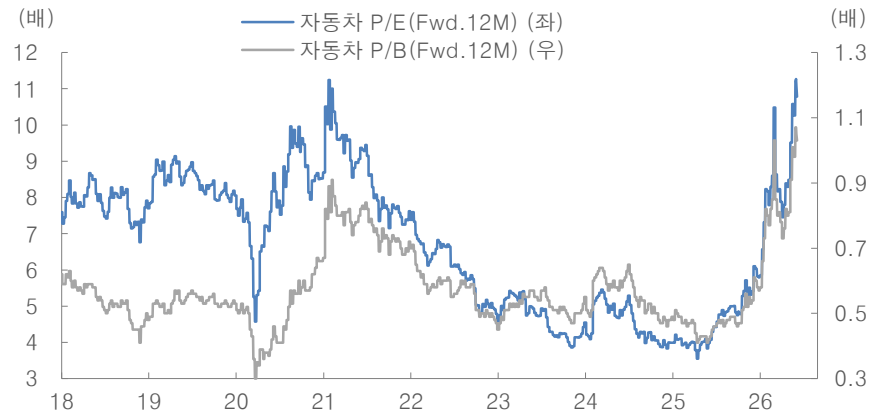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 상반기 실적, 강한 반등, 레벨업 예상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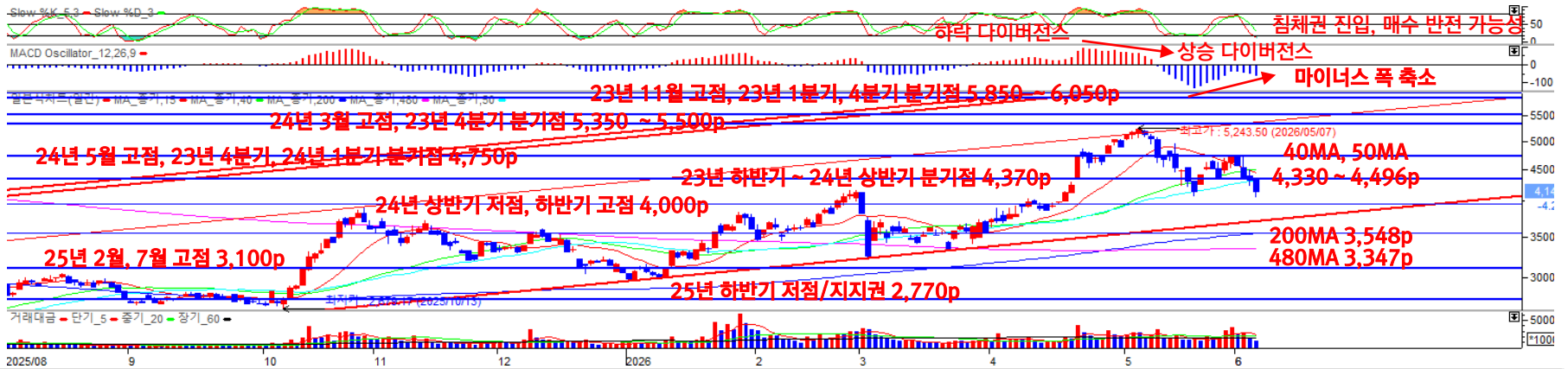
주가상승에 선행 PER 10.78배, PBR 1.03배로 Deep Value 탈출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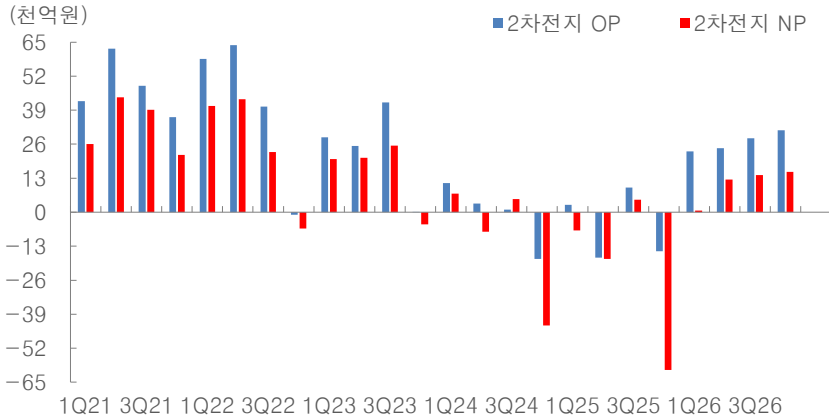
[2차전지] 5,500선에서 하락 반전. 40, 50MA 회복 여부가 상승 추세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

KRX 2차전지 Top10 지수 일간차트. 40, 50MA 지지력 확보 실패로 단기 조짐 국면 길어져... MACD OSC 상승 다이버전스로 분위기 반전 가능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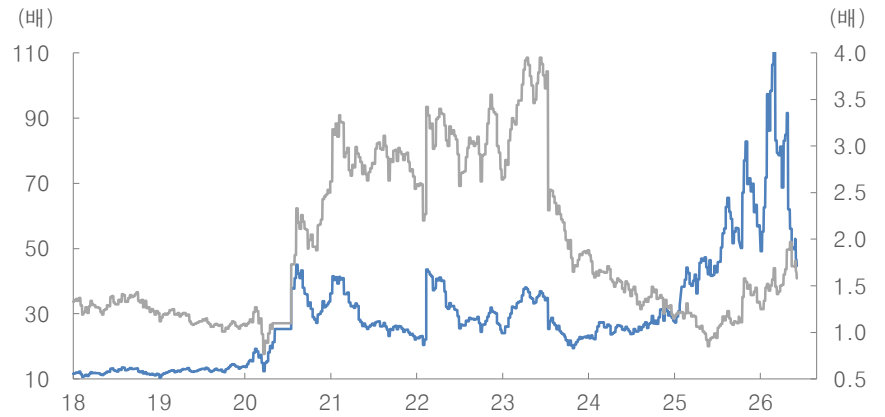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분기 흑자전환 이후 가파른 이익 개선 예상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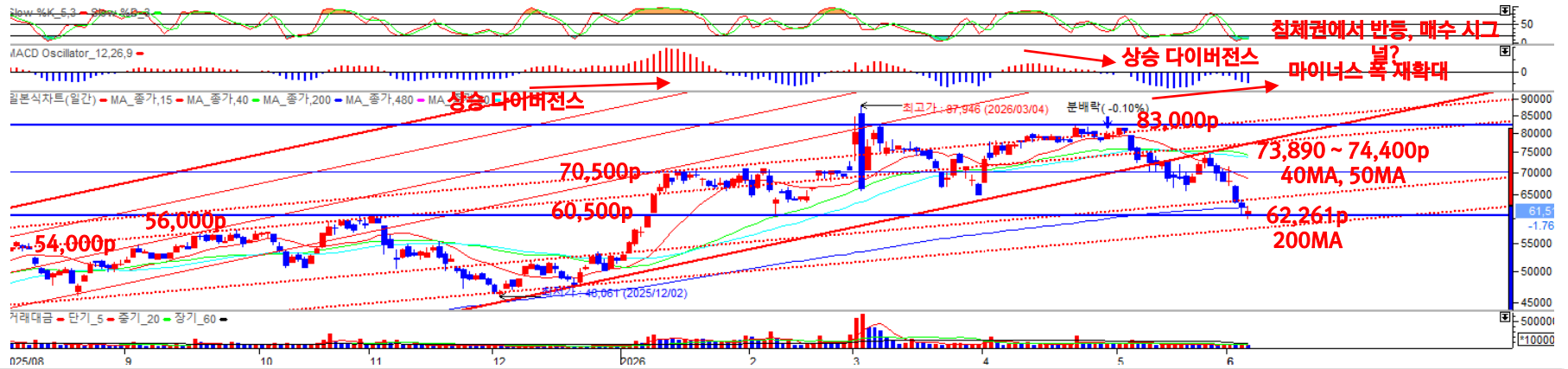
선행 PER 44.65배로 레벨다운. 선행 PBR은 1.58배로 하락 반전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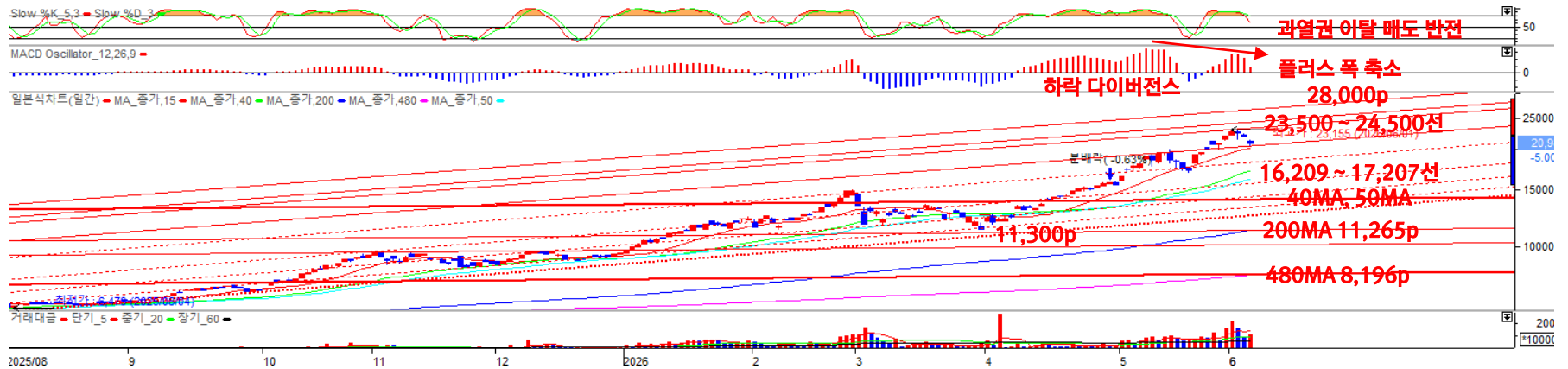
[방산/지주사] 200MA 지지력 확보 여부가 관건인 방산. 지주사는 사상 최고치 행진 지속

PLUS K방산 일간차트. 전고점 저항에 하락 반전. 40, 50MA 이탈로 200MA 지지력 테스트 진행 중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ISE 5대 그룹주 일간차트. 40,50MA 회복 급등, 전고점 돌파. 15, 20MA 지지력 바탕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 중. MACD OSC 하락 다이버전스 경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FICC리서치부 이경민]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